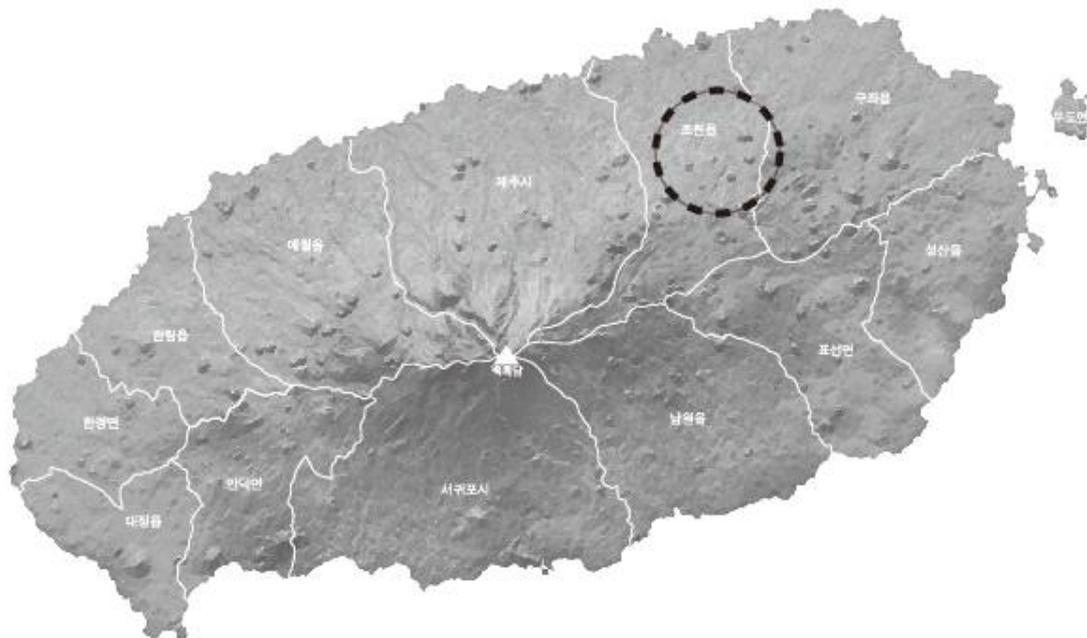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286-01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미진
조사지점 조천읍 선흘리

2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2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조천읍 선흘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2
2.5. 장비	12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3	2. 제보자 일생	20
3. 발일	28	4. 들일	45
5. 의생활	66	6. 식생활	82
7. 주생활	99	8. 신앙	120
9. 세시풍속	123	10. 놀이	138
11. 통과의례	153	12. 민간요법	174
13.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87		

제2절 어휘

1. 인체	191	2. 육아	197
3. 친족	204	4. 의복	208
5. 음식	213	6. 가옥	222
7. 생업	227	8. 수와 단위	239
9. 민속	242	10. 신앙	245
11. 자연	245	12. 동물	252
13. 식물	262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조천읍 선흘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조수용(여, 1930년생)
고춘석(남, 1932년생)
고경수(남, 1930년생)
고성준(여, 1925년생)
조명옥(여, 1922년생)
부순아(여, 1927년생)
박경일(여, 1935년생)
윤춘자(여, 1935년생)

2.2. 조사 기간: 2014. 10. 28.~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선흘 구술5	조수용	1:55:36	○
2. 제보자 일생	<선흘 구술5>	조수용		○
3. 밭일	선흘 구술2	조수용	00:45:53	○
4. 들일	선흘 구술6	조수용	2:23:39	○
5. 바다일				
6. 의생활	선흘 구술1	조수용	2:11:06	○
	선흘 구술4	조수용	2:22:20	○

7. 식생활	<선홍 구술1>	조수용		○
8. 주생활	<선홍 구술4>	조수용		○
	<선홍 구술5>	조수용		○
9. 신앙	<선홍 구술5>	조수용		○
10. 세시풍속	선홍 구술3	조수용	1:54:25	○
11. 놀이	<선홍 구술3>	조수용		○
12. 통과례	<선홍 구술5>	조수용		○
13. 민간요법	<선홍 구술4>	조수용		○
14. 경험담	<선홍 구술6>	조수용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선홍 어휘2	조명옥, 부순아, 박경일	1:57:58	○
2. 육아	선홍 어휘3	조명옥, 부순아, 박경일	00:06:43	○
	선홍 어휘3	조명옥, 부순아, 박경일	1:08:38	○
3. 친족	<선홍 어휘3>	조명옥, 부순아, 박경일		○
4. 의복	<선홍 구술1>	조수용		○
5. 음식	선홍 어휘9	조수용	00:28:25	○
6. 가옥	<선홍 어휘9>	조수용		○
	선홍 어휘10	조수용	00:11:57	○
7. 생업	선홍 어휘1	고춘석	1:38:10	○
	선홍 어휘12	조수용	1:14:45	○
8. 수와 단위	선홍 어휘6	조수용	0:7:41	○
	선홍 어휘7	조수용	0:4:37	○
	선홍 어휘8	조수용	1:13:55	○
9. 민속	<선홍 어휘8>	조수용		○
10. 신앙	<선홍 어휘8>	조수용		○
11. 자연	선홍 어휘11	조수용	00:14:01	○
	선홍 어휘15	조수용	2:23:27	○
12. 동물	선홍 어휘5	고경수	1:09:13	○
	선홍 어휘13	고성준	1:41:37	○

13. 식물	<선홍 어휘13>	고성준		○
	선홍 어휘14	고성준	00:33:44	○

<_>는 다른 항목의 조사가 하나의 파일 저장된 경우이다.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미진, #: 조수용)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이 선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해오는 이야기 이서마씨?

101001 # 엇어. 선홀 마을 어떻게 선홀로 뵈겨주 뵈 옛날.

101001 @ 처음에 이 선홀에 내려오는 애기 엇어?

101001 # 그런 거 이서도 무신 무당덜 빌영 본풀이 허주 그런 본풀이 잘 근지 안해. 안씨가 삼형제가 들어완 막 이제 그 산에 갖당 그 조상 만나근에 막 위허여 가지고 잘 살앗쟁 허여. 경허영 거 본풀이 허메. 그 이제 집이서 뵈 혈 때 무당덜. 경허주 우리 옛말로 곶아빳자 누게 알아들어. 몰르지.

101001 @ 선홀 동네 얘기지예?

101001 # 선홀 동네 얘기. 선홀 동네 얘기고 이제 안침이는 그 본풀이를 허여, 안침이는. 우리도 우리 어머니가 안씨주게. 경허난에 그런 때 흐꿈 거느리민 날 ㄱ라 뵈 그런 신 ㄱ사왓젠 동세가 그렇게도 말해난. 막 억울해여, 그렇게 허면. 안 뵈지. ㄱ사오는 것이 아니고 옛날 역사라 말이여 것도. 그런 역서도 몰르고 그런 물분 쉬헌 말 헤부니까 나가 억울헨. 경허다게 그거 베끼 엇어. 또 부침이도 그런 본풀이가 이신디. 부침이 거 우리 잘 몰르고. 부침이도 그런 높은 하르방 살아난 베슬자리 해난 사름 그런 본풀이 다 헨다. 부침이고 어느 집이고 물론 허고 허여.

101001 @ 이디 하르버진 무슨 씨?

101001 # 김씨, 광산 김 씨. 계난 상도서 막 신안도 잇고 이제 묘도 보면 이제 그 신체가 여기를 허면은 일로 저레 풍골이라고 헤가지고 신체가 떠나분텐 허는 그 자리도 이서낫젠.

101001 @ 예?

101001 # 그 땅속에 이제 신체를 묻어신디 그 신안이 이디는 풍골이다. 땅으로 이제 브름이 들어가지고 경행 그것이 몰아 가불영 땅 알로 안이ㄱ라 경해낫젠 헤고. 그런 아는 사름이 잇단 이전 엇주게. 그런 아는 사름이 신안이엔 헤가지고 정시, 이제 ㄱ뜨민 정시.

101001 @ 정시를 신안이엔 험니까?

101001 # 신안, 이 땅 속 아는 신안이 이서낫주게. 겨난 이디도 대정원 그 시절에는 막 아주 잘 살안, 막. 경해가단 그 대정원을 못살아부난 그냥 집이 안뵈엇주게. 막 돈 다 털어가불고 경해부난, 국가에서. 그 역서 이제 대정원 손지덜은 알아.

101001 @ 대정원 손지가 누게?

101001 # 대정원게, 그 광산집침이 하르방. 우리는 켄당이라도 이제 우리 하르바님도 망허었는데 그 손지덜은 오죽 망해서냐게.

101002 @ 이 마을엔 무슨 씨, 무슨 씨가 하?

101002 # 이 선홀이 옛날은 안씨가 주로 막 살안에, 안씨가 막 헤난디 안씨덜이 안 돼여가지고 다 웨지로 떠나불언. 엇어, 안씨, 고씨, 부칩 하난디 이제이 윈 엇다게 문딱 떠난. 우린 친정이 조씨여, 조가. 한양 조씨.

101002 @ 옛날은 안씨가 하낫구나예? 이디 안판관 그건 무신 얘기?

101002 # 안판관은 지금 ㄱ뜨민 국회의원이라, 도의원, 국회의원. 경헌디 선홀에서 이제 그안판관이 낫주게. 게연 이제 판관을 잘 못살아가지고 그 판관이 성공을 못 헨 거라이. 경혜부난 선홀 ㅁ을이 안 돼엇저게. 경허난 정의는 정의원이라고 허고 이디 ㄱ란 모관이엔 헨다. 이디 ㄱ란. 모관은 판관 모관 판관 정의원, 대정원 대정도 윈이엔 허고. 이제 ㄱ뜨민 도의원이라이, 도의원. 경헌 사름이. 켄 판덕정에 막 판관으로 올라가민 딸이나 메누리덜은이 가메에 모사근에 스령덜이 이서 또. 수역 병것 썩 사름덜.

101002 @ 무신거 썩 사름?

101002 # 병것, 이제 흐루기 판덕정에 거 잇더라, 넘어오멍 보난. 막 열깃언. 옛날 옷입언. 그 사름덜이 그거이 스령이라고 허여, 스령. 경행 그 판관이 왔다갔다 헨 때민 이제 가메 ㄱ라 돼께엔 허여. 별룬 돼께. 경혜영 막 ㅁ사갈 때 재미나낫젠 헤라. 막 재미나. 경혜영 그 판관 메누리도 ㅁ사가곡 딸도 ㅁ상 텅기고 경헨 때민 그 신도 가막창신에 코젍이 보선에. 그 판관 딸이나 메누리는 그렇게 출리곡 경행 막 울르레 바레여. 경헤난. 경허단에 안 판관도 안돼고 우리 어머님 고모부가 강 판관 헤낫어. 강판관이라고.

101002 @ 선홀 사름?

101002 # 으, 그 사름이 이제 시에 간에 우리 육은 후제 저 산림 간수, 산림계에 우리 어머님 고모, 고모 아덜. 스춘 오라방이주 경허난. 그 켄당이 나 두린 때 ㄱ장은 시에 동문통에 살아낫저게. 경허단 이제 어디사 어떻헤신디 몰라. 우리 어머님 고모 돌아가불엇지. 그 강모세기엔헨 조캐, 스춘도 돌아가불고 허난 그 다음은 몰르크라. 어떻사 헤신디. 강 판관도 셔나고 안판관도. 강 판관이 문져, 안 판관은 그다음. 경헤낫어. 경헤나실 거라.

모관은 이제 모관 판관이라고 허고 대정원, 정의원. 이제이 표선이로 저쪽은 정의라이. 경행 그디는 의원, 정의원. 이제 저 구좌면에 또 이집이 저 정의원, 대정원 헨단에 그냥 그 하르방도 잘 안돼부난 우리하르방네 켄당. 경혜부난 이제 그 옛날은 부모가 돌아가면은 삼 년을 상직만 허영이 윈도 못 살앗젠 허여. 경혜부난 이제 그 이집이 김제 하르방넨 어떻헤연 정의원을 헨 나갓는데 부모가 돌아가불엇어. 경허난 윈을 못 살앗거든. 못 사난 그때도 국가에 돈을 많이 써신 ㄱ라 그 빚을 물렌 막 헤부난 저 그 켄당덜 밧 아우라 재산 아올라 문딱 국가에서 풀아가불언. 경허난 우

리 시하르바님네도 상돈디 이젠 돈을 하도 문 풀아가가난 곱전 온 생이라, 옛날에. 경헌 이디완 아무것도 엇이 오란 사는디 그 이녁으로 자수성가 헨 살앗주게. 경혜 연. 그 살아난 역서 이제 우리베끼 몰라. 우리도 우리 시하르바님이 그 역설 곱아뀔 들언. 그 손지가 이제 함덕 살암서. 대정원 손지.

101003 @ 이 동네 사름덜은 무슨거 허멍 살안 마씨?

101003 # 무시거 허여게서게 흘게 셔?

101003 @ 주로 어떤 농사 지어난마씨?

101003 # 조, 보리, 콩 베끼 무시거 흘 거 시냐? 산뒤, 모물. 옛날게 낫사 곱아 말적아이라도 조 보리가 전공이고 이 사름이 양식이 먹는 게 또 산뒤는 특별히 가는 거고 산뒤도 같고 콩도 같고 모물, 메밀. 침 것도 우린 제줏말로 모멸 모멸하는 디 메밀이엔 허는 거주.

101003 @ 표준어 말고 제줏말로 곱아취살 거마씨.

101003 # 모물게, 모물. 겨곡게 이젠 고구마엔 허주만은 감저엔 허고. 제줏말로 감저라. 감저엔 허고. 또 이제 지슬이엔 허고 경 곱아낫어.

101003 @ 소나 말도 많이 키우지 안헨?

101003 # 많이 키웠주게.

101003 @ 주로 무슨거 하영 키와낫수과?

101003 # 손, 집마다 소 흔 서너 개씩은 집마다 매엇어. 경허고 돼지 흔 므리씩 집마다 질루고 우리 저 하르방 아버지 스삼사건에 돌아가불고 또 하르바님이 들을 이 막 들테 많이 헨난. 흔 칠십 개깁장 헨낫젠 흔다. 칠십도엔 허여 경허민.

101003 @ 칠십도.

101003 # 으, 경허단에 그 스삼사건에 오곳 내불어된 함덕 느려가부난 그 들도 헨나토 엇이 엇어져불고.

101003 @ 다 가져가불언?

101003 # 죽어불엇주게. 간수 안허민 어떻 허여게.

101003 @ 할아버지가?

101003 # 응, 저 하르방 하르버지.

101003 @ 아버지가 아니고?

101003 # 아버지도 허고게. 경헌디 막 부제칩이엔 헨낫저게.

101003 @ 할머니 시집 올 때 막 부제라 낫구나예?

101003 # 아 아 그때 벨로 엇언. 아버지도 사삼사건에 돌아가불고.

101004 @ 주변에 오름도 잇주예?

101004 # 오름은 저 바메기.

101004 @ 바메기 베끼 엇어?

101004 # 바메기가 큰바메기, 죽은 바메기 두 개. 경헌디 바메기가 삼성사라고 곶량부 삼성스 엇어? 그디 땅이라고 해서 그사름덜이 다 풀아가불엇어. 선홀 땅이 아니라난. 선홀믈을 땅이라시민 지금도 선홀 오름으로 해서 헨건디 어디 그것이 삼

성스 땅이엔 헤네이 삼성스에서 다 풀아붙어시네, 경헛저게.

101004 @ 이 동네 오름은 바메기 오름베끼 엇구나예?

101004 # 응, 그것이 선홀 지경이주. 경헌디 이제 그 삼성스 땅이라이.

101004 @ 이름은 무사 바메기?

101004 # 이름은 게 무시거 영 높은 거 보민 바메기 오름 닳다 영 허영 허난.

101004 @ 거기 밤나무가 하?

101004 # 엇어. 밤낭도 이서도 밤낭을 위해서 굳는 말이 아니. 그냥 노프다고해서 바메기. 선홀 바메기라고 해가지고 죽은 바메기, 큰 바메기 영허난 선홀 건중만 알았거든. 경헛는디 내중에 보난 그게 아니라 삼성스 땅이고 요 큰바메기는 개인 땅이라. 개인 요 옛날 서부측량이라고 해가지고이 땅을 선홀 지경 북촌 지경 다 갈른 거라. 게서 선홀 관할에 든디 그것도 개인이 산에 샷단 풀아붙언, 큰바메기. 게난 이제 개인 땅이라 것도, 큰바메기도. 선홀 것이 아니라. 다 풀아붙엇어. 겨난 이 선홀 아무것도 아니. 선홀곳 아올라 이젠 선홀거라난디 다 이제 국가에 풀아붙엇어.

101004 @ 바메기 오름을 알밤오름이라고. 겨난 난 밤 하영 나는 단가 헛주.

101004 # 나도 경헌디 그게 아니고 알바메기엔 말을 알밤오름이엔 헛주게.

101004 @ 바메기 오름을 밤오름이엔. 옷밤오름, 알밤오름.

101004 # 밤낭 멧 개 엇다. 밤 우렁 허는 거 아니.

101004 @ 선홀곳은 어디?

101004 # 이제 동백동산이렌 현 디가 숲이주게, 숲. 경헌디 이젠 국가에서 다 사붙어세. 선홀 사름신디 돈 쥘. 돈을 개인별로 흐끔씩 줘서, 호호 방문허연. 경헌이 이제 국가땅 돼연. 국가 땅 돼난 이제 자연유산으로 허연 세계각국이 다 온텐 험저.

101004 @ 이 동네 내창은 엇수과?

101004 # 내창은 엇어, 이디. 내창 요 이제 함덕광 요 사이에 명죽내라고 현 내를이.

101004 @ 명죽내?

101004 # 응, 그 내가 비가 하영 왕 명죽내 세번 터지민 승년 진덴 헤낫저. 비 많이 왕. 경헌단 이제 막앗어.

101004 @ 선내는 어디?

101004 # 선내가 그거, ㄱ뽀든 거. 명죽내가 선내. 함덕으로 이레 차도 못 다녀. 그 명죽내 터지민. 게난 막아서 이젠. 막아네 그 물줄기를 영 바당더레. 질르레 올라오지 못허게. 시에도 다 경 내창 다 경헛주게. 경안허민 사름 못 살아. 이딘 명죽내 베끼 엇어. 그 교래리가 내가 한다, 교래 옛날도.

101004 @ 굴, 동굴?

101004 # 동굴도 이디 엇고.

101004 @ 이수계, 목시물굴.

101004 # 아이고 그까짓굴. 그 목시물굴 잇주게.

101004 @ 굴 여러 개엔 헛게만은.

101004 # 여라 갠 미시거. 목시물굴 흐나 토틀굴이여 대섭이굴이여 잇주만은 굴
덜 해끔씩 현 것덜이여. 도틀굴 요새에 세지 안험주. 막아져불언. 목시물굴 흐나 잇
주게. 반뭇으로 안트레 이제 대길이 아방네 벌 놓는디 목시물굴. 그 질에염에 것
라 대섭이굴이엔 험신가? 이제 것도 도 막았어.

101004 @ 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엇수과?

101004 # 엇어게. 아이고, 그 목시물굴에 스삼사건에 그디 강 곱으민 아이고 그
디 멀영 못 가카부덴. 선홀 사름 그디 곱앗단 혼 멧 명 다 죽어세. 그디 곱으레 갓
단. 견디 이 선홀 사름이 그 바로 그 굴도에 벌 질람서. 벌 질뤄. 겨고테 대단허덴
헛주 난. ㅁ섭도 안허영 대단허덴.

101004 @ 사름 하영 죽어부난.

101004 # 사름이 혼들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죽은 사름을 다 알기 때문에 거
기 우리는 가지도 안 허여난.

101004 @ 도틀굴은?

101004 # 그 굴 크지 안허여. 우리가 스삼사건 전이 다 봐낫주게. 봐난디 스삼
사건에 이 도틀굴에서도 사름이 더러 죽엇주게. 경헤난 후로 난 안가 안가 절대 안
가. 고사리 거끄레도 그디 에돌양 가주, 글로 안가. 가지 실패. 잇긴 잇어. 크지 안
허여 건. 우리 알기에는 다 막아진 걸로 아는디. 요새 소낭 비명 터져신가? 것도 굴
은 굴이라.

101004 @ 어디 강 물 질어 읍니까?

101004 # 물통게, 빗물 곶른 거. 땅에 곶른 거. 경허민이 ㅁ 비와난 땀 물이 곶
주.

101004 @ 어디 갑니까?

101004 # 물통이 잇주게. 물통.

101004 @ 이름은 엇수과?

101004 # 물통 이름 이디 새물, 저디 가민 반뭇, 저디 가민 반뭇으로 가민 옷새
물, 우리 아버지 판물. 우리 아버지가 일름이. 우리 아버지 판물도 잇저.

101004 @ 예?

101004 # 우리 친정 아버지 판 물도 있다고. 일로 가면. 저 거시기 태양 유적지
봐난? 저디. 반뭇으로 간디. 그디 와 가신가 안 봐낫주. 글로 가가민 우리 아버지
판물도 이서.

101004 @ 이름은 엇어?

101004 # 우리 아버지 판 물, 우리 아버지 홍우난에 ‘홍우 판 물’이엔 허영. 경
행 막 거느리메. 그물도 질고.

101004 @ 물이름 다 말해줍서.

101004 # 새물, 옷새물, 우리 가까운 딴 새물이주, 새물.

101004 @ 보통 새물 강 물질영 왓수과?

101004 # 물 질어오고, ㅁ문 땀 물이 엇이니까 저 옷새물도 강 질고. 또 게우물

도 짚고, 반뭇 글로 가민 일로 이저 가면은 덧낭개.

101004 @ 덧낭개는 뭐?

101004 # 것도 물통 일름.

101004 @ 또.

101004 # 그다음 새로판물, 먼물깍, 엉덕물. 물 하. 줄렛뭇.

101004 @ 줄렛물?

101004 # 줄렛뭇.

101004 @ 뭇?

101004 # 물ㄴ라 뭇이엔 허주게. 물통. 굴거리.

101004 @ 굴거리 낱 이름 아니고 물 이름?

101004 # 물, 물통, 물통. 그건이 선홀 지경 부떠신가 몰라. 멀어, 저 짐녕드레 가는다. 굴거리 것도 선홀 사름 먹어난 물. 갯벌물도 서나고 뭇 물이 많아. 다 씨쟁 은 허민 막 하.

101005 @ 이 동네 무슨 기관이 이수과, 마을회관 잇고 또 뭇 잇수과?

101005 # 마을회관, 체육관 베피 더 이시냐? 이디 체육관. 보건소 허고 뭇 잇주 게.

101005 @ 초등학교?

101005 # 초등학교 허고. 무시거 셔?

101005 @ 동백동산 습지센터.

101005 # 어.

101006 @ 계 같은 것도 들영 험니까?

101006 # 제, 제. 젓군, 젓군.

101006 @ 젓군?

101006 # 제 해염젠.

101006 @ 어떻 허는 거파?

101006 # 사름덜 막 모인 것ㄴ라. 이제 우리가 여라이 이제 저 친목을 허느네 게. 이젠 친목이엔헤도 그땐 제. 아이고 제에 들어샤 영허고 친목에 들어샤 영허는 거.

101006 @ 친목이 제구나예?

101006 # 우리도이 서른 다섯 사름이 그 제허연 이제 그 행상이나 뭇 할 때 서 른 다섯 사름이 나오민 막 하주게. 경허민이 앞이 사근앵에 장귀 두드리명 막 간다 게. 경허명 허당 설러불엇저 이제. 그것이 큰 제랏저. 시대가 이제 바파져가난.

101006 @ 마을이 같이 하는 계가 잇어낫수과?

101006 # 제, 꽃제, 꽃 아이 풀 때 꽃제도 허고.

101006 @ 꽃제는 무신거?

101006 # 꽃 관리. 꽃 관리 허는 거.

101006 @ 여러 사름이 모영 해난?

101006 # 막 그냥 관리했주게. 낭, 누게 놀낭 그차 가지 못허게 막 관리허연. 막 당번허멍.

101006 @ 당번허멍 사름덜 낭 못헤가게?

101006 # 놀낭 그치도 못허게. 경헤난.

101009 @ 이 마을에 자랑거리?

101009 # 자랑거리가 셔? 동백동산 막 자랑거리 아이가? 막 그냥 세계적으로 자랑거리라. 남산 므을로 허고. 남산 므을이엔 헤근에 므을도 바짜.

101009 @ 람사르 마을.

101009 # 람사르 첨. 경헤도 남산므을이엔 헨게게.

101009 @ 옛날엔 그디 강 놀곡 헤낫수과?

101009 # 우린이 그디가이 막 곳 소곱이여. 멀어, 이디서. 멀어근엥에 헨디 그디가 상돌영덕이라고 헤가지고 이제 돌로 영 싸여져서 상돌이 이제, 제스 앞이 놓는 상돌 어샤게? 그것ㄴ치 영 주작허여 가지고 그 동산에 강 사민 므을 봐져. 경허난 그디 라 상돌영덕이엔 헤난. 돌로 막 싸여진 영덕이라.

101009 @ 동백동산을 상돌영덕이라고 곱아낫다고.

101009 # 곱아낫저게.

101009 @ 옛날부터 동백동산이 아니고?

101009 # 아니, 이제사 동백동산. 상돌영덕, 상돌영덕이엔 헤난. 아이고 저 안에서 상돌영덕 강으네이 올라사민 므을도 봐지고 경헤낫저게.

101009 @ 동산 올라 강 먼물깍인가 반못인가 가나신디.

101009 # 곳 소곱엔 들어가민 족으만씩헌 물통덜 잇주만은 선흘곳 안엔 엇고. 저 마장에 나가사, 물통덜도.

101009 @ 어디 나가사, 마장에?

101009 # 저 난 베피디 숲 소곱 말앙 그냥 낭 엇는디 이제 다 낭이 컷저만은 옛날은 곳안에 물 엇고.

101009 @ 걸영 올라가당 물 이신디 가나신디.

101009 # 먼물깍, 먼물까. 소르무랑 현 물통. 먼물깍 가놓고 이 반못으로 나오젠 허민 한참 걸어야 돼여. 우리 선흘 살아도 질 뺨후제 안 봤저. 안판. 옛날 알아난거 난 보구정치 안허여. 암만 질을 뺨에 이제 막 관광객이 땡기건 디가 막 오래엇주게. 경헤도 에 우리 맨날 봐난 거 볼 거 뭐라 헨 안 가.

101009 @ 물 이신디 옆이 식당에 강 밥먹어신디 거긴 반못인가?

101009 # 응 거 반못. 그 물은이 옛날부터 이 선흘물이라고 해서 도분에도 이신 물. 지적도에 잇다고 그 물은. 것도 아무나 몰라 나베피. 젊은 사름덜 배우난 알암 주만은 옛날 사름덜은. 우린 들언 알암주. 도분에 그물은 이신 물이여.

101009 @ 무신거에? 도분에?

101009 # 도분게, 이 저 지적도, 지적도. 지적도에 어느 지경은 이제 선흘 지경에 물통이 잇다. 그 반못이 돌아젼어.

101010 @ 불탄 나무 이수계? 신낭?

101010 # 응 신낭, 신낭. 이 신낭이 선흘 고지도 신낭 하서. 신낭은 멘 천지주계. 이 쪽에 신낭 천지주계.

101010 @ 그 낭을 불칸 낭이엔 글아?

101010 # 아니 그냥 신낭이엔 허여, 이디서. 아니, 아니.

101010 @ 거 무사 불타수과?

101010 # 어떻게 타느냐면은 그 스삼사건에 그 이 신낭이 막 쿤 이 동네가 탁 더꺼져 낫어이. 경허민 이제 우리 두린 때는 그디 팽상 앓다농곡 그 동넷 사름이 다 모영 신낭 아래서 놀아났저게, 그늘로. 막 건답곡 경헛주. 삼거리 사름이 다 그 델 모여. 신낭 아래 놀레 가. 경허단 스삼사건에 그만 막 이제 불타불엇어 이낭이. 불타도 살안, 살안 이젠 또 흐끔 커오노렌 허난 이 또 두 번차 불타곤 던 오래지 안해서.

101010 @ 아.

101010 # 흐 해 밤이 나가, 그 이제 우리 밧디 가왓주이?

101010 @ 예.

101010 # 그디 수박을 놔서이. 수박을 싱근디 이제 아섯날 밤이 수박을 도둑놈이 타 갓어. 타가난 이젠 밤이 강 보주겐 헤연 간디 막 사름 소리가 왕왕왕왕허여. 아이고 어딜로 영 소리가 남신곤헛 이젠 그 완 보난 신낭에 불부면게. 불부뜨난 그 불 끄레덜 막 사름이 온 거라. 경허고 우리 밧디도 아칙이 간 보난 수박을 이젠 큰 거 두 개 탄 가단 흐나 벌러지고, 흐난 아져사 가신지 어떻사 헤신지. 경헛 간 델 보명 헤낫주, 동네 사름덜.

101010 @ 언제쯤?

101010 # 수박 타 가멍 신낭 타 건진 오래지 안허연.

101010 @ 오래지 안허연.

101010 # 흐 것도 흐 십년 넘엇저, 경해도. 우리 수박 놔나건디가 흐 십년 넘언. 흐 십오년 거의 뵈구나, 생각해보난.

2. 제보자 일생

102001 @ 고향은 이디?

102001 # 이디서 난 이디서 쿤 고자 살안. 하르방도 이 세계. 겨난 우리 스삼사건에 함덕 간 살단 이디 올라와세계. 스삼사건에. 피신 간 피신 갓단에 이디 완. 겨난 무시거옴 글을 짓고게.

102001 @ 이름부터 글아줍서.

102001 # 일름 조수용.

102001 @ 남자이름 닳다.

102001 # 응 맞아. 남자이름 닮아. 쓸 용제, 목숨 수제에.

102001 @ 학교도 땡겨납디가?

102001 # 아이고, 참. 말 말라. 흑교 이제 제국 때에 들어간 혼 육개월 땡기노렌 혼난 해방뉘불엇주. 쟁헨 이젠 못헌디 이젠 스삼스건 나부난. 허여시민 우리 참 공부 일등허주. 그냥이 수판도 나가 암산이 빨라, 어린 때.

102001 @ 야학은 흐뎡 땡기지 안헨?

102001 # 야학 그거 혼 육개월 땡기난에 해방뉘불언. 경허난에 일본글 나 흐뎡 해낫저게. 일본글이 은애가 두가지라. 히라가나허고 가다가나허고. 겐 나도 체언해도 막 배와난. 체언해도 배와나고. 한제도 일본말로 배와나고 조선말로 허젠 허난 많이 잇어불언. 많이 잇어불언 이젠 잘 몰라. 게난게 하르방ㄹ라 육이주게. 글 아이 배와쥬. 이녁으로 배운 거주원 하르방신디 배와보지 안허연. 쟁헨. 한글은 또 야학에서 배왓주. 흑교에선 우리 헨 때 안 배와주고.

102001 @ 땡 살 때 야학 간 한글 배와수과?

102001 # 야학헨 때 학교 땡기기전이 어린 때도 막 어른 덜이영, 어른덜이영 가도 우리가 재기 배와 나샷주게. 야학헨 때 일본글 허단 또 한글 나난 한글도 야학 해 낫저, 흑교에서 밤이. 쟁헨. 참 야학소엔 헤근에 야학소에 강. 그것도 저르 엇영 밤이 것도 멩심혜사 가. 일허영 우리집이 또 일은 하, 친정에. 막 밧덜도 존 밧덜만 해 먹엇저만은 막 일 하. 놉 빌영 일허고. 그땡 곡석 흐루 허민 혼 말이라이.

102001 @ 일당이?

102001 # 이젠 곤쫂이 혼 푸대라도. 그땡 검질 매민 쓸 혼 관 뉘. 또로 흐루 헤원 허민 조나 보리 혼 말. 조 비어도 혼 말, 무신 일 헤도 혼 말이라. 쟁허민 쟁헤도 열흘 허민 열 말이라. 둘이 빌영 허민이 닷새만 헤도 혼 가뎡이 지어가라게. 열 말 뉘여노민. 쟁 우리 놉 빌영 하영 해낫저게, 이녁만 못헤영. 수눌영도 하영 허고. 검질 매레 가민 수눌영 우리 어린 때 우린 어려부난 헛주만은 우리 어머님네, 우리도 열네 설 나난 막 검질 수눌연 매언, 그 스삼사건 전이. 매엇저게. 매어근에게 막 사대소리 허는 거 들어나고.

102001 @ 생일은 언제과? 땡년 생이과?

102001 # 삼공년인가 나 몰르켜, 잘.

102001 @ 무신 띠마씨?

102001 # 뉘 띠주게 뉘띠.

102001 @ 시집오기 전이 살아난 말 곱아쥬서.

102001 # 아이고 살아난 건게 어머니영 살 때. 밧디 가젠 허민.

102001 @ 옛날 살아난 말을 곱아 쥬셴 허는 거주게.

102001 # 옛날 살아난 말게 우린게 시대 못 만난 이제 허고 어린 때 공부도 못 허고게 그런말 곤젠허민. 우린 어머니연 살 때게 물만 허벅 지언에게. 초담 어린 땡뎡 지언 허단 이젠 말제라 가난 대바지 지단, 말제엔 옥아가난 허벅 쥬주게, 허벅. 쟁허고 또 물 엇은 세계라부난 비 와난 때 물을 막 질어야 뉘여.

102001 @ 어릴 때 켈 기억 나는 건 뭐마씨?

102001 # 우린 어머니영 살 때 하도 물도 어루완 물만 질고, 밧디 일헐 땀 막 그냥 새백이 조반허영 지금은 시계 시난 허주만은 시계 엇은 때라부난 득 우는 것을 붉은 기준으로 헤가지고, ‘아이고 득 울엄저게, 다 붉앗저게.’ 경허명 이제 막 어머니네가 일어남 조반 허여. 경헝 그 조반을 이제 떡곡, 수눌영 가민 사름덜 오민 이제 조반 맥이곡 허영 밧디 가곡. 경헤영 막 부지런이 헤야 돼여. 물 질어오고. 경허명 일도 못헝주게 첨. 저 공부도 못허곡. 흑교도 못허고. 흘 시간이 엇어. 흑교도 헝여시민 글도 잘헤지크라라만은, 흑교 못 헤연, 못 헤연. 또 경허단 스삼사건으로 제국시절로 허명 원 흑골 못 헝연게. 시내에만 살아도 그닥지 안허주만은게. 새백이 강 물도 그냥 붉기 전이 강 질어와야 돼여. 낮인 일허고.

102001 @ 할머니넨 땃 형제?

102001 # 아이고 우리 하다만은 오레비가 엇다. 이제 우리가이 열술 안네는 막 그냥 늣 돈 어루운 것도 몰르고 막 이제 잘 살단 열 설, 나가 열니 설, 열다섯. 열다섯 ㄱ리에 이제 오레비가 엇어부니까 오레비가 둘이가 가분 거라게.

102001 @ 사삼사건으로?

102001 # 아니 아니 어린 때. 우리 어머니가 오레비를 잘 나가지고 키우질 못헝 거지.

102001 @ 언니나 여동생은?

102001 # 으섯성제, 이제 으섯 성제 다 잇저. 겐디 이제 함덕에 일등 아시 두 개여게. 둘이만 함덕이고, 하나 큰 성 일본 가고, 스삼사건에 셋성은 죽어불고.

102001 @ 할머니 셋째 딸?

102001 # 응 세번차, 나가 말젧년. 경헤가지고 우리 큰 성 이신 때는 우리 큰 성이 십구세에 일본 가불엇어. 그 때는 아버지가 그 동생 엇이카부텐 생각도 안허고 각시도 안 얻어난 때여게. 게니까 큰 성도 그 사실을 몰라. 이 어려운 고통을 모르고. 또 셋성은 스삼사건에 헝꿈 알단에 죽어불엇어. 거니까 모르고. 이제 함덕 다섯나 앞에 동생잇저게, 아시. 그건 두려부난 잘 몰라. 이 아버지, 어머니 살아남 역스는 나 가심에만 땃헝단 말이여. 새어명에 오레비가 하나 이신디 그 오레비 부산간 살단 들어완. 게난 묘도 친정 묘도 소분도 나가 죽장 헝저. 죽장 헝어. 흘 이십년 나가 허단 어머니도 이젠 아버지 재게 돌아가불언 어머니만 게실 때 나가 죽장, 이 선흘 지경이니까. 허단에 어머니 돌아간 후제도 나가 흘 십년 헤서이. 겐디 오레비가 부산에서 와서. 부산에서 오니까 이젠 소분도 오레비가 마트고 허니까 나가 하느님신디 절헝저게.

제스도 이제 제숫날도 부산에 못 가민 나가 막 서운헤 가지고 그냥 앓지 못허여. 겨민 이제 메도 거렁 아버지, 어머니만게. 할머니, 하르버니네는 첨 흘 거주 만은 못허고 여기 고모덜이 잇거든. 제숫날도 이제 잇지 못허영 오레비 안 온 땀 메도 거렁 울리곡. 하르방은 그런 거 곳넨은 안헤여. 소분도 느랑 허연, 하르방이. 할머니, 하르버지, 어머니, 아버지 산은 느랑 헤연. 흘 이십년.

102002 @ 부모님은 농사 지어났수과?

102002 # 응, 농사지고 우리 하르바님은 한문 선생이라났저게. 우리 아버지도 글이 막 좋주게. 모르는 게 엇어났저.

102002 @ 딸이라부난 공부 안 시켰구나예?

102002 # 공부 안 시켄, 공부 안 시켜부난 어떤 때 하르방신디 옥헤저. 그글 나 배와취된 죽지안헛젠. 나 자꾸 경 곶아저. 겨난 우린 초가집이라도이 첨 낭문, 오리 문 탁 들앙 안으로 종갓당 올앗당 허곡 우리 요 가운데 살아났저. 우리 어린 때, 요 디. 이 선홀예. 우리 살아난 집 이제 뜬 사름 살암저만은, 우리 친정에. 이 초가집이라도이 시방 스라브집이나 마찬가지. 마리도 다까노민 막 시원허고 난간에 박거리도 경허민 글 읽는 사름덜이 막 하, 청년덜.

102002 @ 서당처럼.

102002 # 서당이주, 서당. 경허민이 식게 허민 선홀서 막 위허영 떡도 많이 가져오고 막 허주게. 막 선생네 집이엔. 차룽에 막 떡 많이 가져와. 겨난게 열설전이 제스도 하고 허난 막 일이 많아. 동생들은 어리고 언니는 큰 언니가 주로 일을 잘 허단 일본 떠나불고 현 후에 나가 옥은 곶로 허연. 밧된 일도 허젠 허민 첨 아침 세백이 일어나곡 이제 어머니 밥 헐 때 나 강 물 강 질어오곡. 경허멍게 집안일을 많이 헛주게.

경허고 우리 아버지네가 이젠 제국 때에 공항에 일허레 강 스십일 썩 살아라게. 강제로, 강제로 끌여가지고 공항 그때게 터 막 곶라세. 그 때 스십일썩 살아불면 막 그냥 복잡헤 집이 살질 못 허여. 경헤나고 제국 때에 경헐 때 나가 주로 물 질어오고 그 일을 헛저, 집안일을. 경허난 어머니가 막 불쌍허여.

102005 @ 제국 시대엔 공출도 하영 헤났수게?

102005 # 공출 허여부난 우리 밥도 못 먹어나세게.

102005 @ 무신거 공출 헤났수과?

102005 # 곡석을 허민 그냥 문딱 썰어가불어. 보리도 허민 이제 멧 가맹이 바저라 허민 신건 다 이제 털어가불어. 경허고 또 감저이 절간 감저엔 현 감저 썰영 들리와.

102005 @ 빼떼기?

102005 # 빼떼기. 그것도 혼 집이 멧 가맹이 할당 나와. 겨민 그거 물리왕 이젠 우리 어린 때도 밧디 널민 곶 다 좃어. 좃영 물리왕 곶게 현 건 일등 메기고, 경 안 현 건 또 막 하치로 그냥. 돈도 아이 주고 경헛자. 경헤연 문 받아 가곡. 경허멍 막 불편허게 살앗저게.

102005 @ 제국시대 뎀 공출 때문에 못살아서예?

102005 # 어, 못살안. 경허고 또로이 낫그릇, 낫그릇. 하나엇이 문딱 좃어 가불어, 코콜이. 제에 씨는 낫쟁반. 동이는 하도 아까우난 불치 소곱에 묻어난.

102005 @ 어디 불치 소곱에?

102005 # 부엌에 불치 걸언 문언, 문언. 막 내노렌 헤도 엇덴 헐. 낫순가락, 쟁

반, 낫사발은 다 좃어가불고. 다 아저가불어. 쟁 멧 개 아까운 거 놔두민 것도 내노
렌 몬 아저가 불어났저. 제국시절에도 제국시절만이 살기 곳고 스삼사건도 스삼사
건만이 우리ㄴ치 스태 나쁜 사름은 엇다게. 게도 시에도 시엿 사름은 그자락 안헛
저만은 특히나 산간 부락이 더헛저게, 스삼사건에. 경허고 또 시에는 감저빼떼기ㄴ
뜨 거 안 해나선게. 굳는 거 보난. 이 용스짓는디만 이 함덕으로 이제 조천멘으로.
경혜선게게. 함덕 사름도 절간 감저를 할당이 족으니까 좁솔 아정완 바짜 가라. 할
당 채웁젠. 할당 아이 채우민 막 그냥 못살게 굴어. 경혜부난.

102005 @ 일본 제국 시대에 또 힘들엇던 건 엇수과?

102005 # 신도 엇영이 고무신도이 배급 나와. 흐 반에 흐 베. 거 제비 뽑앙 아
다루 쥔 사름, 제국 때에 그런 나쁜 시상도 셔나세계. 나쁜 시상. 이 통화 막아정
배가 들고 나고 안혜부난 소금도 못 사났저. 제주도애 소금도 엇어났어. 그런 시절
이 이셔나세계 아이고 찜. 배 통화가 셔나샤? 탁 막아정. 일본도 막 통화 막아졌단
이제사 통화허지 안혜샤? 우리도 큰언니가 일본 신디 흐 십 년 더 통화가 막아져
난. 경허단 해방웨언애 츄츄츄츄 허여도 이제도게 미시거 여권혜사 일본 가지 안햐
샤게? 나도 일본 잠깐 간 구경헛 왓저게.

102005 @ 어디 갔다완?

102005 # 아무아사끼엔 현 디, 대판. 대판도 동대판, 서대판 이선게.

102005 @ 언니는 어디 사는디?

102005 # 아무아사끼엔 현 디 이셔. 이제 살안. 쥬 간디 나가 흐 열서너 술애
배와난 일본말 가난 알아들어전.

102005 @ 할머니 기억력이.

102005 # 또 간판애 아라바이트엔 쓴 것도 나가 저디 아라바이트 써저시메 나
이디 일가켄 허연. 가니까이 나가 육십애 갖거든. 스십오세노렌 허연.

102005 @ 믿을 거 닻아. 할머니 어려 보이잖아.

102005 # 믿고 말고. 스십오세엔 혜도 젊게 보주. 경혜연 일본 처녀덜, 처녀영
ㄴ찌 앓인디 그 쎽애 번호 찍는 거 허여라게. 게민 나가 이제 그 쎽애 싹싹싹 앓아
놔. 겨민 그 처녀가 탁탁 기계로 찍으멍 싹싹 다. 그거 허여서.

102005 @ 쎽애 무사 번호 찍은 거?

102005 # 이제 ㄴ뜨민 쎽애덜 글덜 안햐샤게? 그식으로게 유리쎽애 기계로 딱
딱 찍으멍 나가라. 경헛 나 글 몰르카부덴. 잘 안헛 건 밀어이, 휘발유허영, 미는디.
일본글 몰르카부덴 허단 다가가난 알암젠 허멍 막 거ㄴ장 다끄렌 헤라. 쟁 것도 다
까시네.

102005 @ 일 너무 잘혜도 안웨여 게난. 강 진짜 아르바이트 허연?

102005 # 허엿주게.

102005 @ 얼마나 강 이셔수과?

102005 # 흐 삼 개월 헛 완. 육 개월 살 걸로 혜도 와불언. 아이고 집이 생각허
난이 돈버는 생각 흐꿈도 안혜전. 구경허고 돈벌레 갖지. 큰아덜 풀아될 가서. 손지

난 때 큰 손지 난 때. 겐 메뉴리영 큰딸이영 이디 살아났저게.

102006 @ 사삼사건 땐 어떻 헤낫수과?

102006 # 게 스삼사건 땐 어떻 허느니게 늬이 대동 막 이제.

102006 @ 어디 내려간?

102006 # 함덕 내려갓주. 겨난 우리 나잇 사름도 많이 죽엇저게. 견디 난이 동생들 건스하고 막 그냥 어린 걸로 추급허연 활동을 안헤시네. 나가지 안허연. 곱으레도 안 가고. 우리 우이, 우리 동갑도 많이 죽엇저. 흐꿈 영 처녀 ㄴ찌 출린 사름은 다 죽언.

102006 @ 할머니 죽은난 어린아인줄 안 거 아니?

102006 # 어, 게난이 그 때가 십오세 뉼 땐가? 난 겨난 십오세노렌 안허연.

102006 @ 사삼사건이 1947년이란 할머니 열여섯, 열일곱 정도 뉼 때네.

102006 # 열여섯, 열일곱에는 막 다 든 때고 그 전이 흐 삼 년 앞서부떠 헤라. 흐 삼년 앞서부떠 흑교도 오란 점령허연 군인 살아불고. 경허단 그 사름이 막 죽고 살고 헐 때가 그 저 어느 때여게. 우리가 흐 열일곱 뉼 때라.

102006 @ 그땐 게난 할머니 함덕 내려간?

102006 # 내려간.

102006 @ 함덕은 어디 아는디 이수과?

102006 # 이모네 그디 사난 우리 이모네집이 갓주.

102006 @ 겐 그디서 멧년 살단 왓수과?

102006 # 그디 살단에 우리 아바지넨 선흘 살기 실프덴 아니 오고 우리만 결혼인가 무신 이 하르방이영 허연에, 함덕 간 집이영 샷단 이 선흘 완.

102007 @ 몇 살에 결혼하셧어요?

102007 # 스물 흐 니다섯에. 스삼사건에게. 우리 하르방 나보다 두나 알이여게. 경도허고 우린 그나이가 정상이주. 우리 세대에는 그것이 정상이고. 스물 이십오세 넘어가민 나이 만헧저 영허주만은 그 전인 그때가 정상.

102008 @ 결혼 헐 때 사주, 궁합 이런 것도 보주예?

102008 # 보아신테주.

102008 @ 뉼엔 안 곱읍디가?

102008 # 안 곱아라게. 좋덴만 허멍. 겨난 침 우리 어머니영 살 때 침 공부도 못허고 경 애로 사항도 하고, 일도 많이 허고 헧저게.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헨마씨 ?

102010 # 집에서 헧주게, 집에서.

102010 @ 할아버지네 집 마당에서?

102010 # 응.

102010 @ 사진도 찍언?

102010 # 사진 찍음이랑마랑 그 때 사진 찍는 사름 멧 사름 엇엇저, 침.

102010 @ 족두리 썩 헧주예?

102010 # 쪽두리 씨는 체 허곡 장옷 입고 허연 그것 뿐 헛주 무신.

102011 @ 신혼 살림은 어디서 헤수과?

102011 # 집 시어난 함덕.

102011 @ 함덕에서?

102011 # 그 때 시에 하르버지가 함덕 간 집 좋지 안 현 거라도 선홀 불 칸 집
엇어부난 임시 살젠 허난게 집 산 그디 살아난.

102011 @ 결혼식도 함덕서 헨?

102011 # 응, 경헨에 그디서 허연. 이디 밧덜 이서부난 그뻐 차도 엇곡 현 때난
이디 와불엇주게, 선홀을.

102012 @ 결혼헨 멧 해 잇당 올라옵디가?

102012 # 결혼허연에 혼 오 년. 우리 큰 딸 네 설에 와실 거라, 다섯 설쯤에 왓
구나. 경헨 완 고생이 막 그냥 허엇저게. 중학교 텅기젠 헤도 걸어 아정 함덕 중학
교 헤세, 큰 딸.

102012 @ 자녀는 모두 몇 명이파?

102012 # 그루후제 큰딸 허고 셋딸만 그때 난 때고게, 그루후제 난에게 큰딸,
셋딸.

102012 @ 그다음에.

102012 # 아덜.

102012 @ 큰아덜. 그다음?

102012 # 그다음 딸 나뉘 또 아덜 낫주.

102012 @ 말젧딸, 그다음 셋아덜?

102012 # 셋아덜 나뉘에 또 딸 나고.

102012 @ 무신 딸이파 말젧딸 다음은?

102012 # 말젧딸 다음은 큰 죽은년.

102012 @ 그다음엔?

102012 # 그다음에 쌍둥이 난에게 두 개 이제 죽은딸이영. 쌍둥이가 아덜하나
딸 하나

102012 @ 젤 아래 아덜은? 죽은아덜?

102012 # 응. 팔남매. 아덜 서이, 딸 다섯. 셋딸만 서울 살아.

102013 @ 시집 오난 시어머니가 막 힘들게 헨? 시집살이.

102013 # 아니, 우리 시어머니 막 좋아난. 혼디 애기 다 나도록 ㄴ치 살안, 혼
집이.

102013 @ 안거리, 박거리?

102013 # 아니 그냥 박거리 엇은 때라부난 영 구들 두 개 허연, 시어머니네 혼
구들 살고, 우리 혼 구들 살고 헤연. 쌍둥이만 시어머니네 시아주방 풀안 결혼헌 후
제 낫주, 다 시어머니영 ㄴ치 살 때. 우리 시어머닌 막 좋은 어른.

102013 @ 시어머닌 시어머니 아니파?

102013 # 경해도. 혼집이 못 사는 사람 많아. 경헌디 우린 혼 십이 년 혼디 살 아져실 거라. 식계 멩질도 ㄴ치 허곡 허멍. 시아주방도, 겨난 그 때게 시아주방 두 개 시누이에 너이새끼가 혼디 살 때도 막 사이가 좋게 살안. 동세네 오난에 딱로 살앗주게, 시아주방이 결혼허난. 동세 둘 이서.

102013 @ 시동생 둘?

102013 # 응, 시누이.

102013 @ 시누이 하나?

102013 # 시누이 함덕서 막 잘살아.

102013 @ 이디 할아버지 큰 아덜, 할머니 큰메누리구나.

102013 # 큰메누리.

102013 @ 큰메누리난 힘드지 안헨?

102013 # 힘들믄 뭐 그 때부터 식계 계난.

102013 @ 식젠 멧 번이나 험니까?

102013 # 으섯번 헌디 육십 멧년 헛저 계난. 겨난게 시어머니 돌아간 말제엔 후 회나난, 경허난 그자 춤으멍 동세영도 좋게 살고, 시어머니광도 잘 지내곡 그렇게 해서 여즈가 임무라.

102014 @ 자식들 결혼은 어떻게수과?

102014 # 우리도 잔치 으섯 번 헛저, 집이서. 저 족은아덜만 식당에 간 질 문여 우리가 식당에 간 허고 셋덜만 서울서 헤연.

102014 @ 여섯 번은 다 집이서?

102014 # 집이서. 두부 허곡이, 그뎨 약밥허곡이, 돼지 잡고, 출떡 멧 가지를 허 여.

102014 @ 출떡은 뭐?

102014 # 출떡은 출ㄴ루 뿔아당 춤쉴 뿔아당이 이제 멘들앙 그 갈분가루, 그거 아니 칠허면은 부떠불영 아니 웨여. 그거 부찌멍 느런이 낫당이.

102014 @ 속에는 뭐 안놓고?

102014 # 속에 숨메 놔실 거라, 풋. 풋 놓곡.

102014 @ 찹쌀 모찌네.

102014 # 춤쉴 모찌. 모찌허지, 약밥허지, 두부허지.

102014 @ 일등으로 잘 출렷구나?

102014 # 아이고 또 저을에 우리. 두부도 이디서 막 멘들아근에 슌앙 다.

102014 @ 할머니 슌씨는 누가 답안?

102014 # 아이덜 이제 두부 험샤?

112017 @ 딸들 중에 슌씨가 이실 거 아니?

112017 # 딸덜은 게메 이젠 그런 거 안허난. 우리 큰딸 잘허주만은 안허여.

102014 @ 딸신디 잘 곶아 쥐사 딸이.

102014 # 메, 딸 허주, 못허여. 큰 딸 잘헌다, 아무거라도.

102014 @ 큰 딸이 잘해?
 102014 # 메뉴리덜도 잘허곡 딸도 잘허고 못허는 게 셔?
 102015 @ 손지영 메뉴리덜은?
 102015 # 나 닭양 족으카부덴 헨디 손지덜은 커. 우리 큰아덜도 혼엇이 키 크지 안헤여. 겐디 아덜은 막 커.
 102015 @ 메뉴릴 잘 헤신게.
 102015 # 메뉴리 좋아, 메뉴리덜 다 좋아. 셔이다.
 102015 @ 할머니가 다 알양 허는디 메뉴리가 좋음직해.
 102015 # 메뉴리나 딸이나 코칭, 우린. 늬덜은 메뉴리가 뭐 어찌고 저찌고 난 그런 거 없어. 메뉴리집이가도 혼 금, 딸네집이 가도 혼 금.
 102015 @ 혼 금이 뭐?
 102015 # ㄹ따, 딸이나 메뉴리나.

3. 밭일

보리농사

103002 @ 보리 농사 헤난 말 흐끔 곶아줍서. 보리 농사.
 103002 # 보리농사?
 103002 @ 보린 어떻헝 허는 거?
 103002 # 아, 보리. 보리 갈 때 허는 거, 씨 뿌릴 때 허는 거?
 103002 @ 예.
 103005 # 그건이 음력으로 이제 시월, 음력 구월 혼 보름부터 시월 구물도록 갈 주게 그건.
 103005 @ 어떻 헝 갈아?
 103005 # 그거, 옛날은 비료가 엇어부니까 소걸름, 돼지 질락근에 돼지 걸름 헤다가 뿌려가지고.
 103005 @ 어디다가?
 103005 # 밧디. 밧디 강 허꺼, 영 밧디. 허꺼가지고 이젠 보리씨 빼영 가는 거주게. 쟁 갈아. 쟁 낫당 이제 이 중간에 비료가 나난에 걸름 놓고 비료도 농곡 허난에 비료도 잘 돼고. 옛날에는 보리도 잘 안돼여.
 103005 @ 쉼걸름 내치젠 허민 무신거에 닭양 내쳐?
 103005 # 내침이게 옛날은. 이젠 첨 경운기여 뭐 차여 잇저만은 그뎨게 지어도 가고 사름덜이. 등짐으로 맥에 닭양. 맥 알아져?
 103005 @ 예.
 103005 # 그 맥에 닭양 지어도 가고 걸름 지엄젠 허영. 경허곡 중간엔 이제 구루마가 이제 나건디도 오래지 안헤서. 구루마 나난 구루마로 시끄고, 또 구루마 허

단 경운기 나니까 이제 경운기로 시끄고 경허단 이제 차 나난 경운기도 사용 안하고. 경허는 거. 츠츠츠 발전돼가지고. 시대가 겨난 침 경헌 허는 거주뒀.

103005 @ 씨 뿌려나민 어떻 험니까?

103005 # 밧 갈아.

103005 @ 무신걸로 갈아?

103005 # 쉼로 갈았주 그때는. 쉼 잠대 메왕. 잠대엔도 허고 쟁기엔도 허여 그것은. 쟁 소에 메와 가지고 소 이제 멍에 썩와근앵이 잠대 메왕 가린석, 영행 동기곡, 쉼가 잘못 가가민 영 등겨. 이레 가가민 영 동기곡 저레 가가민 영 동기곡 쉼로 밧갈때. 우린 경헛저. 우리로 우트레 어른덜은 다 그렇게 생활을 허고 우리도 이제 한참 시절은 그렇게 험 살았어. 이젠 늙으난에 시대가 발전 돼엇주.

103005 @ 밧갈민 씨가 다 들어가?

103005 # 경헌난 이제 그 어떤 땐 산파엔 허영 작작 빼영 갈고 골 헤여가지고 영 고랑에만 거름 허겨 가지고 보리씨 빼어가지고. 끄슬퀴가 이서. 또 꺾어꺾어, 그 걸 문썩. 씨를 묻어야 돼니까.

103005 @ 끄슬퀴는 무신걸로 만드는 거?

103005 # 낭으로 만들어. 낭으로 맨들앙 꺾어.

103005 @사름이 꺾어? 쉼가 꺾어?

103005 # 쉼도 메왕 꺾곡 사름으로 꺾지 하영. 쟁 더퍼쥬 그 흑을. 게민 보리가 잘 나주. 종자가 잘나.

103006 @ 보리도 종류가 여러개 이신가 마씨?

103006 # 솔오리엔 허영 현 것도 잇고 또 맥주보리, 맥주 멘드는 거 그것도 싣고. 종류가 이젠 더 여라가지란게.

103006 @ 옛날엔 두개뿐?

103006 # 어, 두개뿐이라난디 이제 먹보리라고 해서 보리썰이 검어이. 그것도 나고. 이 중간에 또 밀, 밀도 갈아나고.

103007 @ 보리밧은 블라사 험니까?

103007 # 그 중간에는 이제 보리가 부껴가지고 아이 웬덴 막 이 사름덜이 동원 헤연 블르기도 헤났어. 보리밧 블르레 나가 일동이 막 사름.

103007 @ 사름이 블릅니까 쉼나 물이 블릅니까?

103007 # 쉼로 블르젠 헤도 쉼물이 경 말 들영 블러져? 사름으로 블랐지, 사름으로. 더러 블릅단에 이젠 보리농스도 설르고.

103008 @ 검질도 메사주예?

103008 # 메고 말고. 지금 이제 날 뜨시민 매일 보리왔디 검질 매게 갖주게.

103008 @ 보리왔던 무신 검질이 하영 납니까?

103008 # 아이고 오만가지 다나.

103008 @ 검질 이름은 무신거 무신거 이수과?

103008 # 콩쿨, 진쿨, 소시락쿨.

103008 @ 소시락쿨은 어떤 거?

103008 # 소시락쿨 이세, 보리왓디 많이 나는 거. 그거 나민 막 검질이 막 멋데. 메젠허민.

103008 @ 모더?

103008 # 응, 오래여, 그걸 뽑아내젠 허민. 저 진쿨허고 콩쿨은 그래도 좀 헤도 것도 나빠. 경허곡 뭐 안나는 건 엇고 다른 것도 다 나.

103008 @ 보리밭 검질은 멧번이나 메어?

103008 # 거 흔 셔? 두 불은 보통으로 메고. 또 이제 남아근에 보리가 커가면 또 세불 메는 사름도 잇고.

103008 @ 보리밭도 세 불도 메는구나예?

103008 # 또 대우리가 있어. 보리왓디 대우리라고 헤가지고 요샌 그걸로 물출헌 덴 허멍. 대우리 막 갈아가지고. 대우리엔 헌 거 보리왓디 나는 거. 보리가 이제 막 피어가지고 검질 멧 놔두민 그 대우리만 엇이민 좋은디 대우리가 많이 난 밧은 대우리도 메야돼여. 것도 흔 가지 검질이라. 보리에 대행은.

103010 @ 보리 빌 땀 어떻 헤낫수과?

103010 # 어떻 헤여? 호미로 비주.

103010 @ 보리 비엿 무끄는 건 무신거엔 험니까?

103010 # 묽음질.

103010 @ 끈 닳은 거로 묽어살 거 아니파?

103010 # 끈 닳은 거?

103010 @ 거 보리낭으로 멘듭니까?

103010 # 보리낭으로도, 저 산뒤짚으로 께, 께. 이제 보리 무끄젠 허민 보리가 갈민 산뒤짚으로나 께 데왕 가 집이서. 데왕 가지 안허민 보리 잘 못 무꺼. 보리가 죽죽허영 무꺼질 땀 그 보리 딱 오그려낭 그걸로 삭삭 무끄주게, 경헤낫어. 건 께 라고.

103010 @ 보리낭은 놀어 놔두주예?

103010 # 보리낭도 놀엇당 거름허여 것도 돼지 질룰 때. 돛통에 담아낭. 이젠 안헤도 도새기 가호마나 이제 하나씩, 흔 마리. 벤소게 벤소, 이제 ㄹ뜨민 화장실. 경행 담아낭 이제 그 보리낭이 썩으면 내쳐가지고 보리 갈아. 쉼 메면 이제 쉼 걸 림도 내쳐가지고 보리 갈곡 경행 막 사용헛주. 그걸로 제주인들이 살아온 거.

103010 @ 보리쌀 불림질 헤난 건?

103010 # ㄹ시락. ㄹ시락도이 옛날은 구들을 때주게. 구들을 이제 이디 구들 멘 들아가지고 낭으로도 때고 ㄹ시락으로 깍허게 이제 담아가지고 부찌민 카멍 이 구 들이 뜨거와.

103010 @ ㄹ시락은 어디 모양 놔듭니까?

103010 # 이디 저런 우리ㄹ치 바거리 신 사름은 바꺼리에 담양 낭 놔두고 경 안허민 베겏디 놀어가지고 비 아이 맞게 잘 떠꺼뒤야 돼여. 더퍼 느람지로, 새허영

느낌지 잊주께.

103011 @ 보리 장만은 어떻 험니까?

103011 # 그것은 이제 초담은 무경은앵이 이제 집이 저당 거 클이서 또, 홀트는 거. 보리 홀트는 거. 우리도 거 저디 요작7장 놔뒀당 데껴붙엇저. 그걸로 홀타가지고 이젠 이메탁기가 나니까 그걸로 두드르고 옛날은 도께로도 두들어.

103011 @ 집이 앓앙왕?

103011 # 응 마당에서. 막 이제 구루마로 시꺼당 데며놔. 놀엇다근앵이 홀타가지도 두드리주께. 겐디 메탁기 나니까 사름이 살기가 좋앗어이, 도께도 아니 두들고.

103011 @ 도겐 어떻 두드리는 거파?

103011 # 도께 어떻허여? 어야홍 엇어?

103011 @ 어야홍?

103011 # 여기 이제 제주 민요에 나완게. 옛날 제주인덜 살아난 거. 그거 이제 노래 이제 저거 걸언 들엄주. 검질 때는 사대소리, 어야홍 허영 도께 마당질 소리가 이서.

103011 @ 도께도 이름이 다 이십니까?

103011 # 도께? 그건 도께 어시, 영 잡는 건 어시. 또로 그 영 뭐허는 건 도께 아덜. 우리가 곶아난 말어주. 또 그 믱작진 딴 도께 거시기. 그거 이젠 허젠 허민 틀레, 틀레. 나무 끈어다가 그것을 불에 귀가지고 데왕 틀레를 멘들앙 이제 도께 아덜 회초리 닦은 거 그거 놔가지고 이제 노끗으로 이제 즐라 무꺼. 막 도께 매젠 허민 것도 어려와. 도께 메영.

103011 @ 멧사름이나 상 두드립니까?

103011 # 그건 뭐 사름이 이시민 들이도 두드리고 서이도 두드리고, 건 혼 엇고. 혼자도 두드리고 사름 엇이민, 경헤여.

103011 @ 도께질 헤나민 어떻 허여?

103011 # 어떻헤여? 그걸 이제 브름에 불리든지 어떻 헤야지.

103011 @ 어떻 불려?

103011 # 솔박으로 거리명게, 이디 올레에서. 우리집 불림질 허기 좋아, 브름이. 경허단이 유채 갈안, 선풍기가 나세, 선풍기로 주로 불리고. 이젠 불림질 잘헤. 선풍기 덕분에. 뭐 흥끔헌 것도 선풍기. 꿩도 갈민 선풍기로 불리고. 선풍기 나난.

103012 @ 보리 말령 보리쌀 멘들어야 험 거 아니파?

103012 # 보리 물러가지고 초담은 이제 물벙이 옛날은 물벙이에서 지어가지고 쌀 멘들앙 먹엇지만은 정미소 난 후젠게 정미소에서.

103012 @ 물벙인 어떻 험니까?

103012 # 물 서꺼근앵이 보리를 이제 돌리명 지어. 지는 거엔 허영 물벙이엔.

103012 @ 쉼나 물로 돌립니까?

103012 # 아이, 쉼도 신사름은 메왕허고, 엇인 사름은 사름으로. 사름으로 혼 멧

사름 들어. 밀령 뱅뱅 돌명, 물뽕이 짓는 거.

103012 @ 밀에 보리 놔두민 껌질 뱃겨져?

103012 # 보리낱 안네 놔근에 비치락질을 허여이. 이젠 도로 츄츄츄 지어지는 건 속속 올리명 다 지어지민 또 안네거 속속 누리웁고 경허명게.

103012 @ 비치락은 무신 비치락이엔 곱아?

103012 # 비치락이주, 그건. 이제 그것도이 옛날은 대죽, 비치락 매는 대죽이 이서이. 밧디 낫당 대죽으로 비치락 매어. 이제도 풀지 안허여게, 대죽 비치락. 그걸로 물뽕이도 허곡 집안도. 또 ㄹ레, 집이서 ㄹ레 곱민 ㄹ레 씨는 비치락허고 이 집안 씨는 비치락이 뜨나주게. 추접허카부덴. 그런 건 낫당 물뽕이도 지곡, ㄹ레도 썰곡 경허는 거. 이 청소허는 비치락은 뜨로 놔두고 ㄹ뜨 거라도. 그렇게 사용헤여.

103012 @ 집이서 ㄹ레에도 보리쌀 갑니까?

103012 # ㄹ레 곱주게. 우리집 ㄹ레 이서, 마당에. 보리쌀도 헤영 떡곡, 모물쌀도 곱양 먹고 그걸로 하영 사용헛주게, 하영 사용헛어.

103012 @ 물방엔 하영 헐 때 허고 ㄹ레엔 조금 헐 때 허는 거?

103012 # ㄹ레엔 ㄹ를 곱주게. ㄹ를를 곱곡 또 보리쌀도이 물뽕이에 진 것은 거 퍼가지고 쌀을 맨들아야 밥을 헤여.

103012 @ 거피는 건 어떻 허는 거?

103012 # 그 ㄹ레에 두번씩 벌르지게. 물뽕이에 곱양 ㄹ레에 거평 밥헛 먹는 거. 경허단 정미소 나난 이제 물 서끈 보리도 정미소에서 지어단 물리와 가지고 ㄹ레에 검편 밥을 헛 먹단 이제 츄츄츄 보리도 다끄는 법이 나질 안헤시냐게. 물도 안서경. 요샌 다 다끄지, 물도 안 서경.

103012 @ 다끄는 건 어떻 허는 거라?

103012 # 방에에 지금 다갑주게, 정미소에. 이제 우리 물도 아이 서끄고 ㄹ른채 다깡 먹는 거라, 지금은.

103014 @ 불림질 헤난 것은 데껴불어?

103014 # ㄹ른 거난게 담양 치와야주게 것도게, 그냥 담앗당 곱체로 담으명 구들도 때고 경 안헛 사용 잇이민 밧디 치와다 불어야지.

103014 @ 보리꺾데기는 뭐 헛니까?

103014 # 보리채, 그거 지금 밧디 사용허염실걸. 이제 제주차부에 가민 보리 다끄는 정미소 잇지 안허냐? 거기 이제 채 담아근에 마대에 담양 대며서. 것도 다 사가.

103014 @ 옛날은 어디 사용 헤낫수과?

103014 # 옛날도 우리도 사용헛주게. 옛날은이 그 보릿ㄹ루도 누룩 맨들아근에 술도 허여.

103014 @ 보리채로?

103014 # 보리채, 그 ㄹ레에 검퍼난 ㄹ루. 그거 헤여근에 물서꺼근에 티와. 티와 가지고 소주허는 디도 들어가고 막걸리도 헛 먹고 그렇게도 헤나서.

103014 @ 보리 갈 때 나오는 가루?

103014 # 응 ㄱ루. 채는 그냥 버리고계. 채는 도새기 먹어. 돼지 맥여. 도새기 제주사람은 도새기 도새기헛주게 이젠 돼지, 돼지해도.

103015 @ 옛날 보리 농사 하영 해낫수과?

103015 # 하영허고 말고. 먹을만이 해야지, 식구에. 겨당 보리쌀도 엇인 사람은 엇어. 다 이 양식을 보리, 이제 보리 갈앙 새보리 나도록 먹는 집은 건 잘사는 집이고, 경 안현 사람은 양석도 엇어. 대음현 사람덜은 못 먹어. 그 그르에 조 허주게, 조. 보릿그르에. 조 불령 또 ㄱ을 들면은 좁쌀 헤여근엥이 보리쌀 서경 먹고. 제주 사람덜은이 보리쌀 좁쌀이 양식이주게. 이제야 이 곤쌀도 난 곤밥을 통일이주. 느네는 잘 먹엇주? 우리 아이덜 클 때도 이제 그 때 곤쌀이 엇어. 우리가 갈앙 곤쌀이 떨어지주 산뒤도 같아도. 경행 떨어지면 이제 초담은 조안미엔 행 그 나쁜 쌀, 그것도 곤쌀이라고 막 상 먹고, 그다음은 이 나룩쌀이 나온 거라. 경현 때도 곤쌀이 엇영 것도 벨미로. 우리 셋아덜은 또 보리밥 잘 안 먹어. 경허민 동제허여 줌으로 것도 곤쌀 흥뽀 사당 서경 먹엇주.

103015 @ 보리씨 한 말에 뿌리는 밭의 넓이는 뭐렌 험니까?

103015 # 보리씨가 두가지라이. 저 이제 줄보리 맥주보리가 잇고 또 솔오리가 이서이. 맥주보리는 백오십평, 흔 말이. 또 솔오리 흔 말은 삼십평이라, 저 삼백평. 솔오리 흔말은 삼백평이라. 이제 그 줄보리보단이 두곱이라 두곱. 맥주보리 흔 말 두 말 빼는디 솔오리는 흔 말이민 돼여. 우리가 갈아난 거. 그거.

103015 @ 흔 말지기, 두 말지기 이런 말 안씀니까?

103015 # 게메 아까 안 곶아냐게? 이제 맥주보리는 흔 말지기가 백오십평, 또 솔보리는 이제 흔 말지기가 삼백평. 이것도 할망덜 잘 몰르메.

103015 @ 한 말지기는?

103015 # 게난 보리씨에 메어.

103015 @ 보리 말고 다른 건?

103015 # 다른 것도 씨에 메고, 콩 ㄱ쁜 것도.

103015 @ 보통 백오십평 아니면 삼백평.

103015 # 하영 곶젠 허민 흔이 엇주만은 대게는 그 기준을 삼아서 허는 거라. 무신 콩이나 뭐라도. 천평이민 얼마니 허는 거.

조농사

103017 @ 조팍된 걸름 안험니까?

103017 # 걸름 안행 보리 갈아나민 걸어. 그 보릿그르에.

103018 @ 조는 언제 가는 거파?

103018 # 조는 이제 오월들에 허여. 오월들에 허영 이제 구월 나면은 다 곡식허여 들여.

103019 @ 조 씨 빨 땀 보리영 다릅니까?

103019 # 응, 보릿그르 갈아가지고 밧을 잘 이제 멘들아가지고 검질 옷게, 게서 좁씨 빼어근에 이제 그때는 물로 불려. 물데 혜영 막. 밧 불리는 소리도 막 좋주.

103019 @ 밧 고랑하고 이랑이 이수게.

103019 # 이것을 밧을 영 갈 거 아니가? 갈민 이제 이렁은 높아, 고랑은 이제 납작헌 디가 고랑. 들어간 딘 고랑, 이딴 이렁. 경행 그디 씨를 뿌려, 경행 더프고. 이제 파나 무시거 요샌 비닐루 더경 싱그난 헤도 옛날은이 고랑 끄서가지고 영 고랑더레 파를 놔가지고 더퍼.

103019 @ 좁씨는 고랑에 뿌립니까?

103019 # 좁썬 그냥 바라로 빼어. 경행 이제 씨가 좃게 나민 뽑아주고.

103021 @ 어떻 뽑아?

103021 # 사름덜이 뽑아 주주게. 검질메명. 좃게 나민 뽑아주고.

103021 @ 조팏디 검질은 매기 힘듭니까?

103021 # 힘들주게. 경허민 사대 불르명 검질 매야주게.

103021 @ 몇 번 검질 맵니까?

103021 # 두불 메어사 웨어 것도. 두불, 시불 메어야 웨어.

또 산뒤도 갈민 두불, 시불 메야 웨고. 산뒤 스월에 갈아. 산뒤도 많이 허민 곤솔 이녁 걸로 먹고 제스도 허고. 경헛주.

103022 @ 조팏된 검질은 어떤 검질 하영 납니까?

103022 # 최고 잘 나는 거 쉐비늬, 제완지. 검질 이름. 제완지, 조팏디 나는 거. 그르에 검질 많아.

103023 @ 조고고리 탈 뎨 어떻 헉니까?

103023 # 호미로, 영 코짱코짱혜영 탁 그창 농곡. 이것이 조 낭차 신 거 아니가? 경허민 이제 영 코짱코짱 허영 호미로 영 끄차놔. 호미로 쫄라놔.

103024 @ 조는 다 익으면 어떻 장만헉니까?

103024 # 비어근에 조코구리 트다당 것도 두드려야 웨어. 것도 메탁기로 두드려, 이제. 메탁기 나난.

103024 @ 메탁기 나기 전인?

103024 # 도께로.

103024 @ 고고린 손으로 다 타?

103024 # 응, 맥에 담안 시꺼 왓주게. 지어오곡 시꺼오곡.

103025 @ 좁쌀도 물벙이에서 헉니까?

103025 # 조도 지어. 물벙이에. 그 물벙이 질 때는 조도 물벙이에 전 먹언. 경허 단 정미소 나난에 조도 정미소에서 짓고.

103025 @ 물벙이에만 헤도 웨어, 그레에 안해도.

103025 # 응, 좁쌀은 흥번 지어근에게.

103026 @ 좁쌀로 뭐 만들어 먹읍니까?

103026 # 좁쌀로는 밥 주로 헨 먹고, 조팏. 보리쌀 서끄민 것도 팬참여, 풋 숲곡

허민 맞아서.

103026 @ 또?

103026 # 밥헿 먹고, 술도 헿 먹고. 흐린좁쌀, 또 모원좁쌀이 이서. 흐린좁쌀로 옛도 허곡 막걸리도 허민 맛좋아.

103026 @ 모원조로는?

103026 # 모원조로는 밥만 헿 먹어. 건디 모원좁쌀이 주로 양식이주, 흐린좁쌀은이 주로 먹지 안해. 것도 맛좋게 헿 먹젠허민 흐린좁쌀 농곡 보리쌀에 밥허민 잘 먹주.

103026 @ 맛은 뭐가 좋습니까?

103026 # 흐린조팝이 맛좋아. 그것이 흐린좁쌀이 경 주로 먹지 안해, 옛어.

103027 @ 조짚은 안 씹니까?

103027 # 무사 아이 씨게. 쉼 맥엇주게. 소털 맥어. 조칩 혼 놀, 이제 또로 그냥 비어당 혼 놀. 소 질룰 땀 우리도 이디 막 놀 크게 놀어. 막 뉘덜 빌어근에. 팔뿔 나민 또 출 비어. 물리와근에 헤사 저을에 소 먹일 거난. 우리 이집 개발헿 지섯주 만은 옛날 박거리 신 때도 소 혼 댓 개씩 질화났어. 겿당 드사가민 드르에 목장에 올려가 저을에 매엇당. 게당 이제 소도 설르고 다 설러불엇어.

103027 @ 좁쌀은 껍데기 옛수과?

103027 # 채 무사 옛어, 조채. 것도 뉘지 맥어. 또 용서 콩 갈곡게 콩 주로 갈곡 산뒤, 모뉘. 그거.

103028 @ 좁쌀 종류도 여러가지 이수게?

103028 # 응, 강돌와리. 조 이제 흐린조 게우리조엔 허영 그것도 이름이 이서난 디 이저불어젿저. 쉼머리조, 쉼발시리. 강돌와린 모원조라. 쉼머리존 흐린조.

103028 @ 어떻 알아집니까?

103028 # 조팍디 가근에 허민 고고리가이 까릿까릿헌 게 ‘아이고, 게우리조 헤 연 좋다’ 영도 곤곡 헤난. 이멩시리엔 헌 것도 잇고. 것도 흐린조.

103028 @ 흐린존 무신거 무신거과?

103028 # 흐린존 이멩시리도 잇고, 쉼머리조, 게우리조.

103028 @ 모원존?

103028 # 강돌와리, 육깃모원조, 그 육깃모원조 들어오난이 조가 막 좋아났저. 육지서 개발허연.

103028 @ 쉼발시린 어떤 거?

103028 # 쉼발시리도 거 흐린졸 거여. 우리가 곶아난 말.

콩 농사

103029 @ 콩은 어떻 헤마씨?

103029 # 콩은 씨 빼영 갈아야지. 이제 기계로도 씨 뿌령 갈아. 콩 씨 뿌려가지 고.

103029 @ 이제 말고 옛날 해난 거.

103029 # 게메 옛날도 씨 뿌령 같아. 콩은 그렇게.

103030 @ 언제 씨 뿌립니까?

103030 # 오월들, 음력 오월. 초복 전이 같아야지. 초복 넘영 해도 ‘콩도 이제
훈 홉 갈민 두 홉 난다.’ 이 말은 이서. 초복 전이 다 현 곡식은 잘 자라고 초복 넘
으민 잘 자라질 못허여, 추워가지고. 경허니까 초복 전이 오만 곡식을 다 헤여웨여.
콩도 초복 넘영 같아근에 훈 웨허영 두 웨 난덴 말은 헤여도 잘 크질 못허여. 인척
같아야 웨여. 초복 전이.

103031 @ 콩밭디 걸름 험니까?

103031 # 걸름 헤지민 종주만은 어디 걸름 이서? 이제는 콩 갈명도 비료 놓고
갈암주만은 그때는 그냥 같아.

103033 @ 검질 맬 때 수눌어 가명 매낫수가?

103033 # 경허주게, 우리가 오늘 메민 넬은 다른 밧 강 메고. 경행 재미있게게.

103033 @ 옛날은 장갑도 엇곡 어떻행 해수과?

103033 # 그냥 헛주게, 그냥. 장갑이 어디 시어? 신발이 어디 시니게, 양말이 어
디 시명. 이제 양말 제왕. 신발 벗어뵤. 초신, 우리 두린 때 초신 신으민 그거 검질
흐루 멧다간 다 끈어저불영 신영오지 못헤. 벗워뵤 갈 때, 올 때만 신어.

103033 @ 다 같이 검질 매민 잘허는 사름도 있고 못허는 사름도 있지 안허여?

103033 # 경허주게, 그렇주게. 잘허는 사름은 잘 메고 못 메는 사름은 못 메도
다 꺾 허주게. 어떻 못 메는 사름 툇라불어? 못 메도 수눌영 가고 잘 메어도 수
눌영 가고 경헛주.

103033 @ 옷은 무신 거 입영 검질 매수과?

103033 # 그 때논이 주로 갈중이. 감 딜여 가지고 흰 천에 감들여 가지고. 이
요새엔 뵤 감을, 감옷을 벨 걸로 허주만은 제주인덜은 그 감옷이 아니민 비누도 엇
곡 다른 옷 입영 강은 빨 수가 엇어. 게니까 감물 들어가지고 그 옷을 입은 거라.

103033 @ 방석도 엇어나신디 게민 어떻 해?

103033 # 그냥 헛주게. 조침 앓인 사름도 잇고 그냥 멜썸이 앓인 사름도 잇고,
경허주뵤. 방석도 이제도 콩밭딘 못 매어, 콩 꺼꺼정. 이제 당근 파레 털이나 그런
작업허는디 방석도 필요허주.

103033 @ 무신 걸로 검질 맵니까?

103033 # 길경이로게.

103034 @ 검질도 막 날 거 아니?

103034 # 꺾따, 조팍이나 콩팍이나. 제완지, 쉼비늬 뵤, 또 무신 뵤. 비늬이엔 현
것도 지레 큰 게 이서. 그것도 있고 많아. 이제도 검질은 마찬가지로. 옛날이나 이제
나. 이제 약을 뿌려도 검질이 많이 나.

103035 @ 콩은 어떻 꺾습니까?

103035 # 길경이로도 거끄고 호미로도 거꺼. 푹푹허게 거껍은앵이 이제 것도 이

제 옛날은 도끼로 주로 태작헌디 이젠 기계나난.

103035 @ 타작은 어떻 험니까?

103035 # 도끼로, 도끼로. 마당에 앓당. 쇠로도 시꺼오고, 등짐 저당 허영.

103036 @ 콩으로 뭐 행 먹읍니까?

103036 # 콩국도 끌렁 먹고, 죽도 썰 먹고. 웬장도 허곡 두부도 허곡게.

103036 @ 콩누물도 해났지예?

103036 # 제스때 마다 콩누물 딱 농곡.

103036 @ 콩누물은 어떻 키웁니까?

103036 # 어떻게 키와. 여름에는 베갯디 낡 물만 주면은

103036 @ 무신거에 낡?

103036 # 그냥 저 오가리에 농곡. 오가리에 놔근에 다라에 비왕 시쳐근에 또 오가리에 놔두민 막 커이. 게민 또로 물만 주명도 잘 크고 헌디 저을엔 얼영 잘 아이 크민이 이디 방에도 앓다당 오가리 들러다근에 이디 놔근앵이 곧 천으로 더꺼가지고 이불도 곧 걸로 더평 키우곡 경행 제스헛주. 이젠 그자 주로 사.

103037 @ 콩짚은?

103037 # 콩대? 콩대도 소 맥여.

103037 @ 콩대도 소 맥여, 소는 무신거 좋아험니까?

103037 # 아무거라도 좋아허주, 아무거라도. 엇영 못 먹어. 콩짚도 잘 먹고 조침도 잘먹고 그런 것가 엇어부난이 드르에강 출 비어근에 물리왕 늘엇당.

103037 @ 콩 꺼끌 때 털어져불지 안허여?

103037 # 꺼끌 때? 터러지게 허여게? 아이 털어지게 헤야주. 게도 터러 털어져.

103037 @ 콩짚은 뭐엔 험니까?

103037 # 콩꼬질.

103037 @ 콩깍지는?

103037 # 콩공메기주 뭐, 콩공메기. 나쁜 거, 이상헌 거.

103037 # 강메기, 콩 두드리당근앵이 막 단장허당도 콩강메기가 남아. 것마라 콩강메기.

103037 @ 껍질은?

103037 # 콩거죽이주, 무신거라. 콩깍지게.

103037 @ 콩깍지는 표준언디.

103037 # 콩 그 으물 영 드랑드랑헌 거 어샤? 것가 콩 깍지주게. 콩 까먹으면 콩깍지 까먹으는 거. 거 글아 제주도에서도 표준말도 뉘고.

103038 @ 초록색깔 콩은?

103038 # 푸린콩.

103038 @ 밥헛 때 놓는 콩은?

103038 # 앓인베기, 앓인베기 콩. 밥 숨메허영 놓아. 지금 싱것주게 이제 얼마 엇영 올라 그거, 앓인베기콩.

103038 @ 동부는?
 103038 # 돛비, 줄벗엉 올르는 건 돛비. 건 담에 올라 오는 거.
 103038 @ 혼 바리는 얼마큼이파?
 103038 # 쉼에 이제 혼 마리에 시끄는 것ㄴ라 혼 바리. 혼 바린디 것도 못 수정
 이 셔. 삼십뭇이 혼 바리.
 103038 @ 보리, 조, 콩 다 틀립니까?
 103038 # 틀려. 얼마 시꺼져게. 보통 출은 삼십뭇이 혼 바리라.
 103038 @ 보리는?
 103038 # 보리도 혼 바리엔은 허여. 서른 뭇ㄴ라.
 103038 @ 조는?
 103038 # 조도 경 무꺼시민 것도 서른뭇게, 혼 바리. 혼 바리ㄴ라 서른뭇이라,
 아무거라도.
 103038 @ 콩은?
 103038 # 콩은 또 틀려. 콩은 크게 무꺼야 웨여.
 103038 @ 서른 뭇 못 시끌거 아니?
 103038 # 못 시꺼. 그 혼 바리가 웃뭇이라, 그건. 웃뭇, 양쪽에 서 뭇씩 시꺼.
 103038 @ 여섯 개베띠 안 시꺼?
 103038 # 쉼에 시끌 때 웃 뭇 시꺼, 웃 뭇. 경헤낫주게.

밭벼 농사

103039 @ 산뒤는 어떻 허는 거파?
 103039 # 산뒤도 마찬가지로 조나 마찬가지로허영 지영 먹단 이젠 기계에서 지영
 먹고.
 103039 @ 산뒤 허는 밧은 흐뭇 좋은 밧이라야 됩니까?
 103039 # 아무디라도 웨여. 조허는 밧, 콩 가는 밧, 다 산뒤도 허고 콩도 갈곡
 조도 허곡 그렇게. 겐디 밧이 좋면은 밧디가 좋고 늦인 밧된 좋지 안허주게.
 103039 @ 무신 밧?
 103039 # 밧이 늦앙 베랑 흑이 엇은 밧은 산뒤가 좋지 안허여. 조도 그거 마찬
 가지, 보리도 마찬가지. 웨긴 다 웨는 데 수확이 덜주게. 잘 안웨면 수확이 덜어.
 103040 @ 산뒤는 언제 어떻 허여?
 103040 # 산뒤 농사 스월들에 망종에 이제 술거리게 산될 갈아. 술거린다 허면
 은이 산뒤가 나가지고 저 혼 입, 두 입 나와.
 103040 @ 술거린다?
 103040 # 응, 산뒤가 나가지고 영 세개 거려, 세 개. 망종 전이 산될 갈아야.
 103040 @ 술거린다는 게 뭐?
 103040 # 나근에 세 가지.
 103040 @ 아, 잎이 세 개가 나는 게 술거리는 거?

103040 # 망중 전이 술거리민 웬덴, 경 곱아. 망중 넘으민 늦어.
103040 @ 앞이 영 세 개는 사와야 돼여?
103040 # 응, 경행 갈주게, 스월달에.
103041 @ 걸름은?
103041 # 걸름이 셔게? 그냥 허주, 옛날은. 이젠 비료 낱 허주만은 그 뎨 그냥 허여. 자연대로.
103041 @ 쉼걸름, 돼지 걸름은?
103041 # 그런 거 산뒤왓디 줄 거 어디셔? 보리나 갈주. 엇어부난게 어디셔? 걸름 낱 갈민 좋주워.
103042 @ 언제 씨 뿌립니까?
103042 # 산뒤게 이제 스월 달에 갈아.
103042 @ 씨는 어뎡 뿌려?
103042 # 그냥 밧디 강 뿌렁 갈민.
103042 @ 산뒤 씨 뿌리는 것은?
103042 # 삐엿 갈아. 짹짹 뿌려.
103042 @ 그냥 영행 뿌려?
103042 # 응, 궤도 경 같고. 산뒤 갈 때.
103042 @ 산뒤 갈 때 궤도 갈아?
103042 # ㄴ찌 갈아.
103042 @ 다른 밧디 이딘 산뒤, 이딘 궤?
103042 # 응.
103043 @ 산뒤밭에도 검질도 매주예?
103043 # 메고 말고. 다 메여야주, 검질 안 멩 뵈이 돼여.
103043 @ 산뒤 밧디 검질은 몇 번이나 매어?
103043 # 것도 그거 마찬가지로. 세 불, 두 불 메민 좋고 그렇지 았으면 안돼. 아이고 혼이 엇나. 두불을 전통으로 메주만은 세불7장 메어사 돼어. 경혜사 산뒤가 잘 돼어.
103044 @ 산뒤밭에 특별히 나는 검질이 잇수과?
103044 # 제완지엔 현 거 주로 쉼비늬 뭐 검질 아이 나는 검질이 엇어. 그거 마찬가지로, 쉼비늬, 제완지. 비늬 뭐 빈네 뭐 이름 하.
103044 @ 특히 산뒤 밧디 하엿 나는 건?
103044 # 제완지.
103044 @ 제완지.
103044 # 제완지, 쉼비늬 뭐 뭐 아이 나는 게 셔?
103044 @ 쉼 매기 굿은 검질은 뭐과?
103044 # 메기 굿인 거. 쉼비늬, 제완지. 메기도 굿고, 밧디 많이 나, 그게. 어린 때 메지 안허민 그것이 막 너무 커. 메기 굿어.

103045 @ 산뉘는 수확허젠 허민 어떻 허여?
103045 # 것도 ㄹ찌허여, 조영 ㄹ찌. 시월들에.
103045 @ 시월들에.
103045 # ㄹ실 들민, 일른 땀 구월에도 허곡게.
103045 @ 조는 고고리 툃는디 산뉘는 어떻?
103045 # 산뉘 그냥 두드러. 흘테로 흘트곡.
103045 @ 집이 정 왕 집이서 흘타?
103045 # 흘탕, 도깨로 때리곡 두드려야 웨여, 경혜사 쫄 웨여. 불려근앵이 물리 왕 지어당 먹어. 것도 먹젠 허민 어려와.
103048 @ 산뉘가 다른 농사에 비해 어려워?
103048 # 어렵주게. 겨고 산뉘는이 주로 이제 제주 사름은 경 산뉘만 갈앙 때쫄 을 헤지느냐게? 게민 조가 주로 헛주. 조가 잘 웨고, 산뉘는 ㄹ물민 안웨.
103048 @ 아, ㄹ물민 안웨어.
103048 # 응, 칠월 ㄹ물엇다 허민 산뉘 먹을 거 엇어. ㄹ물 타. 조는 칠월 ㄹ물 아도 좋고. 경헝 제주사름은 조로 살앗주게, 조팝으로 살앗어.
103048 @ 게난 산뉘 하영 안헛구나예?
103048 # 산뉘 하영 안헛주. 서춘에 어디 강정, 그디 논밭 싹젠 헤여.
103048 @ 그딘 산뉘가 아니고 그냥.
103048 # 나룩, 나룩. 논밭 시난.
103048 @ 논 이시난에 그디는예.
103048 # 여기는 강답에는이 안웨부난 강답이엔 현 것 그냥 밧이주게.
103048 @ 강다비?
103048 # 강답.
103048 @ 강답. 아.
103048 # 그냥 밧ㄹ라. 그디는 산뉘가 안웨여. 물라근에. 겨난 이제 슬지폰 밧딜 로 산뉘 가는 거라. 보리 아이 갈앙 밧당. 게민 그 산뉘 갈앙 제스 때에 곤쫄로, 큰 일 때.
103048 @ 쌀에 돌 이신 거 뭐엔 헝니까?
103048 # 시거. 그거 저 티 든 거게. 막 옛날은 이 쫄도 마대로 사와도 티 성 잔치에 막 모여 앗앙, 방상덜 모여 앗앙 거 쫄 다듬어. 티, 하간 머흘 서부난.
103048 @ 쌀에 꺽질 벗겨지지 앗은 것도 막 이십니께.
103048 # 아 너 싹젠, 너. 아이고 조도 지영이 좁쫄에 너 시영 못 먹어. 두루 저 진 것ㄹ라 너 싹젠 헤여. 거 굴랴사 먹주게 대체로 치영. 치어근에 다시 질 것더레 도 농곡 경허난 옛날엔 체도 거름체, 대체, ㄹ는체. 그런 걸 혜사 곡식을 장만헝 먹 어. 이제도 오일장에 풀암저. 우리 건 문딱 혈언. 옛날 헤난 거.
103048 @ 머흘허고 님 틀린 거과?
103048 # 응, 머흘은 그 저 이 곡식에 무신 돌 ㄹ쁜 거 들영 디글락허당 니 아

올라 상헌다게. 껍질 아이 벗겨진 것ㄴ란 뉘라고 허고. 머홀 싯젠 게.

고구마 농사

103050 @ 고구만 언제 싱그는 거짜?

103050 # 유월절 전이 싱거야 돼여, 그것도. 유월절 넘으면 늦영 아이 돼어, 것도. 유월절이 혼이라. 모든 곡석을 허는 디.

103052 @ 고구마는 어떻 심어마씨?

103052 # 고구마는 그냥 이제 봄 나민 감저를 땅에 싱거. 경허민 이제 줄 나누게. 싹이 나면은 크면 끈어당 싱거.

103052 @ 줄을 끈어당 싱거?

103052 # 끈어당 발가락 영 고랑더레 영 싱거. 경허민 감저 되는 거주.

103052 @ 감저줄은 어떻?

103052 # 그것ㄴ라 구감 남젠 허주게, 이제 봄 나면.

103052 @ 무신거 남저?

103052 # 구감이라고 싹 날 걸 싱거. 경허민 이제 그것이 싹이 나가지고 줄이 질어. 게민 거 비어다근에 싱검주게. 비어당 싱거.

103052 @ 싱그민?

103052 # 싱그민 감저가 고구마가 들엄주게.

103052 @ 고구마가 들어.

103050 @ 원래 감저는?

103050 # 건 데껴붙어, 못먹어.

103050 @ 그것보고 낚는 말 이수과?

103050 # 구감, 구감.

103050 @ 구강?

103050 # 것도 옛날에 먹어낫어. 이제 아이 먹어.

103050 @ 구감, 구강?

103050 # 구감 감저게. 건 메영 데껴붙고게. 먹어지민 먹주만은.

103055 @ 고구마 켈 뎀 어떻 허여?

103055 # 켈 뎀 이제 막 잘 들민 팔 때 재미나. 파가민게 막 그 감저가 멧 개씩 들주게.

103055 @ 하나에 막 붙어근에?

103055 # 응.

103058 @ 감저줄은?

103058 # 옛날 쉼떡여. 쉼떡여 것도. 감저줄 물리왕.

103058 @ 감저줄 물리왕?

103058 # 잘 먹어 쉼.

103058 @ 어디 놀영 놔뉘?

103058 # 물리왕 것도 늘어. 쉼이젠 허민.

103056 @ 씨감저는 어떻게는 거봐?

103056 # 씨감전 씨감저엔 허주.

103056 @ 어디 잘 놔둬사?

103056 # 보관혜사 웨어 것도. 옛날은이 ㄱ실 들민이 제주인들 먹젠허민 이제 감저 파오면 이 울안에 이제 구텡일 파. 조침으로 팽허게 영허영 세와, 돌아가명.

103056 @ 예.

103056 # 쟁 이제 그디 산뒤낭이나 무신거 아래 깎아. 그레 고구말 막 부서늘 거 아니? 저당 비와낭 이젠 또 흑으로 반쯤 올려, 흑으로. 뜻게. 뜻게시리 이젠 허영 느람지 둘러, 느람지.

103056 @ 느람질 둘러, 우트레?

103056 # 응, 물 아이들게. 경행 이제 주쟁이 씨왕 감저놀에. 경행 이제 통화허게시리 그 주쟁일 올앗당 더껏당 해야 웨여.

103056 @ 썩지말렌?

103056 # 응, 막 이제 눈이나 온 때는 딱 더경 내불고 경안행 날 존 때 이제 허민 짐이 풍풍 나, 글로. 경허민 이제 감저가 서검시냐, 아이 서검시냐 자꾸 봐사주게. 경허여도 잘못웨민 그 묻은 거 몬딱 서거불어. 못 먹어 겨민.

103056 @ 먹젠 허근거봐, 씨감저로 쓰젠 허는 거봐?

103056 # 먹젠게, 먹젠.

103056 @ 씨감저는?

103056 # 씨감저도 허곡게.

103056 @ 그결로 놔뒀당 씨감저도 허고?

103056 # 이젠 또 봄 나민 그결 다 팔 거 아이가? 씨감저 놓곡. 그 이젠 구텡이에 거 다 팡 향에나 놔두민 여름 내낭 썩지 안헌 땀 여름 내낭 먹어져.

103056 @ 향에?

103056 # 응 놔뒀서. 앓아내명 치명. 경행 막 먹주게. 이제 ㄱ찌 사 먹어?

103056 @ 계난 예.

103056 # 우리도 감저 구텡이가 두 개씩 셔났저.

103056 @ 그건 어디 밧디 험니까, 짐이 험니까?

103056 # 짐이, 짐이. 짐이 뒤에 묻어.

103056 @ 우영에?

103056 # 응, 우영에.

103056 @ 우영에 놀도 놀저,

103056 # 감저도 묻저,

103056 @ 감저도 묻저.

103056 # 계난 울안 족앙도 아이 웨여. 출 놀저, 검질 놀저, 낭 데미저.

103056 @ 계난.

103056 # 촌에난게 올안도 널러야.

103057 @ 절간 고구마는 빼떼기?

103057 # 빼떼기.

103057 @ 옛날은 빼떼기엔 헛주예, 절간이엔 안헛예?

103057 # 절간이엔 해연. 막 감저 절간 좃엄저, 절간 무시거 헛저. 절간이 하영 곤주. 절간감저. 이제가 빼떼기엔 하영 곤주. 옛날은 감저 썰연 물리운 거엔 허곡 빼떼기엔 저 거시기 절간이엔 허여. 아이고 고구마 절간허젠 허난 소뭇 그냥. 빼떼기엔도 허곡 감저 빼떼기엔.

103057 @ 절간은 어떻 멘드는 거?

103057 # 썰영어, 기계가 이서. 감저 써는 절간 기계. 이제 감저 밧디서 팡팡 흑차 담양 방방 둘러가민 삭삭 굴아지멍 요만인헌 거. 경허문 이제 골채로 담으멍 막 널어. 경행 이제 물르민 좃어, 그걸 좃어 다. 좃어근앵이 날 좋으민 그제 흐쉴 희곡게 밧디 년 게 흐엇이 곱느냐? 그제 해여근앵이 감저로 뭇 허엿느냐면 제국때에 일본것덜 걸로 아루꼬로 술빳젠 헌다. 술 빳젠 허여, 그 절간 감저로. 곡식이 없어 부니까 이제 이 감저로 술 뺏게 독허다고 허여. 아루꼬로 감저 술을 독허여. 경허영이 게메 경헌디 그 제국 때에 쓸도 부작허고 허니까 그 절간 감저를 헤가지고 받아가지고 막 공출허렌 허영 제주도 사름거 해당 한국 거 해당 그걸로 술 헌덴. 술을 빠. 술을 빠면은 막 독허여. 아루꼬로엔 헤서 것ㄴ라. 우리 두린 때이 감저 흐 솟치영 그자 가는 오는 사름 다 먹으렌 허여.

기타농사

103063 @ 배추는?

103063 # 배치. 배치 갈앗저. 배치 사당 짐치혜사.

103063 @ 배추 가운데 노란 부분은?

103063 # 속, 속. 배치속.

103064 @ 무는?

103064 # 늣뻘

103064 @ 무청, 늣뻘 이파리.

103064 # 춤늣물쌔? 춤늣물이엔 헤여 무수쌔ㄴ라. 무수ㄴ라 춤늣물 갈암저. 춤늣물 것ㄴ라도. 우리 춤늣물이엔 헤낫저. 건디 이제 무수, 무수허주게 늣뻘.

103064 @ 위에 싹 난 거 퍼렁헌거 먹읍니까. 그걸 춤늣물쌔이엔 헤여?

103064 # 춤늣물쌔, 춤늣물쌔도 맛좋아.

103064 @ 씨 받기 위해서 꽃 핀 무는 뭇엔 헛니까?

103064 # 동지 세와근앵에 씨 읍아사. 무수 동지세와 씨읍은 거주 무신거라. 옛날엔 것ㄴ라 채종전이엔 허영 막 씨 받아낫저게. 무수씨 동지 세와 씨 받는 것ㄴ라 채종전 갈앗저 허멍. 종저엔 말이주, 종저.

103064 @ 배추나 다른 것도 씨도 받으민 채종전이파?

103064 # 아니 늑뺨만. 배치씨도 받주만은 채종전 갈아근에 옛날 막 돈벌어나 세. 그 저 무수씨 받아가, 그것도. 혼 마리 막 그걸로도 돈 많이 벌었저. 그거 허영 기계로 태작허여, 무수씨. 종자받앙. 채종전 갈앙.

103064 @ 어린무는?

103064 # 존늑물, 존존현 늑물ㄴ라.

103064 @ 열무 아니파?

103064 # 열무? 봄늑뺨.

103064 @ 봄늑뺨?

103064 # 봄늑뺨 같앗저 영허주 열무ㄴ라.

103064 @ 짐치도 험니께?

103064 # 게, 열무 짐치도 허주게.

103064 @ 츠마기영 똑같은 거?

103064 # 똑ㄴ쁜 거. 츠마기엔도 곤주게. 어린거 짐치 허는 것ㄴ라. 요샌 열무 어린거 허난 짐치 맛좋다, 츠마기짐치. 경 곤주. 이제 츠마기 간 사름덜 잇주, 봄늑물.

103065 @ 감저는 지슬이엔 험니까?

103065 # 지슬. 땅에 드니까 지슬 아니가게. 땅 아래 든다고 해서 지슬.

103069 @ 마늘대는?

103069 # 마농대.

103069 @ 마늘쪽이 달린 거는?

103069 # 마농 멧덕. 우이 거시기 마농 꽃 피는 거. 이제 그 마농쫑, 마농쫑 거 ㅍ지 안험시냐? 그디 열매ㄴ란 멧덕. 열매는 멧덕이라.

마농대 사민 이제, 요새엔 그 마농쫑도 거껌세. 건디 그 멧덕이 올라, 올라, 그것에 멧덕 잘락잘락. 마농쫑에 들린 건 멧덕.

103069 @ 마농대가리는?

103069 # 마농대, 대 산 것ㄴ란 마농대. 마농 불리ㄴ란 마농 대가리엔도 허고.

103069 @ 쪽파는?

103069 # 꽤마농, 이 쪽파ㄴ란 꽤마농이주게.

103069 @ 밑에 하얀 부분은 뭐엔 험니까?

103069 # 마농 불리, 꽤마농 불리. 이거 꽤마농 불리 나 다듬엄시네. 이거이 읍 아근에 현 땐 막 훑영 좋나게. 건디 줄아부난 다듬지 못허키여. 이추룩 곱닥허게 헤야 지시 이거 허영이 근장에 커근앵이 지시허여, 이거. 나 경 허젠 이거 다듬엄저게. 건디 이거 다듬지 못허연 못허키여. 저디 마당에 널어논 거 다듬어야, 다 다듬어얄 건디.

103069 @ 옥수수는?

103069 # 옥수순 강낭대죽, 부루기, 부룩 대죽. 부룩 읍아시냐? 강냉이ㄴ라. 부루기 대죽. 부룩 베여사 그 읍을 거 아이라게.

103069 @ 옥수수가 부록?

103069 # 부루기. 부록 대죽 같았저. 옛날 사당 대죽 그 먹는 씹엉 먹는 대죽 이서난디 이제 씨가 엇어게. 그거 같앗당 아이덜이 그뎨 먹을 거 엇어부난 비엉 주민 막 씹엉 먹엉 물뽀아 먹는 거, 사당 대죽이 엇어, 이제. 엇어져서, 씨 엇어, 갈젠 해도. 거 같앗다근에 사당대죽 비엉 먹엇저게, 우리.

103069 @ 빗자루 만드는 건?

103069 # 건 비대죽. 비치락 만드는 거. 건디 그것이 쓸이 전이 셔난디 그 쓸신 비대죽이 아닌가 몰르크라.

103069 @ 쌀 이신 건 뭐라?

103069 # 대죽쌀, 대죽쌀. 대죽쌀 요새 그 옥수수 떡허는 디가 잇젠 헌디.

103069 @ 대죽낭은?

103069 # 대죽낭, 대죽낭이주 무신. 조낭ㄹ치 조칩낭ㄹ치.

4. 들일

소기르기

104001 @ 옛날에 할머니네 소 키와낫주예, 소 어떻 키웁니까?

104001 # 어떻헿 키와게. 쉼 암쉼 질루민 송아지 낭 풀곡 헿주게. 우리도 소 열ㄹ리ㄹ장 질롭단에.

104001 @ 집이서?

104001 # 집이서 질롭단, 집이서 저을은 메고 봄 이제 입춘 넘어가민 드르에 강똥곡 경허멍 질랍주게, 경허멍 질라.

104001 @ 집이 놀 때 출도 헿 맥이고 해야 될 거 아니?

104001 # 응, 팔될나민 출허영 놀어사, 저을 맥일 거. 출 빔으로 난리주게. 경헿막 그냥 놀 스몯, 출놀이 스몯 영 데경 올리도 못허게 막 크게 놀어. 크게 놀어듬서 빠멍 맥여. 낫인 물 맥이고.

104002 @ 소 종류는 털 색에 따라 빨 모양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예?

104002 # 노린쉼, 검은쉼 또 얼룩빠기가 이서. 얼룩쉼엔 허고 얼룩소. 요런디 헿뚜룩허게 박아진건 대성백이.

104002 @ 빨 영 헌 건 뭐라?

104002 # 빨 저 초담 나올 뎨 빨이 쪼그만 헿당 늣어가민 쉼 빨이 영 오그라져.

104002 @ 오그라진 것도 잇고 영 사는 것도 이신디 이름을 다르게 안 불러?

104002 # 안 불러, 다르게 안 불러.

104002 @ 어럭어럭헌 쉼는?

104002 # 얼룩쉼.

104002 @ 얼룩쉼 말고 식쉼도 잇지 안해?

104002 @ 식웬이 스몛 어럭도 아니코 노린 것도 아니코 노린 것에 또 흰 걸 박 으멍 식웬이 이서. 노루스룽, 거무스룽헌 거. 것ㄴ라 식웬엔 허코. 식송아지. 얼럭송 아지, 태성백이, 또 노린췌, 검은췌 그거주게. 한우는 노린 거라, 한우. 한우 요새 알아주는 한우는 노린 거라.

104002 @ 검은 게 아니코예.

104002 # 응 노린 거. 노린췌가 한우라. 거난 이젠 한우가 고기가 맛종덴 헨 그 검은췌나 얼룩소, 식웬을 다 치와두고 이제 한우만 질람주게, 노린췌, 지금, 지금은.

104002 @ 옛날 할머니넨 어떤 색 췌 키와수과?

104002 # 그건 뒤 그냥이 잡종뵐 가지고뵐 뵐 게 다나, 얼럭소도 나고 잇당 식 송아지도 나고 또 부랭이도 나민 노랑케 이제 문작허게 고면은 값도 더 받아져, 그때도. 췌도 색깔로도 돈 받아. 경 해났져. 또 까망게시리 까만 송애기도 나고.

104002 @ 뿔이, 이렇게 잣박뿔도 잇지 안해?

104002 # 잣박도리엔 헌 건이 뿔이 족아, 크지 안헤여. 몽콜락헤뵐서 것ㄴ라 잣 박도리.

104002 @ 건 잣박도리.

104002 # 부랭이, 저 부랭이도 꾸작허게시리 뿔이 켁, 영 허여근앵이 막 커갈수록 뿔이 헌 건. 또 췌뿔이 혼 해에 혼 ㄴ작씩 셔.

104002 @ 그게 무신 말?

104002 # 췌뿔 혼 해 크면은 그 뿔이 켁 ㄴ작이 잇다고, 혼 ㄴ작씩.

104002 @ 표시가 나잇어? 나이테추룩.

104002 # 응, 늙어갈수록 췌뿔에. 영 우리가 췌 영 걸렁 메곡 헨 때 보민 그 혼 해 혼 해 저.

104002 @ 선이 굿어져?

104002 # 선이 굿어져.

104002 @ 그걸 뵐엔 허는 말은 엇수과?

104002 # 엇어. 멧 해 뵐엇구나, 뿔 뵐 알아. 장시덜 오민 속이지 못허여. 그 뿔 뵐. 사릅 다음엔 세 슬.

104005 @ 차례대로 곴아뵐서, 췌 나이.

104005 # 췌 나민 초담 나민 금싱, 두 해 뵐민 다간, 세 해 뵐민 사릅, 네 해 뵐민 나릅. 다섯 살 나민 다습, 으섯 살 나민 으습.

104005 @ 그 다음은?

104005 # 그 다음은 뵐 늙어가민뵐, 췌는 오래 살질 안헤여.

104005 @ 보통 멧 년 살아?

104005 # 열 해, 말은 뵐 췌 스물, 뵐 서른 영 산덴 허주게, 옛날 말이. 경허주 만은 경 열다섯ㄴ장 잘 운용을 못해, 췌도. 우리도 열슬 넘도록은 질뵐났어. 늙어 늙어. 열두 슬 넘어가민 췌가.

104005 @ 그다음은 일곱, 여덱, 아홉, 열 이렇게 똑같아?

104005 # 응, 똑ㄴ따. 다습, 으습.

104005 @ 요습까지만 허고예.

104003 @ 보통 소는 뭇헐 때 쓰는 거파?

104003 # 뭇 헐 때 써? 옛날엔게 밧 ㄴ리청 밧 같고, 그냥 노누에기덜은 그냥 키우멍 풀곡게.

104003 @ 아 그냥 풀고.

104003 # 응 쉼덜. 질 이제 좋은 암썬 이제 밧 갈앙 행실좋은 건 ㄴ리청 밧 같고. 또 짐도 시끄고. 질메지왕 쉼질메 엇어게, 쉼질메.

104003 @ 옛날은 소가 엇이민 농사를 못지어예?

104003 # 못지어. 또 구루마 엇인 땀이 쉼로 몰로 그 짐을 시꺼들여. 쉼질메 시와근에 이제 출도 영 서뭇씩 낱 툃툃하게 짐을 시끄는, 짐 잘 시끄는 사름 베 딱딱 쉼우멍 시끄곡 못 시끄는 사름 것도 못 시꺼. 쉼 질메덜. 우리 쉼짐ㄴ장 안 시꺼뵤어. 여즈덜도 잘 시끄는 사름덜은 시꺼, 노동 잘허는 사름덜은.

104003 @ 그건 안 헤뵤다고.

104003 # 우리도 더러 허단에 설러불엇주. 이제 우리 세대 나가난에게 그 소도 막 키웁단 경 이제 구루마 나고 허난게. 쉼짐도 경 안 시꺼. 옛날 우리 어머님네 시절엔 그자 쉼짐으로 옛날 어른덜 다 헤여.

104004 @ 쉼 ㄴ리치는 건 어떻 ㄴ리쳐?

104004 # 어떻 ㄴ리쳐? 밧 가는디 강 사름이 이젠 쉼 이꺼. 쉼 이끄곡 조름에서 밧 갈앙 영 사름이 강 영 돌아오민 또 돌아가곡 허멍.

104004 @ 아니 처음에 질메 지우기 전이 ㄴ리치는 거 잇수게.

104004 # 아 쉼 ㄴ리치는 것도 초담 새송애기에 질메 지우민 막 들러키어. 겨허당 그것도 알아먹영 츄츄츄츄 헤가민 안허여.

104004 @ 돌 끄스는 것도 이수게?

104004 # 돌 끄는 거 거 쉼 ㄴ리칠 때이 밧디 강 다 못허민 초담 돌 끄영 질에서 질에서 막 이제 끄영 뎅겨. 거 ㄴ리침으로.

104004 @ 그 ㄴ리침으로예, 쉼 ㄴ리치는돌이엔 굴읍니까?

104004 # 아니 그냥 뭇 아무 돌이라도 뭇 끄영 베 걸러근엔게. 돌도 끄젠허민게 코맹글곡 헤야주게. 쉼 멩에 메왕, 밧가는 멩에. 멩에에 한줄 메왕 그 돌 끄으와. 경 허당 이제 밧디 강 ㄴ리쳐.

104004 @ 돌 끄어나도 밧디 강 허민 잘 안 될 거 아니?

104004 # 밧디 가근에 또 ㄴ리쳐야지, 잠대허여근에. 돌만 끄슬 땀 돌만 지룽지룽 끄주만은 잠대허영 밧을 갈아살거난 잠대 메왕 또로 밧디 강 ㄴ리치곡 경허영 옛날 어른덜은 쉼로 밧을 갈멍 용스를 침 만여 평도 다 허엿주, 쉼로 갈멍. 어떤 밧디 쉼 돌도 갈곡 너른 밧은 세 사름씩 갈레 가, 너른 사름덜은. 그냥 영 천 쉼정도 뭇 그런 밧덜은 혼자만도 같고 경헌디 너른밧 이제 가는 사름덜은 하루 두 쉼 뵤엇저, 세 쉼 뵤엇저 그추룩허멍 갈아.

104004 @ 세 세대는 뭐?
 104004 # 세 사람, 셋 시 개. 경헨 간 건.
 104004 @ 세 세대?
 104004 # 응, 두 셋 됐었저, 세 셋, 시 개 됐었저 경 곤는 말이주
 104004 @ 세 셋 됐었저, 두 셋 됐었저. 이렇게.
 104004 # 두 셋로 가서, 올린.
 104004 @ 아, बात 셋 두 개로 같앗덴 말을.
 104004 # 응, 경혜여. 오닐 그 집인 बात 두 셋 됐엉 같암서 경허고.
 104004 @ 소 두 개에 잠대 하나 메왕도 험니까?
 104004 # 응, 게 제주도엔 잘 안허여. 육진 경혜라만은.
 104004 @ 육지, 육지 경헌덴 험게 만든 이딘 안해?
 104004 # 제주도 경 안해. 육진 테레비에 나오는 거 보난 두 개 메완 헤라게.
 제주도는 경안해. 하나 허여. 장남 하나 허영. 셋 멩에 메와근에.
 104006 @ 잠대도 이름이 다 이수게.
 104006 # 잠대에? 잠대 성에.
 104006 @ 사진 가정왔수다.
 104006 # 요건 긴 건 잠대 성에. 요건 잠땃 몽쿨, 요건 양짓머리 이거 지퍼근에
 영 बात 가는 거라, 이디 상. 이거 양짓머리, 요건 몽쿨, 요건 성에. 요건 또로 그냥
 영 박사근에 허는 거 이젠 이름 엇고. 경헨 이걸 이제 메와야 돼여, 성에 이레 허고
 이 몽쿨도 어려와이. 이 지세 웬 걸로 낭을 그차오젠 허민 잘도 어려와, 이 잠땃몽
 쿨도. 고지 가근에 이젠 잠땃몽쿨 제대로 웬 걸 헤오젠 허민 막 어려와이. 거민 잠
 땃몽쿨도 잘 헤근앵이 단장을 헤영 낭, 낭 그차당. 이 성에는 구썩헌 것만 헤오민
 뉘고 이 잠대 몽쿨도 이디 이젠 영허영 양짓머리 요디 고망 툄라근에 성에 영 디물
 쉘 허민 낭이 좋아야 돼여, 이것도. 그추룩허고 이건 뱃허고 보썩. 경헨 허는 거주.
 경허고 또로 셋 멩에는
 104008 @ 이거 멩에.
 104008 # 이거 멩에엔 이거 한줄 영 진진헌 거 한줄. 요건 또 가린석, 가린코.
 104008 @ 가린코?
 104008 # 이디 영 동, 공글레기 허영이 잠대에 허여가지고 이레 셋 멩에 헤영
 बात, 셋 영 세울 댐 이레 가린쿨 이레 찢러더근앵이 셋 무끄곡 허여. 경혜여. 요디도
 이 한줄에 또로 요디 그 한줄에 그저 또꼬냥에 허는 거, 건 잊어불언게 한줄에 셋
 조름에 허는 거 엇어게, 한줄 꼬뎡이에.
 104008 @ 오리목?
 104008 # 오리목, 오리목. 오리목은 또 한줄 꼬뎡이에 조그만허게 또로 한줄 ㄱ
 썩 멘들양 한줄에 끼와야 돼어 것도, 오리목.
 104008 @ 그건 셋 앵뎡이에?
 104008 # 응 앵뎡이에 가는 거. 앵뎡이에 가는 거고. 또 멩에에 또로 그 셋 야

게에 허는 건 또 즈제기, 즈작게.

104008 @ 즈작게?

104008 # 응 요거 즈작게. 이걸 이제 쉼 고게에 이걸 끼왕 한줄을 씨우는 거라.

104008 @ 즈게 아니고 즈작게?

104008 # 응, 이거 몽콜, 요건 성에, 요건 양짓머리. 겨난 이제 쉼 명에 이걸 쉼 고게에 가는 거라이. 요걸로 요디 고망 딸랑 요거 끼왕 쉼 고게에 이렇게 즐라 무꺼야 쉼가.

104008 @ 뭘로 무꺼?

104008 # 아니 여기 끈이 이서. 즈제기끈.

104008 @ 무신 끈, 즈제기끈?

104008 # 응, 끈 이제 노로 허여근에 쉼쉼 감앙, 그 든든하게 감아사 쉼가 이제 명에로 영행 등길 거 아니가게. 이디 명에 씨왕 이 한줄에 명에 메와가지고, 쉼 명에. 야게에, 이저 한줄 이저 쉼 명에에 낭으로 해서 한줄 양 끝에 이디 낭 허여가지고 요 접제기 양 펜으로 고망 딸랑 이디 허는 거주. 경헌디 이 즈제기도이 이제 어류와. 윤누리나 무신 낭, 춤낭을 헤가지고 요디 이제 또로 그 동글락허게시리 그 명에, 그 즈제기도 이 명에에 고망 딸랑 허젠 허민 요디 도깨어시 ㄹ추룩 그게 서사 허지 안허여게. 그것도 어류와. 굶기 딸랑 명에레 이젠 쉼쉼, 두 개 양 쪽에 허여근에 허민 요 쉼 명에 이젠 낭 끝은 거 허여당 이디 두개 고망 딸랑근앵이 즈작겔 이렇게 서로 영 얽어근에 즐라 무끄는 거라.

104008 @ 즈제기, 즈작게?

104008 # 이거 즈제기앵도 허고 즈작게앵도 허여. 겨난 이 즈제기도 허젠 허민 이 낭이 이제 그 이 끄뎡이가 몽콜락허게 든은 거, 제대로 쉼 거 허여다근에 이제 메와가지고 이걸 즈제길 멩글젠 허민이 이디 고망 딸랑 이제 이렇게 두 겔 허영 영 어우리는 거. 어울리는 거라. 이것도 어류와, 이 쉼명에 멩금도. 경행 이제 한줄 사령 놀 뎡 영 이제 두 곱 잡아근에 쉼허게 명에허고 즈작게허곡 허영 무경, 무꺼근에 공장에 잘 걸엇당 밧을 갈아야 뉼여.

104006 @ 밧 안 갈 뎡 공장에 걸어?

104006 # 응, 걸어사. 이 명에도이 잘 아이 놔두면 베염이나 무신 거 뎡겨나민 밧 갈 때 그거 메왕허민 쉼 고개덕 붓어. 독으로, 독으로.

104006 @ 뱀 독?

104006 # 응, 베염 뎡겨나민. 겨난 이제 쉼명을 공처허게 걸어 뉼서 뉼어.

104006 @ 공처허게?

104006 # 깨끗허게게, 공처허게. 공처헌 말 몰라? 무시거라도 영 공처허게 놔뉼. 우리도 저 옷을 공처허게 걸지 안헤사게? 경허듯이 쉼 명에도 우리가 저 박거리 있지 안허냐? 경허민 그런디 이제 백브름에다가 잘 걸어뉼사. 그런 베염 아이 뎡기는디. 베염 뎡겨나민 독이 쉼 고개가 밧 갈당 보민 붓는 거라. ‘아 베염 뎡겨난 쉼이여’ 영허여. 경허당 풀어지긴 풀어져도 쉼가 고생허주게. 그 독으로 붓어놓민. 경헤

여. 쟁깃 몽콜, 이건 한줄.

104006 @ 벳칼, 벳틀레도 잊지 안핃니까?

104006 # 벳틀렌 또 이디 낭 두 개 헤가지고 까까근에 요추룩헌 거 까까가지고 벳틀레도 또 요것ㄴ치 영 양쪽으로 허여이. 양쪽으로. 두 개 허영 영 헤여사 벳이 든든허여.

104006 @ 벳칼은?

104006 # 벳칼은 엇고게. 벳도 다끄는 것ㄴ라 벳칼이엔 핃실 거여. 이걸로 영 좁제기 헤낭 그거 이제 클르면 이 밧을 갈아나면 흑이 막 부떠. 벳에고 보섭에고 허면은 그거 뜰어가지고 그 벳칼로 다끄는 거라. 그것이 그거.

104006 @ 아.

104006 # 이 좁제기 모양으로 요만씩헌 거, 요만씩헌 이제 저 낭 까끈 거 두 개 헤영 이렇게 서로 영 어우러지게 핃 딱 좁저. 좁저근에 허여. 그것이 이제 벳틀레라. 벳틀레엔도 허고 벳칼이엔도 허고. 우리 잠대 봐나난 아는 거주.

이거 성에 성에, 이것이 잠대 성에가 대목이주게.

104006 @ 설칃은 뭐짜?

104006 # 요거, 요거 설칃이엔 헤신가? 이거 낭 까까근에 이것도 멘들양 이 몽콜허고 성에를 어우러지게 박는 거, 설칃.

104006 @ 몽콜은 아무 낭이나 못헌덴 헤수게. 보통 무신 낭으로 많이 헤?

104006 # 이거이 춤낭이라사 웨여. 선홀고지 뭐 가시낭이나 이제 즆베낭이나 그런 거 허고 윤누리는 어렵고. 윤누리가 막 질긴 낭인디 어려와, 이거 허젠 허민. 경허난 이 제 지세로 웬 낭이 어려와이. 이렇게 고부룻허게 허고 영 허영 이디가 넓고 이렇게 헤은 낭이 어려와. 경허민 잠땃 몽콜 흥나 봉그젠 허민 잘도 어렵거든. 이 성에는 곧은 낭만 허민 웨고. 또 양짚머리 허는 낭도 좋아사 웨어. 고톡 뜰랑 이디 이거 메우젠 허면 질긴 낭이라사 허고 경허는 거.

104001 @ 쉼 안 매나민 안 매켄 들러키지 안핃니까?

104001 # 쉼 빨에 메영 허민 저을에 들어오민 으레 맣 걸로 알아, 나이 한 쉼덜. 오민 탁탁 지 메어난디 들어사, 쉼가. 경허영 물도 앓다다 주민 먹곡 또 통에 강 맥여오고, 클렁 강.

104001 @ 쉼 맥이레?

104001 # 물 맥이레, 물 맥이레 몰앙 가.

104001 @ 이딘 어디 강 맥입니까?

104001 # 물통잇주게, 먼 디강. 이제 먼물깃이영 반뭇이영 헌디 강. 어느 세계라도 다 경헢 살안, 제주도 사름은. 견디 저 서춘에는 이 부룽일 주로 키운다. 부룽이 키와가지고 이제 고깃쉼로 풀아, 고기로. 막 이제 맥영 슬치왕 이디 오랑 이제 다사가. 부룽이 사레 와. 부룽이 나민 풀아불어. 암쉼 새끼 내왕.

104001 @ 이디션 보통 암쉼 키웁니까?

104001 # 응, 부룽이 나민 이제 위가라 사레 와. 금싱인 때. 그 서춘 사름덜이

백영 슬치왕 폴젠.

104005 @ 금싱은?

104005 # ㄱ 난 거게.

104005 @ ㄱ 난 거.

104005 # 금싱 또. 세월 엇인 댐이 부릉이 못 폴앙 다간ㄱ장 키와.

104005 @ 다간은 두 살?

104005 # 두 슬. 경혜여근엥이 부릉이가 세월 존 댐뒤 ㄱ 낭 금싱일 때 문 사가고. 경헝 그런 댐 쉼 질루민 흐끔 돈 벌곡. 경 안헝 부릉이 사름ㄱ장 키우젠 허민 막 힘들어. 부릉이 말 안 듣고.

104005 @ 불도 깐덴 헝게만은.

104005 # 그건이 그 송애기덜 막 폴아부난 그런 거 우린 안헝나고. 그건이 이제 엇날 그냥 바라로 쉼 키울 때는 그런 것가 엇어났는데 부릉이 더러 폴아불곡 허민 엇어난디. 이제 시대가 바파가난 잡종을 이제 쉼 허지 말젠 헤연 수의사도 오랑 그 불 더러 이제 부릉이 못 폰 사름 거 더러 까불엇젠도 허어나고 해서. 경헌디 그 자락 안허고. 수의사 오민 인공수정이라고 소부떠 헝 거라. 경헝 이제 수의사 오라 근엥이 암쇄가 이제 새끼 가지게 댐뒤 수의사 오라근에 문딱 인공수정 허고 경헤 난. 드르에 오라근에, 수의사를 불러사 댐어 그런 때 인공수정 허곡, 부릉이 다 폴아불엇어.

104005 @ 곧 난 게 부릉이예?

104005 # 곧 난 거 암송애기도 나곡 부릉이도 나주만은 암송애기는 키와도 댐고.

104003 @ 보통 암송애기를 키우는구나예.

104003 # 응.

104003 @ 부릉이가 더 힘세지 안허여?

104003 # 힘 세여도게 경 밧이나 아이 가는 건 쉼목이 엇주게, 쉼목이 엇어.

104003 @ 밧도 암쇄가 같아?

104003 # 응 암쇄가 같아.

104003 @ 암쇄가 쓸모가 많구나예?

104003 # 쉼모가 많주. 부릉인 이제 밧 많이 가는 사름은 부릉이도 질황 오래 밧 같아.

104007 @ 질메도 이름이 다 이수게?

104007 # 이진 쉼질멧가지고 요진 도곰. 이진 또 오랑코, 오랑. 이것도이 쉼 질메가 고망을 네 깧 나와가지고 낭을 이제 ㄱ노롱헌 낭을 해당 질긴 낭이라사 댐여이. 네 개를 꼽아 이디. 이 쉼질메를 어우러지게, 꽃곡 이걸 또로 조름에, 쉼 또꼬냥에 허는 거, 이거. 쉼질메에 부튼 거라 이것도. 이것도 이제 베도 이제 질긴 거. 낭도 이제 모작 베 메는 모작이 셔이 낭에도. 모작을 잘 헝 벨 끼와사 벗어지지 안허여. 경헝 댐들아사 댐여, 이것도. 이 도곰은 이제 산뒤집으로나 예껴사 댐여, 이 도

곰. 도곰도 아무나 못 예껴. 하르방덜 옛날 예껴근에 도곰착이라고. 흐쓸허민 도곰 착 만인 허다, 도곰착 담다 경. 이거 도곰. 이견 쉘질멧가지, 요건 오랑코.

104007 @ 어느 게 오랑코?

104007 # 이거. 이디 베 시네. 영행 이디 이 낭에다가 이제 ㄱ노퉁헌 베 허여가 지고 오랑. 오랑 이디 뱃따지로 허당 이레 메여야 이 쉘질메가 부뜨주게, 등에, 쉘 등에.

104007 @ 이게 고들개?

104007 # 응, 이거 고들개. 쉘질멧 가지에 이거 고들개.

104007 @ 요거는?

104007 # 줄게, 고들개에 줄.

104007 @ 요건?

104007 # 도곰착.

104007 @ 질멧 가지도 앞가지, 뒷가지 험니까?

104007 # ㄱ뜬 거, ㄱ뜬 거. 꼭ㄱ따.

104007 @ 모양 똑같아?

104007 # 다 ㄱ따. 이거 두 개. 두 개헌디 요것만 오랑코 이제 네 개라, 네 개. 이 낭도 네 개. 흐 짝에 두 개씩. 이거 오랑코, 오랑코.

104007 @ 오랑코. 질메 고망은?

104007 # 질멧 고망은 이거게, 이디 고망 낫주게. 일로 걸려당 요 배야지더레 이젠 허영 이제 무끄는 거라, 이걸 양쪽에. 일로 영 오랑을 잘 쉘와사 부떠. 겨난 그 한만이 행 쉘카부덴? 쉘 등어리에 부짱 짐 시끌거. 겨고 또 이디 이제 허젠허민 쉘앗베가 이서, 쉘앗베. 짐 시끄는 베. 이 쉘질메에 베도 양쪽에, 흐 쉘이 흐나씩. 멧 발 이서 그것도, 짐 시끄는 베가. 경행 사려근앵이 이제 쉘질메에 톱 시경 강 풀 어근에 짐 시끌 때민 풀어놔 양쪽으로 둘이 시끌 땐 양쪽으로 시끄민 막 좋아이. 겐디 혼자만 시끌 땐 흐 쪽에 이제 흐 도름 시꺼뵤 또 저쪽에 강 시꺼뵤 ㄱ끄지 안 행은 토라정 쉘 들러켜불어.

104007 @ 흐 도름은 뭐?

104007 # 게 이디 초담 시끌 때 흐 도름, 두 도름. 이제 세 도름 시꺼놔 가운데 허민 네 도름을 시꺼.

104007 @ 흐 도름은 멧 못이나 되는 거?

104007 # 세 못도 시끄고 큰 건 서 못.

104007 @ 서 못이 한 도름?

104007 # 또 너 못도 작은 건.

104007 @ 작은 건 너 못 도 허고?

104007 # 응, 경행 톱톱 허영 서로 노다, 영 꺼꾸로노다ㄱ라 서로노다엔 허주. 서로노다 놔 톱톱하게 시경 둘이 시끌 땐 양쪽으로 두 사름이 톱톱 시꺼불면 일이 없는데 혼자만 시끌 땐 요디 흐 도름 시꺼뵤 이쪽에 강 시꺼뵤 또 이쪽에 오랑 시

경 마주막엔 다 므까. 경헤영 허여. 경 시끄는 거라, 짐도.

104007 @ 한 쪽에만 시끄민 토라져부난.

104007 # 토라지민 들러경 안돼어. 췌 질메 벗어져붙어. 토라져 가민. 베로 무근게 혼엇이 가. 겨난 이제 췌 짐 시끄레 갈 때도 둘이 고른 사름이 가면 막 펜안허여. 둘이 양쪽으로 고찌 시꺼. 췌 호나 시경 이젠 돌아나카부텡 어디 강 메어뵤 또 흐나 시끄곡, 경허여. 몬여 시경 내불민 췌 앞이 가가민 조름에 짐 아니 시끄 췌아 올라 ㄴ찌 가젠 허주게. 난 거 봐나난.

104007 @ 무사 웃으멘마씨?

104007 # 짐 시끌 때게, 짐 시끌 때 췌 몬져 시끄 건 메지 안허면 가가면 조름에 짐 안 시끄 췌도 가젠허주게, 가젠, 따라 가불젠. 케니까 몬여 시끄 췌 메어뵤 또 조름에 거 시경 경행 이제 앞이 거 클러근앵이 ㄴ찌 몰앙 갖젠 말 아니가게. 난 옛날 헤난 거 생각 허멍 우스완 웃엄저 만은. 옛날 어른덜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난 걸 첨 알아사뵤여. 밧가는 따빈 어시냐?

104010 @ 따비도 잇수다.

104010 # 이건 따빗가레, 이건 잠뎡몽쿨ㄴ치 따빗몽쿨.

104010 @ 이건 따빗몽쿨?

104010 # 응. 따비가 이젠 두 가달헤가지고 이디 췌 박아이. 잠대에 보섭ㄴ치. 따빗가레. 따비왓은이 밧이 잘 엇은 사름이나, 밧이 존 밧 엇인 사름. 이제 늡의 밧 흐뵤 이제 뵤헨 밧 빌엇 따비로 이경 헤 먹으렌 허민. 경허곡 또 밧이 존 밧 이서도 여전덜 신 사름.

104010 @ 여전은 뵤?

104010 # 이 밧 예엇덜게. 췌로 못 가는 디. 그런 디는 따비로 갈아. 갈아난, 갈아났어. 겨곡 옛날은이 따비가 필요허여, 무신 일 때도 이 따빌 가사 테도 일고.

104010 @ 어떤 일 때?

104010 # 장스 때에. 그런 때도이 이 따빌 가야 그 테역을 일러. 따비도 필요허여. 흐췌허민 따비왓 갈앙 배고프곡.

104010 @ 따비왓 갈앙 배고프곡?

104010 # 따비왓 갈민 배고프주게.

104010 @ 힘들엇?

104010 # 힘들엇.

104009 @ 목장은 어떻 관리헤 마씨?

104009 # 스뵤 옛날에는이 우리 어린 때는 도적놈도 엇고 그냥 이제 농서 지어냥 저을만 멕이당 목장에 올리면 췌덜이 지대로 떡곡 물 떡곡 헤영 살아서. 경허단 이 제국시절을 나가니까 췌를 이제 간술 안허민 안돼여이. 도적놈도 하고 헤가난. 그 때는 이제 췌 허는 사름이 다 돌아가멍, 번췌 헤가지고 이집이, 오닐 누게네 멕여나민 누게네 허멍 그 돌아가멍 이제 췌를 간수허여났저게. 번췌라고 헤가지고 허당 이제 췌가 이제 상강일이 뵤면 췌 들여와야 뵤여. 상강일 뵤민 다 허제허여.

104009 @ 허제?

104009 # 그 다 갈라, 췌, 이녁췌 만췌. 경허민 이젠 드신 땀 이제 어디 강 이녁 만 맥이당 돌아오고. 출을 못 맥이난. 제기 들여놓민 출을 당허지 못허난. 경혜영 허당 막 얼민 이제 집이 다 들여와.

104009 @ 마을 목장도 헤낫수과?

104009 # 응, 마을 목장 이서난디게. 선홀도 이제 옷마장, 알마장 경혜영. 경혜연 헤난. 드르에 목장보고 마장. 마장도 씻고 또로 더 우터레 가민 지경이 다 셔 또. 고르루지경이여 뭐 뵙뵙 무신 이젠 그 뵙뵙도 다 이름도 바꾸고 우리 두린 때 거 었어. 못 뵙뵙여 무신 시릿 뵙뵙여 그런 너른 목장도 다 이젠 다 이녁만췌 관리 허연 다 풀아먹어불고 외국사름신디 다 풀아불고. 녹산장도 제장목장이라난 거 무신 뭐 그건 조천읍 관할일 거라. 조천읍 지경이 잇고 또 구좌읍 지경이 잇어이. 다 지경도 뜨나. 경행 다 갈라. 췌가 어디 돌아나면 구좌읍 목장에 들어갓저, 이 조천읍 췌가. 경허곡 또 못뵙뵙 가불어서라, 영허명 소문 들으멍 췌도 좇아.

104009 @ 췌 일러불민예, 표시도 해야 돼여?

104009 # 표시 허고 말고. 표시는이 이 선홀은 우리집이 그 녀인 이제도 어디 실 거여. 녀인 췌로 멘들아가지고, 췌 아프주만은 그 녀인 안허민 췌 못 좇아. 이제 봄 나민 그 송애기 나근에 풀지 못헌 땀 그 녀인을 불에 귀근에 잠지에 탁허게 헤영. ‘흔 가지 동’제 헤영 허민 우리 집이 셔낫어. ‘흔 가지 동’제. 녀인 어디 실 거라, 이제도. 우리 시하르버님네 췌물 많이 헤나난 옛날은. 그 ‘흔 가지 동’제, 이 선홀 알동넛 건 거로 ‘흔 가지 동’제 녀인 우리집이 거 자꾸 빌려줘낫주게. 경허단 뭐 이젠 뭐 그런거 저런거.

104009 @ 불 부췌야 좋구나예?

104009 # 응 좋아낫저게, 옛날은. 이젠게 불 금지 헨 아이 부췌노난 막 낭허고 가시만 막성허염주게. 이제 소덜도 경 난장에 낳 아이 질루고 허난. 옛날은 이디도 알산전도 불 부췌 췌 키우고 또로 저디 가민 옷산전이엔 행 그디도 방에 부췌 소 키우고 경헛주. 저을에는 집이 메당, 밀은 주로 드르에 살곡.

104009 @ 소는 언제췌 올려보내는 거마췌?

104009 # 소는 이월, 삼월 초싱 뵙뵙 올려 보내어. 책명 넘어가민.

104009 @ 그디 소 보는 사름이 셔?

104009 # 그 옛날은 이제 옛날은 도둑놈도 었고, 소를 이제 그추룩 헤영 드르에 올령 내불민 흔 번이나 가끔 이녁 소들 보레 가단 이제 시대가 험악헤 가니까 번췌 를 허여 동네에서 돌아가멍. 번췌.

104009 @ 돌아가멍 보는 거?

104009 # 응, 돌아가멍 오닐은 누게 볼 사름 허영 다 마탕덜이 동네에 췌덜을 모탕. 경허명 이제 맥이곡 집이 또 들어올 땀 다 그췌 들여 놓곡. 경허당 이제 책명이 넘으면은 또 우터레 드르에 낳 번췌허영 허곡 경헛주. 겨단 그 제국 시절이 돼 가니까이 막 험악헤 가지고 시대가 도둑놈도 씻고. 췌도 일러먹어이. 경헤가난 이제

번쉐허여, 옛날도.

104019 @ 출 날를 때 췌에 얼마나 실렁 옵니까?

104019 # 출은 흐 바리 거의 시꺼, 서른 못. 양쪽에 이젠 멧 못씩 헤영 무꺼근 에 베로 딱딱 췌우멍 췌질메 지왕. 아이고 그 시절 거 살아져샤? 아니 우리만 봐났 주, 이제 두린 사름덜 봐나지도 안허고.

104010 @ 소 기르면서 기억나는 일이나 재미난 일이나 힘든 일은?

104010 # 재미난 건게 송아지 나근에 이제 허민. 송아지 날 땐 무서와.

104010 @ 무서와?

104010 # 송아지 재기 아이 난 때.

104010 @ 아 재기 안 난 때 죽어볼카부덴?

104010 # 게 위험허주게, 것도. 게고 췌 클러 봐야 돼여, 석.

104010 @ 석을 클러봐야 돼여?

104010 # 응, 췌도게 영 몸을 움직여사 새끼 날 거 아니가게? 경허난. 영 뵙 송 애기 췌가 새끼 남직 허민 췌 클러 봐야. 나 흐 번 췌 클러단 이디 다천 나도 막 병원에 탕겨났저.

104010 @ 어떻 발로 차불언?

104010 # 아니, 췌가 영 보난 밤이 뉘둡서 들으난. 저 하르방 간세로 아이 나가. 경허난이 막 췌 장식 소리나난 가보난 송애기 나젠 허는디 췌가 그냥 이 뿔에 이제 베 걸리고 췌가 오몽을 못헙시난이 석 클러노난 췌 확 일언사난 난 저 사료통에 탁 받안. 경행 가심 폐불엇세.

104010 @ 뿔에?

104010 # 아니, 아니, 그 사료통. 물주는 통에.

104010 @ 그디 부딪친 거?

104010 # 부딪천. 게 이디 폐부난 병원에 오래 탕겨난. 가심 아판. 겨고 그 췌 많이 허는 사름덜은 밤이 줌 못 자, 것도.

104010 @ 무사?

104010 # 송애기 나카부덴, 기다려야 돼여. 날 시가 돼민.

104010 @ 뭘 해줘야 돼여?

104010 # 아니, 그냥 나도 봐야주게. 즘싱이 흐엇이 헤지느냐게. 잘못돼민 애미 조꼳더레 송애기 앓아봐주고 게사 할라사 돼여. 췌가 곧 나민 할라. 애미가 할라줘. 요새는 발전해 가지고 곧 낭 어디레 아저가도 송애기가 어떻 안헌덴 허주만은 사름 덜이 관틸 헤 가지고. 사름손으로도 다까주고. 건디 옛날은 경 안헤여. 췌가 이제 다까줘. 게민 다끄민 췌가 오들렁이 일어나. 경허주게. 경 우리도 췌 저디 멘 때게 그추룩 허영. 암췌 세 개도 매고 두 개도 매영 송애기 나민 풀양 씨고, 그거주게. 저디 살 땐 췌 흐 일고으담ㄱ장 허단 것도 귀찮연 설러불고 아이덜 옥아가고 허난 시에 매날 흑교허는 디 멧기고 저르 엇영 못허여.

말 기르기

104011 @ 말도 키와났수가?

104011 # 물은 저 하르방은 두린 때 막 하영 킵단 스삼사건에 몬딱 일러떡언 그루후젠 안 키우고.

104012 @ 말도 색깔에 이름이 다릅니까?

104012 # 물도 그거.

104012 @ 무신 가라말 이런 거 이수께.

104012 # 가라말은이 건 거무룽, 스뭇 검도 안허고 회도 안 현 거. 가라말이엔 현 거 꺫사 식송애기ㄴ추룩 물도 그런 색이 이서. 경허고 또 노린 건 적다물이고, 또로 이제 흰 건 백매, 또로저 회도 아녀곡 검도 아년 건 누룩총이엔 허영.

104012 @ 누룩총?

104012 # 누룩총이엔도 현 건 좋은 물이라. 색깔 좋은 거. 또로이 얼룩빼기ㄴ란 월라물. 노린 건 적다물.

104012 @ 청총마는?

104012 # 청총이가 그거라 꺫사 나 곁은 거. 청총이.

104012 @ 청총이가 뭐라고?

104012 # 청총이가 일등일 거라. 일청총 일가라. 일청총 이가라. 게도 가라말이 이등에 가나실 걸.

104012 @ 검은 말은, 검은 말이 가라말 아니?

104012 # 가라말이 스뭇 검도 안년 거. 물은 막 검영현 물이 엇어. 가라말이 그 걸 걸.

104012 @ 가라말도 있고, ㄴ라말도 있는 거 아니?

104012 # ㄴ라말은 엇고.

104012 @ 고라말은 엇고?

104012 # 하엿튼 일청총 이가라 삼 미시것고. 것도 잊어불언. 적다물은 노린 거. 적다물이 쥬 색이 좋아, 물에서. 흰 건 백매. 꺫사 그 일청총은 아주 좋은 거라이, 회도 안허고 회색, 회색. 회색이 일청총, 것이. 경해근앵이 네 가지. 월라물ㄴ장허민 다섯가진가? 경 쥬 거여. 월라물은 얼룩백이게. 또 물도 태성백이 잇주.

104012 @ 아 물도 이수과?

104012 # 응, 물도 태성백이.

104012 @ 간전인 뭐파?

104012 # 간전인 스뭇 월라도 아니고 이 얼굴만 현 거ㄴ라 간전이엔 험실거라. 이디만 현 건 태성백이고. 물에도 이름이 하.

104012 @ 천상부리 이런 것도 이수과?

104012 # 안 들어난다.

104012 @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이신가? 색깔 말고. 등이 곁은 말 이런 거.

104012 # 아 등 굽은 거, 물 흐쓸 고부랭이엔 헤나실 거라. 물도 흐끔 등어리 튀어나고 고부룻헌 말이 이서.

104013 @ 말은 뭐헐 때 사용헙니까?

104013 # 물은 스용허는 게 벨로 엇어. 이 구루마나 끗곡 헛주 밧도 아니 갈고. 키와근앵이 푼는 거.

104013 @ 누게가 사?

104013 # 물 사가는 사름이 이서, 것도. 그때도이 물이 좋아근앵이 이제 물 타 근앵이 막 허민 막 좋은 물로 나가.

104013 @ 사람이 타려고?

104013 # 응 타는 물이 얼마나 값 가나시게?

104013 @ 경마장에 쓰는 거 아니고?

104013 # 아니 옛날은 가정마다 타는 말도 흐나씩 잇나. 우리 아버지네도 타는 물 이서났저.

104013 @ 아, 차 엇이난.

104013 # 어디 갈 때는 탕 덩겨. 안장 탁 지우곡 허영 자갈헿 물렁 그 방울 이서. 동골동골 허는 그 물 소굴레에. 경허민 물방울 달랑달랑.

104013 @ 무신 굴레?

104013 # 물소굴레. 영 물려근앵 이젠 영 물 타둡서 영 이경 이제도 선게. 물소 굴레, 소굴레 물렁 겨곡 방울 들렁 달랑달랑 헤가민. 물안장 지왕 탁허게 타근에. 새서방 새각시 갈 때도 새서방도 탕 가곡 우시도 탕 가곡. 타는 물 이넉 거 엇이민 늻의 거 빌어당 탕 가. 먼 디나 갈 때 물이 셔야 웨여. 우시 가는 사름도 다 탕 가고.

104013 @ 물은 주로 이동헐 때 차 대신 쓰는 거구나예? 쉼는 밧디 일허는 거고.

104013 # 밧디 일허는 거고. 물도 또 타는 물도 아무집이나 엇어. 물테우는 집 이도 흐나 ㄹ리청 타는 물. 밧 불릴 때도 그 물 타근앵이 소리허멍 물 탕 불려.

104013 @ 아 밧 불릴 때도 말로?

104013 # 물 탕 흐 사름 몰아.

104013 @ 밧 불리는 건 쉼는 안허고 물이 허여?

104013 # 물만 헤여. 아명도 못헿 쉼도 불리주만은 물로. 물테 막 하영 헤연게 스몯. 우리 하르방넨 어린 때 물테우리 헤난. 스삼사건 때문에 물테도 다 일러먹고.

104014 @ 말도 나이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까?

104014 # 아, 물은 뭐 삼수 스수허지 안허여. 몽생이.

104014 @ 한살은 금승?

104014 # 응, 금싱, 이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 영 허지. 쉼영 ㄹ 따.

104014 @ 구수엔도 헙니까?

104014 # 막 늙은 물. 물은 이제 게도 물이 오래 산텐 허여. 물 서른, 췌 스물. 옛날 말이 경 곱아. 그깟장 산텐 헤도 그깟장 살지 아녀.

104015 @ 말 키우면서 기억나는 일 엇수과?

104015 # 기억나는 거 엇어.

104015 @ 물 탕당 털어져 나진 안헤낫수과?

104015 # 물 탕당 털어지민 허리 상허영 들러키민 그냥 털어정 큰일 나주게.

104015 @ 할머니가 경헤 본 적은 엇고?

104015 # 엇고. 우리 하르방 물 잘 타. 물 심기도 일등으로 허단에 물 엇어부난 안허여. 경헤도 췌도 잘 걸리고 헤난.

104015 @ 물이 비싸? 췌가 비싸?

104015 # 췌가 비싸. 밧도 갈곡 췌는 고기용으로 사름덜이 췌고기 이제 제숙도 씨고 경허니까 비싸고 물고기는 제숙을 안 쓰주게. 요새에는 이 물고기도 주로 먹 업신디 먹어서 그 하영 소비를 시키는 디 옛날은 물코기 경 먹지 안허여. 안 먹어. 요새엔 게고 굴리지도 안헿 허는디 유월절 들고 칠월에는 물코기 안 먹어.

104015 @ 아, 여름에는 말고기 안 먹어?

104015 # 안 먹어, 옛날은.

104015 @ 무사 안 먹어?

104015 # 좋지 안헌덴. 유월절이 들면은 이제 칠월절 들면은이 물코기 안 먹어. 옛날 경 곱아난. 요새 굴리지 아녀. 구시월은 나면은 먹어도 췌찬여덴. 구시월에 물 췌기는 맛도 좋덴, 경 구시월 물췌기 이렇게 곱아나고. 건디 칠월 이제 칩이 췌 피 여이. 췌 알아져?

104015 @ 예, 췌.

104015 # 칩고장 피민 물췌기 안 먹넨 헤낫어.

104015 @ 칩고장 피민 물췌기 안 먹는 거라.

104015 # 옛날은.

104015 @ 예.

104015 # 요새엔 뭘 원료덜 좋니까 먹어도 어떻 안헿신테주만은.

104015 @ 췌고장?

104015 # 췌고장. 피주게 막 벌정게, 칠월 나민.

떡이

104017 @ 출 장만 헤난 거 곱아줍서.

104017 # 출 장만허는 거? 출 비영게 물류양 무경근에 비오민 막 즈들아. 물류 지 못허니까. 과랑케시리 물류아사 소도 잘 먹고 침 기분 좋게 헤당 늘엇당 비 오 민 안뵈. 비왕 췌이민 안뵈.

104017 @ 비영 와야 뵈 거 아녀?

104017 # 비어낱 물리왕 무경 구루마로 시꺼들영 우리 산 후제는 구루마로 하

영 시껏주게. 옛날은 질메로 시껏주만은. 경허단 경운기.

104018 @ 출은 비젠 허민 놉도 빌어살 거 아니?

104018 # 사름덜 빌영 강. 그거는 구좌면, 이 손당 그 낫질을 잘허는디 선홀은 낫질허는 이도 벨로 엇어.

104018 @ 그디 사름덜 빌어당 허여?

104018 # 그디 사름도 빌어당 허고. 호미로 비어, 호미로.

104018 @ 큰 낫도 잇던데.

104018 # 돌멩이 셔부난 게, 돌멩이 하불민 못허여. 건 돌 엇인디라사. 걸러가지고 못허여. 호미로가 하영 비어.

104018 @ 호미로가 하영 비어.

104018 # 놉 빌어근에 출 비레 가민이 옛날은 아침 인척 이젠 조반허영 '왕 초반덜 먹읍서' 헤영 이젠 가. 이제 점심 이젠 지영 강 저녁도 오랑 먹어사 웨여. 저녁 낫장 맥여.

104018 @ 밥헝 맥이는 게 힘들켜예?

104018 # 중간은 웨가난 저녁은 아이 먹어고. 저녁은 집이 간 먹언. 우리도 저녁 낫장도 맥여난. 인척 느려오랑 저녁헝사 웨어. 아척이 조반 세백이 밤이 허영 조반 먹영 강 점심허영 지영 강.

104018 @ 아이고 침.

104018 # 경헌디 어른덜이 불쌍허주게. 요새 ㄴ치 무신 간식 먹을 게 시냐게? 간식도 엇고. 경허민 막 멍심헌 사름은이 집이서 떡허여, 상웨떡. 쉰다리 헤 낫당 떡쾌왕 헝 가민 막 고맙덴 잘 먹어. 나도 멧 번 경 헝난. 보리밥 먹으면 배고프주게, 배고파.

104018 @ 반찬은 무신 거 헝 가?

104018 # 반찬은 웅장에 마농지시. 미신 퀘기 헤 봤자 무신 멧 번 퀘 먹어져게, 고등어나 자리나 상 소금 헝당 아정 강 구웁 먹긴 먹주만은 그걸로 대질 못허여. 요새 ㄴ찌 웨지고기? 그디 무판도 엇고 옛날은 흙치 엇어. 이 동네에 잇다근앵이 비나 오민 누게네 집이 도새기가 크면은 잡양 갈라 먹게 헤영 그런 때 이제 흙뽕 갈랑덜 먹고 제숙 씨고 그렇게 헝지. 무판 엇어부난 퀘기도 못 갈랑 먹고, 쟁 기자. 마농지시기 이체도 좋주만은 좋아. 건디 옛날은 장물에만 그 마농지시를 헤도 그렇게 맛이 좋양이 난 지실헤도 벤허질 안허게 헤났어. 그거 헝 아정 가민 그자 물에 줍양 그 보리밥에 물재미엔 허멍덜 마농지시에 그 물에 줍으멍 밥도 잘 먹어. 그득허게 오가리에 헤영 담앗당. 팔뿔들에도 꼬딱 안허여. 새지시 나도록도 벤허지 안허여. 경헝난디 요새엔 하간 거 놓양 헤 놓민 벤허여. 맛도 엇고. 우리집이 오민 마농지시에 장 맛종덴 허여.

104018 @ 출 무끄젠 허민 줄도.

104018 # 깨.

104018 @ 건 뿔로 만듭니까?

104018 # 새로, 새로. 새허영 출 무끄젠 허민 밤이 새 비영왕 밤이 깨 테와야
돼여. 테왕 이제 혼 짐 지영 올라가. 가정가민 빨리 헤지주게. 붓베기 테우명 무끄
젠 허민 오래고.

104018 @ 무신거 테우명?

104018 # 꿰 붓베기 테우명 혼 못씩 허젠 허민 오래고.

104018 @ 붓베기가 뭐?

104018 # 게 바르 그 켈 테왕 혼 못 무경 또 테왕 무꺼. 시간이 오래니까 꿰를
미릇 테왕 지영 강 무껏주게. 일 출림으로.

104018 @ 예.

104018 # 날이 막 좋아 가지고 출을 이제 멧 사름 빌영강 이젠 오늘 비왕 날은
날 좋앗당 모리 무끄는 날 비가 와불지 아녀? 게민 출이 젓주게. 이 하르방은 비온
디 출비엇다가 육만. 역부로 경 비어서?

104018 @ 게난 비 올 줄 알아서예?

104018 # 경허민 동넷 사름덜은 저집이 출 젓언 싸왓저, 싸왓저.

104018 @ 비어근에 놔뒀당.

104018 # 삼일에 무꺼야 돼여.

104018 @ 그사이에 비와불민 어떻허여?

104018 # 게난 게난 젓이민 싸왓주게. 이 하르방은 그자 막 못헐 말 경 잘허주
게, 난 더 답답헐 허는다.

104018 @ 널영 말린 다음에 무끄는 거?

104018 # 응, 비 게민 들류왕. 게민 색이 좋지 못허여. 쉼도 잘 안 먹고. 비가
안 오랑 혼 열흘 날이 좋으민 출이 막 잘해져.

104019 # 이디 놀도 막 그냥 오름만이 놀어.

104019 @ 집이?

104019 # 응, 이디 시꺼당.

104019 @ 쉼로 시꺼당?

104019 # 응 우리 살 때 마차로 시꺼당. 쉼 질멘 설러불어세. 옛날은 쉼질메로.

104020 @ 출 말고 다른 건 안 맥입니까?

104020 # 다른 거가 어디 셔게? 조낭대기, 콩낭대기 다 맥여.

104020 @ 조낭대기, 콩낭대기?

104020 # 콩대도 잘 먹고, 어디 셔게 그게게. 이 또 이철 이젠 나가난 목초, 목
초 갈안 맥염셰게.

104020 @ 이제야 경허주만은 옛날은.

104020 # 옛날엔 게 제대로 자연으로 난 거. 밧디 난 거 해마다 비어. 그런 출
왓이 그런 밧이 이서. 이젠 그런 밧도 값만 잘 가고 뭇 험주만은. 옛날 그 출만 비
어난 밧. 막 이기명 용서도 비료시절이난 잘 뒹고 그땐 뒹도 안허고 출이나 비영
쉼나 질름베끼.

104021 @ 출 하나민 몸에 막 뭐 나고 굵히고.

104021 # 허고 말고게, 굵히꼭게. 요새 ㄴ찌 풀띠가 시냐, 장갑이 시냐? 우린 장갑도 아이 쩡 비어난, 그시절에. 장갑도 나건디 오래지 안혀서. 풀띠 나건디도 오래지 안현. 이제서뭘 풀띠여 뭐 장갑이여 뭐 또 양말도 저을에나 신주. 어디 경 나왔디 신영 텅길 양말은 셔? 아이고 아이고.

104021 @ 출은 언제 장만허는 거마씨?

104021 # 칠월 그물어가민 팔월덜. 겐디 요새에는 목초논이 오월들에도 비꼭 거꼭 기계로만 비엄주, 이젯 사름덜은. 쉼 허는 사람. 기계로 허영 비니루로 툃툃 싸불민 걱정도 엇어, 비 맞을 걱정도. 목초도 비영 날이 좋아사허여, 목초도. 날우치면 안뵈. 목초도게 물리와사 무경 헐 거난 비어낱 것도 무꺼.

104021 @ 것도 수놓영 출 비어?

104021 # 옛날엔 수놓영도 허주게. 출 허는 사름덜.

104021 @ 뚝 빌민 집이서 재우멍 허여?

104021 # 어디 외방사름덜이나 빌어오민게. 외방사름덜 차 엇어부난 걸영 가꼭 걸영 와져게? 버스 이 선홀 버스 놓건디도 오래지 안혀서. 옛날은 함덕서도 걸영 올라왕 일 해주꼭, 걸영.

104021 @ 걸영 오젠 허민 멧 시간 걸릴 건디.

104021 # 겨난 새백이 일어난 왓주게. 경 왕 조반 먹영 또 밧디 들앙 가고. 우리도 경해난. 우리 친정어머니 함덕 사난 뚝 빌영 보내여. 비왓직 헨디 뚝 오민 저하르방은 또 비왓직 헨디 뚝 보넛젠 욱을 허기를 그냥.

104021 @ 날도 잘 봐근에 뚝도 빌고 출도 빌어사켜예?

104021 # 쟁해사주게. 겨주만은 경 맞화져게? 당허는냥 비영 날 좋민 좋은 거, 비 오민 오는 거, 그렇게 해야주 경 날 보멍 못헨다게. 게 당허는냥 헛당 어떤 뻤소망 일민 날 좋앙 출 잘 허꼭 경안허민 적져놓민게 욱들꼭.

104021 @ 할머니가 잘못해서?

104021 # 게도 나 탓으로 헨다.

뺨감

104022 @ 지들커도 옛날에 허젠 허민 힘들어 낫주예?

104022 # 응, 지들커도 출광ㄴ치 비영 검질 혼 놀 놀엇당 이제 그 검질 헤사 확확 성냥 헤영 불쏘시개라고 검질로만 주로 못 때주게. 낭 해당 낫당.

104022 @ 낭 허레 가근에,

104022 # 낭 허레 강 이 선홀고지 가근에 낭헤여근에 지어들영 낭 쳐 데며, 뺨감을. 경해사 이제 밥을 행 먹주게. 굴묵도 때고.

104022 @ 지들커는 낭도 있고 또.

104022 # 검질도.

104022 @ 검질은 밧디 거?

104022 # 밧디 거게. 출비듯 비영, 또 췌 아이 먹어 그 검질로 허는 거.
 104022 @ 밧디 검질?
 104022 # 응, 드르에 검질. 췌는 이 고사리 서꺼진 거 잘 아이 먹주게, 너무 뤼 허영. 이 췌 맥이젠 비는 건 새도 줌지롱 헨 것에 자굴 알아져?
 104022 @ 예.
 104022 # 거 서꺼진 거 비영 맥여. 췌 맥이는 거. 자굴출이엔 허영. 또 줌지롱헨 복삭해사 췌도 먹주게, 암만해도. 과랑케 해서.
 104023 @ 췌똥 말똥도.
 104023 # 굴묵 떼어.
 104023 @ 좃으레 땡겨낫지예?
 104023 # 좃으레 다니고 말고. 가맹이 정 강 거 좃어당, 맥 정 강. 좃어당 굴묵 즈끄되 데며두서 담아낱 굴묵 짓는 거.
 104023 @ 췌똥 말똥이 잘 붙어 붙어?
 104023 # 응 잘 부트곡 구들 더워 거 지드민. ㄹ시락 데멧당 굴묵 떼고.
 104022 @ ㄹ시락도 있고, 췌똥, 말똥도 있고, 검질, 낭도 잇고예?
 104022 # 그것이 제주인덜 살아가는 것이랏주뵤 어디라도. 이 선홀은 게도 낭 허영 곳 ㅂ디난 현디 해변은 ㄹ시락 막이 주로 헤똥서 허주. ㄹ시락을 큰 거시기로 허여. 그디 데며똥서, 비 아이 맞게.
 104022 @ ㄹ시락 막?
 104022 # 응 게 ㄹ시락, 집 소굽에 데며똥사 굴묵 땡 거난.
 104022 @ 그게 ㄹ시락 막이라?
 104022 # 응. 어느 부제칩도 다 그렇게 살았어, 벨집도. 초가집이라도 집은 침 청소허민 깨끗허여, 마리영. 우리도 옛날 집도 좋아낫저만은, 초가집이라도. 마리 낱. 마리 다끄민.
 104025 @ 나무 어떻 허여?
 104025 # 어떻허여. 낭 그차근에.
 104025 @ 아무낭이나 그차도 똤여? 똤엔 허지 안허여?
 104025 # 똤엔 헨 ㄹ린 또 선홀곳 지커렌 허연 우리도 늘 낭 그치지 못허게. 경 허민 삭은 낭만 봉가오지, 삭은 낭, 질로 죽어진 거. 그런 것 만. 어떤 땡 방에 부똥 불민 불 부똥디 강 헤어오고.
 104025 @ 불 부똥디 강?
 104025 # 응, 옛날은 방이라고 불 부똥다게, 곳 바위에.
 104025 @ 불 부똥나민 그 낭.
 104025 # 삭은 거 좃어오는 거.
 104025 @ 도끼 같은 건 필요엇어?
 104025 # 장호미, 나대엔도 허고. 서촌선 것 ㄹ라 나대엔 허더라.
 104025 @ 이디선 똤라?

104025 # 장호미.
 104025 @ 장호미는 어떤 거, 긴 호미?
 104025 # 장호미 딱딱 찍는 거, 호미 말앙. 장호미가 잇어, 낭허는 장호미. 딱딱 찍엉.
 104025 @ 낭 허는 장호미.
 104025 # 장호미그라이 서촌 사름덜은 나대엔 허메. 이디 완에 ‘나대 줍서, 나대 줍서’ 허난 몰란. 겨난 장호미그라 경 곶아고.
 104025 @ 나대를 장호미엔 곤는구나예? 낭 험 때 쓰는 거.
 104025 # 낭 험 때 쓰는 거. 과수원 밧디도 장호미 느랑 써. 삭은 것도 그창 데 꺼붙고. 이젠 그 켜즌험 톱, 기술이 종안 톱덜 나고 허난이 허기 좋아, 이젠. 옛날은 그 톱도 엇어. 그런 조그만 톱도. 그런 거 시민 지들커 허레 간 때도 속속 허영 좋 주만은 그런 톱도 엇엉 큰 톱덜, 남즈 어른덜은 큰 톱 아정 강 허메.
 104025 @ 장호민 어떤 건고?
 104025 # 나대게, 나댄 몽콜락헌 장호미주게. 녁작허영 장호미가.
 104024 @ 솔잎도 어떻 좃엉 와?
 104024 # 솔잎은 게 강 골갱이로 박박 걸엉 지아전 왓주, 어떻 좃곡 대곡 험 게 시냐게?
 104024 @ 골갱이로 박박 굵으민 다 털어져불지 안해?
 104024 # 아니 그냥 안아당 농곡, 또 굵갱이가 셔. 굵갱이로 박박 굵어오곡. 우 런 솔잎도 험험이 안 걸어난. 검질이영 낭이영 해당 때어.
 104024 @ 솔잎은 잘 영영 가져오젠 허민.
 104024 # 보달청 지영덜 땡겨. 무꺼.
 104024 @ 보달 치는 건 어떻 허는 거?
 104024 # 그건이 이제 영 조금씩 허지 아니허영 크게, 크게 영허영 가맹이만이 무꺼근에 험 것그라 보달쳐젠 허고. 험 짐 저와 그걸로 험 못 무껍.
 104024 @ 보달치민 안 털어져?
 104024 # 응, 이젠 영 이제 끈 양쪽에 놓고 또 이젠 낭이나 무시거 해당 영 세 을지 안허게 톱톱 뉘낭 그레 이제 막 앓다당 쉼영 것도 무껍 지영 땡겨. 험 보달, 두 보달 허멍.
 104024 @ 험 짐이 험 보달이파?
 104024 # 거 크게 허민 험 짐 지고, 족게 허민 두 짐, 두 보달 헤영 두 못 지고.
 104024 @ 보달이 족으민 두 보달험 험 짐 지고. 크민 하나만 지고.
 104024 # 하나만 지고. 경헤났어. 것도 육지사름덜이 오랑이 검질빌층 몰라부난 주로 헤났어, 이 선흠은. 켄디 이 선흠 사름덜도 그루후젠 막 하영 허여.
 104024 @ 솔잎 좃으레?
 104024 # 땡감게. 불 숨기 좋아, 거. 불 숨기 막 좋주게.
 104026 @ 옛날에 솟도 헤났수과?

104026 # 솟? 허주게. 솟 아이 물어난. 우리 아버지네 시절에 솟 물어 막 고생 해난. 돈 날 게 엇어부난 고지 가근에 솟 묻영 풀주게, 풀아, 것도.

104026 @ 솟은 어떻 묻으는 거파?

104026 # 솟은이 놀냥을 이젠 막 그차. 그차근앵이 요만씩 그창 거 이 솟 구텅이, 솟 물을터레 다 옮겨다 놓고 이젠 땅 파근앵이 이만이 널르게 허여근에 이제 냥을 조근조근 이추룩 해냥 다 세와. 굴뚝 내왕 영 이제 초담 이추룩 영 삼각구로 영 냥 그딘 굴뚝 날 거 아이가? 거 돌아가멍 뱅뱅 이제 냥을 췌여, 세여, 냥을. 췌여 냥 이젠 그 우터레 이젠 돌로 영 다우멍 흑을 막 씨와. 이 짐 아이 나게. 게 이제 굴뚝으로만 불 살르민 그.

104026 @ 굴뚝?

104026 # 그 일로, 그 도 내운 딜로. 경행 불 때민 이젠 막 그 냥에 불이 돌아 정 와랑와랑 허민 그 돌 탁 막는 거라. 경허민 그 안에서 그 냥이 다 카.

104026 @ 불 꺼져불지 안해?

104026 # 아이 꺼져. 코 흐뎡 냉겨. 경허당 그 냥이 거자 삭아질 만 허민 도 강 탁 막으민 숨 겨우쨍 그 안에서 불이 다 꺼져. 경허민 헤쌍 보민 솟 뒤여.

104026 @ 숨 겨우쨍 건 뭐?

104026 # 숨 겨우쨍. 그 불이 꺼지젠 허민 통화가 못뒤면 숨 겨우쨍 불이 꺼져.

104026 @ 그 다음엔?

104026 # 그 다음엔 헤싸근에 솟을 이제 담주게, 담아.

104026 @ 안 뜨거워?

104026 # 게 불이 다 꺼져사게. 꺼져. 이제 메칠 뒤민 그게 다 꺼졌다 허민 경 강 헤쓰민 어떤 땐 불 살민 솟이 아이 뒤여. 불 살민 그 속에서, 불이 다 꺼정 솟이 잘 뒤면 이제 폼도 허곡 솟이 만허곡 존 디. 그 불이 아이 꺼정 혼 꼬텅이에라도 불이 살면은 막 삭아져부는 거라, 막 강. 경허민 솟이 잘 안뒤주게. 안뒤민 다 보시 레기 뒤어불어, 안뒤민.

104027 @ 할머니넨 안 해 보고?

104027 # 나가 안 현 거주. 허는 거 봤주. 우리 어린 때가 주로 헛주. 그 솟 헤 영 풀고. 우리 아버지네 시절에 그 솟 물어근에 왕 솟 사례 또, 플레 오는 사름도 잇고 경해난.

104027 @ 이디서 어디 조천장에 강 폼니까?

104027 # 지영 강도 풀고, 짐녕 지영 강 풀고. 또 막 하영 사례 오는 사름도 잇고. 시에 강 풀젠 하영 사. 가메에도 상강 풀아. 냉경 장스로. 경허는 사름도 잇고, 경허는 거.

104027 @ 솟은 흐뎡만 만져도 시커멍 헤븤니까?

104027 # 경허주게, 경헌디 그 스삼사건 후에 저 산고지 간에 이젠 솟을 묻엇 주. 묻으난 허가 잘 아이 마탓젠. 우리 친정아버지가 솟을 묻언. 헌디 그 나쁜 놈덜 이 산림 간수노렌 허멍 이젠 심엇젠 허영 솟도 몬 강제로 빼 가불언. 겐 우리아버

지가 흐뎡 늬의 거 삼도 허고 영 흐뎡 장스도 허젠 숲 간 묻고 허연에 쉰 가맹이민 아메도 이제 ㄱ뜨민 인력이 거자 침 쉰 사름 들엇젠 헤도 과언이 아니라이. 경헌 곁 헤단 놔두난 산림간순가 어떤 늬이 잡헛젠 허연에 데며난 거 오꽃 밤이 실러 가불 옳어. 그 도둑늬이, 거 도둑늬이주게. 이제 ㄱ치 법이 몹지 못헌 때주게. 허갈 아이 마타서 걸리게 돼면 사름을 괴롭히고 경허지 말렌 허는 문답을 허주 그 숲ㄱ장 차 압허진 안허지게. 건디 그때는 무법천지 법이 옳은 때라, 스삼사건때. 우리 친정아 버지는 옛날 글만 허고 침 좋게 살아난 어른인디 이제 돈 날 것도 옳고 허난 산고 지 간 숲을 묻은 거라. 묻고 늬의 거 사 놓고 헤연 이제 허난에 고발헌 늬이 허난 산림간순가 어떤 늬이 쟁히고렌 헨 빼가불언.

104027 @ 아이고.

104027 # 얼마나 억울헤시? 우리 아버지 돌아가불엇주만은 헤난 일을 생각 허민. 이제 그때 쫄이 옳어나세, 곤쫄이 옳어. 보리밥 조팝 아버지네 먹어난 생각허민 막 억울허고.

104027 @ 그때야 늬도 다 경헤낫주 무신.

104027 # 늬도 다 경헤낫주만은 침 우리 친정에 경 못살도 안허연 잘 살아낫젠 현다만은 막이 스삼사건, 제국시절로 망헨 이상헌 시대를 살아낫주게. 경헤부난 막 억울헤여. 오래도 아이 살안 우리 아버지 쉰 아흠에 돌아가불고.

사냥

104028 @ 이디 사냥 같은 거 헤 낫수과?

104028 # 우린 안헤여. 저 하르방도 헐충 몰르고 우린 득도 하나 못 잡아.

104029 @ 아니 꿩 코 놓고 이런 것도 안헤반?

104029 # 그런 것도 안헤, 절대 안헤. 꿩 심도 못헤, 하르방.

104029 @ 동넛 사름덜 허는 건 봐낫지예?

104029 # 저 옆집이 하르방 잘허여.

104029 @ 무신 사냥 많이 헤낫수과?

104029 # 그 하르방 아방이 노리 사냥 잘 헤낫어. 개 들앙 땡기명 노리 심어와. 경헨 잠앙 먹곡. 이 하르방ㄱ장도 꿩코 ㄱ뜨민 건 일반내기로 잘헤난, 잘헤난 하르방 이라.

104029 @ 꿩코는 많이 헤낫지예?

104029 # 허는 사름은 허여. 그 코에 들민 헤당 잡앙 먹엄젠 허고. 우리 밧디 가근에 꿩코 놔시민 우리 아이 먹어. 늬 ㄱ라 아져가렌. 아이 먹어, 아이 먹어. 잡도 못허고 못먹어. 우리 큰 아덜이, 이젠 유월 스무날 득 잡앙 먹주게. 동네에 이젠 빙 애길 깨완에 득 흥 마리썩 다 사가렌 허난 그 집이서 잡아주켄 허민 하나 사오켄 허연 잡아주난 하나 사단 먹어난. 그디 득 임제가. 우리 아이덜토 못헤여, 아이덜토, 우리 아덜덜토 못헤여.

6. 의생활

106001 @ 옛날 어떤 옷 입어났수과?

106001 # 그때게 요새 ㄴ치 옷이 널어지지 안허난게 감옷허영 밧디, 주로 감옷.

106001 @ 베로 옷 멘들양 입읍니까?

106001 # 베옷이 주로 입주게, 여름엔. 갈중인 밧디, 집이선게 그때도 기지가 잇주게 뭐 하간 요라거 기지. 기지 이름을 알아지크라? 밧된 갈중일 주로 입어. 미녕도 이제 광목이영 잘 다듬아가지고 집이서 입는 옷은 헤영허게 허영 입고 경헤났어. 기지가 요새 ㄴ치 널어지지 아니허난.

106002 @ 멩지는 어떻 허는 거파.

106002 # 멩지는 우린 건 모르주만은 누에 질좌근에 그 누에로 이 멩지올 뻘뎨 허주게. 이디선 아니헤난. 멩지 바파당 허주.

106008 @ 감옷은 무신 천으로 허는 거파?

106008 # 미녕.

106008 @ 집이서 짜낫수과?

106008 # 이딘 못 짜고이 저 욱지서 들어오주게, 그 미녕도. 경헌디 남군에선 그 미녕 짜. 그 어디 저 안덕면은 목화 많이 갈지 안허여? 그디서가. 이딘 잘 안 갈아. 제국 때엔 막 그 법에서가 멘네 갈렌 헤부난 갈아난. 갈안 이제 바껴서. 공출. 공출 바껴, 감저 썰영 공출 바껴. 돌루왕, 감저빼떼기. 허여근에 바찌젠 허영 활당 맥영이 막 얼떡어났어. 일본 시상에 경헤났저.

106012 @ 멘네는 어떻 허는 거마씨?

106012 # 씨로 갈양 갈아근에 그거 이제 쫓 피어근에 열매 열민 그것이 피어가 민 타주게.

106012 @ 실은 어떻 멘들어?

106012 # 실은 저 선홀에선 실 아이 빠. 안덕면 그 미녕짜는 디선 실도 빠. 이디선 아니허여.

106022 @ 바느질 도구는 뭐가 십니까?

106022 # 실허고 바농 베끼 무신. ㄴ새

106022 @ 그런거 모아두는 건?

106022 # 바농상지, 바농상지 이거 이불칩이 풀암네.

106022 @ 옷 만들젠 허민 옷 모양 대로 짜를 거 아니파?

106022 #옷볼, 볼, 보선볼도 잇고 옷볼도 셔. 서툰 사름은. 이젠 그것도 안 난 헤라만은 옛날은 저고리도 허젠허민 저고리 모양헌 게 이서. 놉근에 들좌. 기지 놓고 들좌. 보선볼도 영 모양 낱 들르고.

106022 @ 골무도 깎니까?

106022 # 손잡떼기, 골미. 골미 찌영 허고. 그거 ㄴ쁜 거, ㄴ쁜 거. 이디 손가락

영 허영 바농질 하영 허는 사름은 요기 아파이. 게민 골미 끼영 허여.

106022 @ 바농은 어디 찢렁 놔둬니까?

106022 # 바농쌈, 바농상지에 그거 이젠 돌아매 가지고 옛날 바농질을 두루 헐 때는 바농 찢러 그것드레. 바농쌈드레.

106023 @ 바느질 방법은?

106023 # 폭 부찌근에 이것이 천이 이젠 영 요만씩 헌 건디 으라폭을 헤사 너 블 거 아니라게. 미녕도 요 너비베끼 안 웨여이. 경허민 두폭을 헤사 뭐 바지나 뉘 헐 거 아니라게.

박음질은 뒷바농질 허는 거. 이제 우리가 호와 갈 땐 앞으로만 호와 가거든. 그런 디 이제 뒷바농질 박쟁 허민 호와 낱 혼 번 따로 허여가민 쭈루루 허게 박아지주 게. 겨민 든든행 좋주게.

106023 @ 끝에 풀리지 말게 하는 바느질은?

106023 # 모작 지우는 거? 일로 헤여 갈 때 빠지지 안허게 모작을 지왕 쪽 헤 가당 뉘민 또로 모작을 영 지와서 헐 거 아니가게.

106024 @남자옷은 어떤 거 이수과?

106024 # 저고리, 바지, 갈중인 갈적삼, 갈중이. 중이 적삼 후루메, 두루마기.

106024 @ 후루메는 뭐?

106024 # 두루마기 몰라? 것ㄴ라 후루메.

106024 @ 시제나 묘제 때 예복으로 입는 겂옷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06024 # 도폭, 도폭이엔 허주. 큰 옷이엔도 허곡. 또 이 호상도 도폭도 허는 디 도 잇곡 후루메만 허는 디도 잇곡. 후루메 입영 도폭 입어. 우리도 이제 호상도 장 옷, 장옷은 여자 거,

106024 @ 남자 대님은?

106024 # 다림, 다림. 다림치어. 여자 건 디 호상에 들어가는 거. 갈 때게 호상 어샤게. 수의엔 헤라, 요새.

106025 @ 옛날 여자들이 나들이 때 얼굴을 가리려고 쓰던 옷을 뭐렌 험니까?

106025 # 그건 이 조선 왕조 때, 우리 법은 엇어. 이 민간엔 없어. 결혼헐 때 거 입어. 우리세대ㄴ장 입어난. 한복 입영 우이 장옷 입어. 족두리 써난 난.

106025 @ 소꿉에 뭐 입읍니까?

106025 # 소꿉에 옷 곳추지. 속에는이 저고리 속에 속적삼 다 입어. 밑에도 속 바지가 두 개지. 안에 속곳, 속곳이엔 허영이 이제 그 이젠 뺄스덜 나오난 험주이 속곳이 좋아. 우리 입어난. 속곳이라고 헤서 미녕으로 이제 헤서 그 영 뺄스 대신 그거 주로 입엇주.

106027 @ 옷은 집에서 만들영 입어수게?

106027 # 바느질 헤영 잘허는 인 집에서 헤영 입고, 이녁그로. 경안헌 사름은 바느질 허는 디 강 헤오고. 나도 더러 헤난. 건디 우린 그때는 두린 때주게. 우리 어머니네, 우리 할머니네는, 시대에는 그렇게 이녁그로 다 헤영만 입고. 침 우리 시

대에는 그 제국 시절 넘어가고 허난 경헌 옷을 아니 헛어. 미싱허엿주. 이제도 나 미싱 이서도 요새 돌리지도 안허고.

106028 @ 바지 사이는?

106028 # 밀, 바짓밀.

106028 @ 치마의 부분 명칭이 따로 잇수과? 이견 뭐렌 헉니까?

106028 # 건 치멧허리, 곶. 이제 사름덜은 고름, 고름 해도 우린 곶이엔 허주게.

106028 @ 치마 밑에는 뭐라고 합니까?

106028 # 단, 치멧단.

106028 @ 치마 어깨에 내려오지 말라고 한 것은?

106028 # 그건 게 어깨마리, 이디 어깨에, 치마는 다 어깨마리주게. 연날은 허리만 메엿주만은 이젠 다 어깨마리. 경허난 허리치메라고 허리만 허단 이제 어깨마리는 중간에 난 거라. 입기 좋주게, 느리지 안허영.

106028 @ 여자 저고리 명칭은?

106028 # 요건 끝둥, 요건 짓, 이거 너븐 건 짓이고 요건 동전. 이견 이몸이고 이거 저 소미고. 이몸 이것 ㄹ라 저고리 이몸이엔 말허고 저고리에도 이름이 하. 요건 앞섰, 요건 이몸, 짓도 몰라근에. 겨난에 짓, 동전, 앞섰, 요건 소미, 끝둥, 곶, 그 다음. 그거 다 뵈주. 저고리에도 이름이 많거든.

106028 @ 단추도 뵈니까?

106028 # 단추, 모작단추 잇주게. 모작으로 못칭, 끈으로 못춘 거. 모작단추라고. 이 지금도 한복 그 저 관광객들신딘 폴젠허민 모작단추 못취근에 풀주게.

106028 @ 한복 입을 때 신는 건?

106028 # 보선.

106028 @ 보선도 요기 요기 일름이 잇주예?

106028 # 보선코. 보선 이거 혈민 보선볼 반양 신어났어. 주영. 여기가 혈민게 볼반양 신엇주게. 이딘 보선목, 이디 ㄹ라 뒷척이엔 허곡 앞인 보선코, 앞이게 볼반곡게. 보선코, 뒷척이게 그거주게.

106028 @ 현 버전은?

106028 # 질목. 밧디 갈 뎨 질목 신영 가주게. 양말이라도 질목 현 거라도 신어 사주게.

106028 @ 양말이 질목이파, 보선이 질목이파?

106028 # 양말도 기고게, 보선도 기고게, 현거, 밧디 가는 거. 새건 아깝지 안허 여게. 경허난 질목 신영 밧디 가사주. 이거 옛날 말이여, 옛날 말. 우린 두린 때 헤난 말. 이거 양말도 흔허건디가 십년도 안뵈다고, 나가 알건이.

106028 @ 신발도 안 신영 버전만 신영 나가는 거?

106028 # 맨발에 보선창에 감젠 허주게. 보선창에 가민 안뵈지. 보선창에 나갓뎨 허주게. 게 반가운 사름 왕 신 못 신영 보선창에 나감 베끼 헉 수 셔?

106030 @ 빨래는 어디 강 헤납디가?

106030 # 아이고 빨래. 이 선흘엔 물이 어려와. 반뭇이엔 현 물 잇고, 요디 먼물 짝. 이제도 그 부근에 잇어. 먼물깍허고 반뭇. 먼물깍은 선흘곶. 반뭇은 큰 물이라. 저 선흘곶드레 들어가는 디. 그거 허여근에 그디 강 빨래 허곡. 비누도 그 제국 때 해방되기 전인 널어져단 그 고리에는 비누도 없어져낫저게. 그 전엔 이서나고. 뭇로 사 만들앗는지 비누가 이서낫는다 그 제국시절로 스삼사건엔 통화가 막아져 가지고 것도 막 어려와 나고. 우리 두릴 때 헤여난 거 곤는 거주 이거. 우리가 혼 열 멧 설 뒤어가난에 흑교도 못허연 경 막 군인덜 와근에 흑교에 주둔 해불고 허민 못헤연, 공부도 못허엇저게.

106030 @ 빨렌 어떻 험니까?

106030 # 물에 그냥 헤왕, 물에 강 돌광에덜 막, 물 꺾디 광에 강 헛주게. 지어 아저오랑 집이왕 널엇주. 서답뻔 작대기로, 서답바드랭이로 바탕 몰르민 들여사주 게. 옛날 광목 입을 땐 뿔앙 풀헤여근에 방멩이, 그 저 마께가 잇어. 두드리는 거 안반에 다듬이 마께로. 그때도 다듬이엔은 곶아. 쪼끌락헌 마께 두 개로 꺾을 들민 저을에 입을 거 다듬이 허는 딴 많이 허여. 멩지웃 입는 사름이 주로 더 허고. 멩지 웃은이 뿔아근에 다듬으민 새것 닳아. 옛날 비단도 경허고.

106030 @ 다듬인 혼자만 험니까?

106030 # 으라이, 둘이 앓앙 헐 때 재미나주게. 마께 네 개 허영. 경 허는 거 우리 두린 때 잘 봐낫주. 광목도 풀 헤여근에 다듬곡 막 헤야 새것 닳아.

106030 @ 옛날 다리질은 어떻 헤나수과?

106030 # 우리 다리웨 다리웨 헤난디. 옷을 다려. 윤디, 윤디. 윤디판에. 옷 저고 리꺾든 거이 짓 들 때이 그 윤디를 화릿불에 구워가지고 요렇게 윤디 찢러근에 쫓 허게 돌아와야 짓이 톱 잘 부떠. 계난 윤디를 느랑 써낫어. 영헤근에 부져 와근에 곱게 우로 다리지. 옛날은 천도 썩 다리근에 옷 허곡게. 계난 옛날은이 전기가 엇어 부난 숯불 살황 거 다리웨에 담앙.

106031 @ 감옷은 감물 들이민 어떻험니까?

106031 # 감옷 들이민 널엇다근에 발강허민 입곡. 이제 색깔. 그자 헤영헌 거 몰라가민 그대로 뒤어. 오래 입어가민 거멍허주게. 색깔 막 뵈허여. 색깔 발레주게, 이제도 감 들영 발레주게, 뵈디 발레여.

신발

106032 @ 신발은 짚신, 나막신, 창신예?

106032 # 창신은게 우리가 다 안 써는 거.

106033 @ 가족으로 된 신발은 뭇엔 험니까?

106033 # 가족신이 어디셔게. 가족으로 멘들주만은게. 창신은이 무시걸로사 멘 들아신디 것도 높은 사름덜만 신어. 가막창신에 코짹이 보선에 막 그건이 호서허는 사름. 무신 기지로사 헤신디 가족으로 헤신디 어떻사 헤신디 흐꿈 허민 뿐 내는 사 름꺾라 가막창신에 코짹이 보선, 보선 헤영헌 거 신은 사름꺾라 경 곶아난. 막 뵈내

는 사람. 그건 왕실에나 베풀어 안 신어. 잘, 기생덜. 겨단 우리 옥은 후에는 초신도 고무신 나난 아이 허고.

106033 @ 새신발 신으면 발 아픈니께?

106033 # 뒤척이 아파. 신으로 밀어붙민 아프주게. 경허민 신척이 초신 신을 땀, 이 뒤척이가 야프꼭 높으꼭 헤여이. 경허민 신척이 높은 거 사둔 높은 거 굿텐허여. 경도 곱양 막 우셔난. 이디 발 아프민 오죽 못전디느냐게. 높은 사름 허민 굿지게. 아이고 신척이 높은 거 사둔 높은 거 우리가 사투리로 경 곱양 웃어난. 아이고 우습다. 히어득헌 말 곱아졌저. 경허민게 뒤치기 아파근에 어떤 사름은 '신척이 높아 부난 뒤치기 아프다.' 이것도 맞이민 허고 아이 맞으민 아파.

106034 @ 나무로 된 신은?

106034 # 남신 잘 안 신어. 눈 올 때도 남신 신어난. 지금은이 이 거리에도 세멘을 해부니까 눈이 와도 사름 다녀지주. 그냥 흑질에. 견디 흑교 마당에도 세멘 안 허니까이 막 흑이 허영 양말도 다 벗어붙고. 겨난 저것도 발에 맞좌근에 남신 파는 사름이 왕 다 식구에 흐는 사름이 어려와. 나도 신어난 저거 남신. 맞이민 신엇주. 뭉수 엇어. 뭉수 벨로 안 허여. 우리도 고무신 난 후제 난 십구뭉 신주게. 경행 곱양 맞이민 사곡 햅주. 신침이서도 알안게.

106035 @ 주로 신는 게 짚신?

106035 # 짚신베끼 주로 신는 게 옛날 셔샤게? 우리도 흑교 텅길 때도 그 짚신 신영 강 운동장에 흑이 막 허민 그냥 바탕바탕 그냥. 경행 양말도 신은둥 마는둥 행 가고. 복도에도 뎀 흑이주게. 경허단 우리도 흑교도 얼마 안 텅것저만은.

106035 @ 초신 삼아났수과?

106035 # 짚신, 이거 초신으로 삼은 거게. 초신이엔도 허고 짚신이엔도 허주게. 깍 내영, 이것은 깍이고 이견 이제 저 창, 영 짜는 것ㄴ란 찍으로 짜. 산뒤짚게 어샤게. 깍, 바위, 이것도이 산뒤짚으로 다 이것을 노 꼬아가지고 신들이엔 허영 이젠 요건 깍은 트로 내여. 트로 내영 이젠 하나씩 하나씩 듣지명 이제 짜가. 초신 삼을 때. 그냥 붓베기깍은이 붓베기깍은 허면 훑어근에 신이 곱지 안허여. 그냥 노로 이젠 영 짜 가명 깍을 내지게. 그추록 헤영 짜는 사름도 이서났어. 견디 이추록 허여 사 제대로 잘 뉘는 거.

106035 @ 신들은 어떻 만드는는 거?

106035 # 미게, 미. 미는 역새꽃이라. 신들은 미로 허여 미. 신들 꼬는 것ㄴ라 미. 어웁, 역새이 소뭇 피지 안헌 때 막 피어붙지 안헌 때 그 역새를 뽑아다가 므리 좌근에 그 미를 이제 늘 꼬아가지고 신들. 신들.

106035 @ 아, 미로.

106035 # 겨난에 미뻬쟁이 엇어, 미뻬쟁이 새어갈 때 빠다근엿에 신들 ㄴ곡. 신 이제 노꼬아 가지고 이제 흐는 겨주게. 이 소곱에 늘이 잇주게, 창에. 미뻬쟁이로 꼬양, 산뒤짚으로도 꼬고. 경헌디 미뻬쟁이로 꼬아야 막 질겨. 역새. 역새 흐뭍 두루 뉘 때 해당 들리와. 다른 때도 베 쓰젠 미 허여근에 미엔 허주, 것ㄴ라. 베 드리젠

허민 거 많이 들어.

106035 # 초신은 하나로 얼마나 신어?

106035 # 신창 이디가 신으민 다 다이민 이제 데쌍 또 혼 번 신어. 그냥 신어.

106035 @ 데쓰민 돼어?

106035 # 뒤집어서. 견디 얼마 못 신나게. 밧디나 아이신영 집이서만 신으민 혼 메틀 신고 밧디 신영 가민 하루에 그차져붙어.

106035 @ 하루에 그차져붙어.

106035 # 어떤 하르방이 맨발에도 출비레 와, 늬의 출 비는 사름. 늬의 출 비는 사름이 일도 잘해주만은 신을 당허질 못허여이. 겨민 늬빌영 왕 보민 어떤 하르방은 맨발에 오민 ‘아이고 발 찢러붙영 어뎡 허여, 어뎡허영 출 비쿠가?’ 허민 ‘발을 무사 찢러?’ 경허는 하르방이 이서낫어.

106035 @ 아이고.

106035 # 장갑이 시냐? 그때. 우리 옥도록 장갑 아이쨍 출 비엇저, 검질도 그냥 매고. 아이고 장갑이 어디 셔? 우리 노인당에 할망덜이나 거 알주 젊은 사름덜 몰라. 일본 강 온 사름 장갑 혼 빗 앓양 왕 데부끄로엔 허주게, ‘아이고 데부끄로 아정 왕 하나씩 쥐서.’ 영 허고 일본서가 거 아정와, 간 온 사름.

106036 @ 짚신도 종류가 이수과?

106036 # 짚신은 저 즘진 깝 내영 헌건 이제 막 고와이. 경허고 훙은 깝 내영 그자. 것도 곱닥허게 산뒤짚도 물들여근에 깝 내왕허민 곱닥헌 게 좋아. 즘진 깝 내영. 그냥은 그냥 훙게 훙게시리 깝 내영 삼아.

106036 @ 이름이 다르진 안허여?

106036 # 아니.

106036 @ 그냥 다 짚신? 짚세기신, 짚신?

106036 # 짚세기주게.

106036 @ 짚세기?

106036 # 응, 짚신, 짚신.

106036 @ 무신 색으로 물들여?

106036 # 노린 물.

106036 @ 노린물. 뭘로 물들여?

106036 # 치지, 치지.

106036 @ 아, 치지. 치자.

106036 @ 삼으로도 초신 삼음니까?

106036 # 삼은이 것도 이 오래지 안헤서. 삼으로 신 삼건디가. 아니 삼으로 해도 짚신이라. 삼으로 현 건 고와. 삼이 어렵주게. 삼이 옛날도 장만허기가 어루와.

모자 등

106037 @ 모자는 어떤 것이 잇수가?

106037 # 삿삿, 대로 줄은 거. 패랭이, 밀집모저, 밀집패랭이. 이견 탕건인가, 이 것이 유건이라. 유건은 이룬디 높은 제지널 때 씨는 거.

106038 @ 모자는 여름에 쓰는 거영 겨울에 쓰는 거 다릅니까?

106038 # 모즈는이 철이 없어, 옛날. 저런 모즈도 이제사 나고 저 나까오리도 일본 때에 나서 저 나까오리도. 게니까 옛날 한국 사름은 어디 갈 때도 멩긴 씨영 갓 썩 가고 경해난.

106038 @ 외방갈 때 말고 그냥 밧디 갈 때 무신 거 씨?

106038 # 그때도 밀짚모자 이서난 게. 패랭이.

106038 @ 밀낭패랭이?

106038 # 밀낭으로 좋아, 좋아. 밀낭이 어떻게 허느냐면 밀을 갈면 그 소독이 잇어. 그 밀낭도 소독. 소독 푹푹푹푹 이제 것이 질겨. 그 모즈 좋아. 우리 좋아났 저. 즐앙 이제 패랭이 뱅뱅 실로 주영게 망부떠 문여 멘들아 가명 이제 갓 멘들앙 패랭이. 경행 패랭이 멘들주게. 망 멩글 때 도로 영 대가리에 맞좌근에. 게 패랭이 허단 일당도 비싸고, 그런 밀도 안갈고 허난 문 푹는 거 사단 썩세게. 낭거죽 패랭이 야려. 밀짚 패랭이가 질기주.

106038 @ 무신거가 야려?

106038 # 낭거죽으로도 허주. 낭거죽은 기계로 베피 못 즐주게, 그건 야령. 낭거죽 패랭인 야리고 밀짚 패랭인 질겨. 췌양 씨는 사름 곱게 즐아노민 혼 멧 해 씨주 게.

106038 @ 패랭인 주로 여름에 쓰는 거주예?

106038 # 응 여름에 밧디 갈 때. 밧디 또 대로 줄은 삿삿.

106038 @ 아 삿삿도.

106038 # 삿삿도 밧디 씨는 거. 대로 즐주게.

106038 @ 삿삿에 종이도 발라?

106038 # 종인 덩지 말렌 그 양태, 침 양태엔 해점저. 삿삿도이 영 현다게. 삿삿우이 멩글앙 씨와, 덩지 안허게 벳 아이 들어가게. 경허는 거. 삿삿, 밀짚모자, 낭거죽 패랭이 것도 막 외국 거 들어와노난. 것도 두불이라. 제주건 엇어.

106039 @ 겨울에 쓰는 모자는?

106039 # 하르방덜이나 모즈 씨주 여즈덜은 무신 경 모자 경 씨나샤?

106039 @ 가족으로 멘든 모자는 무신 거엔 곱아?

106039 # 가족감티. 가족감티 씨났저.

106039 @ 겨울에, 동물 가족으로?

106039 # 동물가족으로. 것도 가족도이 그런 모즈 멘들젠 허민 막 달루와 가지고 혈렁혈렁 허게 멘드는 기술이 신 생이라라, 옛날도.

106039 @ 털모자도 이서났수과?

106039 # 병것이엔 허주. 요새 그저 조선왕조 오백년, 인척이도 텔레비에 나완 게. 막 검영현 것에 떠 들루곡 헤영 그 무신 뵈들 어샤게, 관덕정 ㄹ뵈든 디 그런 게

병것이지. 거명한 것에 이제 띠들렁 씨는 거 수억병것이라고 보통으로 안 써. 모저 우이다가 또 두 개 씨면 ‘병것우이 들림했지.’ 경 곶아났어. 두 개 씨민 옷는 말로 경해난. 것ㄴ라 병것이엔 헛저게. 왕실에게 것ㄴ라 무신 사름이엔 헨다만은.

106040 @ 양태 해납디가?

106040 # 아니 나 안 해나도 우리 봐놔주게.

106040 @ 양태, 탕건, 총모자는 어떻 다른 거파?

106040 # 탕건은이 옛날 선비들이 대가리에 써가지고 갓 엇어, 갓. 그 탕건우이 갓 쓰고. 또로 멩킨이엔 허영 뱅동글락헌 거, 멩킨 우이도 갓 쓰고. 또 양태는 갓 들레. 난 탕건은 해난. 총으로 헤여근에게 탕건. 멩킨도 허는 사름은 해나고. 양태는 대로 좋아이. 양태, 양태는 갓 들레라이. 갓 들레가 양태고, 갓 우이 것ㄴ란이 모저 엔 헤여. 모저를 좋아가지고. 멩킨허고 그건 ㄴ찌 갓 씨어. 비슷은 안해도 탕건 우이 갓 씨는 사름, 멩킨 우이 갓 씨는 사름 경헤여라. 옛날에 우리 봐난 거주.

106040 @ 양태 부분 명칭이 잇수과?

106040 # 양태 바위, 바위 들라야주게. 좋아놔 따로 대 흐꿈 슬친 걸로 요렇게 놔가지고 그 또로 안네 그 즈는 줌진 걸로 팽팽 감아. 팽팽 감양 툃툃허게 멘들아 사게 아정 텅기주, 그냥 아상 텅겨져?

106040 @ 양태도 종류가 이신가 마씨?

106040 # 양태도이 통량이 싯고 제량도 싯고. 제량은 간단허게 존존허게 졸곡, 통량은 질게 허곡 짝각허게 좋아야 웨여. 이제 갓 엇샤? 갓이 거 양태로 툃 거라. 이젠 나이롱으로 짝짝해부난.

106040 @ 잘허는 사름이 헨 거영 잘 못허는 사름이 허는 건 질이 다르지예?

106040 # 영글어, 것도 차별이 따나. 탕근도 곧 건 값 잘 주고, 구진 건 값 아이가. 솜씨로 가 솜씨로. 잘 좋아야. 줌진 탕근, 훗은 탕근이 잇긴 이서. 경헌디 것도 솜씨가 좋아야 줌진탕근. 또 양태도 두 가지게, 통량허고 제량. 이것도게 나가 우리 어머니싯디 들어나난 햐주. 다른 사름 몰라, 양태도. 이 서춘이 그 통량은 잘헌덴 헛저, 도련 근처. 그 통량.

106040 @ 이딘?

106040 # 이딘 재량을 주로 하영 즐고. 물총으로 탕근 좋아야 웨여, 바농으로. 탕근골에 이제 초담 총 멧 겁허여근에게 뱅허게 들렁 요렇게 ㄴ작지왕 ㄴ칭 이젠 그 초담 이제 시작을 바농으로 헤 가는 거라. 혼 코, 두 코. 경헤영 뱅뱅 들리멍. 허여놔 이연발 헤여가지고.

106040 @ 양태혈 때는?

106040 # 양태혈 때도 수리대. 대를 막 질좌. 수리대 모작 이만씩 헨 거. 양태혈 때도 그 댓모작을 깨어가지고 그 댓살을 멘들아. 줌질이 실ㄴ찌.

106040 @ 양태 혈 때 아래 놓는 건 뭐우파?

106040 # 양태판, 도리상.

106040 @ 도리상은 일본말 아니?

106040 # 이제도 영 뱅동글락 허난 도리상. 도리상이 맞추게. 양태관이 이제 도리상 엇샤? 도리상. 그디 가온디 이제 영 동글락허게 해서 그디메와냥, 양텔 좋아, 뱅뱅뱅. 바농대가 이서, 양태 바농대. 그걸로 속속속 빠내멍. 양태 영 쌀 예경, 예껴냥 이젠 또 즐 때민 그 바농대로 속속 빠내멍 좋아. 거 안봐나 부난 몰랍구나.

106040 @ 뭉총으로 허는 거 아니?

106040 # 대로게, 대로 실ㄱ찌 멘들양 뭉총ㄱ찌 멘들양. 뭉총으로 허는 건 탕건. 탕건, ㅁ자, 멩긴은 또 뭉총으로 허여. 멩긴, 모즈, 탕근 것도 세 가지라.

106040 @ 세 개 다 해납디가?

106040 # 난 탕근만 해난.

106040 @ 양태는?

106040 # 양태 이거, 양태파니.

106040 @ 양태관, 양태파니?

106040 # 응 양태파니. 양태파니엔도 허고 관이엔도 허고 관이 맞지. 양태파니. 양태관 맞아. 이건이 살이지 양태쌀. 쌀인디 양태허는 바농대가 이서이. 쉼로 멘들양 코쟁이 빼쪽헌 거. 영 오그라진 거. 게민 그걸로 총을 이제 쌀 메왕 초담은 쌀을 예끼는 거라이. 예껴냥 이젠 그 츄츄츄츄 영 돌멍 헐 땀 바농대로 속속속속 헤영 짜가.

106040 @ 들어갔다 나왔다 허는 거?

106040 # 응, 들어갔다 나왔다. 경행 또 이디도 탕근 모양으로 이 양태도 바우 들라. 바우 들라근에 이젠 허고 여기는 양태는 뭇 허느냐면 또 갖이 저 탕근은이 특허게 시리 씨고 양태에 또 모즈가 이서. 모즈 이것에 영 부찌는 거. 총으로 좋아, 총으로, 침 대로 대로. 대로 좋아.

106040 @ 양태파니 말고 다른 거 이름도 곱아줍서.

106040 # 양태 바농,

106040 @ 또.

106040 # 양태파니 아래 놓는 건 또 대로 줄은 거 이서.

106040 @ 건 뭐라?

106040 # 거 양태관 아래 놓는 거. 바구리. 이 챗떼귀광 뜨나. 건 널러야 돼여. 대로 즈는 거. 양태파니 아래. 대로 구덕ㄱ찌 요렇게 줄아가지고 저 요기 영 터지게 허곡 또 양태 그디 딱로 무시거 놓젠 허민 그 곱은 그냥 헤영 구덕ㄱ치룩 허면 소 곱에 무시거 담음도 허곡. 양태 바농도 놓고 대도 놓곡 그렇게 멘든 거라.

106040 @ 양태는 대나무로 허는 거지예?

106040 # 응. 양태 돌아근에 써, 양태. 이제 갓 트로, 모즈 트로 줄양 경행 부짱 경행 쓰는 거 아니가게. 경행 통량은 이 좋게 씨는 사름은 일반도 막 모즈를 씨는 사름은 통량을 해당 써. 썩도 멩기곡. 재량은 그냥 그때 씨다근에 말곡. 게난 국상 나면은 재량이 막 비싸. 국상 나민 양태 막.

106040 @ 밤에 모영 멘듭니까?

106040 # 낮이 막 해천 허주게, 낮이. 아척 붉으면 시작허영 밤중 나상경 돼도
록.

106040 @ 경행 일주일 헤사 하나 멘드는 거?

106040 # 하나도 선수라사. 탕근도 하나 일주일에 허는 사름은 선수.

106040 @ 멘들민 어디 강 폴아?

106040 # 조천장에서 막 받앙 탕근 사용허는 디가 잇주, 육지 어디, 그레 네쳐
가.

106040 @ 하나에 얼마 줘?

106040 # 몰라, 얼마 아이줘. 쓸 혼 말 못받아실 걸, 옛날에 그걸로. 그 양태는
이제 그 나라가 죽으나 어떻 허민 그 재량은이 보통 일반 사름이 막 씨어 노난. 국
상 낮젠 허여 국상. 국상 알아져?

106040 @ 예, 국가에 상난 거?

106040 # 응, 상난 것이라 국상이라고 헤여. 거 현 멘이 일반사름이 그 다 밀짚
페랭이, 대패랭이 쓰기 때문에 막 세월이 나. 쟁해낫젠 헤라. 건 우리 어머님 잘 즐
아난. 우리 어머님 잘 좋아난. 늙은 하루 그 재량이엔 현 거 하나베끼 못 즈는디 우
리 어머님 세 개깃장 좋아낫고렌 헨라.

106040 @ 재량?

106040 # 재량은 쪼글락허게 허는 것가 재량, 통량은 또 갓 선비들 막 고급 사
름 씨는 거, 짝각허게 넓게 질어 조는 거. 것도 두 가지. 바농빠가 잇어. 요만 지레
기 현 거. 똑 요런 건디 그노롱 허게 행 요디 꺾텅이 멘들앙 양태 빠는 거. 이디 이
거 살 짝각허게 영 뱅동글락허여 놓지 안허느냐게. 겨민 츠츠 헤 감주게 빠내멍
빠내멍 그 대로. 그 대살 멘들젠 허민 막 공들어. 대 이제 깨영, 즘질이 깨영

106040 @ 재량허고 무신 거 이서?

106040 # 통량.

106040 @ 재량은 무신 거고 통량 무신 거파?

106040 # 통량은 양만들이 뿐 내영 쓰는 거고, 높은 사름덜. 또 재량은 국상이
나 나라가 죽으나 나라에 국상이라고 헤서.

106040 @ 임금님이 죽으나.

106040 # 응, 그렇게 허면 국상 낫다고 헤서 일반 사름이 다 씨게 웬 거라. 어
디 갈 때도. 그 재량이라고 헤가지고. 대로 이 모즈도 즐고 그 도리도 즐곡 헤영 다
이제 일반 사름도 씨낫어. 재량이엔 허영. 경허민 육지레 이 제주사름이 이걸 다 즐
아근에 내치민 막 비싸낫젠 헨다.

106040 @ 통량이영 재량이영 다 양태예?

106040 # 양텐디 이제 좋은 건 통량, 나쁜 건 재량. 우리 어머님넨 재량을 세
개씩 좋아나고렌 헨다.

106040 @ 하루에?

106040 # 하루에. 우리 어머니 막 손 빨라.

106040 @ 하루에 세 개씩이나?

106040 # 응, 우리 어머니네가 혼 이십세 뿔뿔말뿔 뿔 때 그 양태를 막 잘 즐
아. 늙은 혼나도 서툰 사름 힘든디 우리 외할마니가 양태를 대를 잘 멘들아 주니까.

106040 @ 보통은 하루 저녁에 얼마나 만들 수 이서마씨?

106040 # 아이고, 탕근 혼나 허젠 허민 일주일 더 걸려. 선수라사 일주일. 못허
는 사름은 혼 달도 가곡 열흘도 넘고.

106040 @ 모자도 대로 해?

106040 # 응 대로, 대로. 다 대로 허영 씨. 이견 양태에는. 탕근허고 탕근에 또
갓이 있고. 이 양태에 들러근에 씨는 게 있고 경헤여. 이 탕근은 또로 갓이 또 이
서.

106040 @ 탕건에 쓰는 갓이 따로 이서? 건 어떤 거파?

106040 # 그거는 양태라도 존 건가? 거 우리 하르바님 느랑 씨낫저만은. 그 몰
르크라.

106040 @ 양태는 소곱엔 아무 것도 안행 쓰는 거?

106040 # 이디 모즈 모즈 허영. 총으로 안허여. 양태는 이거 대로 즐암실 거여.
대로 즐질게.

106040 @ 나중에 양태는 거멍허게 염색허여?

106040 # 노랑허게 그냥, 베색으로. 양태가 노랑허영 곱주게. 땃살 막 발황 허민
노랑허영 고와. 경허고 또로 이제 재량은 어떤 때 씨느냐면.

106041 @ 모자는?

106041 # 모즈도 이실 거라. 모자는 총으로. 모자는 요작7장 서문통서 즐암선
게 즈세히 안 봤어. 이거 즐안 엇어지곤디 오래지 안해서, 이 모즈는. 경헌디 이것
도 제주 사름은 사용 안허고 어디 육지 무신 도예선가 이거 사용허는 디가 이서.
탕근도 막하영 사용허는 디가 있고. 거 어디 경상돈가 어딘가 나 것도 알아낫저만
은.

106041 @ 그냥 평상시에 갓 써?

106041 # 어디 갈 때 도폭도 입고. 탕근 씨낫 갓 써.

106041 @ 먼저 탕근 쓰고 그 위에 갓 써?

106041 # 응. 이제 사진 이서. 제스때 내놔. 우리 할으바님. 막 우리 할으바님은
그럴듯헌 하르방이난에 한문선생. 탕건 우이 특 받앙 우통에 그 갓을 특 놔. 탕건
그 꼭대기7라 우통. ‘우통 못암저, 우통 7갑저.’ 경. 밤낫 멘들앙 풀앗주게. 조천장
에 받으레 오주, 받으레 와. 탕건 장시가 셔. 육지레 푸는.

106041 @ 이런 총모자는 이디서 안헤난?

106041 # 이디서 모즈는 안 즐아낫어. 탕근 양태만 즐고 이 모즈도 즈는 디가
이서, 또. 총으로 즐아. 모즈도 저것도 갓에 부뻬실 거여. 탕근도 갓에 부찌고 모즈
도 갓에 부찌. 양태는 전부 대로. 멩긴은 또로 옛날 상통이 찬 사름덜이 갓 아이 썩
멩긴만 써. 멩긴만 동글락 현 거 이젠 딱 씨근에 상통이가 이서. 사름덜 하르방덜

상통이. 머리 올려근에 경허면은 멩킨은 씨면이 이 귀를 내쳐야 돼덴이. 경허민 요 새 흐끔 두린 사름 장스허는 사름덜 멩킨 썩 귀 아이 빵 사름을 들러사 건 멩청허 덴 말이라이. 경행 흐끔 허민 ‘아이고 멩킨 썩 귀 아이 빵 사름 어디 셔?’ 경 굳는 게 침. 전통이라 그게. 이제 나 요새에도 그 무시거 허난 약장시, 약장시 구경 막 가가민 난 ‘아이고 저 멩킨 썩 귀 안 빵 것덜’ 나 경 곶아. 아이고 저 두렁 저, 멩킨 썩 귀 안빵 것덜. 겨난이 멩킨을 쓰면 이 귀를 똑 내쳐사돼여. 딱 씨영, 상통이 네 치고.

106041 @ 혈 줄 물론 사름덜.

106041 # 혈충 물론 사름이 귀갓장 탁 씨어불면 멩청헌 것들 경. 멩킨 썩 귀 아이 빵 사름. 멩청헌 거. 겨난 요새 난 약장시 구경 안 간다.

106042 @ 탕건은 어떻 짜는 거마씨?

106042 # 탕근 어떻허여, 바농에 충, 물충 꿰영, 탕근골 잇주게, 탕근골, 탕근 채 덕이. 탕근골, 그것에 헤영 탕근 메왕 바농으로.

106042 @ 바농으로 어떻허여?

106042 # 영 베개 닳은 것가 잇어이, 탕근 챗떠귀이라고 헤가지고, 이디 탕근골 놔가지고 이젠 충으로 초담 그 탕근골에 모작 멘들아이, 멘들아냥 바농으로 이제 허여. 영 멘들아 흑흑흑, 혼 코, 두 코.

탕근 이제 초불 허여냥 밀영 늘좌근에 이젠 또 서이여. 영 골 죽죽허게 서이여. 영 혼 불 헤냥 또 뒤 감춰. 서이는 거. 혼 번 짜곡 두 번 서이곡 서이는 거 헤근에 그 골 멩그는 거.

106042 @ 이연발은 뭐허는 거 마씨?

106042 # 이연발이라고 헤가지고 탕근을 혈 때 그것도 쉼빨로 멘든거라. 것도 보통게 아니라. 탕근을 즐아가당 바농으로 즐아냥 이걸 이연발로 밀어 영 질게 늘 좌. 그 탕근을 탕근골에 영 냥 이제 그 이연발로 이젠 막 늘좌, 이걸 늘좌. 경허민 요만이 즐아냥 늘루민 요만이 올라와 이제, 이연발로.

106042 @ 이연발, 연발?

106042 # 이연발이렌 헤난디, 이연발이라고 곶아났저. 경행 밀어나근에 이젠 요만이 반 거지 다 허여왕 허민 이 우통더레 이젠 또 밀영 우즙야. 우즙양 이젠 서이 여. 우즙야 놓고 서이는 거라. 영 서이는 거. 초담은 영 못아냥. 서이여근에 이제 다 서이여지민 요디 딱로 충 혼 방울 놔가지고 이 우통도 서이여. 영 이 아래ㄴ치 ㄴ 뜨게 다 ㄴ따 겨민.

106042 @ 영 늘려?

106042 # 밀어, 영 밀어. 이연발 영 쉼여가지고 물 적지명. 경허민 이제 이거 탕 근코가 요만이 즐아냥 밀민 요만이 올라와. 그다음 허여냥 이디ㄴ란 우통이라고 허 여이. 이디 이젠 우통 즙야. 경 이디 즙아냥이네 이걸 서이여.

106042 @ 서이는 건 어떻 허는 거?

106042 # 혼 불 허여냥. 영허영 바농이로 이제 요렇게 허여냥 뒷바농질 허는 게

서이는 거. 흐 번 영 허여냥 또로 일로 가근에 뒷바농질, 바농질ㄴ치 영 박는 거 엇
샤게? 뒷바농질.

106042 @ 박음질?

106042 # 서이여 가지고 이 우즙아냥 이젠 서일 뎨 다 요ㄴ장 허여이, 요ㄴ장
허여냥 또로 이젠 요디 총을 요렇게 냅 서이여. 이디ㄴ치. 게민 멘짱허여. 경헤난.
탕건 헤난 거.

106042 @ 아래서 부터 영 헤 가는 거?

106042 # 이거 헤갈 뎨 초담은 탕근골에서 이렇게 헤여근에 돌아가멍 허여이.
영영 탕건 돌려 놓멍 즐아냥 요만이 허민 이연발로 이제 밀어. 밀영 등겨.

106042 @ 말총으로 만드는 거파?

106042 # 말총, 말총. 육지서 불르면 총이 막 길죽헌 게 좋아이. 견디 이디 말총
은 좋지 안허여. 제죽물은. 옛날은 이제ㄴ치 물도 크지 안허고 허난이.

106042 @ 말총은 어디 강 가져와?

106042 # 풀주게 풀아. 물허는 사름덜은 그거 이제 비어근앵이 존 걸로 뽑아가
지고 이젠 물 커둬서 헌다게, 물 커둬서. 총사발해서 사발에 물 놔가지고 총 이제
요만이 혈만이 물 쟁 영 뽑아근에 바농에 꿩영 허여.

106042 @ 무신 사발?

106042 # 아니게 총사발이엔 허영 그냥 사발인디 물 냅 아무 사발이라도.

106042 @ 총사발에 물 냅.

106042 # 물 놓고 총 커가지고 흐나씩 바농귀에 꿩영.

106042 @ 그다음은.

106042 # 탕근골에 이제 츄담은 총으로 영 저 멩글주게. 영 벵동글락허게 이것
에 맞게 ㄴ작 지와가지고 초담부터 영 즐아가는 거라.

106042 @ 즈는 건 어떻 허는 거마씨?

106042 # 어떻헿 즐아? 이디서 흐 코 두 코 즈는 거주게. 바농으로. 그것도 또
골이 이서이. 이런디 그 흐 골 두골 허면 요디 오면은 바농으로 밋밋 영허여 가민
풀어져 불겨든. 경허이까 요 골, 골이 또 이서. 멧 바농 허민 흐 골. 흐 바농허영 못
취 또. 흐뎡 영 뒷바농질 헤가지고. 골마다. 경헤사 골이 나겨든. 경허면은 쪽쪽 골
덜 엇샤게? 경허민 이젠 밀어냥 서일 때도 그 골마다 서이여, 골마다 서이여. 서이
는 거, 초담 좃이는 거, 못아냥 서이는 거, 또 우즙는 거. 우즙양, 다허민 이제 우이
마무리 허는 거.

106042 @ 탕건 혈 때 필요헌 거 뭐 잇수과?

106042 # 탕근골이 잇다고 냅으로 멘든 거, 이디 놔근에. 쳇떠귀, 탕건골.

106042 @ 또?

106042 # 바농허고 또이 박죽이엔 현 게 이서. 요디 톡허게 맞게시리 꼭박으로
멘들양 박죽.

106042 @ 박죽?

106042 # 응 요디 특에 이젠 그걸 특하게 놔가지고 이젠 요77장 밀영 요디 특 내와근에 이렇게 올려 오는 거라. 탕근에도 물건이 으라개 들어가. 이연발, 박죽.

106042 @ 또?

106042 # 거 뿐이주, 바농하고.

106042 @ 이연발은 뭐?

106042 # 탕근 미는 거, 탕근 동기는 거 밀영. 그 탕건을이 이것이 탕건골 아니 가. 요만이 넓으게 헤지면 그걸 이제 이연발 헤가지고 물적저근에 짹짹 동기면 것이 늘어나. 늘어나근에 이젠 그 탕건골 정혜영 또로 이젠 우통 탕근골에 우통 더끄는 게 엇어. 손바닥만인 현 거 특 더경 우좁아. 서이여 또로 서이여. 요렇게 스랑허게 놔가지고. 초담은 영 낱 탕근 허여낱 또 서일 땀 영 탕근골을 스랑허게 낱 흔줄 뜨기 서이여. 서이는 건 영 뒤커름, 그 뒷바농질허여.

106042 @ 뒷바농질?

106042 # 응, 뒷바농질 허여근앵이 서이영 또로 그 우통은 이제 또로 서이여. 총 흐뎀 놔근앵이 므칠 때. 곱닥허여. 경혜앵 므쳐. 총칼도 이서, 총칼.

106042 @ 총칼은 어떤 거파?

106042 # 총칼은이 저 이추록 요것 님은 건디 요추록 휘나게 헤가지고 총을 그 탕근골에 낱 특 그차. 총 니빨로 못 그차. 총칼. 스랑허게 허여근앵 끈 들양 그것도, 탕근 흐는 것도 으라, 기명 하영 들어. 탕근바농은 큰큰현 거, 탕근바농, 이연발, 탕근골에 우통, 또 박죽이엔 현것도. 저 탕근 앞이 영 트다져이. 그디 박죽 낱 영 특 더꺼근앵이 탕근을 이제 우좁는 거라. 서이영 등경 이연발로 밀영. 박죽도 이서. 탕근골에도 으라가지라. 박죽 낱 요 앞이 특 더꺼가지고 밀영 밀어근앵이 저 콧박으로 멘든 거.

106042 @ 총 짜르는 칼이구나예.

106042 # 총칼은이 또 요추록 네귀난 거. 영 뽀쭉허영 이추록 민짜 안헤가지고 요지레민 현 거 헤 가지고 총을 끄차지나 어떻 못일 때는 특허게 총칼로 그차. 바농질 혈 때 그 2새로도 잘 못헤. 총칼이 좋아.

106042 @ 질기니까.

106042 # 총칼로 이제 이런 이것이 낭이거든, 탕근골이. 겨난 총칼로 특허게 그차, 총을.

106042 @ 어느 만이 큰 거파?

106042 # 이만인 허는디 이디가 영 게 반득허게 안헤가지고 토라지게 그런 총칼. 우린 봐나난 눈에 선허다. 겨난 탕근도 허젠 허민이 총칼, 박죽, 이연발 그 세가지 곳화야 웨고 총사발 췌떠귀.

106042 @ 골무도 끼영 안 헤?

106042 # 골미 췌 사름 췌고 안췌는 사름 안 췌. 것도 손이 아프면 골미 췌. 골미도 풀지. 옛날 탕근 허는디. 바농을 하도 사용허난 손굽이 아파.

106042 @ 골미는 뭘로 만들어마씨?

106042 # 골미 가족으로, 가족으로 이렇게 떠 멘들아가지고 특하게 시리 썩가지고 이렇게 썩 허는 거, 골미.

106042 @ 할머니 골미도 안 썩 해낫구나예.

106042 # 그냥 허단워 우린 탕건 얼마 안해난. 초담 허단에 이 하도 집이 바쁜 사름은 탕근도 못헌다게. 그냥 아무것도 탕근만 허는 사름은 돈 많이 벌어 것도. 혼 장 도막에 허나 어떤 사름은 허나 더허여 경행 풀아. 경행 돈 벌어.

106042 @ 혼 장 도막은 오일이지예?

106042 # 오일, 오일.

106043 @ 망건은?

106043 # 멩긴은이 멩긴 좇는 사름은 또 탕근 보단 이것이 어려와이. 이 우알이 거 잘 허영 마무리 허고 이 멩긴은 또 총도 줌진 걸로 헤여. 잘헤여. 멩긴 짜는 사름. 멩긴골이 이서. 쳇떠귀는 ㄴ따. 이거 멩긴골헤근에 동글락 헌거. 것에 메왕 총으로 헤여. 총으로 멩긴 짜. 탕근 모양으로.

106043 @ 멩긴이 탕근보다 더 힘들어?

106043 # 힘들어, 이 멩긴이. 탕근이 썩 쉬와.

106043 @ 탕근이 썩 쉬와?

106043 # 응, 총으로 허는 거. 멩긴 어렵고, 양태도 또 재량이 있고 통량이 이서. 또 신도 가족신이 잇네. 가족으로 멘들앙. 경행 신으민 이제 장화 모양으로 신 영 밧딤도 다니고 비올 때도 신고.

106043 @ 가족신은 무신 거엔 곱읍니까?

106043 # 가족신.

106043 @ 창신은 무신거?

106043 # 창신은 또 멘든 거. 창신은 딱로 가족으로 창 허고, 또 이디 도련 멘 드는 게 잇어. 무신 기지 님은 거. 또 막 높은 사름 여즈도 가막창신 엇샤게? 그 창신 멩그는 게 이서. 건이 민간에 경 널어지지 안허여. 막 이제 이 관덕정에 만약에 이제 ㄴ뜨민 국회의원이지. 이 마을에도 이, 저 남군ㄴ란 정의, 이디는 모관. 경허면 은 그디는 의원이엔 허여 정의원, 여기는 모관은 판관이라고 경행 헐 때도 판관 딸 이나 판관 각신 관덕정에 모셔갈 때 가메에 가막창신에 코쩍이 보선에 신고 곱게 출령 하인덜이 모상 갖다왔다. 선홀도 판관헛당 망헛.

106043 @ 예?

106043 # 안판관 해난디 판관이 그만 뒷에 걸려난 모양이지. 경헤부난 판관해난 역사가 엇어졌서. 그뎨 안칩이 막 선홀에 막 소문나게 안판관, 안판관 허단이 그 판관에 강 끄끝내 살질 못헌 생이라. 우리가 들음은 헛어. 경헐 때 가막창신에 그, 판관 각시, 판관 딸, 판관 메누리네 관덕정에 모상 갖다 왔다.

106043 @ 경헐 때나 신는 거주예?

106043 # 응, 가막창신이라고 헤가지고. 경허는 거라. 또로 그 판관 신는 것도 가족신 님은 건디 신 이서. 이제 그저 어디 엇샤게? 결혼헐 때 그 한복입고 신 션

게. 새서방 신는 신 그런 신. 것ㄴ라 관복이라고 해낫어, 관복. 그 관에 텅기는 그런
관관이나 그런 사람들만 입는 거. 게 가지고 관복이라고 해서, 관복.

106043 @ 가죽감티 말고 겨울에 쓰는 모잔 엇인가?

106043 # 그냥 뭐 시지부지헌 모자덜.

106043 @ 털실로라도 짱 씩니께?

106043 # 그런 건 이름 따로 엇어. 계실로도 짱 써주게. 그런 감티.

106043 @ 그런 건 감티엔 허여?

106043 # 응, 감티.

106043 @ 도롱이는?

106043 # 거 무신거라?

106043 @ 우장.

106043 # 우장은 비에 쓰는 거. 새로 줄은 거. 우장 저 비옷이라고. 우장 그 어
디 한라문화제에 나완게.

106043 @ 것도 집이 서 다 줄양 입엇수과?

106043 # 응, 즈는 디 것도 보통으로 못 좋아. 노 꼬고 새도 그 가온디 그, 걸
빠가지고 새 섯만 해가지고 요만씩 무꺼가지고 노도 ㄴ느롱허게 헤영 그걸 줄라 묶
어. 줄라 무껍 이제 좋아, 좋아. 노 허여가지고 새 깨영 낱 복삭허게 헤영근에 이제
줄양 영 웃도리 영 멘들아근영에 탁 씨게시리.

106043 @ 모잔?

106043 # 모잔 안 씨고, 모잔 엇어.

106043 @ 얼굴 다 맞잖아.

106043 # 우장만 써.

106043 @ 샷갓 안 써?

106043 # 그런 건 씨곡 게. 우장 씨고 그런 건 비온 땀 씨고. 견디 우장도 아무
나 못 좋아. 것도 기술자라사 연구허명 즐주, 아무나 못 좋아. 또 저 정당으로 이제
정당 모즈가 이서. 것ㄴ라. 즐, 즐이라고 허나? 그런 모즈 즈는 사름도이 막 잘 즈
는 사름.

106043 @ 그런 모잔 뭇엔 좋아?

106043 # 병것, 병것, 그건. 병것이엔 헤근영에 허는디 정당 모즈라 그건.

106043 @ 정당이 즐이과?

106043 # 그 정당은 그게 드르에 그냥 나는 거고 즐은 또 모즈 즈는 게 셔. 그
모즈는 막 오래가.

106043 @ 정당 모자가?

106043 # 응, 그 모즌이 조끄만허게 시리 뿐 좋게 즐곡 허민 막 오래가. 이런
뭇질패랭이ㄴ치 매일 썽 텅겨도. 그 모즈도이 다 못 썽 텅겨. 거 잘 즐곡 허는 사름
이라사 썽. 이디 우넉집이 하르방 곱게 즐아낫저, 거. 정당모즈엔 행.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은 어떤 밥 먹어난 마씨?

107001 # 보리쌀, 좁쌀이 전공이주게. 이 제주도에선. 또 콩 또 숨메 낱 먹는 거. 팻이나 콩이나 숨메. 콩 놓는 것이라 숨메엔 허주. 밥 숨메. 이것덜은 잘 사는 것들이라고 숨메도 모르는 거 보난. 팻 숨메 놓았저 콩 놓았저. 팻밥, 보리밥, 조팍.

그땐 고팡에, 쌀항, 항에 쌀도 쟁 저을 먹을 거 쌀을 항에 막 하영 헤다 놔 지민 막음 농곡 이제 뭐 어디 강 사와지느냐? 이녁거 헤사. 쌀 쟁 못헌 사름은 막. 방에 쳐다근에 항에 놔. 보리쌀도 좁쌀도 놓아근에.

107005 @ 흰밥도 먹어났수과?

107005 # 곤밥, 찜 이젠 저영 쌀만 먹엄주만은 우리 시대엔이 보리쌀에 좁쌀 서 쟁 먹음도 어려와. 좁쌀 나민 좁쌀만. 보리쌀 나민 보리쌀. 쟁만 먹는 사름이 많아. 보리쌀에 좁쌀 서 쟁 먹는 사름도 싣고.

107004 @ 반지기밥이 뭐우파?

107004 # 곤쌀 흐뎡 서끈 건 반지기밥. 보리쌀에 좁쌀에 서 쟁 곤쌀을 흐뎡 놓민 반지기밥. 반반 서끄는 것도 반지기밥이고. 또 콩이나 팻이나 논 건 숨메 낱 밥헌 거. 누렁이 헤영 게 밥 승농 행 먹곡. 솟되게 물이나 족게 돼면 밥이 늘주게.

107011 @ 툷밥도 먹어났수과?

107011 # 툷, 툷 요새엔 비싸지 안허느냐게? 허영 먹도 못허게 허고. 건디 그때는 툷은 이녁 자유라, 바당에만 갖다허면. 케니까 그걸 비어단에 솟아가지고 쌀이 족으난이 서꺼서 밥을 헤서게. 경헨 이제 툷밥이여 패밥이여 경헤난 거. 그 해베피 안먹언. 그 승년 진 때. 프래도 낱 먹엇젠 헤라, 프래밥. 우리도 툷 조금 낱 먹어난, 그 해에, 그 해에, 우리 하르방은 안 먹어. 건디 우리 하르방 먹지도 안 헤낫젠 어제도 그 말 곺안. 이 날새가 우쳐가면, 비 많이 온 때, 올리 지금 미짱이 막 못 탑 세계. 경헤부난 아이고 흔해도 승년에 그 비가 많이 완 경헤난디 경덜 곺으멍 할망 덜 앓안. 경 곺안 우리. 경헨 그때 조가 안돼연에 툷밥 먹엄저, 밀주시 먹엄저 경헤난.

107012 @ 패밥도 이수과?

107012 # 옛날에 그것이 멧년도 산디 헛순 몰르켜만은 이 제주도에 승년이 저서이. 비가 그냥 이 조 비어갈 때 많이 오라가지고 조고 이 모든 곡석이 안돼어서게. 안돼니까 이젠 해변가에서는 그 바다에 가지고 패가 이서.

107013 @ 국은 어떤 국 먹어났수과?

107013 # 장국이 주로주게.

107014 @ 장국은 어떻 끌려?

107014 # 장냥 꿩와가당 누물냥 끌리민. 끌렁 놔도 돼고 현디 미리 냥 끌려야

국이 맛있어. 꿩 송길 봐야.

107017 @ 콩국 잘 끓이려면 어떻게 하나?

107017 # 두께 열앙 끌려. 흐쉴 더껏당은 부껴불주게. 겨난이 우린 또 콩국이
늑물 놔서 콩그를 허트면은 잘 안 익영 콩이 기름기 한 거라부난에 맛 좋지 안허주
게. 경허난 난 콩국 끌리는 거 물 꿩와가지고 콩그를 놔서 젓영, 저서근에 이제 흐
불 켜 다음에 늑물을 놔. 경행 끌려도 두부그지 두박두박 잘돼영이. 경허는디 어떤
사름은 늑물이영 다 논 다음에 콩그를 허껴, 콩그를 질 나중에 쉰 놔도 돼여렌. 경
굴아라. 우린 그냥 그루차 놔. 경허는디 서툰 사름은 콩그를 물 카, 물을 카가지고
그냥 놓당은 병덩이가 지어이. 우리그치 낳은 서툰 사름은. 경허는디 사발이나 무신
흐쉴 큰 그릇에다가 콩그를 이제 수제로 물을 카. 경행 물 꿩여가건 이제 그걸 놔.
놓아서 꿩우면은 좋아. 우린 그루채 낳 끌려.

107018 @ 호박잎 국도 끌렁 먹어 낫지예?

107018 # 국 끌려, 호박잎국. 호박잎 국도 잘먹는 인 잘 먹어. 그루 흐끔 허트곡
허영. 호박잎국은 그루 아니 허경은 안돼. 쉰장이나 낳은 안돼여. 근장 농곡 호박잎,
그루 농곡. 소금도 놔도 돼는디 근장 놔사 맛있주게. 경헤근에 호박잎국 그루 허경.

107022 @ 냉국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22 # 냉국도 그거 마찬가지로. 장 놓앙 메역 놓앙 허는 사름, 이제 오이 썰어
근에 장에 허는 사름. 초 쪼끔 농곡. 냉국에 초 이제 쪼끔 농민 좋아. 많이 놓지 말
앙. 메역 뽕앙 냉국도 허곡 오이 썰영 냉국도 허고. 우리도 경행 먹지게. 냉국 먹구
정 허민, 막 더울 때 냉국 먹고 싶으면은 그처럼 헤영 오이 썰어 농곡, 늑물도 좋지
게. 늑물 좋아. 늑물 헤영 먹는 사름은 늑물냉국. 늑물 솟아가지고.

죽류

107024 @ 죽은 무신 죽 먹어낫수과?

107024 # 죽은 게, 옛날은 주로 이 웃드르선 콩죽. 경허고 또 이제 죽도 게 먹
구정 허민 꿩죽도 썰 먹고, 콩죽도 썰 먹고, 팥죽도 먹고 경허주게. 흰죽, 쌀만 낳
현 거도 있고.

107030 @ 녹되 논 건.

107030 # 녹되죽도 쉰. 녹되죽도 세여.

107030 @ 세여?

107030 # 쉰다고, 녹되죽은 쉰젠허민 녹되가 잘 어롭주게. 녹되도 가는 세계는
것도 주로 가는디 벨로 안 같아. 그거 득죽에 농민 좋넌 헤라.

107032 @ 송키 낳 끓이는 죽은 엇수과?

107032 # 무사 엇어? 콩죽에도 송키농곡, 팥죽에 아이놔, 깨죽에도 안 농곡, 콩
죽에만 송키 놓고.

107032 @ 송키만 하영 낳 끌리는 죽은 엇수과?

107032 # 엇어, 국 베끼.

범벅과 수제비

107036 @ 메밀 국순 어떻 허는 거봐?

107036 # 모믈코루 허여근엿에 몰아근에게, 칼국수 엿어게?

107036 @ 어떻게 해?

107036 # 반죽헿, 안반헿엿 밀엿.

107036 @ 무신걸로 밀어?

107036 # 미는 것도 싯주만은 이제 간단허게 꿩으로 민다. 미는 흥싯대가 이서 낫어.

107036 @ 흥싯대?

107036 # 서답 두드리는 것도 흥싯대, 다듬이 허는 것도 흥싯대. 것도 잇주만은 떡 미는 것도 이서. 요만 지레기헿엿 조그만이 멘들아가지고. 굿추는 집이 다 거 헤 놔. 다 헤냥 헤여.

107036 @ 밀어근에 그다음엔?

107036 # 몰아근에 밀엿 썰어야주. 칼국수 엿어게? 요새. 요샌 기계로 헿주만은 옛날은 손으로. 이제도 우리 모믈국시 헿 먹구정 허민 뉘.

107036 @ 국에 다른 거 안 놓니까?

107036 # 모믈국시에도이 집이서 옛날 두부허거든. 두부도 놓고, 이젠 또 저 곤 떡도이 생헿허명 이제 영 오막떡이엔 허엿 동골동골 멘들앙 꼭꼭 영 헿거, 거 모믈 국시에 서경도 허여.

107036 @ 그제 오막떡?

107036 # 응. 국멩질이엔 허엿, 국멩질부터 문여 헤낫어.

107036 # 두부도 놓민 맛좋아.

107036 @ 두부도 그제 놓고? 야채는 안 놓고?

107036 # 안 놔. 두부도 집이서 헿 두부 맛좋아낫저게, 옛날에.

김치

107037 @ 김치는 지금도 담감수과?

107037 # 아니, 저 아이덜이 담아당 주주만은 나 먹구정허민게 집이서. 낙물게 낙물. 늣삐집치도 싯고, 베치 집치도 싯고. 뉘 그거주 무시거. 거 베피

107039 @ 열무는?

107039 # 열무 ㄱ뜬 건 츠마기 집치, 여름에. 츠마기 집치도 지금 총각집치엔 헤엿 먹으민 맛좋주만은.

107039 @ 열무엿 총각 집치가 ㄱ뜬 건가마씨?

107039 # ㄱ뜬 거라. 무수 이제 열무 김치는 열무엔 헿 무수가 잇고 총각집친 무수 ㄱ 때 허는 것ㄱ라 총각김치엔 허고. 경헿주게.

107039 @ 품종이 따난 거봐?

107039 # 열무가 잇주게, 열무. 여름에. 열무는 무수 먹는 건디 건 봄 무수, 그 건. 여름에 안 돼여 그거. 경허고 이제 총각김치는 무수가 막 크지 안헌 때 뽑아 가지고 허는 건 총각김치. 겨고게 썸 흥뽀 부찌근에 허미 것도 막 맛있지. 츠마기 김치가 총각김치. 열무김치는 딱난 거.

107039 @ 열무김치가 츠마기김치 아니꽈?

107039 # 열무김친 저 여름에 허는 거여게. 여름에.

107040 @ 물김치도 헤 낫수과?

107040 # 허주게. 이제도 행 먹주게. 무수 썰영. 옛날도 셔, 물김치.

107042 @ 늣뻘김치는 마씨?

107042 # 늣뻘엔도 허고 무수엔도 허고. 늣뻘엔 허난 잘 몰르더라고. 무수엔 헤야 통일어주.

107042 @ 깍두기 김치 어떻 행 만드는 거꽈?

107042 # 깍두기도 무수 썰어근엔에 허는 거. 옛날도 즘질게 썰영 헌 것ㄴ라 깍두기라. 크게 헌 건 무수김치고. 깍두기 즘지롱허게 썰어근에 무수 깍두기 허민 맛 좋아.

107042 @ 나박김치영 깍두긴 모양이 다릅니까?

107042 # 그것도 그거. 틀리멍 말멍. 너붓너붓 썰어가지고 나박김치.

107043 @ 파김치도 행 먹어낫주예?

107043 # 파김치 허여. 쪽과, 패마농. 쪽과ㄴ라 패마농. 패마농 김치 헤영 먹고.

107045 @ 갓김치는?

107045 # 갓김친 이 갓늣물로 헌 거. 갓늣물김치. 시지 안헤시민 앗다당 뷔우켜 만든 갓늣물김치 막 오랜 거 이서. 시어. 제주돈 잘 안헤여. 저것도 아이덜 먹으렌 아져왔근데 안 먹영 이서. 안 갈아 이디 잘.

젓갈

107048 @ 자리젓 말고 다른 거 무신 젓 답급니까?

107048 # 뿔젓도 허고 것도 으라가지주만은 여기는 주로 뿔젓허고 자리젓베끼 안허여. 다른 해각더렌 뿔 으라, 젓도 으라가지 허주만은.

107049 @ 자리젓도 하영 담가낫지예?

107049 # 소금에 맞창 것도. 소금 흥 뿔민 것도 자리 흥 말이민 소금 흥 뿔썸 뉘가지고, 허여서이 맛있어, 것도 이녀크로 허민. 쯤그만헌 향아리에.

107049 @쯤그만헌 향아리?

107049 # 오가리, 단지.

107049 @ 다른 거꽈?

107049 # ㄴ튼 거주, 더 족은 것ㄴ라 단지.

107049 @ 츠레대로 곶아줍서.

107049 # 단지 오가리, 큰 건 향.

107049 @ 다른 건 엇수과?

107049 # 세 개뿐.

107051 @ 아가미 것도 험니까?

107051 # 게메 그것은 해변더레만. 해각에 그 배허영 고기 허여오는 사름허주
여기 안허여.

장아찌와 회

107055 @ 지시는 뭐 행 먹어났수과?

107055 # 지시도 콥대산이 지시 헤영 먹고.

107055 @ 콥대산이 지시 말고 또 무신 지시 험니까?

107055 # 무신 지시 엇어. 생기리나 서경.

107056 @ 마농지신?

107056 # 게 그게 그거. 콥대산이.

107056 @ 마농 대도 허지 안험니까?

107056 # 마농은 건 빨리. 그것도 지시행 먹구정 헌 사름은 빨리 지시 행 먹고.
우이 거 대영, 빨리영 어린 때 허는 건 마농지시라. 빨리만도 썰영 허여. 마농 어린
때 빨리영 서경 헌 것그라 마농지시고 또 마농 빨리 깡 행 먹구정헌 사름은 깡 행
먹고.

짱아찌엔 허여근에 또 짱아찌 허는 마농 잇지 안허여게. 요새엔. 빨리만 허영. 그
거 맛있주게. 것도 옛날은 거 잘 안 헤난디 요새 짱아찌 잘 먹어. 우리 두린 맨 그
것만 헤도이 윈 변허도 안허고 맛이 좋아라.

107056 @ 마농진 어떻 허는 거마씨?

107056 # 우린 그때 경 집이서 그냥 조선, 집이서 담은 간장만 낱 헛주게. 경헤
도이 봄이 이제 허여서 팔월에 밧디 앗앙 가도 변허도 안허여. 그것에 물 즙앙 밥
덜 잘 먹어. 경헤난.

장 담그기

107059 @ 된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 메주름이 십일월들에, 십일월들에, 이제 솥아근앵이 십이월 이제 돼면
은 장을 커야돼. 동짓들에 솥아가지고 십일월들에 솥아가지고 이제 담야. 나 이제
훈 열흘 싯당 담을 거여.

107059 @ 언제쯤 돼민 다 똥거라?

107059 # 삼 개월. 십일월들에 허니까 정월 이월 삼월 나민 이제 메주허고 장물
허고 딱로 놔둬야 좋아. 메주는 건져가지고 손으로 장갑 찌어근에 꾸어근앵에 비니
루장갑 어샤게? 그걸로 퐁퐁 누르땡 오가리에 이제 딱로 담고 담양 소금 더경 탁허
게시리 미시거 범접 못허게게. 장물은 또로 거렁 낫당 장물 딱로 먹고.

107059 @ 옛날 된장 하영 담아났주예?

107059 # 우리 하영 담아난. 향덜 이서, 큰 향덜.

107059 @ 향 멧 개 답습니까?

107059 # 흥나개, 담으민 돼주. 식구 뭐 이녁 가정 먹을 거난.

107059 @ 콩은 얼마나 들어가?

107059 # 콩 닛말궂장 솥아났저, 우리 식구 하난. 물 으답 허벅. 으답 허벅 드는 향이 이서. 큰 향. 것도 제주도 붉은 향은 안돼여이. 육깃향 검은 향. 물이 절대 숨지도 안허곡 좋아. 옛날 조그만씩 헌거 장물 거리는 것도 육깃향덜 다. 그 향이 옛날은 제주도 거는 궤양향이엔 행이

107059 @ 무신 향?

107059 # 궤양향. 빨간거. 제주도에서 군 건 물이 숨어 게서 장 못 담아.

107061 @ 웬장은 어떻 만듭니까?

107061 # 콩 솥아가지고 퇴와 가지고 이제 콩 솥양 이렇게 멘들아가지고 놔두민 그것이 이제 곱쟁이 피엥 막 그것이 퇴는 거라고 행이. 경행 이제 물리와. 물리왕 깨끗이 시쳐근엥이. 아 올리도 나 장 듬안. 우린 일생 살명 이때도록 장 듬아. 이녁 먹을 거. 전인 콩을 그냥 반 말 썩 솥아가지고 물을이 큰 향에다가 으답 허벅 썩 담아난디 이젠 흥뽀베피 아니허여. 흥 흥 말썬. 쟁해도 시에서 장덜 앓당 먹어, 아이덜.

107061 @ 장 담글 땐 어떻 험니까? 메주를 시쳐?

107061 # 메주 코콜이 시쳐두고 벳날 때 물루와.

107061 @ 뭇로 시칩니까?

107061 # 수세미로 시쳐야주게. 그때 손으로 시쳐도 장만 맛잇주. 장국은 매일 먹으니까 우린이 찌개도 잘 안 먹고 장국을 주로 먹어.

107061 @ 시청 향에 답아?

107061 # 응, 소금이 물 흥 허벅에다가 관뉘로 세 개. 그렇게 허민 정확허여. 게니까 이젠 허벅도 엇어부니까 바가쓰로 두 개민 흥 허벅이라. 두 바가쓰에 관뉘로 세 개.

107061 @ 또 물러?

107061 # 아니 물류나 그냥 물 빠주왕. 경행 소금물 곱아.

107061 @ 소금물 어떻 갈아?

107061 # 소금물이 흥 허벅에 관뉘로 세 개 노민 돼여. 경행 녹여가지고 이젠 소금물을 드끈 곱라 앓저. 게도 이젠 소금이 고와부난 티가 엇어, 벨로. 옛날은 소금도 구져부난 티가 많아. 곱라 앓인 아쟁이가 엇어. 쟁디 이젠 겨 안허여 고와 소금이. 그거 헛다근엥이 이제 옥상에 담압주게.

107061 @ 메주 낱 소금물 답아?

107061 # 소금물 영 녹여가지고 향아리에 낱 그것이 소금도 요샌 고난 경 안해도 돼주만은이 옛날은 거 흥 삼일 곱라 앓정 곱닥허면 아쟁인 데껴불고 낱 헌디 요샌 소금 고난 흥루에 헤도 돼여. 아쟁인 데껴불고. 티갈 엇이게 행 깨끗허게 행 천

으로 탁허게 싸면은 프리도 안들어가고 잘 간수해야돼, 장은. 매일 아침 강 올고 더
끄곡 험서. 하르방이영 나영. 하르방, 어디 갈 때 비왓직 허민 ‘장 더릅서’ 영 허곡.

107061 @ 항에? 장항에?

107061 # 항에.

107061 @ 항에 뭐부터 놓니까?

107061 # 소금물 곶양 놔놔 메주를 들이쳐.

107061 @ 얼마나 들이칩니까?

107061 # 얼마 들이쳐? 그냥 소금물 곶양 곶라 앓지민 들이치주게.

107061 @ 콩은 얼마나 험니까?

107061 # 이젠 하영 안허여. 전인이 콩을 너닷말 허지. 막 아으덜이영 먹을 땐.
경허단 이젠 흐 흐말반 베피 안헤서. 서말 숲아네 이제 딸네 더러 아져가고.

107061 @ 벧날 땐 열아줍니까?

107061 # 장항 뚜경도 흐뎡 열아줘사지게. 이제 더꺼도 어떻 안허고 봄이나 낭
벧이 더워갈 때 흐뎡 열고.

107061 @ 그다음엔 안 열어도 돼어?

107061 # 것도이 벧나근에 머헌 땐 흐뎡 올라도 뉘고 안 올라도 어떻 안헤. 근
맞이민 어떻 안허여.

107061 @ 간장이엔 험니까 장물이엔 험니까?

107061 # 장물이엔도 허고 간장이엔도 허고.

107061 @ 언제 간장을?

107061 # 간장 흐 흐 두덜쫂 이시민 장물을 떠. 그게 간장이고. 뉘장은 이제 잘
허영 오가리, 다른 죽은 오가리레 담양 소금 탁 더경 놔둬서 먹엄지게.

107061 @ 오가리는 죽은 거?

107061 # 죽은 거, 죽은 항.

107061 @ 오가리레 메주 낱 우에 소금 덮어마씨?

107061 # 미시거 비니루나 영 끌아가지고 소금 톱 더꺼가지고 더경 놔뉘. 소금
영 낱 흐뎡 낱.

107061 @ 소금은 무사 더끄는 거 마씨?

107061 # 게 영 티라도 범접허카부텐게 흐뎡 더꺼도 탁 싸불면, 나 이때도록 헤
도 장에 티 흐나 엇이 먹엇저게. 장탕이 탁 더경.

107062 @ 메주는 어떻 만들어?

107062 # 메계라. 콩 숲양 뉘앙게, 콩 숲양 메주허여근에게.

107062 @ 콩 숲양 그 다음에?

107062 # 콩 숲양게 메주 멘들양 메주 톱왕 그다음에 깨끗이 시쳐가지고 뉘렁
게. 물로, 수세미로 막 밀어.

107062 @ 뉘로 뉘아?

107062 # 기계에 강 뉘아.

107062 @ 기계 말고 옛날에.

107062 # 블라, 블루아. 블르나 마께 엇으냐? 마께에 도고리에서도 뺏고 경허단 이젠 또 못허민 찰리에 닳아 블루아이. 블랑 저영 메주 만들아가지고 이젠 저디 낭 퇴와. 그자 돌아매여.

107062 @ 끈은 무신 걸로 험니까?

107062 # 끈은이 무신 산뒤짚으로 멘들양 돌아매사 맛잇넨 해도 그때는이 끈이 엇다게, 옛날 우린 두린 때는 끈이 엇어가지고 산뒤짚으로 헛거든. 경헌디 이제 끈 이 만헌디 뭇허레 그 산뒤짚 티나게 허냐? 산뒤짚으로 험사 맛잇넨 그말 그거 헛말. 나가 이때도록 친정어머니네 할머니네부터 장을 돤아이. 이제도 나 장 돤아. 그거 아이덜 오랑 이디 장 앓당 먹나게. 이제 메주도 돌아매엇저게.

107062 @ 돌아맷당?

107062 # 돌아맷당 몰르민 장 돤을 거여. 이제 혼 열흘 싯당 장 돤글 거.

107063 @ 장 담을 때 금기 같은 거 이수가?

107063 # 상가에 ㄱ뜨디 가오민 안돼여. 옛날 우리도 들은 말이주게. 지내어 봐시냐? 메주 숲을 때도 그런디는 흐뎡 안 강해.

107063 @ 무신 날 숲읍니까?

107063 # 아 그건이 옛날 법이 이녁 집이 헤치 엇인날 숲넨 허여. 옛날 법으로 것도.

떡류

107065 @ 친떡은 하얀 걸로?

107065 # 건 이녁 믹음. 쫓 논 것도 잇고 무수좌근에 쫓에 치면 맛이서이.

107065 @ 그냥 하얀 거는 무신 거엔 곱읍니까?

107065 # 곤친떡게.

107065 @ 쫓 논 거?

107065 # 쫓는 친떡이엔 허주게. 그냥 일반 제에 씨는 거는 곤친떡, 쓸만 해서 치는 거. 것이 좋아.

107066 @ 송편을 만들면 물 끓여서 들이칩니까?

107066 # 숲아, 숲으나 징허영 치어. 치어가지고 내어가지고 언물러레 놔서 시쳐.

107066 @ 어디서 쳐?

107066 # 징이 잇주게, 징 치는 거. 떡 치는 징이 이서. 포 꿀양 그 포도 곱닥허게 잘 헛당 칠 때 꿀아근앵이 치어가지고 그 친 걸 물러레 낭 시쳐야헤여.

107066 @ 기름도 바릅니까?

107066 # 지름도 불르는 사름 블라. 물 맞게 숲으민 안 블라도 아무통도 안허는디 것도 반죽이 익으나 어떻게 허민 지름 블라야 돼여. 부떠붙어 가지고.

107068 @ 상웨떡은?

107068 # 상웨떡은 이제도 허주 뭐. 해난 우린 주로 해난.

107068 @ 언제 쓰는 거봐? 물떡허고 상웨떡은 언제 허는 거?

107068 # 물떡은 허여 나건디가가 설릿주만은 상웨떡은 이제도 허여. 제스때도 우리 허여. 이젠 떡칩이 맞창 해당 먹엄주만은 그전엔이 상웨떡 허젠허민 이제 기주엔 허영 허여냐. 이녁냥으로 밥허여가지고 누룩냥 부글부글 퀘여가면 ㄱ를러레 밀ㄱ를러레 그거 걸러냥. 경행 이제 톨양 놔두민 그것이 부그락허게 퀘면은 숨메 농곡헤영 멘들양 치민 상웨떡이 참 맛있어. 맛있어.

107068 @ 부주로 가져가는 거봐?

107068 # 부주로도 가져가고 집이서 제스때도 허영 먹고. 나가 헤낫져, 그거, 상웨떡은. 부글부글 퀘민 저 큰 솟되서 치여. 치영 ㄱ 낸 땀 막 맛 좋양 먹어덜. 어디 동넛집이도 서너 개씩 냥 아져가민 막 상웨떡 잘 돼엇젠 헤영.

107068 @ 물떡은 부끄는 거 아니봐?

107068 # 그것도 밀로 허민 부팡 허여.

107068 @ 속에 뭐 놓니까?

107068 # 숨메 놔. 것도 마찬가지로.

107068 @ 상웨떡이영 물떡이영 뭐가 다릅니까?

107068 # 크기가 틀려. 새미떡 닳은 건디 큰 거, 물떡은.

107068 @ 긴 상웨떡도 이수과?

107068 # 긴 건 상웨떡이엔 안허여. 그건 구좌멘 허여. 긴 거 허여서 썰어가지고 친 거. 이디 안허여. 겨고 이제 짐녕으로 저레 가면 구좌멘 가면 퀘와가지고 영 허여서 썰어. 썰어근앵에 치어. 납작납작허게 치어. 경허영.

107068 @ 상웨떡은 밀가루로 허는 거봐?

107068 # 밀ㄱ를로.

107069 @ 옛날에 제사 때 떡은 무슨 떡 헤낫수과?

107069 # 떡은게 그때 쉿헨허고 쉿헨이엔 허주게. 곤떡 허고. 친떡. 새미떡도 헤낫주만은 이제 새미떡 안허여.

107069 @ 옛날에 해난 거.

107069 # 옛날에 새미떡 허고 곤떡 허고

107069 @ 곤떡은 무신거?

107069 # 쉿헨게 쉿헨.

107069 @ 아 쉿헨.

107069 # 친떡허고 세 가지.

107069 @ 절벵헨 때 짝는 건?

107069 # 그런 거 판 절 엇어 이디. 판 거 몰르크라. 쉿헨 솔벵 허는 판도 이서 난디 거 일름 뵈산디 몰르크라.

107069 @ 떡 밀 때 바닥에 건.

107069 # 안반, 흥짚대. 흥짚대로 떡 밀어가듯. 무시거 흥쓸 헤근앵이 하간 거

확확확확 해불주 허는 건 에에 흥긱대로 떡 밀어가듯 해불주. 이 안반에 낡 떡 밀 주게. 영 맛맛하게 밀어. 떡 경행 터.

107069 @ 솔벤 절벤 이런 거 안해난?

107069 # 그건이 이딘 안 허여.

107069 @ 이딘 무신거 허여?

107069 # 이딘 곤떡 허고, 주로 제스 때 허는 거는 그 생펜허고 새미허고 친떡 허고 지름떡 허고 그것을 허는디 이디도 구좌멘드레 가면은 솔벤 뒤 절벤 그런 것 가 주로 허여이. 지방마다 것도 뜰려. 이 동네는 그 막이 제혈 때 그런 때는 더러 허여. 존새미.

107069 @ 존새미는 뭐마씨?

107069 # 쪼끌락헌 거. 새미떡 쪼끌락허게 멘든 거. 그거 허고 또 그런 지름떡 닦은 것도 솔벤이엔 허영이 것도 해여와. 이제 떡집이 맞좌도 그런 거 해여줘. 제에 씨는 거. 경헌디 보통 제스에는 그 지름떡허고 그 저 곤떡, 새미떡. 이젠 새미떡도 안허여. 곤떡허고 친떡만.

107070 @ 그런 떡 말고 영장 날 때 무신 떡 행 가났수과?

107070 # 옛날 아주 옛날은 물떡이엔 행 새미떡 닦은 건디 훑게 해났어. 그런거 엇어 이제.

107070 @ 물떡은 무신 걸로 멘듭니까?

107070 # 물떡은 밀 곶앙, 밀로도 멘들고 옛날 모듈 한 뎀 모듈떡도 멘들고. 경헌디 이젠 엇어. 옛날은 경해난.

107070 @ 다른 건 엇수과?

107070 # 이제 큰 제 상가에나 소상때 ㄱ든 때는 저 거시기 아이고 것도 이저 불언. 새미떡도 존존허게 허곡. 퀘멍, 퀘멍. 아이고 이제사.

107070 @ 퀘멍이 떡 우이 올리는 거?

107070 # 아니 그건이 제스 때에는 안 해. 소상 때 그런 때는 저 거시기 ㄱ사 곶아될 뵈고? 퀘멍, 퀘멍인디 요추룩 해가지고 요기서 그뭇을 세 개 내왕 스랑스랑 허고 또 새미떡 존존허게 멘들고 또로 ㄱ사 곶은 그 솔벤, 절벤 그거 다 ㄱ창이 세 가지라, 세 가지. 게 지름떡 해가민 다섯 가지라. 퀘멍이, 퀘멍. 퀘멍을 다섯 가지 해가지고 친떡 우이 조근조근 올려. 친떡 올령 그다음 송펜 올령 그 퀘멍을이 퀘멍을 이제 손가락 닦은 퀘멍에 또로 저 새미떡 존존허게 멘들앙 새미떡에, 또 솔벤에 절벤에 지름떡에 허민 다섯 가지라고 다섯가지. 그거. 경혜영 허는디 요새에는 그런 제법이 엇다게 요새.

107070 @ 친떡 그다음엔?

107070 # 그 다음은 송편.

107070 @ 그 다음 새미떡.

107070 # 새미떡.

107070 @ 그다음 솔벤.

107070 # 경 올려난 다음에 꿬명으로 들어가면 꺳사 나 아이 곺아냐? 손가락 닳은 거, 또로 쪼글락헌 새미떡.

107070 @ 계난 보통 떡을 해난 다음에 그 우티 꿬명으로 쪼끌락 허게 멘들아?

107070 # 딱로, 꿬명이 이서, 꿬명. 다섯 가지라 다섯 가지. 새미떡에 이젠 요 손가락 꺳추룩 헌것에, 또 저 거시기 솔벤, 절벤, 지름떡 경허믄 다섯 가지 아니가? 경헤영 꺳추아, 그걸.

107070 @ 처음에 밑에는 솔벤 절벤은 안 놔?

107070 # 안 놔.

107070 @ 친떡 허고 송펜 논 위이 그다음에 새미.

107070 # 새미떡 다음에 쪼글락 헌 것에 이젠 또로.

107070 @ 손가락 영 헌 건 이름 무신거?

107070 # 거 다 꿬명으로 허여.

107070 @ 다 꿬명으로.

107070 # 즈 꿬명이라고 해가지고. 솔벤, 절벤, 새미떡, 그 손가락 닳은 이제 그 꿬명 경헤가민 네 가지에 지름떡 허민 다섯 가지.

107070 @ 건 꿬명으로 허는 거, 영장 때?

107070 # 응 이름이 꿬명이라. 요새 계난 맞창 헤오는다 꿬명 온디도 잇긴 잇더라. 꿬명도 멘들아. 옛날 식으로. 경헤근에 꿬명 또 새미떡 이보단 흐끔 훑어, 새미떡. 새미떡도 허민이 제 으라번 허젠 허민 것도 으라개 들어가. 흐 쟁반에 이제 꺳촛. 그거.

107070 @ 다 꺳추는 건 뤼엔 곺읍니까?

107070 # 다 꺳촛야주게. 흐 반. 흐 쟁반. 제 흐 번힐 때 비와뵐 또 꿬영 허고 그렇게 헌다고. 경헤여. 옛날은 그 떡 힐 때, 그 꿬명 마탕 허는 사름이 이서, 딱로. '꺳명 헤볼라.' 헤여근에게. 경헝 헤여.

107070 @ 꿬명은 다섯 개 떡이 들어가는 거라예?

107070 # 응, 다섯 개 들어가.

107075 @ 젤 우에 멘 위에 올려 놓는 떡은?

107075 # 지름떡.

107075 @ 지름떡 말고 다른 말은 엇수과, 우쩍, 웃기떡 같은 거 안 들어봤수과?

107075 # 안 들어뵐. 질 우에 지름떡 올리주. 조근조근 올려가당 지름떡 올리는 디 이 제스에는 지름떡 베피 안 허는디

107076 @ 돌레떡은?

107076 # 돌레떡은 그냥 뵐동글락허게 멘든 것꺳라.

107076 @ 돌레떡은 무신 걸로 멘듭니까?

107076 # 곤쌀로도 멩글고, 모뵐쌀로도 멩글아. 돌레떡.

107078 @ 기증편은?

107078 # 기증펜, 건 꿬왕 허는 거. 기주 냥.

젠디 떡도 지방마다 틀려. 이 짐녕더레 손당더렌 가민 그 밀어가지고 퀘영 멩글 지 안허영 푹푹 썰어근앵에 니귀반득허게 치영 떡주게. 그것ㄴ란 낭웨라고 허여, 낭웨. 그디서 낭웨엔 곤는 거 닥안게. 이딘 안허고.

107078 @ 만두도 해낫수과?

107078 # 만두가 새미떡게. 만두가 새미떡이라. 이제 만두 그거 새미떡. 옛날에 해낫주만은 지금 물떡이엔 헤도 아무도 몰르고 만두도 몰라. 새미떡이 푹 닥아, 만드는 거 만뒤허고. 소름소름허게 허여근에 이제 저 즈아근에 허여. 이제도 큰 제에는 그런 것도 써.

107078 @ 수수로도 떡 만들어 먹어낫수과?

107078 # 그 비차락 매는 대죽이 옛날에는 막 대죽살 으름이 흐려가지고 대죽오메긴이 막 탐내는 거주게. 건디 이제 그것이 엇어.

107078 @ 대죽 오메기가 뭐파?

107078 # 대죽살로 현 거. 이제 조오메기 엇샤게? 그 대죽살로 오메길 멘들아. 그렇게 허민 경 맛이 좋아낫저. 대죽오메기. 시에 가도 대죽오메긴 막 비싸고, 사떡젠 헤도. 젠디 그 대죽살이 어디 가신디 몰르크라. 비대죽인디 비대죽이 씨가 이서 낫저게 썬이. 요새 비대죽 가는 디 신가? 어디? 이 제주도예. 수수떡이엔 허영 대죽떡ㄴ라도 수수떡이엔 헤구나 만은. 건디 옛날 대죽떡이 아니란게. 맛엇영 못 먹으크랑게.

107078 @ 송당?

107078 # 손당 아이 같아. 서춘에 어디 같아난디. 서춘에서 비치락도 매영 풀고, 이 저 봉개, 도련 드르가 그런 거 많이 해낫는디 이제 어떻 험신고? 비대죽 가는 디가, 옛날에. 수수떡.

소와 교물

107079 @ 풋친떡 헐 때 우이 놓는 건 뭐파?

107079 # 것도 숨메주게. 숨메를 많이 이제 풋을 많이 허꺼야 웨여. 그 떡 징을 허젠 허민. 숨메 슻아근에 풋 곱앙.

107079 @ 새미떡도 속에 뭐 놓니까?

107079 # 응 것도 숨메 놔. ㄴ뜨게, ㄴ뜨게.

107079 @ 송편 안에 무신 거 놓니까?

107079 # 송편 안에 그전인 우린 풋 숨메 헤영 잘 이녁으로 헛주만은 이제 떡맞창 기계에서.

107079 @ 만뒤떡에 숨메 놓니까, 베꺄디 무칩니까?

107079 # 숨메 놔. 베꺄디 무치는 건 모를 새미 헤가지고 옛날에 집이서 먹젠 풋 미쳐. 경행도 먹어난. 만된디 이제 풋 미청도 먹고 그냥도 먹고 경해난.

107079 @ 밥 헐 때도 숨메, 떡 헐 때도 숨메?

107079 # 숨메, 숨메 낱 헤염저. 숨메.

별식

107083 @ 두부는?

107083 # 둠비.

107083 @ 두붓물은?

107083 # 둠빚물, 두부해난 주쟁이 곶안 비제기, 주시ㄴ란 비제기.

107083 @ 두부는 어떻 멘들아?

107083 # 두부 옛날은 콩을 이제 곶아다근앵이 주멩기로 짜근앵이 ㄴ루 곶아당 허고. 막 옛날은 물 컷당 콩을 이제 ㄴ레에 곶아. 큰 도고리가 이서, 낭그로 멘든 거. 그디 ㄴ레 드리 앓저가지고 이제 곶앙. 주멩기로 짜근앵이 이제 솟디 ㄴ근앵이 솟으민 두부 돼는 거.

107083 @ 콩은 뭐에 갈아? ㄴ레에?

107083 # 이 옛날은 이제 ㄴ레허여근에 도고리에서 영 곶앗거든. 콩을 물에 커가지고. 경헌디 요 중간 돼가난 기계에 강 ㄴ를 곶아당, 곶아다근에 이제 그걸 막 몰아, 그걸. 경헛당 휘휘 짓영 주멩기로 짜. 짜서 솟디서 솟아근앵이 또 이젠 포, 저 베포 헤여근에 그걸 이제 솟디 걸 퍼놔. 퍼놔근앵이 지둘라근앵이 ㄴ두민 두부 돼여.

107083 @ 물은 소금물로 험니까?

107083 # 바닷물 떠당 헤여, 근물. 견디 바당에 이렇게 보니까 그 ㄴ되는 막 지저분 험 거 뜨지 안허느냐? 게니까 나가 험 뎀 소금물 곶앙 드큰 곶라앗앙 장 둠을 때ㄴ치. 그렇게 해서 두부 솟아 가당 솟드레 영 노면은 두부가 트랑트랑허민 이제 두부 거렁 포에 쌍 안반더레 ㄴ근에 걸 이제 지둘랴. 안반에 ㄴ가지고 아무 거라도 물 흔 허벅 질영 놓민 돼여. 무거운 거냥 지둘랴. ㄴ레도 엇어도 돼여. 옛날은 ㄴ레 헛주만은. 경허민 물 빠지민 두부가 맛있어. 막 맛있어. 좋거엔 상 봐도 그런 맛이 엇고. 맛있어. 우리 정월멩질 ㄴ쁜 뎀 두부 허주게. 이제사 안험주만은. 이제도 허민 잘허주만은 안허여.

107083 @ 이제도 바당물로 허여?

107083 # 바당물이 춘물 바닷가에 강 질어당, 그 춘물 낱 허는데. 이제 바당에도 추접허지 안허냐게? 우리 중간에 소금물 행 곱닥허게 곶라 앓정.

107083 @ 아, 미리 해서 오랫동안 ㄴ뒤.

107083 # 오랫동안 안 ㄴ도게, 소금물 헤근에 오가리에 이제 ㄴ둠서루 그 두부 다 솟아져 가민 그 짠물을 이렇게 놓면은 두부가 트랑트랑 ㄴ어가.

107083 @ 그다음에 물 빠지민 되는 거?

107083 # 겨난이 베포, 니귀반득헌 것에 헤다근앵이 영 퍼놔근에 싸. 경헛 이제 도고리에나 무스것에 낱 딱 지둘랴. 요샌이 콘테나 셔부난 더 허기 좋아. 콘테나에 톱 ㄴ근에.

107083 @ 경헛 ㄴ두민 두부 돼?

107083 # 경허영 이제 칼로 베어내민 떡ㄴ치 그 두부 되는거. 요새 다 경협주게.

107083 @ 요새야 다 사당 햄주만은.

107083 # 아니, 지금 두부 허는디도 두부공장에 강 봐. 팍 누루떠 것도.

107084 @ 메밀묵은 청묵이엔 험니까?

107084 # 묵도 ㄴ루, ㄴ멸ㄴ루헤영 청묵도 짱 손님 맞이고. 청묵도 허고 ㄴ룰로 굴양도 허곡.

107084 @ ㄴ루로 현 건 뭐엔 험니까?

107084 # ㄴ룰묵. 가룰로 만든 거니까.

107084 @ 반죽할 때 물을 하영 놓민?

107084 # 알라. 묵은 알루미 아이 웨여. 물 잘 맞창 헤사.

107084 @ 청묵은 어떻 허는 거마씨?

107084 # 모뎀썰에 주뎀이로 짜가지고 쑤어. 모뎀썰 물에 컷당 곁 이제 놀려 가지고 짜가지고 솟디서 쑤면 묵 돼주게.

107084 @ 계속 젓어야 돼지예?

107084 # 응, 젓어. 그냥 내불민 놀영 아이 웨여. 것도 또 묵 아이 누는 솟이 이서. 이 아레미 솟엔 묵 놀어, 잘, 지금 솟에는. 우리 저디 묵 쓰는 솟 잇저. 빙철이라도 큰 거. 빙철 닳은 거. 튀김도 허곡 허는 것에 쑤민 좋아. 이제 그런 거 사젠 허민 천지. 것에 허민 묵도 녹지 안허고 잘 썬져. 이제도 쑤젠 허민. 경허는디 늙어 부난 날ㄴ라 ‘묵도 허지 맵서, 두부 사당 허쿠다’ 경행. 게도 요변인 썬져.

107084 @ 나 못허릅디다. 버쳐.

107084 # 하영 허지말앙 흐뎀만 허민 돼주게. 겐디 시장에 푸는 건 기계로 짬주게. 가정에 우리 제스때 허는 건 이녁만 조끔 허주만은 그거 다 기계로 짬 나왔주누게가 거 손으로 헤당 흐느니? 이 십일월 들ㄴ장은 ㄴ룰로 써도 괜찮아이. 것도 계절에 따라가지고 여름에는 ㄴ룰 묵이 좋지 안허여. 그 청묵은 괜찮아. 맛이 엇어 베여. 우리가 생각허는 거주게. 허긴 허는디.

107086 @ 개역은?

107086 # 보리를 보까. 보리 시청 물령 보까.

107086 @ ㄴ레에 갈아?

107086 # 옛날엔 ㄴ레에 굴안 먹엇주게. 기계 엇인 때. 우리 두린 때 굴안 먹어 난. 콩도 서꺼. 콩만도 현 것ㄴ란 콩개역이엔 허영 맛이 좋아. 이 어린 사름덜 즈을 막 자가면 저 즈 자는디 깨우지 말렌 ‘아이고 콩개역 ㄴ뜬 즈’ 경 글아 난. 콩개역 이 맛이 좋아. 경 글아났저.

보리개역에도 콩 서경 허곡 또 콩개역만 헤영 숨메도 허여이. 콩개역, 콩 보짱 굴양. 숨메 험 뎀 줍썰 오메기가 이서. 흐린줍썰 오메기, 것에 콩개역 미쳐, 맛있어, 그거. 그냥 숲아가지고 개역더레 탁탁 둥그리멍 미쳐. 은절미도 허곡 오메긴 이제 영 동골동골 멘들앙 숲아내는디 은절미는 또 떡을 숲아가지고 밀어 밀어근에 숨숨

썰영 허는 것이 은절미라.

107086 @ 옛날 은절민 다른 거 아니?

107086 # ㄱ따. 게메 은절미 오메기 떡을 헤가지고 솟되 숲아이. 떡을 크게 멘 들양 숲아가지고 안반에서 이제 마께로 밀어 그 미는 게 이서. 떡 미는 거.

107086 @ 미는 건 뭐렌 곶아?

107086 # 그것 ㄱ라 흥짓대라고. 서답도 두드리는 거 ㄱ라 흥짓대엔 허주게. 흥짓대엔 헤영 낭으로 만든 길쪽 현 게 이서. 안바네 낱 서답도 감양 다듬는 게 잇고 떡도 미는 게 이서, 마께 닦은 거, 영 소르무랑행 쪼끌락 현 거. 겨민 이제 은절미나. 우리도 지름떡 혈 때 밀영 현다게. 지름떡 혈 때 밀영 현다게. 지름떡 혈 때 트는 거. 경행 허는디 낭으로 멘든 그게 이서 은절미 미는 거. 그걸로 밀어가지고 이젠 썰어. 니귀반득, 니귀반득허게 짓도 풋을 미치던디 콩개역을 미치던지 그렇게 허면 맛있어. 경해난. 거 옛날 막 옛날 옛적 해난 거 우리 어린 때 해난거. 우리 옥은 후에는 그닥지 그런 떡도게 경 힘들게 안 해엿주게. 못헤여, 못헤여 옛날 어른덜 ㄱ찌. 그 좁쌀 ㅼ아당 이젠 은절미도 허젠 허민 떡 멘들양 숲아가지고 거 밀영 은절미 트꼭. 오메기떡 허영 이젠 풋 미치나 콩개역 미치나 그렇게 허영 먹어.

107087 @ 밀가루 후라이팬에 지지미 허는 거 이수게.

107087 # 떡 지지는 거, 빙 지지는 거? 비온 날 떡 지정 먹으면 좋주. ㄱ루만 낱 지지는 사름 요센 계란이 싸니까 계란도 낱 지지고 맛 좋게 행 먹젠 허민 경행 지지주만은 배 불어노난 잘 먹지덜 안헤여. 떡 지정 먹는 거. 감저허민 감저튀김이여 템부라여 뭐 그거주. 템부란 일본말인디. 일본말, 일본말 템부라.

107087 @ 프라이팬 어시난 뒤에 해낫수과?

107087 # 후라이판 엇어부난 솟뚜쟁이에서도 허고.

107087 @ 빙철은?

107087 # 빙철 엇어난. 빙철 이슨 것도 중간에. 잇긴 이슨디 거 중간에 나타낫주. 옛날은 우리 빙떡도 솟뚜쟁이에서 지젓저. 솟뚜쟁이도 빙떡 잘 지저지는 게 잇고 안웨는 게 이서.

107087 @ 어떤 게 잘 지저 집니까?

107087 # 췌가 존 거. 췌가 존 건 잘 지저져.

107088 @ 소주 내리는 것은?

107088 # 고소리. 고소리 이서. 고소리에이 등덜쟁이엔 현 췌 받아근앵에.

107088 @ 술도 옛날은 집이서 담가낫지예?

107088 # 아이고 말도 못 현다게. ㄱ사 그 텔레비에 옛날 종가집 그거 나왕 술 다끄는 거 나오더라게, 소주 다끄는 거 우리도 해낫저게. 그것도 누룩이라고 헤가지고 보리 검퍼가지고 이제 동문시장에 풀지 안햐시냐게, 누룩게. 돌레떡 멘들양 누룩을 허는 디 그때는이 소주허는 건 크게이제 쳇망이나 차룽에 담양 그걸 막 티와. ㄱ루 툐양 물에 서경 브리 ㄱ루. 그렇게해서 이제 누룩 웨면은 소주 다끌 거 허젠 허민이 밥도 허여낱 그 누룩에 서경 놔두민 막 퀘여. 그것이 막 퀘면 이제 솟되 낱

고소리가 잊저게, 술 다끄는 거. 거 솟디 퍼냥 이제 술을 다까. 썩 바되근에 졸졸졸
졸 누리우민 그것이 소주라이. 고소리에 이제 장탱이 올려냥 영 코 돋은 것에 올려
냥 솟에 맞은 게 이서. 고소리엔 허영. 우이 또 장탱이 뇌근에. 시리 떡 치듯 부찌,
영 돌아가명. 떡 멘들앙. 장탱이 우이 냥 그 물이 막 뜨거와. 뜨거우민 두 번 글아
놓민 그 술이 혼 솟이 다 다까지는 거라. 경허민 물 장탱이에 글아냥 다까. 경헤영
그거 물을 두번 글아놔. 우이 논 게 두번을 더워야 술이 다 다까지는 거라.

107088 @ 병은 어떤 거?

107088 # 썩이 있어. 들덜썩이라고 헤가지고 항 님은 거. 등덜썩, 등덜썩인디 항
아리 님게 멘든 거 이서. 불에 가도 아이 카꼭 벌러지지 안허꼭 허는 썩이 잊주게.
그런 썩이 이서, 항도. 고소리도 그추룩 현 거고 그 썩도 그런 거. 항아리도 두 질
이라. 이제 저 붉은 항은 안웨여, 이 제주도 항은. 육깃 거라사. 등덜썩 고소리 다
그런 거라사 웨여. 이 제주도에는 기술이 부작허여 가지고 그런 게 없어. 이제 육깃
항 많이 들어와선게. 항 멘그는 걸로 멘든 썩이라사 웨여. 불에 가도 아니 벌러지고
아니 카는 거. 이런 보통 썩으로 안웨여. 그런 썩이라사. 그런 걸로 행 받아근에 허
민 술 두 웨도 나오고 잘 나민 두 웨 흐뎡 더 나오고, 술이 잘 웨면. 게 안허민 술
흔 웨반 나오고.

107088 @ 고소리는 어떻 험니까?

107088 # 고소릴 영 솟디 앓져가지고 그 우이 이제 장탱이 올려냥 물을 퍼냥
이제 그 장탱이에 물을 서너번 글아놓민 그 솟디 술이 다 다까진 거라. 다 다까진
거.

107088 @ 이것도 떡 행 막읍니까?

107088 # 시릿마개 ㄴ치 막아야주. 떡 허여근에 벅 허게 솟디 고소리광. 그추룩
막아야 웨여. 밀ㄴ루 떡 멘들앙.

107088 @ 것도 시릿 마개엔 험니까?

107088 # 그거 시릿마게 맞추게. 거 솟디도 막는 거. ㄴ따, ㄴ따.

107088 @ 열만이 허민 혼 웨반이 된다고?

107088 # 술을 혼 솟, 솟이 이서. 경행 거 풀아나세게. 그 솟디 술 혼 솟 퍼놔가
지고 고소리 우이 장탱이가 이서이. 그 물이 두 번을 뜨거와야 그 술이 다 다까져.
데와지면 따시 냥 다까. 솟다 청소해뉘. 경행 잘도 어렵게 헤여 옛날 어른덜. 또로
저 막걸리. 막걸리는 흐린좁쌀 뿔아가지고 ㄴ사 오메기떡 흐듯 그거 이제 누룩에
뀌어가지고 누룩에 서경 낫당 막걸리가 웨면 그 항아리에 낫당 거리멍 먹어. 우리
그건 잘 헤난.

107088 @ 술 님는 항은 무신 거마씨? 술춘?

107088 # 춘은 이젠 엇어. 술춘인이 제국 시절에, 술춘도 어디덜 이실 거여. 춘
이, 술춘. 술춘인디 그게 제국 때에 술공장에 막 하낫저. 게단 이제 엇어져서 그거
못 봐. 술춘이 저 그저 술 브듯 나오게시리 헤영 모개기 쫄르게 헤영 버구기 딱 막
앙.

107088 @ 무신 거 막앙?

107088 # 버구기 마개라고 낭으로 멘든 거. 딱 멘들앙이 딱 맞앙 그거 빠야 술을 비와. 술춘.

107089 @ 선다린 어떻 만듭니까?

107089 # 선다린 거썬 행 먹는 거고 막걸린 흐뎡 오래 헤영 익여야. 지금 허민 흐 보름 셔야 켜지. 더울 때도 일주일 흐뎡 더 셔야돼여. 선다린 밥 농곡 누룩 흐뎡 낱 꺾 트민 여름에썬은 흐루에 먹주게, 선다린.

107091 @ 무신 옛 행 먹어났수과?

107091 # 옛은 게 감주 골 허여근에 좁쌀에 서껏당 감주를 막 오래 이제 물이 썩뜨도록 허민 옛이 썩는 거. 막 끝이민 이제 옛돼여, 감주. 좁쌀로도 허고 찹쌀로도 허고.

107091 @ 골 허는 건?

107091 # 밀 헤영 내웁고 보리도 행 내웁고. 거 찹 묘허여. 그거 허민 들기가 옛꺾치 돌아, 돌아. 우리도 옛은 자꾸 잇당 가끔 헤여. 아무 때나게 그 남편날 허지 안허고 헤지는 양게, 헤지는 양.

107091 @ 썩옛 그런 건 안헤?

107091 # 그런 건 옛에 농구정 허민, 이녁이 먹구정 허민. 옛도 낱 허고 썩지고 기도 낱 허고, 썩도 놓고, 썩옛 험젠 허영. 득옛도 허고. 득도 낱 허고.

107091 @ 옛 만드는 거 다시 한번 곱아줍서.

107091 # 골 허고 이제 좁쌀이나 좁쌀이나. 흐린 좁쌀이 옛어 요새에.

107091 @ 어떻 헤영 만듭니까?

107091 # 밥 허여근에 골에 서경, 서경 물놔근에 낱당 이제 그것이 골에 밥에 서경 놔두민 흐르르 허여, 그게. 경허여근에 허민 걸러근앵이 솟디 낱 막 이제 끌려가민 옛이 돼여. 썩 썩옛 먹구정 허민 썩 낱 숲고. 득옛 먹구정 허민 득 낱 숲고, 도새기 썩기 낱 먹구정 허민 썩기 놓고.

107091 @ 이 동네서는 무신 옛 하영 먹어났수과?

107091 # 옛날엔 그냥 골 헤영 옛헤영 먹엇주게. 아무것도 안 논 옛인디 약재로 우린 하수 빨리.

107091 @ 무신 빨리?

107091 # 하수엔 행 생이족박 빨리가 잇저게. 그것이 이제 하수라고 허여이. 그 옛을 행 먹으면 이 허리나 중에 아픈 디 좋넨 허여. 썩 그거 낱 득옛허듯 그걸 낱 그거 숲아가지고 그 물을 이제 옛에 꺾치 낱 감주에 꺾치 낱 딸리민 것이 생이족박 옛이라. 경도 행 먹어난.

107092 @ 감주도 헤났수과?

107092 # 감주엔 현 건이 곱을, 보리나 밀이나 헤영 이제 걸이 콩노물 허듯 내와. 밀이나 보리 헤가지고 물에 썩 낱당 건정 이제 내와 그거. 그것도 잘 돼여야 곱이 돌아이. 꺾꺾라 곱이엔 허주게. 썩 물리왕 낱당 이제 걸 곱아가지고 곱꺾루 곱아

가지고 밥혜영 이제 चु쌀허민 더 좋아. 흐린츨쌀 베피 안돼여 그거. 모의 चु쌀은 안돼여. 흐린츨쌀로 감츨 이제 오가리로 흥나 허여가지고 이젠 걸렁 채 바청 걸거근에 슨아가지고 그때 무신 커피가 시냐? 방상덜 이제 다 제스먹으레 오면 다 흥고 부씩 다 디러. 감준이 요샌 चु쌀이 흥허주만은 옛날은 흐린츨쌀.

107092 @ 흐린츨쌀로.

107092 # 흐린츨쌀 혜근에 이젠 그 감주도 현덴 허민 밀로 골이엔 허영 내와.

107092 @ 밀로 어떻 골을 내는 거파?

107092 # 밀을 이제 물 킁 놔두민 뿌죽뿌죽 나주게, 그게. 오가리에 놔두민. 그 걸 이제 돌리와 가지고 골아, 그레로. 그레로 골아. 경행 이제 흐린조팝 혜가지고 서터근에 오가리에 놔두민 부그레기 이제 그게 웨민 먹어. 웨민 이제 걸러가지고 슨아. 슨아근엔에 이젠 오가리에 놔둬서로, 막 저울엔이 데왕도 드리코 그냥도 먹고 경혜여 감주. 쉐 감주가 쉬운 건 그날 혜영 그날 먹는 거라.

107092 @ 그날 흥 그날 먹어져 마씨?

107092 # 응, 아침이 허여놔 저녁이 제숫날도 저녁 때에 이제 슨아근엔이 경 드 뜻허게 흥 잔씩 먹고. 멩질 때에도 하영 허영 뒷날꺄장 메칠 먹주. 감주도 허영.

107092 @ 막걸린?

107092 # 막걸린 흥뽀 오래 셔야게. 밥으로도 허고 떡도 멘들앙 허고.

107092 @ चु쌀로 떡 멘들앙 허는 거 아니마씨?

107092 # 그건 슨게 막걸리주. 막걸리 오래민 들꾼 골라앗아. 건 청주엔 허여. 쟁 굽에 건 이제 걸르멍 먹어 탁배기엔 허영

107092 @ 참기름 짜고 남은 깨의 찌꺼기?

107092 # 웨떡, 웨주시. 우린 웨떡이엔 헨 막 먹어놔저게. 그냥 기자 웨주시. 그 옛날은이 지금은 기계로 그냥 빠노니까 췌도 안허고 허니까 먹지 못헤. 옛날은 그 보까가지고 췌아가지고 이제 짜면은 잘 안 짜지주게. 경허민 웨떡이엔 혜영 그것도 이 짐치에 놔 지정도 떡곡 चु지름 빠와나민 아이덜 웨떡 먹음으로 막 들렁 멩기멍 먹음도 혜놔저게. 게고 맛도 이서. 이제 웨는이 웨떡도 못먹고. 우리 웨떡 먹어난. 웨떡 놔근엔에 짐치도 지정 먹고, 지름 빠난 주시도.

8. 주생활

구조

108001 @ 이 집은 대대로 살던 집이파?

108001 # 아니 저 흥교 저꺄디 살단 흥교레 땅 막 내노렌 혜부난 내놔두고 이레 왔저게. 흥교 저꺄디 오래 살안. 이 집도 기와집이라난 거. 그루후제 짓어셰.

108001 @ 기와집 그냥 내불지.

108001 # 비 새을란. 이거 짓곤디도 삼십년 웨실거여. 거난이 그때도 옛날이여

게. 이젠 짓는 사름덜 막 잘 꾸며. 우린 이거 그냥 스대 세완게 그때도 막.

108001 @ 우풍 잇지예?

108001 # 우풍 하. 높아, 노프게 짓어부난. 겐디 뭐 이제 아덜덜 아이 살아부난
어떻. 다 시에 강 살아부난.

108001 @ 옛날에 집짓는 것도 해났지예?

108001 # 목시게, 목시. 목시가 허지게.

108001 @ 목시가 허기 전이.

108001 # 목시가 허주, 뭐. 낭 해다근예.

108002 @ 집의 종류는 어떻게 이수과?

108002 # 초집, 그다음엔 기와집 이젠 스라브.

108002 @ 흙으로 만든 집은?

108002 # 흙으로 멘든 집이 어디셔? 초가집이 문 흙으로 불랏주게.

108002 @ 돌로 멘든 건 돌집?

108002 # 돌로 집이 어디 시니? 다 흙을 꾸잉 블라야 돌집도 되는 거. 돌에 석
회만 불른 것사 돌집이주만은 석회가 경 셔서? 석회 나건디도 오래지 안허고게.

108002 @ 초가집이엔 곱아, 초집이엔 곱아?

108002 # 초가집이엔도 허고 초집이엔도 허고.

108002 @ 할머니 곱아난 말.

108002 # 게메 우린 초집이엔 헛주게.

108002 @ 게난 그걸로 곱아줘사주게.

108002 # 응, 초집, 초집.

108002 @ 초집 말고 무신 집 이서?

108002 # 무신 집이 셔?

108002 @ 기와집?

108002 # 기와집은 드망드망 막 부제나 기와집 허고. 이 선흙은 기와집이 엇엇
단 스삼사건에 쓰레뜨 올리구정 현 사름은 쓰레뜨, 기와 올리구정 현 사름은 기와
해도. 기와집이 좋지 안 해. 우리도 기와 헛단 트더 불엇세. 비 새으라. 쓰레뜨도 막
오랜 후제 초가집 짓언 막 살단.

108003 @ 이건 안거리고 저건 박거리고, 모커린 뭐?

108003 # 모커린이 박거리 다음 이제 그건 이 옆이. 이문도 들고 모커리로, 정
짓거리도 허곡.

108003 @ 정짓거리도 딱로 해?

108003 # 딱로 허는 집은 허고 안허는 집은 안허여. 짓ㄴ라 그런 거보고 모커리
엔 허주게.

108003 @ 정짓거리가 모커리?

108003 # 응 모커리 짓영 정지도 허곡게.

108003 @ 아 모커리 짓영 정지로 쓰는 거라.

108003 # 이문간 허는 사람은 이문간 올레에 짓어근에 이문 드는 것도 모커리.
 108003 @ 이문간은 무신거라?
 108003 # 게메 걸 모커리 짓어낱게 이문도 들고 또 정짓거리 딱로 짓은 것도 모커리. 건이 박거리 안거린 후에 그것 보다 허나 더 짓으민 모커리주게, 아무거라도. 짓ㄴ라 모커리라고 허여.
 108003 @ 대문 이신디 올레에 문 이신건 이문간이엔 허여?
 108003 # 응 이문간. 올레, 올렛문이엔도 허고 이문간이엔도 허고. 정살도 놓고.
 108003 @ 정살이 뭐?
 108003 # 정살은이 이문 옛인 집이.
 108003 @ 정살이 정낱?
 108003 # 낱, 낱으로 영 낱. 옛날 이문 옛인 집인 정살 낱.
 108003 @ 정살 옆이 세와진 돌은 무신거엔 곶아?
 108003 # 건 어긱담이주, 무시거라, 어긱담. 올레에, 올레ㄴ라 어긱, 올레 어긱, 어긱담. 어긱담에 정살 낱 영 걸치주게.
 108003 @ 어긱담은 그냥 담구나예, 돌로?
 108003 # 응.
 108003 @ 게민 어긱담 이신디 정살 낱 사람 못 들어오게 허는 거라?
 108003 # 겨곡 이문 신 사람은 정살 낱 안허고게. 이문 탁 더꺼불민. 우리가 문 허젠 허단 그뎨 안허난 그자 안허연. 문, 철문 들젠 허단.
 108003 @ 박거리는?
 108003 # 박거린 하간 짓덜 농곡, 콘테나 데미곡. 저디 췌 메어 나세게. 게메 말 이주 옛날 역사 막 다끄고게.
 108003 @ 집이 두 채 이시민 이건 뭐고 저건 뭐짜?
 108003 # 안거리 박거리, 이문거리도 잇고 세거리 신 건.
 108003 @ 이문거린 뭐?
 108003 # 올레, 올렛거리. 대문 잇는 거. 세거리가 하주, 옛날은.
 108003 @ 안거리 박거리 합쳐 곤는 말은?
 108003 # 안팎거리, 합청 곶으민 안팎거리주.
 108003 @ 모카린 뭐마씨?
 108003 # 안거리 박거리 말고 요 옆이 신 짓ㄴ란 모커리.
 108003 @ 불치막도 이서낱수과?
 108003 # 불치막은이 옛날에 이 불치를 거름 엇어부니까 사용해서네. 겨허난 이 집이도 쪼그만 허게 멘들아서 불치도 담아 낱당 밧디 거름허여. 불치막도 이서낱어. 이제 엇고게. 아니 옛날도 보통으로 엇어. 짓도 출린 사람은 쪼글락허게 멘들아. 그 디 불치 담아낱. 불치막 소곱에 무시거 농곡.
 108003 @ 불치막에 불치 말앙 다른 짓도 낱?
 108003 # 아니 아무거라도 놀 거 놓주게. 불치 놓는 디 비가 안 드니까. ㄴ시락

도 낫당 불 때곡 불치도 놓고.

108003 @ 어느 쪽에 만들어야 돼?

108003 # 아무디라도게 이녀크 음냥게 집이 널르면 아무디라도 짓는 거주게. 굴
목 조끄되나.

108005 @ 평고대는 무신 거?

108005 # 고대사 흑 꾸언 올린 것ㄱ라 고대주 만든.

108005 @ 거왕은 어떻 허는 거파?

108005 # 거왕? 줄 매는 거 거왕. 집 영 어염 돌아가명이 그 줄매는 디 또 거왕
행 돌아가명 매어낱 그레 줄 매어. 거왕, 거왕.

108005 @ 거왕은.

108005 # 집가지에, 돌아가명.

108005 @ 영 된 거. 대나무로 만들어 보통?

108005 # 대낱 그 왕대로 허여사. 왕대 못허민 낱 또 ㄱ노롱헌 거, 진 거 허여
당 매고. 거왕이주 것ㄱ라 거왕.

108005 @ 대 엇이민예?

108005 # 응, 오까리, 오까리주게. 저 고대 올리는 디 허는 오까리. 거 이제 거
왕 그걸로 허고 오까리로.

108005 @ 오까리가 어떤 거?

108005 # 낱 즘진 거. 이 서리 말앙 ㄱ노롱헌 것ㄱ라 오까리라고 허여. 오까리
비어다근에, 낱. 거왕도 허곡 오까리 허영 이디 예깁도 허곡게, 축브름도 예끼고 오
까리 비어당. 덴 어디 경 하서?

108005 @ 계낱.

108005 # 제국 시대, 스삼사건에 불 부떠부낱 대도 윈 엇어낱저. 저 이제사 왕
상 헛주. 문딱 불 부쳐부낱 대왓도. 대왓도 다 불부쳐불언, 사름 곱으카부덴.

108006 @ 옛날에 흙집 지서낱주예?

108006 # 흑 꾸어근에 불르명 축브름에.

108006 @ 어디에?

108006 # 축브름에 문 흑으로 불라. 이거 축브름 아니냐? 이것이 축브름이주게.
축브름.

108006 @ 흙 꾸어근에.

108006 # 흑질 허는 거? 이젠 이 축브름도 낱 뇌근에 이제 예끼는 거라. 노로
예껴. 이 낱 축브름을 흑질행 불라.

108006 @ 흑질행 불르는 건 어떻 허는 거?

108006 # 흑 꾸영 막 마당에서 흑.

108006 @ 어디 강 흑 가정와?

108006 # 흑덜 어디 강 파당.

108006 @ 흙 꾸어? 물 낱?

108006 # 물 낱 흑 썰 땀 보리낭이나 산뿔낭이나 이젠 꺾어가땀 막 담아낱 ㄱ 시락이나. 계민 이제 축벼름에 불리는 거라.

108006 @ 마당에서 썰 땀 어떻 사름이 허여?

108006 # 사름으로 막 불르당 쉼로 불라. 쉼로. 흑 꺾는 노래도 나왔주게. 흑 꺾는 노래. 제주인덜 헤난 거.

108006 @ 불랑 그 다음은?

108006 # 소리허땀. 경헌 다음 불라. 경허고 집도 허젠 허민이 이 지방우이 이제 스라브 허는디 그땀이 지방우이도 이젠 낭으로 헤낭 그 즘진낭 헤다근에 서리라고 해서 문 예껴이. 초가집 지슬 때 경행 이제 우이 흑 꺾엉 지방 우터레 막 올려덜. 이디서 꺾거 흑흑 앓앙 잡아 데껴.

108006 @ 어떻 올려?

108006 # 들렁도 올리고게 그냥 손으로도 흑흑 데끼고 경행 이제 조근조근 지방우이 다 갈아낱 그 다음 새 더꺼. 그 다음 새 더꺼. 새로 올릴 때.

108007 @ 방에 대해 말해 줘서.

108007 # 큰방, 작은방.

108007 @ 안방은?

108007 # 작은방. 안방이나 작은방이나 ㄱ뜨주게. 이건 큰방이고 안방 작은방이쥬. 요샌 큰방ㄱ라 안방이엔 헤고나 만든 우린 이것ㄱ라 큰방이엔 허여.

108007 @ 방에 이신 문은?

108007 # 지게문. 구들문 이것ㄱ라 지게문. 옛날은 이추록 미달이도 엇엉이 살창 헤영 돌아 영 박박 열게시리 경행 지게문. 지게문이라 거.

108007 @ 구들은 어떻 만들어마씨?

108007 # 구들에 구들돌 행 놔낱주게. 우에 각장, 마분지 초담 불르고 그다음은 창호지, 창호지 불라가지고 유지름에 해서 민짜 불르민 장관 되는 거라 각장 장관이라고. 이젠 집도 침 옛날은 초가집이 살아주만인 이젠 이추록헨 짓언 살암주만은, 옛날이사게 문 초가집 밋밋 초가집. 초가집도이 마리, 마리널헤영 반질반질 다끄곡 허민 좋아. 초가집도. 말이서, 능와도비에 각장장관.

108007 @ 예 무신거?

108007 # 능와도비에 각장장관.

108007 @ 그계 무신 말?

108007 # 이 천장 이제 능와가 이서, 불리는 거, 백지. 백지ㄱ라 능와라고 허고. 또 여기는 이제 장관 드러. 이런 장관이 없어가지고 옛날은. 창호지허영 장관 들어. 장관 디릴 때도 이디 이젠 멧 불 불랑 창호지 두 불 불랑 막 절뿔, 유지름 불랑 절뿔.

108007 @ 절루는게 뭐 마씨?

108007 # 그 콩ㄱ루에 이제 유지름 허민 잘 절어. 경허민 이 색갈로 장관이 막 좋아. 각장 장관. 각장이 또 말자에라 가난 각장이 나왔어이, 절룬 거, 종이가. 경행

이제 각장 사당 이디 블르민 각장 장관. 창호지 막 블랑 그 콩에 유지름 서경 블라도 막 장관이 좋아. 경해낫주게, 초가집에 옛날은.

108007 @ 무사 유지름을 써?

108007 # 들케지름이 잘 절어.

108007 @ 잘 저는 건 잘 흡수되는 건가?

108007 # 응 흡수돼영 부떠. 경행 민질민질허게. 것덜은 대게덜 알아, 젊은 사름덜토. 유에 이제 콩그루에 헤가지고 짜가지고 블르민 이제 장관돼여. 경행 이추룩해낫주. 이 색깔 돼여. 창호지로 허연 블르당 능와가 나온거라이.

108007 @ 능와가.

108007 # 능와, 요새 그트민 백지가 능와라고 허여. 경허민 이제 소리힐 때민 어떤 날에 난 사름은 팔자가 좋아서 각장 장관에 능와도비에 집 좋게 허영 사는 사름이 부러와가지고. 능와가 어루왕 게. 아이고 팔자 스주가 어떤 날에 난 사름은 능와 도비에 각장 장관에 경허영 사르고 이렇게 노래가 이서. 이디도 이디 모노롭 대신 장관 들이젠 허민 것도 어려와이.

108007 @ 벽장이나 시렁 같은 것도 이서낫수과?

108007 # 백장도 서난디 이젠 엇고, 다락도 서나고. 다락 멘들앗주게. 뭘 올려 놓는 거.

108007 @ 혼 칸 집, 두 칸 집, 세 칸 집은 이런 거?

108007 # 아 그건 이 집이면 우리가 이거 삼 칸 집 아이고 스 칸이주 거자 스 칸. 이거 혼칸 마리허민 두 칸 저 구들 허민 세 칸, 삼 칸.

108007 @ 경행 삼 칸 집. 요 뒤에는 상관없고 옆으로. 옛날에는 영 큰 집 엇어 낫수게예?

108007 # 무사 우리 초가집도 삼 칸집은 다 해서.

108007 @ 구들은 지금보다 흐뎡 족아 낫주예.

108007 # 구들은 흐뎡 족아도 구들 두 개 허고 고평 허고 헤가민 거의 비슷해. 이 칸 집은 또 부엌허고 삼방만 침 구들허고 삼방만 현 것그라 이칸. 제라허게 짓는 건 삼 칸. 우리집은 거자 스 칸이여.

108008 @ 상방 바닥은 무신 걸로 놔?

108008 # 낭, 낭널로 헤영 마릿널.

108008 @ 마릿널?

108008 # 마릿널도이 니귀반득허영 요만씩 현 거 영 이제 귀클 걸어근앵이 마리가 좋아. 찌각허게. 마릿널 판자라도이 옛날 오려근앵이 막 다끄곡 허민 막 곱나. 이제 이 모노롭보단 더 좋아, 시원헌 게. 난간도 그걸로 놓고.

108008 @ 상방에 부섭, 상방에 화리 닳은 거 만들어 낫수가?

108008 # 부엌엔 그거 불살르는 것그라 봉덕불이엔 허주만은 선홀은 봉덕불 엇어, 선홀은. 그 송당은 가민 봉덕 잇서. 화리 저 부엌에 막 불 살르는 거. 것그라 봉덕불이엔 허여.

108008 @ 마리에 안허고?
 108008 # 마리에 엇어. 것도 이 칸 집이나 현 사름은 부엌이영 부뜨난에 그디 불살란게 살앗주.
 108008 @ 화리 님은 거.
 108008 # 건 엇고, 구들에 막 화리 놔근에 숯불 살좌근에 추왓주. 이젠 첨 이추 록 전기여 뭐 허난 허주 그땐 화리, 화리. 화리에 숯불 살랑. 구들마다 불 살좌. 소 님 오라도 불이 대접이엔 허영 겨울에.
 108008 @ 무신 대접?
 108008 # 불이 대접게. 소님 오민 불 추렌. 파싹 추운디 와 보라게, 불 추와살 거 아니? 게민 숯불 살좌근에 이젠 불 오래 가렌 불수까락 낱 막 재로 묻어, 불을. 재기 피어불지 못허게.
 108008 @ 디디고 마루레 영 올라가는 디?
 108008 # 난간, 난간.
 108008 @ 난간 밑에 들은?
 108008 # 잇돌. 잇돌, 난간.
 108008 @ 난간 지나민 마루?
 108008 # 마리주게.
 108008 @ 상방이엔 안허고?
 108008 # 삼방이엔도 곧고 삼방이 하영 곱아. ‘삼방에 강 보라.’, ‘마리에 강 보 라’
 108008 @ 마리에 이신 문은?
 108008 # 대문, 한가운디니까 대문.
 108009 @ 고팡은?
 108009 # 고팡은 이 안거리에 신것가 고팡. 건 곳간 곳간. 곳간인디 저 이 안거 리에 부튼 것ㄴ라 고팡인디 이젠 저 박거리덜 지성 곳간 햄세계. 우리도 저디 혼 칸 곳간이고 이펜인 하간 허드레덜 놓고.
 108009 @ 고팡엔 무신거 놓는 거짜?
 108009 # 고팡에? 양식덜 낱주 뵈 놔.
 108009 @ 어디 담양 놔?
 108009 # 향에, 향에. 쥬 부제침인 두지엔 현 례가 이서, 두지. 그 막 부젯칩이 꼭석 한 사름.
 108009 @ 보통은 향에 담야?
 108009 # 향에 담앗주.
 108009 @ 창곰은 무신거짜?
 108009 # 창고?
 108009 @ 창곰.
 108009 # 창곰은 이 고팡에 그 저 영 이제 돌로 다운 집이라도 창곰을 내어 쪼

끌락 허게 창꿈.

108009 @ 아, 창문처럼. 창꿈.

108009 # 응, 이젠 저 문덜 내지 안헤샤게? 그뎨 문을 못 내니까 돌 멧 개 영 빼어근에 축브름 불르멍 그디 창꿈 내어. 답답허여.

108009 @ 답답허난 바람 통허렌.

108009 # 응, 통허렌. 경헌디 그디도 잘 현 사름은 이제 중이나 고양이 못 들어 가게 그덜 낭 뒤 얼거근에 톡 놔. 경 안행 텅 내불민 고냉이 들어갓닥 나왔닥 허여. 거 안돼지, 창꿈 창꿈. 초가집 헐 때 고팡에 창꿈이서. 정지에도 창꿈 잇고. 내도 나가게. 경헤난 거 창꿈.

108009 @ 안칠성 이런 것도 헤?

108009 # 아, 그런 건 이 제스 때에나.

108009 @ 건 어떻 허는 거?

108009 # 그거는 집안에 이제 침 잘 뒤편, 곡석이영 잘 뒤편 헤 줍센 허영 칠성 이엔 허영 헌텐 헌다게.

108009 @ 고팡에?

108009 # 응, 겨난 그디는 고팡을 차지헌텐 허여가지고 고팡에도 올리고 허단 이젠 구들에 그냥 올려. 고팡이 셔게? 구들에 안네엔 허여가지고. 경허영 그 안넛상 이제도 논다게.

108009 @ 아 안넛상. 큰상 옆이 허는 바닥에 하는 그 안넛상이 이거구나예?

108009 # 바닥에 허여? 막 상출렁 막.

108009 @ 문전처럼?

108009 # 응, 문전상, 안넛상. 고팡이 문제가 아니라 제숫방에 ㄴ치 올린다.

108010 @ 정지 살림을 흐뎡 돌아봅서.

108010 # 정지?

108010 @ 정지에 무신거 이십니까?

108010 # 조왕할마님.

108010 @ 조왕할마님도 있고, 솟도 잇고, 솟 앓지는 딴?

108010 # 솟덕. 솟덕에 살레허고.

108010 @ 살레도 잇고. 살레엔 무신거 놔?

108010 # 그릇덜 어프주게. 이젠 찻장이주만은 그뎨 살레라고 헤가지고 불살렛 장 못 아이 들영 짜, 그때도, 옛날. 낭으로만 그 목시가. 우리 살레 짜 준 할으방도 죽어불엇저만은 우리 친정엔 살레가 좋아. 또 마리에도 장방이 잇거든, 장방.

108010 @ 장방은 무신거?

108010 # 살레ㄴ추룩 문 네 개, 문 두 개 돌아근에 영 자치곡 허영 찻장 모양으로.

108010 @ 무신 거 담야?

108010 # 그디 하간 그릇 놓주게. 젓그릇도 놓고, 장방. 이제 이 집 불 아이 칸

딘 장방 잇주게, 지금. 우린 스타에 불 카부난 장방도 잊어지고 영 새집을 짓었주만
은. 그 옛날 초가집엔 우린 마리에 장방, 또 부엌에는 살레, 불살레엔 허여근엔에.

108010 @ 무신 살레?

108010 # 불살레게, 막 그냥 짜근앵이, 짜근앵이 장방ㄱ추룩헌디 문이 세칸 허
민이, 세칸에 다 그릇 어프곡 허여. 옷살레, 옷 칸ㄱ란 옷살레, 셋살레 영 알장 경허
명 불러났저.

108010 @ 옷살레, 셋살레, 알장.

108010 # 알칸.

108010 @ 알칸?

108010 # 응, 경 ‘무시거 어디 놔시?’ 허민 ‘저 셋살레에 보라.’경허고 ‘옷살레
놔저.’허고.

108010 @ 세 칸이라 이게, 삼단, 살레가.

108010 # 경 살레가 좋아났어. 첨 우리 어린 때 살아난 거 곁아가민 그것말 닭
주만은 우린 초가집이라도 이문도이 널리. 안으로 낭으로 짜근앵이 올앗닥 더껏
닥.

108010 @ 그 낭 다 어디가불엇수가?

108010 # 스삼스건에 문딱 케와불엇세계, 죽헌 거. 마릿널. 이제 서시민 비싸.
굴무기, 굴무기나 무신 낭 막 크지. 문이 탁 더경, 탁 더경 안으로 종그고 밤인. 우
리 어린 때 이디 살 때 대도방 거리라 닐저. 율로 이 노인당 저펜집. 집도 좋아나
고.

108010 @ 향도 막 물항이나 이런 거.

108010 # 향도이 지세독이 또 이서이. 지세독에 이제 물은 산두룩허여. 우리 어
머니넨 부엌에 지세독을 놓면이 저 동넛 사름덜이 지세독엿 물 먹켄 허멍 물 먹으
레 온다. 여름에 실렵넨. 밧디 갈 때도 ‘지세독에 물 흔 펡만 쥐.’ 경허명 질영 가고
경헤났어.

108010 @ 지세독은 그냥 향이영 틀러?

108010 # 틀러. 건이 저 지세허벅이엔 헌 허벅이 이서. 흑으로 굳거. 그런 허벅
은 장단치민 소리가 잘 나. 이제 그런 허벅 엿어. 지세허벅. 그 지세허벅 장단 청
우리 성님네 스삼사건 전이 들 밤이 막 놀아났저. 장단 치명, 잡타령 불르멍, 얼씨
구나 노래. 거 불르멍이 막 놀레덜 오민 마당에 보리낭 끝곡 명석 폐와. 경행 놀아
난.

108010 @ 무신 날 노는 거파?

108010 # 아니 밤이 들이 팔월들 ㄱ뜬 때 으름에 칠월. 유월에는 너미 덥고 칠
월 보름 넘어가민은 들밤이 그렇게 얼도 안허고 춥도 안허니까 놀기가 좋아. 경허
민 막 모영 놀아.

108010 @ 보름날?

108010 # 아니, 보름날이 아니고. 그냥 그냥 어스름 때에 이제게 테레비가 시나

허민게 모영 놀지. 낮이 강 검질 매당덜. 노래도 막 좋고.

108010 @ 술도 먹고?

108010 # 술은 안 먹어. 여즈덜. 우리 큰 성님 일본 간 이제 살았저. 아흔 하나. 그 우잇 어른덜이 막 놀고, 우리 성네깁진 경 놀단.

108010 @ 춤도 추고?

108010 # 춤 추고 말고 마. 그때 춤 잘추주. 우린 어린 때라. 겨난 성네 허는 거 들음만 해났어. 장단치는거, 허벽장단. 경허단 이제 츠츠 살장귀가 나난에 놀레 감도 살장귀 때리멍.

108010 @ 잘장귀가 장구?

108010 # 장구. 모실포 갈 때도 장구 이 노인당에서 아정간에 장구치멍 놀단 왓저. 수월봉, 수월봉 그디 간에 놀고. 제주 도일주 가면. 노래 불르멍 놀아.

108010 @ 물항은 정지 안에 놓니까?

108010 # 정지베끼디도 물항을 이제 물 하영 질어 놓젠 허민 베끼디도 낡 혼항, 또 부억엔 매일 질어다 낡 먹고 경헛주게.

108010 @ 불 숨어나민 불치? 불치도 모양 놔둬?

108010 # 밧디 뿌리고.

108010 @ 불치 어디 모양 놔둬?

108010 # 불치막 허는 사름은 허곡게, 그냥 밧디 쳐다부는 사름은 쳐가곡.

108010 @ 불 숨을 때 부지깽이 같은 거 이서실 거 아니파?

108010 # 불 숨는 거 썩썩 디무는 거 부지땡이.

108010 @ 근데는 엇어?

108010 # 무사 엇어? 굴목에 이제 불치 내영 근곡 허는 거. 구는데.

108010 @ 근데.

108010 # 구는데.

108010 @ 구는데.

108010 # 또 날레 널어근에 젓는 건 설레. 날레 널영 하간 곡식 널영 멍석에 널어근에 젓는 건 설레. 또 불치 내 근는 건 구는데.

108010 @ 불친 구는데. 불치 허믄 구는데로 영 영.

108010 # 응 내긋어.

108010 @ 부지땡이론

108010 # 부지땡이론 불 디물고.

108010 @ 부지땡이론 불 디물고.

108010 # 경헛 불 숨아낫주게. 덕석이영 멍석은 알아?

108010 @ 덕석이영 멍석은 뭐가 달라?

108010 # ㄱ따, 덕석이 멍석. 경허영 무시거 영 ㄱ뜨덴 말은이 덕석이 멍석이주게. 경 끝나게.

108010 @ 솟도 여러 종류가 이실거 아니파?

108010 # 솥은 크고 죽은 거?
 108010 @ 응, 큰솥, 죽은솥 그냥?
 108010 # 콧솥, 죽은솥은 게 외말치여 뭐 서말치여.
 108010 @ 외말치, 서말치.
 108010 # 외말친 보통으로 밥해 먹는 거고 서말친 막 큰일 때에 밥 하영 허는 거. 서말치.
 108010 @ 무쇠솥도 있고.
 108010 # 무쇠솥은 막 좋아난디 이젠 그 솥이 었어. 제주솥.
 108010 @ 조그만 솥은 뤼엔 곺아?
 108010 # 동솥.
 108010 @ 동솥, 죽은 거?
 108010 # 응, 동솥 앓지는 덕도 쪼글락허게 허영 그디도 낭불 습아. 동솥 앓정. 이제ㄴ치 냄비가 시냐? 그뻬이 쇠솥으로 동솥 쪼글락헌 거 이서. 시발췌도 나건 디가 오래지 안허고. 것도 오래지 안해서. 그냥 덕만 앓정 돌로. 큰솥 앓지는 건 널르게 앓지고 죽은솥 앓지는 거허고 동솥 앓지는 건 쪼글락 허게 앓정 쫓쫓런히 앓정 무시거 반찬이나 헐 뻬 동솥에 지정 먹고.
 108010 @ 시발췌 무사 필요헌 거?
 108010 # 시발췌이 말제에 그 동솥 앓정 불 습으민 좋아. 낭 때영 시발췌. 그것에 냄비도 앓정 해먹고.
 108010 @ 아, 솥덕 대신에 시발췌에 앓정.
 108010 # 응, 시발췌 그 솥 앞이 그냥 낭 부엌에, 부엌에서. 낭으로 때어져, 시발췌. 세발췌 이제도 이실 거여.
 108010 @ 솥 뚜껍은?
 108010 # 솥뚜껍이주.
 108010 @ 솥에도 이름도 잇주예?
 108010 # 솥전?
 108010 @ 솥전은 뤼?
 108010 # 게 그 솥 그 솥 영 바우ㄴ라 솥전이엔 허주게.
 108010 @ 솥에 빠죽허게 솥은 거는?
 108010 # 무신거 솥뚜껍이 꼭지?
 108010 @ 아니 뚜껍에 말앙 솥귀라고.
 108010 # 솥귀가 뤼라?
 108010 @ 솥전은 옆이 뻬 둘러진거고예?
 108010 # 응, 솥전 들르곡게 막 다끄젠 허민.
 108010 @ 바람 구멍을 내어 불이 잘 불게 만든 화로도 이서났수과?
 108010 # 간데기 말제에 난 때에 그 고톡으로 브름 푸꺼낫주. 간데기도 중간에 난 거.

108010 @ 간데기가 뭐?

108010 # 간데기 엇샤? 영 우이게 냄비나 무시거 앓지고 숯 낱 불 살르민. ㄱ망 잇수게 경허민 푸끄민 불 일주게. 이제도 간데기사 풀암주게. 간데기 풀암실 걸 이 제도. 난 저 간데기 보단 쉼화리 사단에 영 이제 고망 일로 나민 숯 낱 그디서 굴 비도 구웁 떡곡 허단에 이젠 저디 난 놔두난 무신 짐싱 들어가나부난 앓다당 데껴 부난 누게 봉가가불엇어. 거 존 거라난디. 게 그루후제 그런 거 사오젠 허멍 못 사 완. 무췌로 된 거. 그거 존거.

108010 @ 화리 위에 놓는 췌로 된 거 이수게?

108010 # 시발췌. 시발췌가 이젠 안 써도이 옛날엔 그 물 떼영 그 시발췌 놔 가지고 주전지나 냄비나 낱 불 숨나게. 그것에 저 간단허게시리 무신 솟덕 돌로 앓지 지 안헤영 그 시발췌. 시발췌도 큰 거 사오민 큰 것도 앓정 헤지곡 죽은 거 사오민 죽은 거 앓정 허곡 경헤영. 불 숨기 좋아, 시발췌는.

108010 @ 쌀 담양 놔 두는 나무로 된 거?

108010 # 두지. 옛날 부제칩이만 셔. 건 두지. 막 두지에 소뭇 곡석 쳐 행 데며. 두지에.

108010 @ 죽 짓는 건?

108010 # 남죽이주뫼.

108010 @ 고망 딸라진 건?

108010 # 시리? 곰박.

108010 @ 예 곰박.

108010 # 그거이 요새 췌 무시거 엇어부난 곰박행 고망 딸른 거 셔 낫저게.

108010 @ 낭으로?

108010 # 낭으로도 허곡 콧박으로 허곡 행 낭으로도 멘들아근에 고망 가운데 속속속속 영 딸라. 낭으로 솔박ㄱ치 멘들아낱 고망 딸르는 거. 것ㄱ라 곰박이엔 헤 난. 우리도 곰박 봐 남뿐 헛주 그루후제 곰박 아이씨. 그루후제는 존 것 덜 나부난, 아레미 걸로. 나 이제 아레미 거 곰박 좋은 거 잇저. 것도 항 소곱에 낱 요샌 아이 씨판. 것도 굿연 이젠 다른 거 씨.

108011 @ 문틀은 무신 거엔 곱아?

108011 # 지방이주 뫼.

108011 @ 밑에 거가 지방 아니? 우에 거는?

108011 # 이거 지방이고 웃지방, 알지방.

108011 @ 문 만들 때 문틀이 이실 거 아니파?

108011 # 무똥, 무똥. 지게 무똥게, 창 무똥 그거주게.

108011 @ 어디가?

108011 # 이것도 영 올민 무똥 아니가? 지게무똥, 대무똥, 창무똥 그거주게.

108011 @ 그건 도를 무똥이엔 허는 거 아니?

108011 # 아니 무똥으로 들어가곡 나오곡게.

108011 @ 문설주, 문얼굴, 돌쩌귀.

108011 # 아 돌쩌귀, 돌쩌귀는 이제 쉼로 멩근 것ㄴ라 돌쩌귀라.

108011 @ 돌쩌귀 어떻 멘들아?

108011 # 돌쩌귀 멘드는 거 잊주게. 이제도. 그 쉼로 고망 툄랑 이젠 영 우이 거 들어가게시리 멘들앙 그레 문돌아근에 돌쩌귀가 암커, 수커가 잊주게. 게민 툄허 게 문 하나에 두개 돌아이. 우에 하나 아래 하나. 이거 문이면 요만이 돌쩌귀 하나 들고. 요기 하나 돌아근에 툄 돌아. 그것도이 중간에 난거라. 옛날은 그 낭으로만, 낭으로만 이제 그 이 흙베기 멘들아가지고 문을 올앗다 헛닥 허당 그것도 발전헤가지고 돌쩌귀를 멘들아가지고 이젠 우알에 돌아 가지고 문을 든 거라이. 돌쩌귀 판나민 또 돌쩌귀 해당 박앙 문 허고, 고찌고. 경행 돌쩌귀 그건. 문 드는 거. 경허고 옛날은 또이 구들에도 쌀문허영이 그 돌쩌귀로 들고, 쌀문허영 지게문 이제 허고 창문도 쌀문이라. 경허단 이 밀창도 츄츄츄츄 발전헤가지고 밀창을 든 거라.

108011 @ 돌쩌귀는.

108011 # 지게문 돌아난 거. 암커 수커 잊주게. 헉난이 그 지게문에 어떻 돌아 시냐면 여기는 암커 이제 돌쩌귀 박아이. 박아냥 요 문에는 수커 영 찰르는 거. 영행 요렇게 헤영 암커 수커. 경행 게 돌쩌귀 사례 가면 이제 그 암커 판나면 요 구멍난 거 판나면 암돌쩌귀 플렌허고 수커 플렌허고 경헛주게. 경헤난. 우리 거 막 옛날 거. 아주 옛날 이제 쌀창으로 창문도 들고 지게문도 든 때 헉난 거라 거. 목시덜 토 속앗주게, 쌀창을 허젠허민 그 낭을 막 즈질이 오려가지고. 또 그 문 사이가이 요만씩 허여, 요만씩. 고망이 요만씩헌 거. 니귀반득 니귀반득 허게 허영 쌀창 짝각 허게 들앙 게 창호지도 불랑 탁 들고, 탁 돌아. 게 옛날 그 새각시 보레도 가민 창고망 영 손행 터지왕 창고망으로 바레고. 새각시 탐정들영덜 막 어떻 웃겨난 중 알 압디? 새각시 새서방 말 곧는 거 보젠.

108012 @ 창호지 터지는 소리가 재미납니께.

108012 # 거 어린 때 방대헉옛구나게. 또 그 새각시 보는 사름덜은이 춤 툄 불랑 강, 창호지게 오죽 물만 가민 터지는 거 아니가게? 게난 춤 불라근에. 애기덜 놀렌 허민이 창고냥 문딱 터지와불어. 영행 콕콕 터지와 불어. 우리도 어린 아이덜 경터지우는 거 봐난. 아이고게 창고망 터주지 말라, 터주지 말라. 거 재미로게 터지와 불어.

108012 @ 밀창?

108012 # 미는 창.

108012 @ 미는 문은 뤄엔 곺아.

108012 # 거 ㄴ뜰 거주게. 이건 창문이고 이건 지게문.

108012 @ 이게 지게문? 지게문은 낭으로 뤄 거 아니?

108012 # 아니 문을 낭으로 뤄엇던 돌쩌귀로 들앗던 이것이 삼방더레 든 건 지게문이고 이건 또 창문이고 경헌 거라.

108012 @ 지게문은?

108012 # 영 올라, 영. 지계문. 이추록 미닫이를 안히고 저 양쪽에 두 개 돌아이 지계문도. 두개 돌아근에 마주 더꺼, 쌀창으로. 경행 돌쳐기 돌아난, 그거.

108012 @ 창문에 유리 붙여근에 누게 완신고 보는 거 뭐엔 험니까?

108012 # 가라스 흐뎡 불른 거, 부찢 거엔 해낫어. 밀창이 밀창은 이제 창호지 블라노민 답답허거든. 거민 칸 흐뎡 냉경 그디 가라스 박아낫어. 유리 박아, 유리. 창꿈, 창꿈.

108012 @ 창꿈.

108012 # 창꿈 흐뎡 내영. 가라스 불랑. 것도 중간에. 가라스 나온 때. 영 허영 가라스 흐나 부찌근에 무뎡으로 누게 들어와가민 그레 바레여, 창꿈 내영.

108012 @ 열엇다 닫앗다 허근 문은 뭐엔 험니까?

108012 # 지계문, 지계문. 계난 이 그 지계문을 다 테두고 이 밀문을 헛다고, 말 제라가난. 쌀문 해연 다 양쪽으로 더끄고 열고 두 꺾 들앗단, 지계문을 들앗단이 츄츄츄 발전해가난 그 지계문 다 테어된 밀문 허는 사름이 셔낫저. 창문도 쌀문 헛 단에 또 창문도 두개라이. 안넛문 곁창.

108012 @ 안넛문 허고 곁창?

108012 # 속엿문은 그냥 문이고

108012 @ 베끗디 이신 건

108012 # 곁창, 곁창. 곁창 드는 것도 출린 집, 두개 문 곁창 들앙.

108012 @ 널문은?

108012 # 널로 만든 문은 안엔 엇고게, 안에 엇고. 이문 드는디 널문 돌아.

108012 @ 문 손잡이.

108012 # 문곁쇄, 문곁장. 문고리엔도 허고게, 곁장이엔도 허고. ‘곁쇄 곁라’ 영 행, 곁쇄.

108012 @ 자물쇠?

108012 # 곁쇄라고 허여 곁쇄. 문에 그 종그곡 여는 곁쇄가 이서. 곁쇄. 것도이 돌쳐귀 흐나 박아근앵이 곁쇄 뎡동글락헌 거 멘들앙 것도 돌쳐귀 들어야 웨어. 돌 처귀에 이제 그 열쇄 영 허영 통쇄로 종그곡.

108012 @ 돌쳐귀?

108012 # 돌쳐귀게. 그 문에 열쇄 곁젠 헤도 돌쳐귀가 들어야 웨어. 양펜이, 양 펜이 이제 돌쳐귀 이펜 문에 흐나 박고 열쇄 돌아맬 거 흐나 박곡 허영 열쇄로 톡 허게 곁영 종가야지. 곁쇄. 곁쇄 돌아. 경허영 통쇄에 열쇄 헛다근에. 이제도 통쇄. 열쇄가 허주만은 그때도 곁쇄 곁어사.

108015 @ 옛날 초집에 앞에 영 비 안들게 치는거 있지예?

108015 # 풍채, 풍채. 풍채허고 옛날은 뎡도 셔낫저만은 건 느네 몰르컬. 뎡도 쳐낫주만은.

108015 @ 뎡은 어떤 때 치는 거짜?

108015 # 그런 비올 때나 치곡.

108015 @ 뜸도 비슷한 거짜 풍채영?
108015 # 응 비슷한 거.
108015 @ 풍채 바투는 낭대기는 무신거라?
108015 # 작대기. 작대기행 양착에 바퇴사, 풍채도 바퇴사.
108016 @ 물 져 오는 허벅도 여러가지짜?
108016 # 허벅, 대바지. 족은 건 대바지.
108017 @ 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은?
108017 # 골목.
108017 @ 제주도 말도 골목, 옛날도?
108017 # 응 골목계. 우리 골목에 살아났저. 저 알동네 골목에.
108017 @ 올레 아니고?
108017 # 올레 아니 골목. 영 이제 큰길에서 소릿길로 쭉 들어가는 건 골목이주
계. 골목길.
108019 @ 높은 어떤 거 잇수과?
108019 # 보릿눌, 조눌, 콩눌 뭐 출눌 뭐 곡석에 메주뒤. 보리낭눌, 조칩눌, 출
눌.
108019 @ 높은 어떻게 만듭니까?
108019 # 날라당 놀영 느람지 더짱. 그 우이 주쟁이가 이서이. 느람지 더꺼낭
주쟁이. 벨 우리 이제 느람질 둘러도 주지가 으뜸이라고.
108019 @ 느람지는 새로 어떻게 멘들어?
108019 # 새로 예껴. 새허여근에 여껴야 느람지. 나 느람지 잘 여껴진다. 이렇게
새면 요렇게 해봐두고서 요거 새 아나가 이렇게 찢르멍 요렇게 영 예껴가는 거라.
요레 또로 놔가멍 놔가멍.
108019 @ 건 남자들 만드는 거 아니?
108019 # 남즈도 허곡 여즈도 허곡계. 남즈들은 막 재게재게 허고 여즈덜토 잘
허여 허는 사름은. 쟁 비와가민 느람질 멧 개 행 놔뒤사 비와가민 놀을 탁탁 더꺼.
주쟁이도 행 낮당 탁탁 씨와야 그 놀이 완고허여. 그렇지 안허면은 안뒤여. 느람지
만 더꺼도 안뒤여. 거난 주쟁이도 문 멘글아 낮당 놀마다 툽툽 더끄고. 느람지가 벨
거라도 주지가 으뜸이라고.
108019 @ 주지엔 곶아, 주쟁이엔 곶아? 주쟁이가 주지?
108019 # 응, 주쟁이엔도 곶고, 주지엔도 곶나계.
108019 @ 할머니 주로 뒤엔 곶아?
108019 # 주쟁이.
108019 @ 주쟁인 어떻게 만들어?
108019 # 견디 그 주쟁이 옛날은 짜메, 검질로, 새로 짜가지고 느람지 빙허게
들렁 그 주쟁일 더껴야 물이 바라서 이제 물이 췌안헤영 잘 성공뒤텐 말고 느람지
가 벨 거시기라도 주지가 으뜸이라고 경헤여. 사름도 이 아랫사름이 벨허게 해봐도

대통령이 으뜸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배에도 뭘 거리는 디 말이 이서, 소리에. 그물코이 천 코라도 베릿배가 주장이라.

108019 @ 베릿배가 주장이라고?

108019 # 응, 배가 이서야 그 그물을 헤 올거 아니가게, 그런 노래가 있다고. 경현다 엇이 놀도 아명 잘 싸여도 주쟁일 잘 더꺼야. 주지가 으뜸이라. 거 제춣말이라.

108020 @ 웨지 밥 주는 건 뭐?

108020 # 미시거 돛도고리.

108021 @ 변소는?

108021 # 통시.

108021 @ 통시에 영 앓는 디 돌 놓은 것은?

108021 # 드들팡. 드들팡. 디딜 거난 게 디딜팡이주게 디더사 그디 똥 싸지 안험사게.

108021 @ 낭으로도 멘들아나수과?

108021 # 낭으로도 멘들아난. 드들팡인디 드들낭이라고 그 드들낭 허젠 허민 낭이 막 좋아야 웨여. 소소현 낭은 안웨여. 낭이 춤낭 막 질긴 낭이라사 드들낭을 허지, 저 대부분은 돌로. 돌을 이렇게 멘들아 가지고 소랑허게 멘들아 가지고 양쪽에 놔가지고 든든해사 웰 거 아니라게. 드들팡이라고 해서, 통시에.

108021 @ 통시에 앓아신디 누게 와가민 에험 허느 거 무신거?

108021 # 지침이주 무시거라. 그적 내염주게. 어떻허여 게민. ‘그적도 안험저.’ 영 허고. ‘그적 허영 경허주게. 어떻 허여?’

108022 @ 막 쓰는 물건을 놓아두는 곳은? 육짓말은 헛간.

108022 # 헛간.

108022 @ 제주도 말도 헛간?

108022 # 우리 저디ㄴ라 박거리도 헛간이주게.

108023 @ 외양간은?

108023 # 외양간은게 쉼막이주게.

108023 @ 물 놓는딘 딱로 이름 이수과?

108023 # ㄴ따, ㄴ따. 물 메민 물막이고 쉼 메민 쉼막이고. ㄴ따.

108024 @ 장독 놓아 두는 곳은?

108024 # 미시거 장항뒤주. 장항뒤가 뒤에 장 담으난 장항뒤엔 헛주게.

108024 @ 간장 된장을 담아 두는 건?

108024 # 장항. 비 오민 장탱이도 더꺼사주게.

108024 @ 향아리도 크기 별로 이름 이수과?

108024 # 게 준 것ㄴ란 단지, 오가리, 큰 항. 항, 오가리, 단지 거 세 개 주게. 오가린 흐끔 죽은 것가 오가리, 막 죽은 건 단지. 큰 건 항. 또 옛날 흑으로 멘든 지세독이 이서났어. 건 흑으로 구윳 검영현 거. 거 물도 막 사노롱 헤영 좋아, 실려

와 그것에 놓면. 것ㄴ란 독이엔 허여, 지세 독이라고.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초가 지붕은 몇년에 혼 번씩 가는 거짜?

108026 # 그것도 일년에 혼 번 일어. 일년에 혼 번. 경허민 안거리 신 사름은 안거리 혼 해 일곡 또 박거리 혼 해 일곡 쉬들려사주. 것도 흙치 일젠허민 버쳐, 버쳐. 경허니까. 박거리 혼 해, 안거리 혼 해 경 일어.

108027 @ 지붕, 새 해당 지붕 허는 거 어떻허영 허는 거짜?

108027 # 지붕허는 거 이제 흑 올려근에 고대라고 헤가지고 고대 올려가지고 새로 깎양 줄을 매는 거라, 또.

108027 @ 계단. 새는 어떤 걸로 험니까?

108027 # 아무 새로나 돼주만은 진 새가 경 어롭주게. 경허니까 각단이엔 허영 짝른 걸론 줄 놓고 진 걸론 집 일고.

108027 @ 진 건 집 일고 각단으로 줄 놓고.

108027 # 각단으로 줄 놓고.

108027 @ 각단은 어떤 거짜?

108027 # 각단은 짝른 것ㄴ라 각단이라. 진 건 집 이는 거. 각단은 짝라도 이제 줄 놓는 거. 짝른 거. 각단은 짝라도 씨니까. 진 건 이제 새가 훨칙허영 막 험 건 큰 새고 짝른 건 백짝허게 짝른 건 비어당 그건 각단, 걸로 줄 놓아. 줄도 집 일젠 허민 진 줄 짝른 줄이 이서.

집 일젠 허민게 초가집. 초가집 일 때민 진줄은 질게 시리 ㄴ루 메영, 짝른 줄은 또막또막 짝르게 으라 개.

108028 @ 진 줄도 잇고 짝른 줄도 이서사 험니까?

108028 # 진줄은 이제 영 질게 스랑허게 매가는 거라이. 경허고 또 짝른 줄은 집안 이레 브디지 안허여. 계민 짝른 줄.

108028 @ 아 이렇게는 진 줄 요기는 짝른 줄.

108028 # 경혜사 드망드망 삼각구 나게시리 줄 양사이가 경행 매는 거주게. 매어.

108028 @ 어디 삼각형 나게?

108028 # 줄로 영허민 삼각구 나게 돼지 안허여게.

108028 @ 사각형 아니?

108028 # 사각형이고 삼각형이고.

108029 @ 집줄 험 때 영 돌리는 거 이수게?

108029 # 호롱이. 줄 비는 건 호롱이, 뒤치기. 어울릴 때 허는 건 뒤치기. 그거 주게. 호롱이로 비어가지고 어울릴 때는 뒤치기가 이서. 뒤치기 이렇게 해서. 고망 똥라근에 줄 영 찢렁 이제 일로 영 뱅뱅 돌려. 거 뒤치기라.

108029 @ 줄은 어떻 허여?

108029 # 줄 낱게, 스끼ㄴ추룩헌 거 호룽이로 비영.

108029 @ 호룽이로 비영.

108029 # 어, 호룽이로 영 뇌가민 이렇게 비어가. 쟁 이제 두이레 초담 이젠 문 비명 영 낱 말젠 어울려. 어울리민 것이.

108029 @ 어울리는 건 무신거엔 허여?

108029 # 뒤치기, 뒤치기.

108029 @ 뒤치기.

108029 # 호룽이, 뒤치기. 호룽이는 영 이제 치는 것가 호룽이. 저 호룽이로 비어 강 말자엔 이제 어울린 때는 뒤치기로 쳐. 혼 사람은 쳐가명 둘이가 허여근영이 어울려 가. 게민 너이 들어사 돼어.

108029 @ 집줄 허젠 허민 너이가 이서사해?

108029 # 뒤치기 치는 사람. 가운데 상 영 어울리는 사람, 둘은 비곡, 둘은 비어. 어울릴 때.

108029 @ 비는 게 어떻허는 거마씨?

108029 # 빌 뎨 혼 사람 썩 비어. 줄을 놓주게, 영 새로. 새가 이제 이거 실 거 아니가? 영허민 조근조근조근 호룽이로 비어가민 츄츄츄츄 노가 늘어 가주게. 늘어 가면 그거 이제 두 개라. 두겔 허영 혼 줄로 허영 낫당 비어낱 어울릴 때는 이젠 둘이가 비고 혼 사람은 가운데서 손으로 영 허여 가고 뒤치기 치고 경허여. 줄은 게난 간단히 헤지는 중 알아?

108029 @ 베 만들 때도 씩니까?

108029 # 기지?

108029 @ 쉼석 님은 거.

108029 # 베 멘들 때 베. 것도 줄이나 마찬가지로. 많이 허젠 허민 그 호룽이로 막 비어근에 허고 경 안허면 노꼬양, 노꼬아근에 베들이는 사람은 노꼬아 가지고 이제 저디 영 줄 매영 그레 츄레츄레 꼬아가. 베 드리는 거. 베 디리젠 허민 삼갑으 로게, 스끼 꼬아낱 또로 혼불 허는 건 삼갑이엔 허여근에. 경해사 질겨.

108029 @ 삼갑은 세 번 허는 거?

108029 # 아니, 노 혼 번 꼬아낱 또 두 번 꼬는 것ㄴ라 삼갑 디렘덴. 질기게 삼 갑 디렘.

108029 # 두 번은 허민 야리주게. 스끼 혼 번 꼬양은 베론 못 씨주. 이 쉼나 무 신 가린석을. 쉼나 메곡 하간 이제 오래 씨젠은 허민 삼갑을 디려야 돼어.

108031 @ 집줄은 어떻 매사 되는 거마씨?

108031 # 어떻 매어게? 진줄 매어낱 썩른줄, 진줄부터 다 매어낱 썩른줄 매어.

108032 @ 허당 남은 집줄은 무신거 허여?

108032 # 방석도 멘들주만은게. 부엌에 깔양 앓는 방석. 그 줄은 또 매당 남은 것도 씨주만은 줄 퓃디와이. 또 매어낱 츄레츄레 이젠 그 줄을 하나씩 퓃디와.

108032 @ 퓃디우는 게 어떻 허는 거?

108032 # 그 집을 일어노민 이제게 그냥 땀 땀 아땡이나 영 매지 안허느냐? 경허민 또 날 역버령 사다리 놔가지고 뽕뽕하게 그걸 이제 땡겨서 붓디와. 경허민 그진 거 남은 거 그차. 지랑지랑 안허게 툭툭 그치면 그런 걸로 봉강 방석도 멘들고, 그 줄로.

108032 @ 그 방석은 무신 방석이렌 곶아?

108032 # 부엌방석계, 정짓방석. 경허민 이제 정지에 또 식구 한 사람은 막 으라 개 든다게. 방석도 하나씩 깔아 앓젠허민. 우리도 방석 하낫저. 겨고 또로 그 줄로 못허민 낭 또로 쪼글락허게 오령 방석. 동글락 동글락허게 낭 오령, 낭방석도 허고.

연장

108033 @ 나무 깎으는 건.

108033 # 자귀, 자귀도이 큰 자귀가 잇고 죽은 자귀 셔.

108033 @ 건 일름 트나게 불러?

108033 # 그건 그냥 큰 자귀걸.

108033 @ 큰자귀, 죽은 자귀 그냥?

108033 # 자귀 영 하나 죽은 건이 혼 손으로 툭툭 짓는 거고. 큰 자귀는 영헤영 막 낭 찍는 거 이서.

108033 @ 안쪽을 호벼내는 자귀도 이수과?

108033 # 그건 저 무시거게, 확 근젠 허난. 끌, 끌. 끌헤영 독독 찍음도 허고 파냄도 허여.

108033 @ 옥자귀, 번자귀, 곱새자귀?

108033 # 곱새자귀 그런 건이, 이 저 낭허는 딴 벨로 안 쓰고 하간 기술자덜이. 흙 파내는 거 영.

108033 @ 흙 파내는 거 무신거?

108033 # 그건 게 흙 푸는 것 그라게 곡췌 베피 더 셔. 곡췌, 곡췌.

108033 @ 곡췌?

108033 # 영 흙 파내는 거 곡췌주게, 굽어 내는 거.

108033 @ 곡췌 자귀?

108033 # 곡췌 건 자귀가 아니. 그 저 이 기술자덜 하간거 허레 땡기는디는 그런 게 막 많이 들어가. 끌, 끌은 또 닥닥 찍어그넝이 저 거시기 망치로. 끌은이 낭 고망 딸를 때 닥닥 찍어그넝이 그차내는 거고. 끌, 끌.

그냥 저 이 끌인디 흐뎡 오그라진 게 이서. 흙 파내는 거. 끌 허고 그거허고 그치 들루는 거라, 그거, 곡췌. 끌로 독독허여근영에 다 흙 파내지 못허면 그 곡췌헤사 흙 파내여. 우리 거 늣 허는 거 봤주 무신, 씨어 봐서게?

108034 @낭 싸는 건 톱이파?

108034 # 톱.

108034 @ 양쪽으로 싸는 것도 이수과?
 108034 # 양쪽으로 싸는 것도 이서. 그거 큰 툽이라, 큰 툽. 아니 양쪽을 싸는 건 작은 거주. 쌍툽이엔 현 거? 쌍툽.
 108034 @ 쌍툽?
 108034 # 이쪽에도 허고 이쪽에도 허메.
 108034 # 그건 죽은 툽 아니? 죽은 툽이주. 큰 툽은 늘 두개 허영 안돼여.
 108034 @ 휘어져붙어?
 108034 # 아니게, 무섭주게. 이디 낭 쌀 때 헤여난 제주노래 허는다.
 108034 @ 양늘베기, 외늘베기도 이수과?
 108034 # 응 양늘베긴 양쪽에 이신 거 양늘베기, 외늘베긴 혼 쪽만 신 거. 그것도 이거 죽은 툽일거여. 혼쪽 종가뵤 또 혼쪽 씨곡 험지. 것도 양쪽을.
 108034 @ 막 큰 툽은 뭐엔 곱습니까?
 108034 # 장툽. 장툽인디 건 막 커.
 108034 @ 장툽도 이서마씨?
 108034 # 큰냥이 옛날은 둘이가 마주 상 허여.
 108034 @ 둘이가 마주상 영영허는 거? 그게 장툽?
 108034 # 막 커. 막 커부니까 둘이가 헤야지.
 108034 # 널 오리는 거, 널. 널판. 옛날은 기계 엇어부난 사람 둘이 마주 상 여여싸 여여싸 허멍.
 108034 @ 툽인디 혼자 허는 거 큰 툽은 곧는 말 이신가?
 108034 # 아니 그건 그냥 보통 툽. 이 저 낭싸는 거 그 큰 툽은 장툽이여, 장툽. 막 큰 거.
 108034 @ 툽질허민 옆이 뭐 털어집니까?
 108034 # 툽밥.
 108034 @ 건 그냥 툽밥?
 108034 # 툽밥 담아불멍 헤염주. 툽ㄴ루, 툽ㄴ루엔도 허곡 툽밥이엔도 허곡.
 108034 @ 툽ㄴ루엔도 허여?
 108034 # 툽ㄴ루엔도 허곡 툽밥이엔도 허곡.
 108034 @ 툽ㄴ루?
 108034 # 툽밥, 요센 툽밥을 하영 씨어라.
 108034 @ 이제 쓰는 말 말고 옛날 씨난 말로.
 108034 # 게난 툽ㄴ루.
 108035 @ 망친데 한쪽은 영 못 박고 한쪽은 못 빼게 된 거.
 108035 # 못빼기, 못빼기. 혼쪽으로는 망치질 허고 혼쪽으로는 못 빼고. 경허는.
 108035 @ 경허는 못빼기 망치?
 108035 # 으, 못빼기 망치. 그 못도 빼고. 잘못 해시민 빼넹 새로 허는 거. 그리치민 또 밀어뵤 허는 거 마찬가지.

108035 # 못 이제 사용허는 사름은 그걸 주로 아정 땡겨야주게. 못빼기 아정 땡겨.

108035 @ 한쪽은 못빼기로 쓰고 한쪽은 지렛대 처럼 된 것도 이수과?

108035 # 그런 건 엇은디. 그건 저 거세기 것ㄴ라 뭐엔 허는디, 저 들르는 거. 그거 이름 몰르크라. 들르는 것ㄴ라. 들르는 것도 이서. 영 이 아래. 그 옛날은 지름, 지름클로 영 기계 데와가민 그것이 올렛당 느렛당 해난디.

108035 @ 지름클?

108035 # 지름 빠는 게 이서. 옛날 손으로 데왕. 이제 어디 지동이나 어디가 이제 느려질 거 아니? 경허면은 사름으로 못 들르지. 경허민 돌 바뵤 가지고 그 기계 앓다다근에 데와가민 썩 올라가.

108035 @ 기계 말고 쉼로만 된 건 엇수과?

108035 # 거 잘 몰르크라, 이름. 우리 그런 건 봐났저, 지름클 저 올리는 거.

108036 @ 대패

108036 # 대뵤 저 낭 미는 거.

108036 @ 그건 제주도 말로.

108036 # 건 대뵤라.

108036 @ 그냥 대뵤.

108036 # 영 널 밀어가민 멘착허게 미는 거.

108037 @ 자, ㄴ 자로 생긴 자?

108037 # 자?

108037 @ 곱은자?

108037 # 곱은자, 곱은자. 그건이 요런디 구짜허게 구짜 재당 저디강 썰거 아니? 이렇게 기억제로 요렇게 해서 영 일로도 재곡 허는 것ㄴ라 곱은자라.

108038 @ 떡통, 떡줄, 떡칼.

108038 # 떡통은 떡 곱아근에, 떡통허영 떡술도 놓곡. 그디 실 감는 것도 다셔. 떡통 안네.

108038 @ 떡칼도 셔?

108038 #저 거시기 떡칼? 칼도 이실테주. ㄴ치 들황, 떡통에. 그 실도 그치곡 헐 거라부난. 거 목시덜 가정 땡겨, 다 곳황. 또이 목시도 연장궤가 이서이.

108038 @ 연장궤?

108038 # 낭으로 저 짜근에 박스 닳은 거. 연장궤라고. 다 놔, 곳황. 툽이여 뭐 일천거 다. 끌이여, 그런 거 연장궤. 연장 놓는 거, 것ㄴ라 연장궤라고 헤여. 저 ‘연장궤 아져오라.’, 연장궤에 낫당 무시거 씨게 돼민 경행 허주.

108038 @ 떡술은?

108038 # 떡술은 이제 옛날에 이제ㄴ치 무시거 시냐게. 이젠 연필 이시니까 짝 짝 기섬주만은 그땐 엇이니까 떡 곱아서 떡통이 이서. 목시덜 씨는 떡통. 그 떡통도 이젠 낭으로 멘들아 가지고 영 통 또 요만이 통허고 들렁땡기는 거 이서. 그디 이

젠 물 낱 떡 곱아놔당. 실 또 그디 실 감아져이 가운디 감아지면. 영 등겨가민 실 풀어지게 그디 도로기 메와서이. 목시질 혈 때민 이제 그 반득허게시리 혈 땀 먹술 낱 탁탁 따리민 그것이 번뜩허지게. 경허연 해난. 경헤연 목시덜 낱 오릴 때 널판 오릴 때. 널도이 이제는 못을 사용허지 안허느냐게. 건디 못으로만, 도레기도 낱으로만 멘들앙 문도 들주게, 그때. 낱을 이제 조금 알로 꺼꺼내어, 가까내여 가지고 도레기 혈 만이 허영 그디 도레길 멘드는 거라 우알에. 지방도 이젠 톡허게 고망 딸랑 그레 문 들고 열곡. 것도 막 질겨 게도. 겨난 널도 춤낭으로 헤여.

108038 @ 문 널도.

108038 # 널문 허젠허민.

108038 @ 널문 허젠허민.

108038 # 경헤낫저, 떡통헤영 먹술 놓고.

108039 @ 흙손, 영 벽칠허는 거 이수게?

108039 # 쉼손, 쉼손.

108039 @ 흑질 혈 때 손으로 험니까?

108039 # 무시거 쉼손도 경 엇어, 그때.

108039 @ 흙손 아니고 쉼손?

108039 # 응, 쉼손게 쉼손. 이제사 쉼손도 낫주.

108039 @ 낱으로 뵈 건 엇어?

108039 # 엇어, 낱으로 멘든 건 엇어. 그냥 저. 낱으로 된 거. 쉼손은 쉼로 멘들 앓주. 낱으로 뵈 것도 옛날 그 낱, 쉼손 엇인 때 그 널판으로도 멘들앗지, 그런 것도. 것도 쉼손, 거시기 쉼손이엔 허여근에 흑 불르는거. 쉼손이엔 허엿주게. 낱손이엔 안 곱아. 쉼손게 쉼손, 우린 쉼손이엔만 곱아나난. 널판으로도 멘들앙 쓰긴 허여. 영 조륙 들정. 쉼손 그치륙, 옛날 엇인 땀.

108039 @ 손으로 다 헤수과?

108039 # 어, 손으로. 손으로 영 몰라, 다. 축브름도 불르고 천장 우이도 불르고.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허민. 흑 꾸는 노래도 이디 나와, 제주인덜 해난 거. 그거 혈 땀 막 소리허멍. 흑꾸는 노래가 나올 땀 나오고 그냥 노래 사대소리 많이 나오지.

9. 신앙

109002 @ 새집이 가민 제도 지내주예?

109002 # 제도 지내구정 허민 지내주게. 보통 다 허여. 게도 요새 지냄샤? 아파트 가는 사름덜. 집 짓으민 성주 누리아 사주게. 요새 아파트도 성주 누리우는 사름은 누리와. 우리도 집 짓으난 성주 누리앗저게. 것도 옛날 법이주게.

109002 @ 성주는 어떻 내리는 거마씨?

109002 # 어떻 허여계, 찜. 심방 빌어당 해야주게. 시남도 빌어당 허는 사름은 허고. 득은 씨주. 득은 혼 마리 씨. 장득 사당.

109005 @ 칠성제도 지내낫수과?

109005 # 집이 이제 문전, 문전님, 조왕할마님. 그 나시를 이제 제를 지내는 거 주게. 집이 살명. 집이서는 옛날 법이 이제 문전님이 직허여 주고, 조왕할마님이 직허여 준덴 이 집을. 집이 이제 경허영 제 지내는 거.

109005 @ 문전하고 조왕만 허는 거, 다른 신은 엇어?

109005 # 다른 신도 무사 잇주게. 저 칠성이엔 허영 잇고.

109005 @ 할머니네도 이런 거 해난 마씨?

109005 # 허고 말고. 우리도 초상덜이 해나난 전통으로게.

109005 @ 칠성제는 어떻 허는 거?

109005 # 칠성제는이 이제 찜 복 엇인 사름 복도 빌어줍서, 멩 엇인 사름 멩도 빌어줍서 헤영 막 큰제라. 보통 제가 아니라. 불도 할마님이엔 허영 불도맞이라고 그 제에 부짱 칠성제도 허곡 경헤여.

109006 @ 이 마을에 당 그런 거는 엇수가?

109006 # 포제 허고 또로 저 정월 일뤼, 일뤼 할망신디 호당마다.

109006 @ 어디 마다, 호당마다?

109006 # 이저 이녁 집집마다, 집집마다 소원빌레 가주게.

109006 @ 어디 가? 일뤼당에?

109006 # 으.

109006 @ 일뤼당은 어디 이수과?

109006 # 요레 가민 잇주.

109006 @ 흐뎡 잇당 ㄹ리쳐 줍서예?

109006 # ㄹ리쳐 무신거 허젠.

109006 @ 사진 찍젠. 이디 본향당도 잇주예?

109006 # 알선홀, 알선홀. 알선홀은이 정월 십사일날 음력으로 그날에 큰 제로 해서 가고 여기는 이제 칠일날만 가고.

109006 @ 칠일날만? 칠일, 십칠일?

109006 # 으, 십칠일날도 가고 칠일날은 가. 이십칠일날도 가고. 이제 일뤼가 대목이라고 헤가지고.

109006 @ 혼 달에 세 번 가는 거짜?

109006 # 아니 일년에 혼 번 가는데 이제 그런 일뤼날은 간다고. 이녁 가지는 날. 선홀 ㅁ을을 직허는 일뤼할마니. 경 이제 정월에도 가고 또 이제 ㄹ을에 십일월 들에 이제 많은 곡석을 헤여 드렷수다허영 또 제 지내레 가. 경 허는 거.

109006 @ 할머니도 가낫수과?

109006 # 가고 말고. 대목 가지. 음력 정월들에.

109006 @ 정월 초 일뤼날 가는 거? 일월 칠일날?

109006 # 일월 칠일날 못가민 십칠일날 가고. 이녁 못가면. 또 몸이 이제 부정
타나 뭐허민 못가지게. 경허민 또 십칠일날 가곡. 또 십일월 들에도 가고.

109006 @ 일 년에 두 번 가는 거봐?

109006 # 응 두 번.

109006 @ 갈 때 무신거 행 가?

109006 # 무신거 행 가? 밥 행 메, 메렌 허주, 밥ㄱ라. 메 시 개 거리고, 갓것제
숙 두 개 굽곡, 또 이제 떡도 신가지 제물로 출려지는냥. 떡도 허여지민 허고, 못
허여 매번.

109006 @ 돌레떡이라도 행 가지 안허여?

109006 # 헤영 가지민 종주만은 요새엔이 못헌다게.

109006 @ 요새 못해도 옛날엔?

109006 # 옛날엔 허고 말고.

109006 @ 무신거 해낫수과?

109006 # 돌레떡. 모물ㄱ롤로도 행 가고.

109006 @돌레떡 하나만 행 갑니까? 멧 개 해야 돼여?

109006 # 혼 반에이 세 개 썩 올려. 겨민 혼 열 개 더 아정 가야지. 올리구정
허민 더 올리고. 것도 뭐.

109006 @ 그다음에.

109006 # 과일

109006 @ 과일은 멧 개?

109006 # 삼중. 미깡, 사과, 배.

109006 @ 삼중으로 세 개 험니까? 밥이 세 개난.

109006 # 건 과일은 삼중 허는 거난, 혼 사라에 세 개씩. 세 사라.

109006 @ 독새긴 안허여?

109006 # 헤여.

109006 @ 독새긴 멧 개허여?

109006 # 독새기 상강 두개도 올리고 혼나썩도 올리고 그자. 이녁 출령가지는
혼. 무신 누게 하영 출리라 무신건 엇어. 이녁 믹음껏 정성껏.

109006 @ 제 지내는 건 어떻 험니까?

109006 # 이제 강 절도 허고, 또 신안 오면은 말땡도 허영 신수도 보고.

109006 @ 신안?

109006 # 심방.

109006 @ 심방이엔 안행 신안이엔 험니까?

109006 # 신안이엔도 곤고 보살이엔도 곤곡 헌다게. 요새엔 다 보살이라.

109006 @ 옛날은 신안이엔 곱아난?

109006 # 응. 신안이 시냐? 요새. 옛날은 신안이 첨 많아신디.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정월 초하루는 무신 멧질?

110001 # 무신 멧질이라, 정월멧질이주.

110001 @ 정월멧질날.

110001 # 과세. 과세덜토 막 오단에이 이젠 아니와.

110001 @ 정월멧질에 무신거 올립니까?

110001 # 옛날은 아척이 붉기 전이 모뎡국시허영 느리왕 모뎡국시허영 올려. 이제도 허는딘 허여. 국멧질이엔 허영.

110001 @ 아, 국멧질. 그거 해낭?

110001 # 그거 해근에 이젠 다 떡곡 허여근앵이 또 출령 또 제대로 멧질 허고. 경해난.

110001 @ 무신거 올립니까?

110001 # 무시거 올려게. 이제 요새에 생편이주만은 옛날은 곤떡, 곤떡 허멍 곱 앓주만은 요새엔게 생편허영 올리고 침떡이영, 지름떡이영.

110001 @ 옛날은?

110001 # 게메 그거라. 이제나 그제나 떡은 ㄴ따.

110001 @ 솔벤 절벤은?

110001 # 솔벤 절벤은이 이제 대소상 때에 그 저 곳창 허는 게 이서. 식게 멧질 때는 그 솔벤 절벤은 안헤. 이제 그 송편허곡 새미떡, 침떡, 상웨떡.

110001 @ 상웨떡?

110001 # 응, 상웨떡 허여.

110001 @ 정월멧질에도?

110001 # 정월멧질에는 상웨떡은 아니허고. 허여지민 좋고 것도. 일반 허는 게 그거라. 그거주게.

110001 @ 바닷고기는 무신거 험니까?

110001 # 바닷고긴 주로게 생성허고, 우럭.

110001 @ 우럭을 주로 험니까?

110001 # 응 우럭. 갈치는 잘 안허고.

110001 @ 옥돔은 안허고?

110001 # 옥돔 허고.

110001 @ 옥돔보다 우럭을 하영 험니까?

110001 # 우럭이 옛날 하영 헤. 옥돔은이 옛날은 이 남군은 많이 나고 북군은 잘 앓여. 경허난 우럭이 많이 헤여. 많이 헤난.

110001 @ 정월멧질날 상 출령 제 지내나민 놈의 집이 먹으레도 가곡 험니까?

110001 # 게 방상에. 방상에 이제 멧질을 으라 밧디 먹을 땐 허단 이젠이 이 먼 가지덜은 아니 어우러. 그냥 이녁 동싱칩이 그저 친척, 가까운 친족만.

110001 @ 할머니는 멧 곤데난 먹어났수과?

110001 # 우리도 그전이는 서너니 밧, 밧 밧씩 허단 츠츠츠츠 이젠 주순네도 일본 가불고 허난 우리집이도. 우리집이영, 저 셋동세네 집이 강 허고 족은 동세네 집이도 가고 경험서.

110001 @ 그날은 세뱃돈도 주고 험니께?

110001 # 세뱃돈 주고 말고.

110001 @ 옛날도 세뱃돈 줘났수과?

110001 # 옛날도 주주만은 옛날은 세뱃돈 경.

110001 @ 세뱃돈 대신 다른 거라도 줘?

110001 # 다른 거 줄게 셔? 떡 받아가주 떡.

110001 @ 아기덜도?

110001 # 아기덜도 떡을 주로 아정 가, 옛날도. 멧질 먹으래 와도. 제스 때에사 원 주로 건 보낼 걸로 허주만은 멧질 때도 떡도 아정 강 먹주덜게. 식게, 멧질 안허는 쨌당도 있고. 허는 집이도 이제 서로 우리 것도 먹어보고 느네 것도 먹어보고 경허여근험에 이제 아정 가곡 아정 오곡 경허여.

110001 @ 다른 데 세배 드리레도 가주예?

110001 # 많이 다니단 이제 설런.

110001 @ 옛날엔 하영 다녀났지예?

110001 # 아이고, 다니곡 말곡 그냥 뵈 담주. 과세도 아이 가민 송뵈이. 갈만헌 디 안가민 안뵈여.

110001 @ 과세 갈 때 뵈 가정 갑니까?

110001 # 특별히 또 가정 갈 디가 있고 그냥 강 절만 허곡.

110001 @ 그 집이선 뵈 줘니까?

110001 # 술 먹는 사름은 술이나 혼 잔 영 주곡, 옛날은 침 감주험당 감주도 뵈 이곡 험주.

110001 @ 술 안 먹는 사름은?

110001 # 술 안 먹는 사름 게메 감주도 혼 잔 먹고. 요새 ㄹ치 무슨 커피가 셔? 요새엔 커피가 주룬디 옛날은 커피가 엇어부난 감주, 감주.

110001 @ 아이덜 옷도 새옷 만들어 주고 하지예?

110001 # 새옷 멘들아 주고 말고 멧질 돌아오젠허민 옷 출림이 난리주.

110001 @ 옷은 집이서 멘들양 험수께?

110001 # 옛날은게 아이덜도 한복 허영 입젓주만은게 이거 한복 설르곤디가 오죽 오래샤? 어린애기덜게 벨미로 요새에 험 입젓주께. 이제도 하르방넨 후르메 입느네.

110001 @ 후루메 입어?

110001 # 하르방 두루마기 입어, 멩질날. 옛날은 그것이 전공이주뉘. 경허난 이제 멩질 돌아와 가민 두루마기도 이제 수축허영 입어야지. 우리도 저고리도 여즈할 망덜도 치메도 입어야지, 경헛주게.

110001 @ 여자들은 어떤 옷 입어?

110001 # 치마 저고리.

110001 @ 무신 색깔?

110001 # 건 므음이주뉘, 므음. 멩질날 한복 입어. 이제 메누리덜토 시집이 가젠 허민 한복 곱닥허게 출렁 가고.

110001 @ 할머니도 멩질 출려냥 친정에 가난?

110001 # 가고말고. 가낫주게.

110001 @ 친정도 선홀 아니?

110001 # 친정도 선홀이여만은이 스삼사건에 다 함덕 간, 우리 친정. 스삼사건으로 막 뒤엎어전게 무신 옛날 무시게 셔?

110001 @ 정월 멩질 전날 떡허는 날 잠자민 눈썹 흰다 허는 말 곱아낫수과?

110001 # 곱아난. 겨난 선달그믐날은 하간 곱 출리는 날이주게, 출림으로. 경허난 이제 그믐날 이제, 그믐날 줌도 못 자. 깃딱 이제 허영 감주 습나, 채소 헌다. 또 새백 국수게, 국수 헤여근앵에. 옛날 시게도 엇어부난 득 울민 국수허여. 득 울민.

110001 @ 멩질 허젠 허민 다 집이서 허는 거? 진짜 잠잘 시간이 엇이크라.

110001 # 콩 곱아다근에 두부허지, 또 이젠 모뉘국시허지.

110001 @ 떡도 다 집이서 허고.

110001 # 응, 그루 뵙앙. 기계에 강 뵙앙 오는 것도 이 근래주. 옛날 들벵이에.

110001 @ 이 동네 들벵이 멧 개난 이서낫수과?

110001 # 들벵이가 이 가름 안네도 세 개나 이서난.

110001 @ 설날 같은 땐 막 기다려사켜예?

110001 # 기다려 막 그자 뵙이레 가민. 겨난 츠레츠레 뵙아, 간 사름.

110001 @ 사름이 돌려?

110001 # 그 들벵이? 응 사름으로 영 서너이씩 너이씩.

110001 @ 남자들이 헤줘?

110001 # 남저도 허곡 여저도 허곡. 막 무거운 땐 남저도 강 헤줘.

110001 @ 소나 말이 꺾진 안허고?

110001 # 소 말 헐 땐 그루 뵙을 땐 안허고게 저 부시거 헐 때. 경허민 뵙아지 는냥 체로 쳐. 그 그를 답아냥. 경헛 덜 뵙아진 건 또 냥 뵙고.

110001 @ 그디서?

110001 # 응, 문 아정 가야지. 칠 거영 체도 멧 개 아정가. 쟁 치명 무게기 냥 또 이제 뵙곡. 경허명 뵙아당 허여.

110001 @ 들벵이 허는 비치락은

110001 # 비치락도 이서. 이 집안비 말앙게 곱닥헌 거 방에나 그레에 씨는 비치

락행 놔둬.

110001 @ 이름은?

110001 # 방에에 씨는 비차락이주게. ㄹ렛비.

110001 @ ㄹ렛비엔 허는구나예?

110001 # 경혜여. 깨끗하게 행 놔둬야주. 이방 씨는 거나 ㄹ따도 ㄹ로 놔둬서 혜여. 방에 지레도 가젠 허민 또 츠레츠레 허젠 허민 비차락이나 푸는체 문여 앓당 놔둬사 돼여. 츠레로 헐 거. 경혜사 방에 이제 누게 질 거로구나 영혜영 츠레츠레 지곡.

110001 @ 나 비차락은 나가 가정 가사는 거?

110001 # 아니 비차락 늬의 것도 쓰주만은 이녀 결로 혜야주. 옛날 침 어떻 혜영 살아난 결. 경허단 정미소가 나난 막 살기가 좋앗주게. 보리도 정미소에서 지영 먹고 ㄹ를도 정미소에서 ㅼ아당, ㅼ아당 집이서 떡은 잘 혜나고 정미소 난 후제도. 겨단 이젠 그자 기계에 강 멧경 그자 혜당. 멧경 흐뎡 혜다근에 올리고. 점점 물도 좋고 하간 게 그릇도 좋고 ㄹ찾주만은 이제는 침 떡도 집이서 안 혜여. 나도 집이서 혜영 옛날 식으로 허젠허민 막 허젠 험젠 허멍 기계 강덜 혜와.

110002 @ 정월 대보름 때는 뭐혜낫수과?

110002 # 정월 대보름 때 이디 경 안 세여.

110002 @ 지금 들불 축제여 뭐여 험니께?

110002 # 게메 들불축제는 그건 국가에서 막 크게 허는 거주만은 이 개인에는 그렇게 보름 안 세여. 법당에게 절간에 가는 사름은 정월 보름에 가주게.

110002 @ 오곡밥 혜먹고 허는 건 제주도에서 안혜낫지예?

110002 # 안혜여, 안혜. 잘 안혜여. 것도이 시내 육지사름덜이 많이 오란 사난 그런 사름덜이 허주 이 선홀ㄹ든 딘 경 오곡밥 경 혜먹는 사름 벨로 엇어.

110002 @ 들에 불 낱 다 태워낫수과?

110002 # 방에 부쨌, 이 철 나민.

110002 @ 정월 대보름 쯤에 허는 거?

110002 # 정월 대보름 후에. 이월 초상에 막 방에 부쨌민이 낱 흐나토 엇주, 문 딱 카불영. 저 오름도 저거 이제사 이 스삼사건 후에 바메기 이디 선홀 오름이나 제주도 오름에 낱 모종을 놔가지고 소나무여 뎡 모종 뎡 오름 마다 싱것주. 그전에는 데역밭, 데역. 멘쨌허여. 오름이 멘쨌.

110002 @ 해마다 불 부쨌 낫수과?

110002 # 불 부쨌 불어. 방에 부쨌불어.

110002 @ 무사 불 부쨌는 거?

110002 # 어떻산디 경 부쨌면은 쉼 물이 살기가 좋아이. 진독도 엇고. 불 부쨌 불민. 경허고 또로 새플 와라와랑 나민 쉼덜 먹기도 좋고. 경혜난.

110002 @ 고사리 하영 나십디가?

110002 # 고사리도 불 아이 부떠부난 고사리가 좋지 못허여.

110002 @ 불 부껴야 고사리가 좋아?

110002 # 옛날은 불 부뜨민 고사리가 가민 고실고실 잘 봐지주만은 이젠 불 아
이 부떠노난 가시 소곱에, 데역 소곱에 거 하나씩 꺼꺼. 막 굿어 불편허여.

110003 @ 정월에 액막이 허는 거 이수과?

110003 # 아 그건, 건 믱음, 이녁 믱음. 집마다 허는 것도 아니고 이녁 믱음. 우
리도 이제 옛날 법으로 정월이나 이월 둘에 칠성제엔 허여근앵이 제를 지내주게.

110003 @ 할머니네도 해난마씨?

110003 # 응 우리도 해난.

110003 @ 어떻 허는 거 마씨?

110003 # 어떻 허여? 심방 빌어당.

110003 @ 정월에?

110003 # 정월에도 허고 못허민 삼월 7장도 허고, 경혜.

110003 @ 그건 그냥 편안하게 해도렌 허는 거?

110003 # 응, 경행 기도 디리는 거.

110003 @ 해마다 허는 거짜?

110003 # 해마다도 헤지민 허고게 못허민 두해에 혼 번도 허고. 경혜. 이젠 안
헤여덜. 옛날은이 대부분 집마다 허여낫주게. 경허단 이 선홀도, 겨단 이젠 안 현다.
설르곤디 막 오래연.

110004 @ 포제도 지내지예?

110004 # 포제는 믱을 제로 똑 해마다 허고.

110004 @ 요변이 왓단예 노인당에 줄 쳐져서라.

110004 # 그것은이 포제에 정성을 허는 거주게. 상가에나 가온 사름 오지 말렌
허곡.

110004 @ 여자들도 오지 말렌 험디다.

110004 # 여자도 안 들어가고 그디 책임자만 들어가. 옛날은 똑 남저만 가근에
여저는 범점을 안허는디 이젠 여저덜 강 밥도 행 뵙이고 허여. 겨곡 또 집도 흐썬
깨끗헌 집으로 지원허영 해난디 이젠 노인당 서부난. 노인당에서 출려.

110004 @ 그때는 일반 제사 지내는 거영 음식이 틀리지예?

110004 # 틀리주게. 그딘 잘 헤야 웨여.

110004 @ 무신 거 헤마씨?

110004 # 그디는이 올리는 건 제주는 ㄱ뜨주만은 감주여, 술여 영행 ㄱ뜨주만은
웨지, 웨지. 웨지 혼 믱리.

110004 @ 돼지 한 마리 통채로?

110004 # 응, 경혜여. 경혜영 축 고허여. 축이 이서. 저 글 씨어. 글로 읽어. 믱
을을 무사히 헤줍센 현 축이 이서.

110004 @ 돼지 머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

110004 # 포제에는 그냥 혼 믱리 다. 각곳 실과도 다 올리고. 경행 축이엔 허영

글썩근앵이 익주게.

110004 @ 이딴 포제 메칠날 험니까?

110004 # 정월. 처음으로 그 젤 넘어나사 집이 이디 제도 지내어. 포젤 넘어사. 포제 지내기 전이는 집이서 제도 못 지내어. 포제가 젤 큰 제주게 므을에. 건디 이제 시에도 동마다 헤라. 옛날 전통으로 해마다 허여.

110005 @ 안택은 무신거마씨?

110005 # 그것이 그거주. 이제 우리가 해마다 정성 드리는 거.

110005 @ 칠성제?

110005 # 응, 그거엔 곶암실 거여. 안택 험젠.

110005 @ 안택험젠 곶읍니까?

110005 # 경 곤는 사름도 잇고.

110006 @ 정월에 보리밭도 밟읍니까?

110006 # 보리밭은 보리 주로 갈 땐 땅이 부끄는 밧엔 강 블라. 것도이 막 제국 때에 보리밭도 블리렌 허난 블려난. 그전인 뭐. 사름이 다 블라. 모다 강덜 이 밧 저 밧 텡기명. 보리밭은 튼튼헤사 좋나고 헤서 블려났저만은 것도 밧에 따라.

110006 @ 밧에 따라? 어떤 밧은 밟아야 돼여?

110006 # 그 작지도 엇고 멘짝허영 부끄는 밧이 이서. 그런 밧이나 블르주, 다 른 건 블릅도 안허고. 조는 기자 블려근에, 씨 뿌령 블령 헤 먹어났주. 옛날 걸름도 엇곡 허난. 비료시상 난 후젠 조도 안 블려도 어땡 안헤. 그냥 좋아. 거난 옛날은 멍청허게 그런 자연으로만 이제 허연 먹언 살아서. 기계도 엇고, 비료도 엇고 허니까. 거난 이 우영팻디만 이제 보리도 좋고 조도 좋지 저 난전 헤먹는 사름덜은 쓸 이 부작허여. 보리도 아이 돼곡 조도 아이 돼곡 그렇게 허니까.

110007 @ 걸궁도 헤낫수과?

110007 # 걸궁은 므을에서 건 노나리. 건디 요새에는 걸궁도 안헤여. 하도 이젠 뭐 도일주도 가고 그런 구경거리가 만헤부니까. 옛날은 그런 구경거리 엇이난 선홀도 멧 번 헤낫어, 걸궁. 모여근에 이젠 막 한라문화제 나가듯이 므을 사름덜이 출려가지고 춤도 추곡게 북장귀 두드리명 노는 게 걸궁이주.

110007 @ 언제 험니까?

110007 # 그건 이 선홀은 안헌다. 걸궁허젠 헤도 것도 이제, 관덕정에 아니 뵈냐? 관덕정에 막 하간 온갓 하간 거 멘들곡 행 춤추는 것덜 그것이 걸궁이주게. 것이 걸궁이라. 관덕정에 입춘날 ㄴ튼 때 거 허연게. 나도 입춘날 구경 갓단.

110007 @ 걸궁험 때 장구엔 험니까?

110007 # 장구, 북.

110007 @ 장구엔 곶아? 옛날도?

110007 # 응, 장구, 살장귀.

110007 @ 살장귀는 뭐?

110007 # 그것이 장구주게. 살장귀, 북.

110007 @ 뽕과리는?

110007 # 쟁, 쟁. 뽕과리ㄴ라 쟁이라고. 흐쓸 허민 쟁은 제기 제기 두드리주게. ‘아이고, 쟁년 와리듯.’

110007 @ 쟁년 와리듯?

110007 # 응, 그 뽕과리 치젠허민 탁탁탁탁 허젠 허민 막 제기 두드려야 돼니까. 아이고 쟁년 와리듯 경허명. 사름이 바뽕게 무시거 막 화닥화닥 허여 가민 ‘아이고 쟁년 와리듯’ 우리가 그렇게 헤난.

110007 @ 쟁년은?

110007 # 쟁 두드리는 사름게. 쟁 두드리는 사름을 보고. 이제 빨리빨리 허니까. 흐쓸허민 아이고.

110007 @ 쟁 두드리는 사름이 쟁년?

110007 # 응.

110007 @ 막 급허게 왔다갔다 허민.

110007 # 급허게 왔다 갔다 ‘아이고 쟁년 와리듯’ 우리가 썬는 말이 우스운 말, 것ㄴ라. 재미나지 첨. 뽕과리 치는 거. 걸궁허젠 허민 또 북도 두 개라이. 살장귀도 두 개. 경허민 너이, 첨 흐나 뽕과리 치고. 썬 치고 썬.

110007 @ 썬은 뭐?

110007 # 썬은 또 저 뽕과리영 ㄴ찌허여근앵이 저 큰 이제 낭푼 닳은 거 큰큰 현 거 두드리는 거.

110007 @ 징.

110007 # 썬은 이제 ‘당당’허게.

110007 @ ‘당’ 소리나는 거예.

110008 @ 입춘 때 뭐 허는 거 이수과?

110008 # 입춘 때 무신거 허는 거 엇어.

110008 @ 이제 뭐 썬 붙이기도 험니까?

110008 # 아, 입춘대길게.

110008 @ 옛날도 썬 붙여난마씨? 이제사 허는 거 아니고?

110008 # 옛날도 그런 거 썬 부썬. 이제사 허는 거 아니 건 옛날 부떠. 그것도 거 입춘대길이엔 쓰는 사름은 막 썬덜 부썬.

110008 @ 입춘 때 늬의 집이 안가는 거?

110008 # 입춘 때 난 올리도 보건소에 가온디.

110008 @ 그런 말 허던데.

110008 # 여자덜은 아이 가메 잘.

110008 @ 입춘은 새철 드는 날?

110008 # 새철드는날. 새철이 들엇다고 해가지고 늬의 집이 여즈덜 안 가.

110008 @ 이제 안 헤도 옛날은 땡기지 말렌 헤난 마씨?

110008 # 옛날은 땡기지 말렌 허여.

110008 @ 무사?

110008 # 몰라, 어떻사 험디 경 곴아. 새철드는날 여즈 늬의 집이 가지 말렌. 올린 난 누워서 보단 ‘에. 보건소에나 간 물리치료나 헤보카.’ 허멍 가난 나허고 또 누게 가서고. 보건소 조끗되 난. 가까우난. 새철드는 날에 또 보건소 잘못 왔젠 안헤샤? 이디 뉘서 보단에게. 경허멍 헤나세.

110008 @ 옛날은 가지 말렌 헤낫어예?

110008 # 응, 가지 말렌.

2월

110009 @ 영등 할망에 대해 말해줍서.

110009 # 영등할망 들어올 때 영등 곳도 허고. 전인이 개인벨로 이제 일 냉길 때도 영등들에 일 냉기면은 집이 문전제나 험 땀 영등 할마니 나시 또 혼 상 출려 뉘이. 메도 딱로 농곡 험다게. 경험디 이젠 제주도적으로 영등제도 잘 험세, 영등곳도 허고. 다. 이제 또 이 제주도는 이제 그 신이 도와정 산텐 허영 서우제도 불르곡 다 제주도적으로 잘 험서. 개인은 잘 못 허주게 것도. 정성껏 못 헤, 못 헤.

110009 @ 영등 땀 뉘허는 거 마씨?

110009 # 영등 땀 이디 안허고.

110009 @ 이딘 안허여?

110009 # 안허여. 일 냉길 땀 영등 할마니 나시 메 올려.

110009 @ 언제 일 냉길 때?

110009 # 집이 안택험 때. 영등들에 허게 뉘면.

110009 @ 아, 영등달에 허게 되면 영등할머니 나시.

110009 # 나시도 올려.

110009 @ 따로 영등 때 뉘 허는 건 엇고예?

110009 # 아니, 그 영등들에 허게 뉘면 그 영등 나가기 전이 허게 뉘면. 겨난 이젠 한라문화제로 그 영등곳도 허지 안험서게. 제주 전적으로. 견디 집이도 무신 특별헌 일 냉길 때 그 영등 할마니 나가기 전이 이월 보름 전이 허게 뉘면 영등할마니 나시도 올려. 올리고 잘 오랏당 펜안허게 헤줍센 허영 기도허는 거라.

110009 @ 영등에는 빨래도 널지 말렌 험게 만든?

110009 # 옛날 빨래 이제 허면은 좋지 못허텐 영등 보름 전이 빨래 허지 말렌 덜 헤난.

110009 @ 십오일 동안 빨래도 허지말아?

110009 # 경해도게 요새 그거 세업샤? 또 빨래도 옛날은이 슸는 게 잇나게. 옷에 때가 안 지면 비누 엇어부난. 그런 거 허지 말렌 험주게. 영등 보름 전인 흐끔 정성을 헤야주게, 것도. 경험으로 그건 생이라.

110009 @ 이월에는 다른 건 엇수과?

110009 # 엇어. 이월 보름 전이게 것도. 이제 영등들 돌아와 가민 영등할마님이

그믐날 소섬 들어왕 이제 초흘를 날은 막 들어온덴 경 곶아났어.

110009 @ 어디로 들어왕 어디로 나가마씨?

110009 # 그믐날은 소섬, 소섬 엇샤게. 경헛당 나갈 때도 경 나감신가? 몰라, 나갈 땐. 소섬 들어왔젠 허영 나갈 때도 경 감실테주게. 그믐 돼가민 아이고 오늘 소섬 들어왔젠 허고 초흘를 날은 영등 들어왔젠 허고.

3월

110011 @ 스멩질 헤낫덴 헨게만은. 한식, 단오.

110011 # 멩질헤난. 한식이엔 허영.

110011 @ 한식날 특별하게 허는 건 엇어마씨?

110011 # ㄹ뜨주 ㄹ따. 멩질허는 거. 오월 단오.

110012 @ 청명이나 이런 거는?

110012 # 청명이 한식이주게.

110012 @ 이때 특별히 하는 건 엇수과?

110012 # 엇어, 엇어. 책명에 무신 일이나 냉길 때. 이 드르에나 뭐 허는 게 잇주게, 책명날도. 이 집안에도 무신 낭을 읍겨 싱그던지 뭐 허는 거 그런 것도 책명에도 헌덴 허여. 경허주만은 다른 건 엇고. 책명날 허는 게 잇주.

4월

110013 @ 사월에 특별히 허는 건 엇수과?

110013 # 아무것도 엇고.

110013 @ 초과일날 절간에 갈 때 지금은 안 허는디 옛날 헤난 거 엇수과?

110013 # 옛날도 초과일날은 초과일이엔 허영 흥끔 세는 사름은 세고 게도 아무 것도 안허고.

110013 @ 할머니 절에 안 멩겨?

110013 # 나도 멩겨난. 이제도 멩겨도 경 가점샤게? 등도 많이 싸보고 헌다는 거 다 해봤주무신.

5월

110015 @ 오월 멩질도 헤낫수과?

110015 # 우린 전이 오월멩질도 헤낫저, 오월단오에. 허단 이제 안햐시네. 아이고, 오월멩질 허젠 허민 보리 비저, 오월멩질 허저, 아이고 바쁘기도 허여라, 물질어 오저, 아이고.

110015 @ 단오에는 특별히 허는 건 엇수과?

110015 # 엇어. 다 ㄹ뜨 거. 한식 멩질이고 오월 단오고 똑ㄹ따. 허게 뉘면. 경헌디 한식은 안허는 집이 하. 허는 사름은 허고.

110015 @ 육진 그네뛰기도 헌다 허는디.

110015 # 엇어. 그네뛰기 팔월 추석 아니?
 110015 @ 이디선 팔월에 헤낫수과?
 110015 # 아니, 거 엇어 이디.
 110015 @ 그네는 제주도 말로 뭐짜?
 110015 # 궁글트는 거주. 영 밀려갓당 궁글 트는 거.
 110015 @ 그네판이나 줄은 무신거에 곶아?
 110015 # 베.
 110015 @ 밀에 판은?
 110015 # 밧에 판은 놔지민 놓고 겨안허민 그냥 베에 그냥 앓앙 궁글 텃주.

6월

110017 @ 유월 스무날은 닭 잡아먹는 날?
 110017 # 득 경 먹넨 해도 먹는 사름 먹고 뭐 마는 사름 말주.
 110017 @ 옛날에 무사 집이서 닭 질좌근에 안헤나수과?
 110017 # 허여나도, 우리 득 잡을충 몰랑 못허여. 하르방도 못 잡지 우리 아이 덜도 득 못 잡아. 요새에는 푼는 득이 이시난 가끔 이따근앵이 아이덜도 사먹고 우리도 가끔 사먹주 득이고 개고 우리 절대 안먹어. 개고기도 절대 안 먹어봤어. 푼고 기도 아이 먹어보고.
 110017 @ 이디 푼 하영 질루지 안헛니까?
 110017 # 길좌도 우린 안먹어. 먹구정 안허여 안먹어. 개도이 유월에 개나 득이 나 먹넨 허지이. 유월에는 큰 제를 안허거든. 큰 제를 안허니까 죄가 안 받아. 개 뭇 ㄱ뚝 것 먹어도. 경허니까 유월 들에 개도 먹고 득도 먹는 거라. 득은 아무때나 먹어도 깨끗헌거니까 먹주만은 그래도 개 ㄱ뚝 건 유월에 먹주. 유월에. 유월에는 유월절 들면은이 집이 무시거 안헤. 제도 아이 지내고.
 110018 @ 무사?
 110018 # 몰라. 유월절 들민. 유월절도 드는 날이 이서. 들이 이제 해가, 입춘도 올리가 쥔 인척 들엇저게. 경허듯이 인척 드는 들이 잇고 늦영 드는 들이 잇고. 유월절 드는 날이 이서, 유월낭. 오월 단오는 그대로 단오고 유월절은 또 절 드는 달이 이서. 입춘도 들락날락이라. 삼월에도 들곡 입춘이, 음력으로. 올리가 쥔 인척 드는 해, 입춘. 이월에 입춘 들민 고사리도 재기 나고 절이 일러. 경허고 또 삼월에 입춘 들민 절이 늦어. 곡식이 이제 늦게 갈곡. 곡식을 ㄱ을에도 늦게 헤 들이고 경헤여. 곡석덜이 어떻사 아는디 푼 절기에 따라. 침. 딱 따르덴 허난 허여보민. 경헌 다게. 그건 제주도 전통이라.
 110018 @ 음력 유월이지예?
 110018 # 응, 음력 유월. 그런 때는 먹어도 죄가 엇거든. 저 높은 제를 아이 지내니까, 유월절은 들면. 겨난 우리 생각에는 이제 유월에는 모든 벌레가 탄생허지 안허느냐게? 겨난 그 아메도게 벌레가 많이 텅기민 추접허주게. 겨난 그 제를 안허

는 모양이라. 이걸 나 생각하고.

110018 @ 날씨가 더우난 음식도 변하고예.

110018 # 벤하고. 응. 칠월절이 들면은 제도 지내고 그렇게 하여.

110018 @ 복날도 삼계탕은 안 먹어?

110018 # 것도 몰라 먹는 사람 먹어신디사. 초복 말복 뭐 다 잊주워. 중복 그런 거 잊주만은. 그거이 절기주 절기라. 초복이 되면 모든 곡식이 늦어. 초복 전이 콩도 같아야지, 조도 불러야지.

7월

110020 @ 칠월 칠석날은 허는 거 잊수과?

110020 # 칠월 칠석에도게 특별히 허는 거 잊어. 절간에서나 허주.

110021 @ 백중 때는?

110021 # 백중 때는 소 질룰 때는 우리 제 지내어난.

110021 @ 집에서 제 지내는 거 아니지예?

110021 # 아니, 드르에 강. 소 잘 질라줍센 행 산신님 나시. 경헌텐 말로 들은 거주, 우린 알아?

110021 @ 할머니네도 해나지 안해수과?

110021 # 게메, 허엇주, 경혜연.

110021 @ 아침 새벽에 갑니까?

110021 # 저녁이. 그 때도 상워떡 허고 제주 허고 막 메허고 허영 제숙 굽고 허영 가.

110021 @ 제숙은 뭐?

110021 # 우럭이나 돔이나.

110021 @ 초석 같은 거 들렁 가?

110021 # 쟁 강 벌영 절허곡.

110021 @ 상은 안 폐와?

110021 # 상은 아저가 점서게? 아저가 지민 좋주만은 그대로 그자.

110021 @ 토다냥 데끼곡 해사지예?

110021 # 걸맹, 걸맹 허는 거 해사주게. 영영 거러 놓는 것이, 것이 걸맹 허는 거라. 집에서 이제 제스나 멩질 때도 허는 거 걸맹. 그냥 도에 비웁주게. 올레에 강.

110021 @ 백중힐 때 들에서는?

110021 # 아 백중제는 드르에서 비우곡게. 걸맹허는 거라, 것도 다. 제주도 말로 케우린텐 허주만은 걸맹이렌 곶아. 집에서 제스 때도 것이 다 걸맹허는 거. 깨끗헌 디레 비울 때 잊이민 지방 우터레 올려, 지방 우터레. 경허곡 올레에 강 해도 깨끗헌 디 강 낫당 치와불곡 경헬저게.

110021 @ 백중제 힐 때 우리집이도 가고 옆집이도 갈 거 아니파?

110021 # 많이 가. 그땐 쉼덜 질룰 땐.

110021 @ 다 따로 갑니까, 같이 강제 지냅니까?

110021 # ㄹ찌도 강 허곡, 동네에서 ㄹ찌도 강 허곡, 재미나주, 그뻐. 췌 신 사
 름덜 막 가근에 그디 강 올렛당 밥덜 떡곡 행 와, 걸맹 헤뵤. 이녁 행 간 것덜.

110021 @ 이녁만씩 따로 따로 출립니까?

110021 # 응 이녁만씩 출령 강 경행게 걸맹헤뵤 먹영 완주게.

110021 @ 백중은 다른 말로 글아났수과?

110021 # 백중이엔 글아. 것도 절기라, 절기. 칠월에 절기.

110022 @ 모래찜질도 헤났수과?

110022 # 모래 찜질 헌덴 해도 우리 아이 가완. 우리 하르방 뎅겨난. 이제 밭에
 니시무시걸러젧헌 허멍 간디.

110022 @ 무신거 걸러젧헌?

110022 # 니시무시.

110022 @ 무좁 님은 거과?

110022 # 무좁, 무좁. 무좁이주. 니시무시는 일본말이라.

110022 @ 모래 찜질 허민 좋넌?

110022 # 좋넌 헤네 하르방 가났어. 젊은 때.

110022 @ 어디 갑니까?

110022 # 삼양, 삼양, 삼양 베피 더 셔?

110022 @ 함덕은 안 가?

110022 # 함덕 모래는 안뵤여. 삼양 모래라사. 삼양 모래뜸 허는 디 이시네. 그
 디 가근에 팜 드러눕곡 헌덴 해도 난 안 가보고. 그디 강 모래 더경 자곡 경허민
 이제 몸에 좋덴.

110023 @ 맞는 건 뵤엔 글아?

110023 # 물 맞는 거 더우 께렌게.

110023 @ 뵤라고요?

110023 # 백중날에 더우 께라고. 백중 물을 이제 맞이민. 옛날은이 이 촌에는이
 실려운 수도가 엇어부난 백중날은 물이 실렷넌 경헤근에 물맞이레 가.

110023 @ 이디선 어디 갑니까?

110023 # 이디서 저 절물을 못 가주게. 경허민 이제 바당에 이제 목욕허게 가
 곡. 또 북촌 용물이엔 헌디 이서. 물이 든물 느리곡 허는 디. 그디도 백중날 목욕허
 게 가곡. 이 선홀은 물 엇어부난.

110023 @ 절물에 물 하영 나났수과?

110023 # 하이고, 그뻐이 사름이 막 하영 가. 으름에 덤곡 허민. 가민 이제 그
 영덕으로 물이 툽툽툽툽 느리민 영 파이프ㄹ추룩 허영 영 코 툽툽 느리게. 겨민 이
 제 그 아래 강 앓앙 이제 사람 우터레 툽툽툽툽 털어정 것이 물맞임이주게. 겨곡
 그 절물 앞인 또 큰 곳인 물이 이서. 그레 막 흘러가. 겐디 이젠 막 잘헤 뵤선게.
 벤헧주, 벤헧서, 첨. 그뻐 그디도 밋밋헌 테역밋이라났저, 우리 두린 뻐. 절물 뵤뒤

라고 해가지고 미미한 데역밭이라난디 이젠 막 낭 싱건에 그냥 허고 그 절물 코도 이젠 탁 막아붙어선게. 탁 막아서.

110023 @ 이젠 강 보민 물 별로 엇인디.

110023 # 이제 수도게. 몬 게. 수도로 이레 저레 다 빼어단게 뭐 이디 저디서 막 먹엄주게 그 절물 지경도 가면은. 그 우리 물 막아난 코는 탁 막아붙어선게게. 영 가천. 나 제작년이, 작년이 가와졌구나 작년이. 작년이 걸으레 가완.

110023 @ 막 잘해 놔십디게예?

110023 # 잘허곡 말곡게. 이젠 막 벤허연 뭐 의자로 낭 아레 그냥 막 헤노난. 그디 관광객이 가고 이제 또 외지 사름은 입장료도 받안게게. 입장료 받아, 그디 들어가면. 제주사름은 안 받고게. 그디 또 가민 음료수도 막 비싸.

110023 @ 물맞이민 뭐가 좋아마씨?

110023 # 그때 말이주게. 이 더우도 깨고, 이 저 오장 흐뎡 불편헌 사름도 맞이민 좋다 해가지고 그 물을 맞이레 가라게 무사산디. 우리도 가왔저 옛날에. 가민 그디 강 천막 쳐가지고 막 밤 자. 여기서 멀주게. 가민 저 흐루 가근에 흔 삼일이나 오일7장도 사는 사름 이서. 그디서 밤 자명 밥행 먹으멍. 반찬덜 막 행 가곡. 경행 가민 사름이 하부난 흐루 흔 사름 흐루 흔 차례가 안 돌아와 어떤 때 사름 한 때. 그디 들어강 물 맞는 거. 우리 간 때도 막 오래영 맞앙 왔저. 경헤난.

8월

110025 @ 팔월 초하룻날 허는 건 벌초?

110025 # 벌초.

110025 @ 소분은 무신거?

110025 # 벌초엔도 허고 소분이엔도 허고. 거 7쁜 말. 벌초나 소분이나.

110025 @ 벌초 잘 안허는 무덤은 무신거엔 곶아?

110025 # 곶충. 경허난 즈순을 잘 키우는 이유가 그렇지 말라고 묘도 봐서 산도 씨고 즈순을 잘 키워 옛날 전통을 이어 가는 거주게. 사름 살아 가는 게. 제주도 법은. 경허난에 육지도 높은 사름덜은 묘덜 잘헨게이. 경허고 이 제주 사름도 이제 어디 강 보라 참 묘덜 잘헤놔주.

110025 @ 이젠 더 잘헤놔어. 가족묘지 해가지고.

110025 # 응, 계난 케우는 것만 잘못된 거지. 제주도 법은.

110025 @ 벌초는 팔월 전이 안헨니까?

110025 # 그 전엔 안헨다근에 팔월절 들민 허여.

110025 @ 모든 벌초?

110025 # 그냥게 모다 이 켤당덜이 모다 덩기멍 웃대 큰 묘가 잇주게, 웃대 초상. 그뎨 모다 덩기멍 허고 이녁 가까운 거시긴 이녁만도 허고. 우린 흐리에 끝나. 문중벌초엔 허영 저 모다 강 큰 산에덜은 켤당덜 막 모다 강 허고.

110025 @ 여자덜은 안 가?

110025 # 여자덜 잘 안 가. 우린 하르방 허단에 아덜덜 허곡. 아이덜 욱으난 아이덜 허주. 여자덜은 안 가, 잘.

110025 @ 벌초 안가민 벌금도 내고 해?

110025 # 못가는 사름 문중에 돈 내놔야지. 문중더레, 뭘 사가던지 뭘 돈을 내던지 갹 문중에 돈도 잇곡 허여. 문중, 도문중에는. 경행 모제덜도 지내곡 경험주게.

110026 @ 팔월 보름은 추석, 팔월멧질?

110026 # 추석. 추석은 거 옛날부터 씨는 거. 추석은 왜 추석이나? ‘가을 추 제’ 아니냐게. 가을 들엄다고. 게서 추석이라.

110026 @ 팔월 멧질엔 어떻해?

110026 # 팔월 멧질 어떻 해? 팔월 추석 그냥 허주.

110026 @ 송편은 팔월멧질에만 험니까?

110026 # 다 ㄴ따, 다 ㄴ따. 음식은.

110026 @ 달구경도 가곡 험니까?

110026 # 아니, 이녁 ㅁ음이주. 달 보구정 허민 달 보고 실프민 말곡.

110027 @ 백로에는 특별히 허는 거 이수과?

110027 # 팔월 백로에? 엇어. 팔월 백로는 어떻해서 백로라고 헛냐면 으름 지나가지고 이제게 팔월이 나민 뱃이 희미허지 안허냐게? 겨난 팔월 백로라고 경헛주거. 경헌 뜻일 걸, 난 한제 잘 안 베와부난 모르켜만은 경헌 뜻이라.

9월

110028 @ 상강은?

110028 # 상강은 이제 상강일이 또 이서. 시월 나민 상강지곡 막 얼주게, 얼어, 추워. 밧디 곡식도 막 그냥 상강일 전이 다 으물아야 돼여. 상강이 저불민 추워가지고 으물질 못해. 겨난 상강일. 상강일도 들고나고 허여. 이 입춘 모양으로. 재게 드는 해, 뜨게 드는 해. 상강일 넘으면 곡식도 비어불주 그루후젠 읍지 안헌덴. 입동 이영 넘어불민 아무것도 읍지 못해.

110028 @ 보리는?

110028 # 보리는 시월에 갈앗당 것당 또 보리도 망종이 이서, 망종. 오월에. 오월이나 사월에나 입춘 ㄴ찌. 스월에 망종 드는 해, 오월 낭 드는 해 허면은 망종 넘으면 눈곰양 비렌허여. 그루후제 읍질 안헌다고, 망종 넘으면. 경허곡 또 ㄴ을 농사는 상강일 넘으면 읍지 안헌덴 경헤여.

11월

110030 @ 동짓날은?

110030 # 동지도 거 절기게.

110030 @ 동짓날 풋죽 쑤영 먹읍니까?

110030 # 이디도 우리도 썩 먹구정 허민 먹고. 저르 시민 썩 먹고. 이젠 풋도

이서도 아이 썩 먹어. 요새엔 법당에 가민 풋죽 썩 먹어. 절간에.

110031 @ 납평날?

110031 # 납평 거 우리 이제 안 허는디. 납평이엔 헌 날도 잇긴 이서. 아무 것도 안해서.

110031 @ 옛 행 먹는 날은?

110031 # 그거 납평일 거여. 아메도 십일월 나사 옛허기가 좋주게. 으름에는 덤 꼭 헤져게.

12월

110033 @ 친구간에는 뭐 험니까?

110033 # 옛날도 이스주뤄. 옛날도 그거라. 옛날도 이스허주게, 친구간에. 친구간이 열흘이라이, 열흘. 그때는 이제 이녁 맞인 날 봐가지고 이제 이스를 다 허는 거주게.

110033 @ 집에 뭐 고치거나 허는 건?

110033 # 그런 것도 허고. 친구간에. 친구간 때 허면은 무승무해라고 해서 옛날에 법이.

110033 @ 무신거엔 해서마씨?

110033 # 무승무해게, 이 탈이 엇다고. 경험 친구간에 허는거. 모든 거. 친구간에 주로 허여. 이 집이 뭐 문 ㄱ튼 거 험면 고찌는 거나 무시거나 다. 무승무해라고.

110034 @ 이사갈 집은 어떻 구험니까?

110034 # 이사갈 집은 이녁 이사가구정 허민 집을 사나 어떻 해서 가주. 고만이 이신 사름 이사가느냐?

110034 @ 이사갈 때 어느 쪽은 가지 말라 허는 것도 이수게?

110034 # 이녁 무시거 이서. 서쪽에 가지 말렌 헌 사름 남쪽에 가지 말렌 헌 사름 그건 이시이. 그추룩 행 뵙 가는 거. 이제 우리가 이디 살민 우리하르방 남쪽 가지 말렌 허여. 이레 가지 말고 동, 서, 북 더렌 가고. 난 이제 북에 가지 말렌 허여. 거 띠로 가메. 우리 하르방네 띠 이제 남쪽 가지 말렌 허여. 용띠도 남쪽 가지 말렌 허고. 거 잘 뵙 나두라. 는 무슨 띠고?

110034 @ 도새기띠 마씨.

110034 # 도새기띠 서쪽 가지 말아야, 서쪽. 서쪽 못 가. 멀리 가는 건 상관엇고 띠을 안네서.

110035 @ 이사갈 때 무신 거부터 가정 가고 허는 거 이수게.

110035 # 옛날은 이제 그 집이 갈 때 올레에 강 불 살라근에 가곡, 집 상 가민 경허여. 솟도 아정 가고 저 성냥도 뵙 가고 그거부떠 아정 간덴 허여. 아 겨난이 다 이제 이 혀드레 거 다 앓다 뵙 날짜 본 날은 솟을 아정 가야웨여. 다른 때 그냥 날은 이런 것들은 헛득헌 건 가져 가도 웨고게. 그 날은 이제 솟을 주로게 밥 행 먹

는 거 아니가게. 겨난게.

110036 @ 집들이 그런 거 옛날은 벗어나수과?

110036 # 무사 벗어나게. 이스 가민게 다들 보레도 가고 집상 갖젠 헤영 집들이가 뤄. 허주, 무사 안허여?

110036 @ 선물 같은 것도 사가?

110036 # 사가고 말고. 몬 사오주게. 옛날은 무시거 흘 거 셔? 헐거 벨로 벗어나. 그자 생각헌 사름 그자 침 친족 간에 돈이나 흐뎡 아사 가고 쓸이라도 흐뎡 아져가고 경헛주 요새ㄴ치 경 헐 게 시냐? 침 헐 게 벗어나.

110036 @ 답례품도 줘니까?

110036 # 옛날 벗어나. 게메 이젠게 답례품, 흐뎡허민 답례품. 옛날은 게 무시거 줄 거 벗어나민 잔치 때도 고깃반 찻당 뤄지고기, 반 흐나씩 주고 그거뿐이주 뤄. 요새엔 집이서 잔치허민 퀘기반도 안네고 답례품도 안넛주만은 옛날 줄 거 벗어나민 그냥 늑신네덜 신디영 퀘깃반으로 반 찻당 경헛 다 헤.

11. 놀이

111001 @ 어렸을 때 주로 뭘 허멍 놀아난 마씨?

111001 # 우리 놀아난 거 뭘 하주 뤄, 공기도 허고, 술레잡기도 허고, 곱을락도 허고. 술레엔 허여근에 손심영 펜 갈랑 허는 것도 이서. 그다음 공 데껴근에 허는 것덜 허고 고무줄 영 심영 뵈줄 심어근앵이 툄락툄락 허는 것도 허고.

111001 @ 건 뭘엔 곱아?

111001 # 것ㄴ란 우리 무시거엔 곱으멍 말멍 고무줄 내기엔 허고, 고무줄 뵈락이엔도 허어나고. 또 땅에 기러근앵이 땅 뵈아먹을락허영 영 뵈아. 뵈아근에 또 허여 나고, 떡대허여근에. 이제 아이덜은 흐교허멍 바빠노난 안헤 그런 거. 우린 멍청 허엿지.

연

111002 @ 연날리기도 헤낫지예?

111002 # 것도 남즈덜만. 남즈덜만. 요새에도 어디 육깃아이 오란 연 띄와신ㄴ라 우리 옥상에 곱어전 나 저레 앳다다 주멍 헛, 연. 아이덜 오민 우리도 손지덜 왕 어린 때 연 띄우켄. 저디 연 설레영 다 이서.

111002 @ 연도 여러 종류가 이수과?

111002 # 여러 종류가 이신디 니귀반득헌 건 그냥 연이고 풀리 들진건 가골레비연.

111002 @ 가골레비연?

111002 # 응

111005 @ 연싸움도 해?

111005 # 막 연날은이 연 하영 띄왕 느 연이 잘 땀져, 누게가 잘 땀져 허멍 저 정월 초싱 때.

111005 @ 할머니도 해난?

111005 # 우리도 장난으로게.

111005 @ 늬의 연 실도 막 끊어불고?

111005 # 아니, 그 연 포부뜨민 끈어져. 구짜к 연이 다 놀아가면 어떻 안허는디 연줄이 걸리주게. 겨민 끈어지주게. 싸움이 아니고.

111005 @ 잘 안 끊어지게 허젠 허민 어떻 실에 뒤희여?

111005 # 아니, 아니. 것도 아니고. 그냥 브름 발라 영 허민 뜨민 연 잘 땀젠 허 영 높이 자 뜨면. 겨고 연도 그 두 가지 침. 연에게 태극기 모양으로 영 거뭇거뭇 도장 찍영 멘들양. 겨곡 풀리 든은 건 개골레비 연이엔 허곡 경헛주게.

111006 @ 연이 실 끊어정 날아가민 뒤희엔 헉니까.

111006 # 연 방장헛젠 허주게. 연 방장. 연 뛰다근에 낭에나 어디 걸리민 아이고 연 방장헛저 영 곤나. 낭에 걸리나 헉 거.

111006 @ 택경이엔 헉 말은 안헉니까?

111006 # 택경, 영허는 거 무릎에 영 허주. 느리거나 연이 느려불어. 막 땡기민.

111006 # 경허민 방향을 잘 헉사 연 잘 뜨주, 브름 가는양.

111006 @ 무신거엔 곶아마씨?

111006 # 택경, 저 연 또 어디 가근앵에 걸민 방장 걸럿젠. 아이고 연 방장헛저 영. 방장이엔도 허고. 실 끈어정 낭에 강 걸러분 거. 헉솔허민 대추낭에 연 걸리듯 헉 말맹이 엇이냐? 옛날 대추낭이 높아난 생이라. 헉솔허민 대추낭에 연 걸리듯 경 허주.

111006 @ 어떻 헉 때 허는 말이파?

111006 # 그런 말맹도 잇저게.

제기차기

111007 @ 제기차기 같은 것도 많이 해난 마씨?

111007 # 무시거 쪼끼차기. 나 못해, 잘. 것도 허긴 허여. 아이덜 신백허영 허여. 신백허영.

111008 @ 한 발로도 차고, 양쪽으로도 차고 해나수과?

111008 # 아니 헉 쪽 발로만, 헉 쪽 발로. 것도 잘 차는 아인 잘 차고 못차는 아인 못차고.

111009 @ 하영 차민 이기는 거라?

111009 # 응 것도 하영 차민 이기는 거. 막 세멍 것도.

자치기

111014 @ 자치기도 해냈지예?

111014 # 아 데끼는 거. 거 우리 안 해난. 무신 통더레 드므는거.

111014 @ 아니, 긴 막대기로 짧은 막대기 영 처근에 허는 거 이수게.

111014 # 그것도 셋주만은 거 안해나고. 요새에 그 어디 모든새에 가근에 영 데끼는 거 왕실에서 해냈젠.

111014 @ 그건 투호, 거 말고.

111014 # 안 해판, 건.

말타기

111015 @ 말타기는?

111015 # 말타기 안해.

111015 @ 기둥에 사름 사민 영 굽영 그 위에 타고 허는 거.

111015 # 등 굽영 허는 거. 거 잘 안해여. 말타기엔 허주, 말타기엔 허여. 남즈덜이나 허주 여즈덜 허도 안허여. 여즈덜 안허여. 요새엔 남즈동권이엔 행 여즈도 흑교 가민 다 허주만은 우리 두린 댄 남즈덜만 해난. 남자 아이덜. 남자 아이덜 가이생이엔 허여근에 또 모즈 꺼꾸로 씨영 허고 거 일본말, 일본말. 이제 저 요꼬엔 허영 모즈 영 옆드레 쓰고, 거 요꼬라 옆이. 우시루엔 허영 뒤트레 씨곡, 뒤짱은 우시루라이. 겨곡 앞더레 또로 영 쓴 건 그냥. 경해났주게. 가이생 막 잘해났어, 남즈덜. 것도. 우리 일본말 반 조선말 반 해난.

구슬치기

111020 @ 구슬치기는?

111020 # 구실? 구실 둥그릴락. 이렇게 해가지고 영 톡허게시리. 고망더레 구녁치기라고 해서.

111021 @ 구녁치긴 허는 방법이 여러가지 이신가 마씨?

111021 @ 엇어. 그냥 고망더레 허는 게 베끼.

111022 @ 구녁치긴 어떻 허는 거마씨?

111022 # 손으로 영행 도록허게 둥그리민 고망더레 들어가야웨여. 거 구녁치기. 빠찌치기도 허곡.

딱지치기

111028 @ 빠찌치긴 어떻 허는 거짜?

111028 # 빠찌를 멘들아, 종이로 허영. 우리 셋아덜 잘해났저. 빠찌치기 영행 탁 허민 그 빠찢 데싸, 늬의 걸. 데쓰민 이젠 돈 내긴디 단추를 막 하영행 단추 먹어. 단추. 우리 셋아덜 최고 해났저. 빠찌치기도 잘허곡, 화투치기도 잘허주만은. 단추 늬의 아이 하도 잘해부난이 늬의 아이 우리 아이 저 세번에 혼 번 경해났어. 하도 잘 해부난 그 빠찌치기도.

111028 @ 할머니는 어렸을 때 안헤난 마씨?

111028 # 우리 빠찌치기 안헤났어. 아니 남즈덜은 헛주만은 우린 안헤나고. 우리 아이덜 클 때 빠찌치기 잘 허연게.

숨바꼭질

111032 @ 숨바꼭질은 어떻 험니까?

111032 # 어떻 허여? 눈 김으렌 허영 다 곱앙 좇곡헛주.

111033 @ 술레는 어떻 정해마씨?

111033 # 처음에 시작할 때도 펜 갈라근앵이 곱을락 ㄹ추룩.

111033 @ 곱을락 험 때 좇는 사름은 무신 거엔 곱아?

111033 # 좇는 사름 ㄹ라 뵈이엔 헤져신지 모르크라.

111033 @ 좇는 사름 어떻 정해?

111033 # 장검보험 헤실 거여. 진 사름이 이제 좇일락 헤실 거라. 이긴 사름은 다 곱아볼고 경헛주게. 갱 다 좇이민 이제 다 좇앗젠. 못 좇이민 좇아야주.

111033 @ 다 좇이민 다른 아이가 술레가 뵈?

111033 # 아니 따시 장검보험 또 허고. 경혜사 일이 뵈 거 아니가? 경헤난.

111034 @ 어디 숨어마씨?

111034 # 아무디라도 이녁 곱구정헌냥 이주, 것사 어디 곱을 디가 셔? 아무디라도 강게.

111035 @ 곱을락 험 때 재미난 일은 엇어났수과?

111035 # 엇어 그자 경험 놀앗주.

실뜨기

111036 @ 실뜨기도 헤났지예?

111036 # 데쓸락. 실허영 영 데쓸락. 데쓸락 그거.

111036 @ 나가 영 실 허민 할머니가 영 허는 거 이수게.

111036 # 데싸. 영 손에 허민 우리가 데쓰는 거. 거 데쓸락.

111036 @ 이거 실이라.

111036 # 실로 허켜. 실 이디. 데쓸락 그거 데쓸락. 나 이제도이 잇당 가꿈 현옷도 잇다근에 걸려매곡 허난 저 미싱 돌리지 못허연 저영 더경 내불언. 데쓸락도 헤난디 이제 잇어불언. 무시거 허민 무시거여 만은.

111036 @ 이름도 이서?

111036 # 이름도 잇지. 거 데쌍 애기구덕도 멘들곡, 비치락도 멘들고 데싸가민 경 벤허여. 이렇게 헤가지고 데싸.

111036 @ 나가 어떻 해?

111036 # 영 영허라, 나가 데쓰저. 영 데싸신가? 거 잇어불어젓저.

111036 @ 우린 영헤나신디.

111036 #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데싸. 영 영. 또 데싸.

111036 @ 이것도 이름이 잇다고?

111036 # 어, 경허당 이게 다 데싸가민 애기구덕이 나오고 또 가운데가 툭 모두민 비치락 뻗젠. 다 데싸가민 뉘어.

111037 @ 데쓸락할 때 보통 어느 손가락이 필요해?

111037 # 손가락이 무신 필요가 셔? 엄지허고 이걸로 보통 데쓰주게. 우린 애기구덕이엔도 허고 모다지민 비치락이엔 헤난디. 구녁치기 빠찌치기 아이덜 주로 장난이 그겨주.

111037 @ 어느 손가락으로 험니까?

111037 # 그냥 영. 영허영 실을 이디 허거든. 겨민 이제 데쓰면 것도이 데싸가민 가운데 다 모다져.

111037 @ 손가락 요 손가락을 무슨 손가락이엔 헤 마씨?

111037 # 상손가락.

111037 @ 상손가락? 이거는?

111037 # 건 엄지.

111037 @ 이거는?

111037 # 그건 뉘엔 허크니. 새끼손가락, 중손가락.

111037 @ 중손가락?

111037 # 이거, 이거.

111037 @ 약지가 중손가락?

111037 # 응. 요건 족은 손가락. 엄지, 족은 손가락, 상손가락.

111037 @ 두번째가 족은손가락?

111037 # 어 요거. 이거. 엄지손가락, 족은손가락, 상손가락, 중손가락, 새끼손가락. 경헝 데쓰는 거주게, 영. 이것도 잘 이렇게 질렁 영 데쓰는 거라. 또로 데싸. 경허민 또 이렇게 데쌌실겘. 풀어졌네. 영 데싸낫저게. 경허민 가운데가 모도룩허게 모다지는데.

111037 @ 모도룩허게 모다지민 비치락이요. 엄지손가락이영 검지 두개를 곤는 말이 이수가?

111037 # 엄지손가락 이것ㄴ라 뉘엔 허지, 잇어붙어졌어. 족은손가락이엔 헤실 거여.

111038 @ 엄지손가락이영 족은 손가락이영 두 개를 같이 부르는 말은 엇어마씨?

111038 # 엇어, 엇어.

111039 @ 실뜨기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뉘 험니까?

111039 # 데쓸락 할 때?

111039 @ 새끼손가락은 어떤 일을 헤?

111039 # 안헤여. 그런거 몰라 나.

공기놀이

111041 @ 공기도 해놔주세요?

111041 # 응 공간 막 하영 해나고.

111041 @ 공깃돌은 어떻 만듭니까?

111041 # 자갈 봉가당 다 단장 허여근에. 요새엔 공깃돌도 나왔주만은 못사근엔
에 공깃돌이 이서. 우리 잘해난. 것도 잘해놔저만은 이제 잊어부런. 오래세게, 혼 십
오세 전이 해난 건디.

111042 @ 공기는 어떻 해놔수과?

111042 # 공기도이 영허영 초담 허는 건 웨살. 이젠 또 그건 웨직, 웨직. 웨직으
로 시작허영 해가당 또 마갈땅값허여근엔이 다섯 개 다 허영 두 개 튼 건 두 개로.
혼 번만 튼 건 외 배로, 경허영 두 배로 트민 혼찍이 올라가는 거라. 올라가.

111042 @ 두 배로 트는 게 어떤 거?

111042 # 영 공깃돌 두 개게. 두 개를 탁 띄왕 받아. 영 허영 다 헌건 마갈땅값
이엔 경험 해나고.

111042 @ 마갈땅값은 한꺼번에 잡는 거?

111042 # 응, 영허영 영 다 잡는 거.

111042 @ 영 던져근에 잡아?

111042 # 두개 띄운 건 두배록, 두개 영허영 탁허영 받은 건 두배록, 혼나만 헌
건 웨배록. 공기가 멧 번인중 알람디? 초담험 때 웨직으로 해가당 영 솟 앓지는 거
니찍. 니찍 땅값, 웨살. 또 얘기 나는 건 영 혼나허영 특허영 혼나 특 털어지왕 또
허곡 경허영 이젠 다 해영 마갈땅값허영 세 깰 허여사 다 이긴 거라. 공기험 때.

111042 @ 처음엔 하나씩 잡고 그다음 두 개씩 잡곡 허는 거 아니?

111042 # 우리도 경 험디 이젠 두 개씩 잡은 건 웨직으로 해여강 그다음은 웨
살.

111042 @ 웨살은 어떻 허는 거?

111042 # 그건 영허영 우터레 데경, 데경 받는 거.

111042 @ 아 영 데경 받는 건 웨살.

111042 # 영험 차례차례 해가는 건 웨직으로 해 강. 웨살은 이제 툭툭 데경 받
는 거. 또 말짜엔 이젠 혹 데경 혼나 털어지왕. 건 얘기나는 거. 경허영 이젠 또 허
고 또 솟덕 앓져이. 네게 영 모되왕 혼나 툭 앓져. 툭 앓정 이제 그걸 탁 받았 이젠
영험 마갈땅값을 탁 허민 건 마갈땅값. 경허민 이제 이기는 거라.

111042 @ 이디 손등엔 안 올려?

111042 # 무사 안 올려? 이것도 영험 꺾음세기. 탁해영 탁 받고. 경헤여 공기도
세가지로구나. 세 가지. 걸 다 험사 이긴 거라. 다 험사 이겨. 솟 앓지는 거깁장.

111042 @ 공깃돌을 가정 왕 해봅센 해야크라.

111042 # 공기가 막 최고 잘해놔저만은 이제 오래여부난.

111042 @ 공기 다섯 개로 헵니까?
111042 # 응, 다섯 개로.
111042 @ 공기 영 뿌러마씨?
111042 # 공기 헐 때? 웨찍은 영헝 툃툃툃 받주게. 받았 또로 그 땅값을 해야 주. 다 받았. 다섯 개 다 허면 탁허영 영 받고. 경헤냥 또.
111042 @ 다섯 개 다 잡으민 한번 탁 던정 받아?
111042 # 다섯 개 다. 다섯 개 다행 영 받아야 웨여.
111042 @ 다섯 개 다 던져?
111042 # 던져사주게. 경허당도 다 못 받는 사람이 하지. 다섯 개 다 못 받았. 게민 진 거라. 새로 해야 웨여, 것도.
111042 @ 보통 두 사람이 헵니까? 공기는?
111042 # 두 사람도 허고 세 사람도 허고 건 헐 엇고.
111042 @ 이 공기로 직접 한번 공기 해봅서.
111042 # 아 공기, 공기는 초담 이추룩 나란히 논 건 영 헤영 헉나씩 영 좁은 거는 외찍이라, 이건 외찍. 영허영. 이거 두배룩 티우민 헉나가 올라가는 거라이. 두 배룩을 이것가 이것도 티우기가 어루와.
111042 @ 하나 올리기도 허고 두개 올리기도 허는거.
111042 # 경허난 이렇게헤가지고 외찍헐 때 두배룩을 티우민 헉나가 올라 강 이젠 이거 두찍을 헐 건디 시찍을 올라가는 거라.
111042 @ 아.
111042 # 경헤영 허영 이젠 궂사 나 두배룩 티와세이. 게난 이제 시찍을 허는 거라. 영헝 헉나베피 못 티우민 니찍을 허는 거라. 니찍은이 아래 낱 안헤여. 이제 이걸 또 마갈이라.
111042 @ 흠치 다섯개 다 던정 잡는 게 마갈.
111042 # 응, 이것도 영허영 헉 건 마갈이고이. 영 헉 건 마갈땅갑 이건.
111042 @ 마갈 땅값은 뭐?
111042 # 이거 마갈이엔도 허고 땅값이엔도 현다.
111042 @ 똑 같은 거?
111042 # 두가질 거라. 경헝 이제 올라가는 거라 츄츄츄츄.
111042 @ 솟덕은 안 앓져?
111042 # 솟덕은 또 멀어서.
111042 @ 멀어서?
111042 # 영헝 이제 이건 외살이라. 몬딱 데경 다 받는 거.
111042 @ 그다음엔. 세 개다 던정 헉나 잡아?
111042 # 하나씩 초담은 영허여.
111042 @ 그계 외살?
111042 # 이건 외살. 이제 또로 두살 허영 이제 세살 영헝 올라가는 거라. 네개

혈 땀 이렇게 허는 거라 영.

111042 @ 그거 마갈 아니?

111042 # 땅값은 자꾸 허는 거 못끝 때. 네찍허민 솟 앓지는 거라.

111042 @ 건 어떻 허는 거라?

111042 # 이건 또로 영 헤영이 이렇게 헤가지고 요렇게 놔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걸 이젠 영 요렇게 앓저, 위로 툅허게.

111042 @ 경헿.

111042 # 경헤영 영 심영 땅값허영 경헤사 못끄는 거주게.

111042 @ 손등에 올리는 건 무신거엔 곶아?

111042 # 그것이, 마갈이고, 마갈 땅값. 경만 곶아낫지 알아지크라? 잊어불영. 땅값일 거라. 이것ㄴ라 무신거엔 헤신고 모르키여, 잊어불언. 경허명 이걸이 막 허 여난. 어린 때 장난으로. 경헌디 으답술, 아홉술, 열술 혼 일곱술 ㄴ리에 이거 장난 을 허단, 열흔술, 열두술은 나난 막 검질 메레, 존검질 메레, 어른덜이영ㄴ찌, 막 그 냥 일만 허렌 허영이 밧디 안 가민 아이 뉘여.

고누

111048 @ 할머니 고누도 헤낫수과?

111048 # 고누 들어보지 안헿는다. 고누가 뭐라.

111048 @ 이거 안봐낫수과? 땅에 그렁 영 말이 가는 거.

111048 # 아이 봐낫저, 이거.

땅뺏기

111050 @ 땅 뺏아먹을락은 어떻 허는 거?

111050 # 땅 뺏아먹을락은 이추룩 뺏앙, 영 뺏아근앵이, 것도 쟁검보헤근에 몬 여 이긴 사름이 몬저 허여이. 경허민 이제 뺏아근앵이.

111050 @ 뭇 뺏아?

111050 # 땅을 이추룩 뺏앙, 혼 뺏씩, 손으로. 경도 헤난 것ㄴ라 거 잊어부런. 이름. 경도 헤난. 공기, 웃놀이 그런거.

111051 @ 땅 어떻 뺏아?

111051 # 뺏아가다근에 컷다리도 남곡 허민 막 그디 뺏아오곡 경. 널르게 기서 냥. 것ㄴ라 나라방이엔 헤신가? 일본말로. 헤낫저 만은 이젠 잊어부런. 장난 거리가 잘도 하낫주게.

웃놀이

111053 @ 웃놀이기도?

111053 # 웃놀이기도 허주게.

111053 @ 이건 녁등배기?

111053 # 녀똥배기는 남즈덜 돈내기 허는 거. 그냥 우리 웃놀이도 이서.

111054 @ 나무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

111054 # 웃?

111054 @ 예.

111054 # 웃은게, 옛날은 윤누리헤당 깨주만은 아무거라도 돼여.

111054 @ 윤누리?

111054 # 웃냥, 유. 윤누리가 이서. 윤누리냥 질긴 냥. 윤누리냥이 막 질겨. 게민 그거 헤당 멘들양 놔두민 언제까지라도 가주게.

111055 @ 담양 던지는 그릇은 뭐엔 굴아?

111055 # 종지, 종지.

111055 @ 무신 걸로 쉼 거?

111055 # 무시거게 사기종지게. 우리 종지도 하난디 그 종지도 몬 녀똥배기 놀 멩 다. 그 종지 구허지 못헿 우리거 막 앓아가낫저게.

111056 @ 잔칫날 허는 그 웃놀이 베끼 다른 종류 웃놀이인 엇인가?

111056 # 무사 엇어게? 어디 놀 디도 이 노인당에서 놀 때도 남즈덜 모영 어머 니날 ㄱ뜰날.

111056 @ 웃이 크기도 틀려?

111056 # 크는 건 장난 웃게. 큰 거 노인정에도 큰 웃 이시네. 막 큰 거. 그런거 안써 녀똥배기 허는 거. 존 거. 존 거. 걸로도 쓰주만은 존 거 웃가락 멘들아근앵에 종지에 담아근앵에. 우리 하르방은 녀똥배기 하도 잘부난 이 쓰봉이 멧 개 동무릅 그차져비엿저게. 화튼 안헤도 녀똥배긴 일등이라낫저게. 그냥 어디 큰일칩이도 가민 잔치집이도 가민 덕석 폐왕. 요자기 덕석도 우리 족은아덜 벓 오란 ㅎ나 가져가불 연.

111056 @ 무사 가져가불연. 우리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111056 # 이제도 이서, 멩석.

111056 @ 날 좋은 날은 사진도 찍게예?

111056 # 하나 쥐불연. 시에 사름덜 재미로 녀똥배기 놀켤 헿. 이디 놀레 왔단. 조그만 헿거 존 건디 건 아져가불어선게. 막 오란 녀똥배기 놀멩. 우리 하르방네 젊 은 똥이 이 거리에도 모영 허고 이디 또 노인당에 모인 때도 녀똥배기 주로 논다 게. 겨난 이제 하르방 늣어부난 헿주 젊은 똥 막 좋아해.

111056 @ 옛날부터 이서낫수과?

111056 # 옛날부터 녀똥배기는.

111056 @ 종지에 안 담양 허는 웃놀이인 안헤?

111056 # 또이 올라가는 게 잇어. 난 거 물 디릴충 몰라. 물을 디려. 슯허민 이 제 토허민 질 족은 거. 또 케 허민 ㅎ똥 올라가고 걸 허민 올라가꼭 허멩 모허민 아주 일등 이긴 거라.

111057 @ 이디 놓는 건 뭐엔 굴아?

111057 # 물 디리는 거. 종이에 다가 써, 써.
 111057 @ 탁 던정 모 나오민 게민 요걸로 이레 영영 갑니께, 요거 무신거?
 111057 # 모게.
 111057 @ 말? 돌맹이?
 111057 # 아니 아니. 물은 기렁. 아, 그 돌맹이 허영 츠츠츠츠 놔 가.
 111057 @ 그 돌맹이 이름은 뭐?
 111057 # 거 무시거 아니 패적이주, 건. 패적.
 111057 @ 하나씩 가당 개가 두개 나오민 부짱 ㄹ치 갑니께. 건 뉘엔 곶아?
 111057 # 몰라. 물 올라감지 것도 츠츠츠츠.
 111057 @ 두개 ㄹ찌 가는 거 따로 곶는 말 엇고?
 111057 # 따로 곶는 말 엇어. 케 두 번베끼.
 111057 @ 웃놀이 헐 때 그리는 거는?
 111057 # 토허민 쥬 죽은거. 걸허민 흐쫄 큰 거.
 111057 @ 차례대로 곶아봅서.
 111057 # 토, 케, 걸, 백숫.
 111057 @ 백숫?
 111057 # 백숫은 네개다 갈라진 거. 몬 또 니개다 어퍼진 거. 모가 일등이라. 모
 나민 잠지 탁 치명 잘 낫젠허곡.
 111057 @ 잠치 탁 치명 잘 댕젠.
 111057 # 잘 댕젠.
 111057 @ 아까 뉘 백숫?
 111057 # 백숫은이 네 개 다 갈라진 거.
 111057 @ 케 두 번베끼.
 111057 # 케 두 번허민 두 개 남실 거라.
 111058 @ 웃놀이라도 남자들이 많이 헛지예?
 111058 # 많이 허여. 웃놀이라도. 남즈덜 많이 허여. 잔치 넘어나민이 그냥 옛날
 담배 피와노민 우리집이 밤새낭 잔치 아싯날 막 먹영 술도 그냥 멧 상자 앓당 놔두
 민 막 먹곡 담배 막 피와노민 뒷날 아침은 새벽이 일어낭 청소해사. 담배꽁추. 고기
 도 그냥 낭 내불민 안주로 아시명덜 깃 먹영.

팽이치기

111059 @ 팽이치기는?
 111059 # 팽인 게 도레기 돌리는 거주게.
 111059 @ 팽이치기도 헤납디가?
 111059 # 헤나도 경 잘 못헤. 아이덜 막 그것도 잘허주게. 도레기가 옛날은 낭
 으로 멘들양 허여이. 경헌디 팽이도 풀암실 곶.
 111059 @ 팽이를 도레기엔 헤?

111059 # 응, 도레기.

111060 @ 도레기 종류도 여러가지 이신가?

111060 # 엇어.

111061 @ 도레긴 무신 낭으로 주로 만들아마씨?

111061 # 아무낭이라도 돼여. 가짱 것도 맨들아사 돼여.

111062 @ 팽이를 잘 돌게 허젠 허민 어떻게?

111062 # 어떻게는 어떻. 채를 잘 쳐야주.

111062 @ 난 잘 안 돼더라고.

111062 # 겨난 건 못허는 거주게.

111062 @ 탁 던정 돌리던데.

111062 # 아니 채에 끈 어사게? 팽팽 감양 삭 풀면은 이제 탁탁 채게 쳐야 잘 돌주게. 그냥 세우민 그게 어떻 헐 말이라게? 도레기에 그 채 감양 끈을 감아 가지고 삭 풀면 이제 그게 돌아강 탁탁치민 돌주게. 것도 기술이 좋아사 돼여, 것도. 것도 기술이 좋아사. 도레기 돌리는 것도.

111063 @ 영 치는 건 뭐렌 헤?

111063 # 도레기채.

111063 @ 도레기채.

111063 # 도레기채로 착착 헤가민 그 도레기도 잘 돌당 꺼져불주게.

111064 @ 다른 아이영 두개 부딪청 오래 도는 게 이기고 시합도 헤?

111064 # 시합도 허주게. 도레기 돌릴락.

111064 @ 도레기 돌릴락?

111064 # 응, 돌릴락 허민 그것도 탁탁 채로 치민 막 오래 도는 거 잇고 꺼져부는 거 잇주게.

111064 @ 오래 도는 게 이기는 거?

111064 # 이기는 거주게. 오재미도 영헝 데끼다근에 두개 탁 잡양 영 헤영 또 허곡. 나완게 오재민 이제도 테레비에도.

짱통차기

111069 @ 통차기 이런 것도 헤난, 짱통차기.

111069 # 짱통?

111069 @ 그런 건 안헤판?

111069 # 안 헤판.

뽕기치기

111072 @ 뽕이치기.

111072 # 뽕이치긴 뽕이 빠단.

111073 @ 뽕이 빠단 어떻 허는 거?

111073 # 뽕이 빠단이 이젠 영허여근에 이젠 영허민 이제 뽕이 탁 놓민 밧이 영 니귀반득허게 밧이 나와. 뽕이 코짱허게 허영 그 밧디 디물야. 경허민 이제 수정 밧 개 세여, 밧디 들어간 거. 밧 크게 허민 하영 따는 거라.

111073 @ 밧은 어뎡 만들야? 네 개로 허여?

111073 # 밧 개 뭐 요라 개 심영 탁 데끼민. 뽕이치기도 헤난 뽕이 빠단.

111073 @ 뽕이 여러 개 잡앙 탁 던정?

111073 # 응 영 데끼민 요디 밧이 뒤여이.

111073 @ 하영 들어가민 이기는 거?

111073 # 응 하영 들어가민 하영 따고. 겨민 이제 남은 사름이.

111073 @ 이거 뽕이민.

111073 # 이렇게 헤가지고 이렇게 허민 이거 밧 아이 뒤다. 이렇게 허영 요렇게 허민 밧 뒤거 아니가? 요추룩 요렇게 허영. 뽕이를 이제 이디 영 조근조근 헤영 꼭 찢러. 영행 줍아근에 뽕이가 영 허면 그 수정 이제 다른 아이가 주는 거라. 뽕이가 하영 따민 그냥 흔 못. 겨민 뽕이치기 허게 가젠 뽕이 빠레 가.

111073 @ 먹는 게 아니고?

111073 # 먹음도 허여, 먹주게. 경헌디 이제 새왓이 시냐? 이 옛날은 새 디려근 에 집도 일곡 허민 새왓도 브디어, 이디도이. 경허민 강 뽕이 빠레 가 아이덜이 막. 신을 신어시냐? 맨발에. 두린 때. 맨발에 가는 아이가 하. 경행 이제 빠당 뽕이치길 허는 거라이, 놀명. 뽕이치길 허민 밧이 뒤면 이젠 경허민 뽕일 이제 하영 심영 세 민 이젠 그 수정에.

111073 @ 스무개 허민 스무개 다 줘야 돼?

111073 # 어, 스무 개 허민 스무 개 다주고, 열 개 허민 열 개 다주고 경허민 딴 사름은 뽕이가 흔나 놓.

111074 @ 거 뭐헐 거라?

111074 # 깡 먹주게. 재미로, 재미로. 것도 잊어볼도 안헐저, 뽕이치기. 우리 막 어린 때게. 우린 흔 열니 설 심오 쉰 뒤난이 검질을 막 어른덜이영 ㄴ찌 밧디 검질 수놓영 메레 뎡겨세, 어른으로 막.

111074 @ 경허난 키 안 커불어신가?

111074 # 아이고 키사뒤. 경 일헌 걸로 안크지 안허여. 요셋 아이덜 흐뎡 잘 먹 으난 컴젠 헤도 잘 먹은 사름도 아이 큰 사름도 하라. 겨난 키는 그 침영 집안에 따라 크곡 족곡 허는 거주. 우리도 메누리가 크난 손진 막 크다게.

111074 @ 할머니 닳앙.

고무줄 놀이

111075 @ 고무줄은?

111075 # 고무줄은 영 양펜이 앓앙 가운데서 허주게 영. 우리 일본 말로 헤난 것도. '데쇼데쇼 야간 데쇼' 경허명. 경행 것도이 허당 못허민 진 거. 느랑 쪽 허게

노래광ㄹ치 해지민 이긴 건디 것도 노래도 잊어불언. 그런 것도 해난.

111075 @ 다리로 영 고무줄 넘기도 해나신디. 발로 영 넘어 가명, 공작 사명.

111075 # 그건 줄넘기. 건 줄넘기.

111077 @ 고무줄도 완전 잘해실거 님아.

111077 # 그런건 잘했저만은 이제 무신 소용 시냐게? 공기도 일등 잘해지곡 해난.

111077 @ 고무줄 노래 생각나는 거 잊수과?

111077 # 조선말론 잘 몰르크라.

111077 @ 일본말로라도 해봅서.

111077 # 데쵸데쵸데쵸 아간 데쵸. 아고 잊어불언 것도게. 경허명 막 해낫저게 막 해낫어. 고무줄 양쪽에 앓앙 심어. 겨곡 베틀락 최고 허고.

111077 @ 고무줄도 옛날에 없었을 거 아니파?

111077 # 잊어부난 노끄뎡이 심영. 고무줄이 어디 실 말이니? 고무줄도 해방웨언이 뭐 웨어서 이 고무줄이 나왔주, 실말가?

줄넘기

111078 @ 어떻 허는 건디?

111078 # 그건 영 심으민 일로 돌아오당 혹허게 넘영 들고. 건 줄넘기. 줄넘기 하여 허지. 이디 양펜이 심영 앓이민 돌아가명 혹허게 넘주게. 그 줄 넘영.

111078 @ 이렇게 줄 돌리는 건 뭐엔 헤여?

111078 # 그건 베틀락. 줄넘기도 허곡 베틀락도 허고.

111078 @ 줄넘기는 뛰영 넘는 거.

111078 # 넘는 거고, 베틀락은 영 심영 요새 안허느냐, 무사. 거 베틀락게.

111078 @ 한사람이 영 허는 것도 베틀락?

111078 # 아, 것도 베틀락. 똑ㄹ따, 똑ㄹ따. 것도. 베틀락은. 지금 농협ㄹ쁘디 모더 가면은 그 베틀락 허주게.

111078 @ 여러 사람도 허고, 돌아가명도 허고.

111078 # 응, 돌아가명 세명, 혼번 두번 오래허민 이기는 거. 건디 우리도이 혼자만 베틀락허는 것도 세연 해난. 것도 오래허민 이기는 거. 잘허는 거. 경허고 또 심영도 튀곡. 우리 어린 때 부터 거 해낫저게. 경허단 요새 안헌디 그 베틀락은 이제 허여.

그네뛰기

111080 @ 그네는 제주도 말로 뭐 마씨?

111080 # 궁글, 궁글 텡저.

111080 @ 그네 뛰기, 그네 뛰는 거 할머니도 많이 해난?

111080 # 궁글 트는 거. 해낫주게. 낭에 그거 베 메여근에 궁글 트겐 허영 서로

가 밀리멍 공글 트는거.

111080 @ 어느 낭에 램니까?

111080 # 낭 이서낫저게, 옛날에. 동네에도 큰 낭이 이서난. 베 메영. 베 메영 서로 막 밀리멍.

111080 @ 앓앙 해, 상 해?

111080 # 그냥 앓앙게. 베에게 앓앙.

111080 @ 앓는 판 엇이?

111080 # 판은 농구정 허민 놓고 그냥 공글 텃주게.

111080 @ 공글 탈 때 밑에 낭으로 웬 건 뭐 마씨?

111080 # 널판, 널판. 널판으로 영 해영 사름 앓아사 공글 털 거 아니라게.

111081 @ 막 잘해낫지예?

111081 # 운동은 잘해난. 경허단 이젠 늙어부난.

111081 @ 할머니 완전 잘 해나실거 닻아.

111081 # 철봉 도는 거 철봉. 학교에 초담으로 이제 제국 때 해단 세왔저, 초등 학교 마당에. 계난 그거 아무도 못허는 거 꺾음세기 해낫저게, 팽팡 도는 거. 게고 뭐 술래잡기도 허민 나가 일등으로 해낫저게. 우리짜만 나짜만 오젠 허고 초담 일 이삼사 헐 때 그자 앓다놓민 못허는 거 엇이 경 헤져라만은 이놈으 스삼사건 덕분에 공블 헤져시냐게. 한즈도 막 알아난디 이젠 잊어불언.

한다리인다리

111083 @ 한다리인다리.

111083 # 한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

111083 @ 다리 영 행? 거청겐 뭐?

111083 # 몰라.

111083 @ 무슨 뜻인고?

111083 # 몰라, 뫼산디. 한다리 인다리인 으라가진디 것도.

111083 @ 또 이수과?

111083 # 또 이신디 잊어불어졌저. 으라개 이신디 그것만 외와졌네. 한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

111083 @ 시나노전 뭐지?

111083 # 몰라.

111084 @ 다리 영 끼왕.

111084 # 한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 그추룩 헛주게.

111084 @ 그다음. 다 끝난 거. 나 빼야 뫼어?

111084 # 응.

111084 @ 빼고, 그다음은.

111084 # 게민 딱시 허지.

111084 @ 또시 허민 나가 노래 불러?
 111084 # 아무라도 불러.
 111084 @ 요기서부터 시작? 혼다리인다리 거청계, 시나노저 버문개. 게민 야이진 거? 빼고?
 111084 # 응.
 111084 @ 그 다음? 또 허여.
 111084 # 혼다리인다리 거청계, 시나노저 버문개. 우리 그추룩 해난디.
 111085 @ 언제 해마씨? 이런거.
 111085 # 고만시라. 어친계 쿵다쿵 해신가? 뭐 해신가?
 111085 @ 무신거 마씨?
 111085 # 우리 어린때 막 해난 것도. 이것도 험락 험. 장난으로, 장난으로.
 111085 @ 이걸 집어서 허는 거 아니?
 111085 # 집어서 앓양 놀멍계, 겨난 명칭헛주게 요셋 아이덜 ㄹ치 공불 헤시민 허컬게.
 111085 @ 요새 아이덜 핸드폰베끼 안헛니께게.
 111085 # 장난이 심허여. 그자 놀레 가민 어스름 때도 놀레 가민 그 땅에 기려냥 오리양, 또 오리양 허단 또로 저 구녁치긴 남즈덜 허여, 빠찌치기허고, 주로 허고. 우린 오리양을 잘해낫어. 또로 니귀반듯허게 기려논 거.

방칠락

111086 # 또 영 이제 질레에 그릇 기서근에 오리양이엔 허영 떡대, 떡대엔 허영 사금파리 헤근에 발로 창, 오리양도 잘 그릇에 아이 들어가민 지고.
 111086 @ 그건 이름이 뭐라고?
 111086 # 오리양, 오리양이엔 해난. 것 베끼 엇어.
 111086 @ 방칠락 아니?
 111086 # 아니. 몰라 것 ㄹ라 방칠락이엔 해신가? 우린 오리양, 오리양 해나신디.
 111086 @ 어떻 허는 거파? 글아봅서.
 111086 # 겨난 영 그릇 그성이 발로 떡대허여근에 냥 사금파리 냥 탁탁 창 것도 이제 잘 돌아오지 안허민 지는 거라.
 111086 @ 사금파린 어떻 가정와?
 111086 # 사금파리 천지주게. 어디 강 봉가당계. 사금파리가 엇어? 떡대엔 허영. 것 ㄹ라 떡대. 떡대 발로 차.
 111086 @ 처음에 시작할 때는?
 111086 # 시작할 때 오리양 기서냥, 영 영 니귀반듯허게 허여근에 영허영 기서냥 이젠 으라칸 헤영 발로 이렇게 차가, 돌아오게. 경허당 발로 이 그릇에 잘 안 들어가이. 게민 지는 거라. 구짝허게 다 차오면 이긴 거고. 경해낫주게. 쟁 것도 쟁 쟁. 멧 사름 이제 세사름 썩, 으섯사름이민 세사름썩 흐썩.

111086 @ 할머니 막 잘해냈지예?

111086 # 아이고 그런 것만 허명 공부도 안허고 멍텅현 것덜.

111086 @ 다 할머니 펜 허켄 허크라. 할머니 잘허난.

111086 # 어, 경해났저. 흑교에도 얼만 안 뎅겨도 철봉 잘 돌아나고. 영영 허는 거, 거 잘 해나고. 허단 이놈으 스삼사건으로 제국시절로 아이고 우린 막 시대를 못 탄 나오난 아무것도 못헤세. 아무것도 못헨, 흑교도 못허고. 시상은 망헛주게. 아니 시에서 난 사름은 그닥지 안헛주만은 이디 촌이라부난 더헌겨주게 촌이라부난.

공던지기

111087 # 또 도루보 술레엔 허영이 이디서 펜 짜근에 공 닳은 걸로 데껴. 쟁 이 제 그거 맞지 안허게 막 돌아. 그것도 해난.

111087 @ 일본말 닳다예?

111087 # 일본말이라 도로보는. 도둑질헌텐 말이주 도로보가. 정혜영 그것도 해 난.

111087 @ 무신거 공 닳은 거 만들영.

111087 # 공, 공. 하나시엔도 허고 도로보 술레엔도 허여. 하나시도 일본말.

111087 @ 피구, 오재미 비슷한 거 아니?

111087 # 아니, 오재미는 영 손으로 데끼는 거고. 오재미. 아니 그냥 영 손으로 허는 거. 손으로 허당 이것도 오재미도 독독독독허당 두 개 탁 심어. 경허민 잘 허는 거고 못허는 사름 것도 못 심어, 오재미허는 것도. 조나 무시거 곡석이라도 담양 존존허게 멘들양 두 개허영 영영영영 허주게. 경허당 두 개 탁 받아야 것도 잘허는 사름. 못허는 사름 것도 못헤여. 것도 우리도 해난. 막 데끼다근엔에 탁 두 개 다 받아야 돼여.

111087 @ 공데깰락이 도로보술래?

111087 # 공데깰락은 하나시엔도 허곡 허는디 것도 펜 짜근엔이 도로보술레헨 걸로 허영 흑교 마당에서도이 요만이 오재미마치 멘들양 공, 공. 공이 이젠 핫주만 은 그때 엇어부난 험벽새기로 멘들아, 멘들아. 막 담양. 멘들양 동글락허게 헤근에 이제 맞춰. 탁 맞추민 마치지 못허게 막 돌아부는 거라. 요새 마뜨민 야구 닳아, 거. 야구마추룩 헤여.

111087 @ 피구처럼 선 곳영 그 안에서만 허는 게 아니고?

111087 #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야구 닳은 거라 그거. 경현 것도 해난.

12. 통과의례

출생

112001 @ 애기 가질 때 태교하고 이런 거도 헤 낫수과?

112001 # 애기 가지민 부끄르왕 늑 앞의 가도 안허여.

112001 @ 결혼해신디?

112001 # 결혼허고 아무거고. 애기도 또 나지 안허지카 허민 또 애기가 가정나. 거민 낭 커가민 침 아이고 이거 영 헨 난 컷구나 영행 아깁주. 애기 가질 때 늑 부끄르왕. 늑 막 한 디 넘어가도 못허여. 요새 ㄱ찌 병원에 강 검사여 무시거여 아이고 침말로 침. 요섯년덜 침. 우리 이 산부인과 안 구경허연. 갈 일이 없어.

112001 @ 옛날에 할머니 애기 가졌을 때 입덧같은 건 안헨?

112001 # 아이고 아고 입덧이랑마랑 아무것도 안헨져.

112001 @ 아니 뭐 잘 못 먹고 신 거 먹고 싶고 험니께?

112001 # 난 그런 것도 안해반. 아무 것도 옅어. 애기가, 애기 셔진 중도 몰랑이. 뎃덜, 서넉덜 똤사 ‘아이고 이거 애기 베져신가?’ 영헤져. 경헨 난. 애기 나 침 옹섯오누이 난에 세슬 못이. 나단에 어뎡헨 쌍둥일 난.

112001 @ 뎃 번째가 쌍둥이?

112001 # 막둥이. 옹섯 오누이 난에 딱 좋게 난디 쌍둥이 나부난 옹답 나세.

112001 @ 쌍둥인 제주도 말로 무신거엔 곶아?

112001 # 무신거엔 헤 쌍둥이주. 곶루기엔, 여즈 남즈가 곶루기주게. 나 곶루기 나세. 여즈남즐 보고 곶루기엔 허더라고.

112001 @ 여자 여자끼린 곶루기엔 안 곶아?

112001 # 아니 건 쌍둥이고. ㄱ찌 난 건. 경 ㄱ는 거 들음만 허니 나가 쌍둥이 난.

112001 @ 친척 중에 쌍둥이가 이수과?

112001 # 아니, 우린 꿈도 안 꺼난디 나 닳져. 우리가 이거 삼대 오대 똤어도 어신디 쌍둥이 난. 것도 아니. 우리 경헌디 우리 친척에 그 해에 들이 나서. 나 나고 이디 조긱디 켤당네 나고. 경은 헛주만은 우리 쌍둥이 소문도 안 들어난디 쌍둥이 닳져.

112002 @ 옛날 애기 날 때 어뎡 헨난 마씨? 이젠 병원에서 알앙 해주는다.

112002 # 어뎡 헤여 뭐? 이젠 똤 아기 나지카부덴도 안헌디 나뎡은 우린 우리 시부모님이 올레 살아나져. 경허민 그 할머니가 와근앵에 모욕시겨주고 혼 일주일 간은 매일 모욕 시겨줘. 경헌디 윈 아직 ㄱ장은 똤.

112002 @ 애기 날 뎡 안 아파수과?

112002 # 날 때 사 아무충도 안헨 나. 아프멍 말멍 그자 나는 거주.

112002 @ 병원도 옅인디 옛날은 어디서 애기 난 마씨?

112002 # 방에서 닳주 어디서 나?

112002 @ 방에서? 보리낭 곶앙 헛젠 헨게 만든.

112002 # 우리 세대엔 거 없어. 그냥 저 무시거 곶앗던 거 곶앗당 똤아불민 깨긱허여. 것도 심헌 사름은 구들이 판나. 우린 경 안헤 간단헤여. 빨래 쯤금 헤불민 말아.

112002 @ 애기 받아주는 할망은?

112002 # 받아주는 할망 이제 옛날은 뭐 그냥 할망 출리멍 헤사게? 산과, 이제 시에 가사 산과여 하간겨. 겐디 옛날은 애기 받아주는 할망도 엇다게. 이녁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조꼳디 시민 애기날 때 보주 그런 거 엇어.

112002 @ 금줄 매는 것은 뭐렌 글읍니까?

112002 # 솟. 솟 매엇젠게.

112002 @ 태몽 같은 건?

112002 # 필요 없어. 꺼보도 안허고.

112003 @ 애기 나나민 태줄이영 어떻 험니까?

112003 # 아 그거 슬아불어.

112003 @ 어디 강 슬아?

112003 # 이 선홀사 슬디 죽느냐? 울리에서 슬아불주. 우린 손지덜 시에서 나도 이 서문통 밧덜 이시난 밧 깨꼳헌디 강 다 슬앗저. 병원에서 나도 아정왕.

112003 @ 약으로도 쓴텐 험게 만든?

112003 # 겨난 그것도 그말 들언이 쫓끔 쌍 나뒷주. 이제 실거라, 손지덜 신다. 것도 케와보민 흐끔 남양 툃툃허는 게 잇고 그냥 부서져부는 게 이서. 게민 툃툃헌 게 좋텐 허여.

112003 @ 다 슬아불언?

112003 # 슬단에 짓도 냉겨도 써지지 안허더라. 옛날에는 그 부시럼 나면은 분 시 몰라부난 거주게, 병원 엇어부난. 태독 낫젠 허영이 그걸로 불른텐 헤 낫저게 부시럼 나면. 무신 종이나 얼굴에 나면은 태독이엔 허여 가지고 그거 불른텐 헤 낫어. 겐디 그런 거 엇어고. 써지지 안헤고.

112004 @ 애기 난 어멍신디 무신거 헤줍니까?

112004 # 우린 모뎀꺼루 헛단 그자 모뎀조베기 주로 먹어.

112004 @ 메역국은 안 먹어?

112004 # 메역냥. 메역냥 모뎀조베기헤영.

112004 @ 메칠 동안 먹읍니까?

112004 # 건 이녁 믱음. 먹구정 허민 뭐 자꾸 자꾸. 우린 모뎀 같안 그 때 모뎀 셔나난. 모뎀쫄은 험 뇌뒷. 모뎀꺼루, 그런 때 험 먹젠. 우리 메누리덜토 애기 난 때 마다 나가 모뎀꺼루 헛당 뺑윈에도 강 험 주고. 느랑 헤다 쥐. 경허고 또로 이 짓을 잘 못멕이는 애기도 그 속헤근에 막 잘 헤주민 어떻 안허고 또로 약이 좋아 이젠. 그 옛날에는 그 짓을 이제 뺑뺑허영 짜지 못허영 막 고통받주게. 겐디 이젠 약 좋아부난 경 안허고.

112004 @ 젓몸살험 때 어떻 헤사 됩니까?

112004 # 아기가 짹짹 먹어불어야 돼는디. 겐디 그 약을 잘 먹어야지게 그 약도 약방마다 틀려.

112004 @ 한약?

112004 # 아니 한약 말앙. 우리 큰메누리 얘기 난에 이젠 막 젓 못 짬에 허연 나가 약방에 간 곶안 허난 그 땐 약도 헤끄만헌 거라라. 그약을 먹건 그자 스스로 막 그냥 허연.

112004 @ 옛날에 할머니 어땡 헤낫수과?

112004 # 우린 어땡 안허고게.

112004 @ 아니 그런 일 당허민 어땡 헤낫수과?

112004 # 경헌 일이 벨로 엇인디 경헌 일 당헌 사름은 젓을 브러 브러. 아과 안 웨여 안웨여. 자연으로 그것이 웨야 사름이 어땡 안허지.

112004 @ 무신거 먹으면 젓 잘 나오고 막걸리 같은 거 먹는 거 잇수과?

112004 # 그거는 이제 그 아기 난 때 말앙 사름이 으식으식 열멍 막 그 감기 기운 ㄹ추룩 혈 때 이디가 불편허여. 경허면은 막걸리 뜨뜻허게 데왕 먹으면 좋넨 헤낫주게. 경헌디 그런 사름이 좋지 안허여. 몸이 아과. 그추룩 안행 고통 아이 받 앙 넘은 사름은 펜안허고. 겨난 그때게 약을 이젠 허여나난 나가 우리 셋메누리가 이제 얘기가 젓을 못맥엇저게, 흔 십오일. 그 얘기 키우는 디 들어가부난. 이제 또 그 약방 츠자간 그 약 사단 맥이난 어땡 안허연 그냥 젓 안 맥여도 어땡 안허연. 죽은 메누리 얘기 난 때도 거 사줘서. 그 약방이 어디사 가신디 지금 못 츠지크라. 건디 그 약국이 서문통 이서낫어이. 경헛당, 경헤연 이제 서문통 신 때게 그 약을 나가 주로 사단 허엇단 이젠 좇지 못헨 허단 보난 중앙병원 조끗디 오랏더라고, 중앙병원 조끗디. 우리 죽은 메누리 얘기 난 때 중앙병원 조끗디 간 사와서 나, 막 소 문 들으멍. 그 약방에 약이 경 좋안게.

112004 @ 젓어멍은 무신거파?

112004 # 젓어멍? 옛날 아기가 우유도 엇고 허난 사흘 전이 젓을 못 맥이니까 늙이 어땡 들앙간 젓 맥이난 젓어멍이주게. 동네 사름 이제 얘기 든 이 시민 왕 젓 흐끔 맥여도렌 헤영 사흘 전이 젓이 안 돌아오니까, 경헌 거.

112005 @ 얘기 목욕은 언제 시킵니까?

112005 # 얘기 모욕은 곳 난 때 시켜야. 옛날도 곳 난 때 시켜, 얘기 모욕은, 물 데왕. 우리도 곳 난 때 시켄.

112005 @ 그 다음엔?

112005 # 그 다음 매일 시켜야지.

112005 @ 이제 말고 옛날에.

112005 # 게메 옛날에도 우리 일주일 동안 매일 시켰다고, 물 데왕. 속 주로 숲 앙 병원에서 나도이 속 숲앙 모욕 시기고.

112005 @ 얘기 어멍은 메칠 동안 목욕허민 안웨여?

112005 # 예예, 목욕헤지민 좋주. 그날만 못허주. 뒷날 사흘 웨민, 뒷날도 헤도 웨고. 사흘 웨민 뒤.

112005 @ 삼일동안 안 허는 게 좋은 거?

112005 # 응. 옛날은 경헤도 이젠 그렇지 안헤도 웨고. 속은 또 씨고, 속물.

112005 @ 애기?

112005 # 응, 속 굽닥하게 행 들렛당. 나 자꾸 이디서 행 아저감주게. 딸 애기 난 때나 메누리 애기 난 때나 나가 다 행 아저가.

112005 @ 어명도 속으로 목욕허민 좋아?

112005 # 속물로 허영 머리도 곰곡 다 모욕을 허여. 혼 일주일 동안 그 속으로 모욕 해볼면 깨끗허여. 애기도 깨끗허고 어명도 허고. 속으로. 속으로 이 배도 딱땃 허게 올리곡 허민 그게 최고라. 우리 막 다 경혜연.

112006 @ 애기 처음 입지는 옷은 뭐엔 험니까?

112006 # 옷 무시거. 붓디 적삼.

112006 @ 붓디적삼?

112006 # 응, 곰 돌아근에 진진허게시리 허영 입저낫저, 붓디 적삼. 우리도 큰아 델 입어 난 거 문딱 입단 이 집 지스명 어디레 놔두난 어명사 헤저신지.

112006 @ 붓디적삼은 어명 만들어? 다른 옷이영 어명 달라?

112006 # 아니 트나지 안헌다게, 그냥 저고리라. 아무것도 없어. 애기 저고리 쪼 끌락헌 거 이제 풀지 안험샤게? 그거, 그거주게. 영 허리띠영 뒤뚱러근에 메주게.

112006 @ 곰이 흐뎡 질어?

112006 # 응 질어, 질어.

112006 @ 혹시 이제 나온 거는 손도 영 못 나오게 막아지게 허는디.

112006 # 경 안허여. 그냥 영 끼와지게.

112006 @ 질게?

112006 # 질게 헤영 입저.

112006 @ 고망 막진 안허고?

112006 # 막지도 안허고. 손 시칠 때민 영 견영 손도 시치고 막앙 무시거 허젠? 요샌 손 나강 열굴 굽친다고 그렇게 험주만은 옛날은 소매 흐뎡 질게 허민 손 디물 앓닥 걸엇닥 허주.

112006 @ 붓디적삼에 이디 뭐 깃이나 동전은?

112006 # 동전 아이 돌아 깃만 돌아. 적삼에도 깃은 돌아야 웨여. 앞섰허고 다.

112007 @ 애기할망, 삼승할망은 이디서 뭐엔 곱아?

112007 # 삼싱할망이주, 무신 거라. 삼싱. 삼신이주게 삼싱이엔 헤도, 삼신. 신을 말허는 거라 삼신. 그냥 곱음을 못헤가지고 삼싱할망 삼싱할망 영허주만은 삼신이 맞은 거.

112007 @ 할망상은 어명 허는 거마씨?

112007 # 아 할망상은이 곳 나민 이제 고맙수텨 할마님신디 불도할마님신디 치 선메엔 행 올려. 경행 딱로 일뤼 웨민, 사흘 웨도 허영 올리고 일뤼에도 행 올리고.

112007 @ 언제까지?

112007 # 일주일깁장.

112007 @ 일주일 동안 매일 올려야 되는 거?

112007 # 매날매날 아니히고.

112007 @ 무시거 올려?

112007 # 무시거 올리느니게? 메 허영 세 기에, 세 기 올리고.

112007 @ 세 기가 뭐?

112007 # 세 사발. 세 기. 채소 메역채 허영 올리고.

112007 @ 채소는 메역채 하나만?

112007 # 응 메역채 하나만.

112007 @ 국은 안허여?

112007 # 안 허여.

112007 @ 밥허고 메역채 거뿐?

112007 # 거뿐. 또 것도 막 정성허영 허는 사름은 곳 나민 치선메엔 허영 올리고. 또 못허는 사름이 해주. 겨민 사흘허고 일뤼엔 허여.

112007 @ 사흘에 한 번, 일뤼에 한 번, 곧 난 때 한 번. 세 번?

112007 # 세 번.

112007 @ 할망상은 애기 나민 막 신경 쓰는 딴 세 번 올리는구나예?

112007 # 막 신경 썩 정성허는 집이는. 경허고 안허는 집인 못행 내불고 경헛주게.

112007 @ 어디에 출립니까? 부엌에?

112007 # 어이, 구들에 잘 모셔야주. 부엌에 어디. 부엌엔 조왕할마님 나시 잘허고. 불도 할마님 나신. 이 세상 개펜 헐 때 이 제주도법은 이제 불도할마님이 애기들을 잘 키와 준덴 해서, 천지신명에서 나는 거주, 거 사름이 나는 거라도. 거 보통으로 경. 애기도 자연으로 거 법이 그렇게 마련웨난 나는 거주. 당추.

게 잘 구들에 상 출렁 잘 모사. 옛날 법이주게 것도.

112007 @ 차렸다가 치워 그냥 놔 뒤?

112007 # 치왕 떡국 허주게. 올렛당 떡국.

112007 @ 애기가 태어나서 일년 되민 돌잔치 허는디 옛날은 뭇엔 헤낫수과?

112007 # 옛날에도 돌잔치주. 돌 돌아오난. 백일도 허고.

112007 @ 백일도 헤낫수과? 백일엔 무신거 허여?

112007 # 그대로. 그대로 할마님상 출려냥.

112007 @ 그것도 밥 세 개, 메역채영. 다른 거 올리는 건 없고?

112007 # 다른 거 쓸이영 돈도 올리고. 실도 올리고, 돈도 올리고 쓸 거렁 쓸도 올리고 물도 올리고 경허는 거주게.

112007 @ 떡은 안허여?

112007 # 떡 헤지민 좋주만은 떡을 경 자꾸 헤져? 정성껏.

112007 @ 돌에는?

112007 # 돌에는 떡도 헤야지.

112007 @ 무신평 헉니까?

112007 # 떡, 흰, 저 돌레떡. 돌레떡 혜영 올려. 곱닥허게 혜영케시리. 옛날 소금도 아이 놓고 그냥 곱닥허게 더 맛좋아 그 떡.

112007 @ 당에 갈 때 허는 거 비슷허게?

112007 # 응, 비슷허게 그처럼 허여. 옛날에 소금도 아이 놓곡 허영 곱닥허게 할머님상에는 우선 그 소금도 아이낱 떡 행 올려.

112007 @ 돌 돼민 다른 거 뭐 해낫수과?

112007 # 엇어. 요새 ㄱ치 돌잔치 안해도 대부분은 돌에 밥허영 먹곡 할마님상 출려, 옛날도 정성허는 집인. 우리도 허여난. ‘돌 돌아왔저. 아기 돌이여’ 허멍 경헛주. 요새 ㄱ치 돌잔치, 요작이 돌잔치 먹으레 갖다 왔저. 우리 큰 딸에 딸 손지난. 돌잔치 헤서.

112008 @ 애기 날 때 머린 안 깎으고 나중에 깎옵니까?

112008 # 아니, 므음.

112008 @ 그거 무신 머리엔 곱옵니까?

112008 # 무신 머리, 배안넛 머리엔 허주게. ‘배안넛 머리도 아이 가깎구나.’ 영허고.

112008 @ 이 배안넛 머리는 언제 깎옵니까?

112008 # 요새에 배안넛 머리 가깎서? 그냥 키워주.

112008 @ 옛날에게.

112008 # 옛날 뭐 초파일날 가끄민 좋넛헛 초파일날 가깎주. 스월 팔일날.

112008 @ 초파일이 가깎지 안허민.

112008 # 아니, 가까와 아무때 돌아와도 돌아오주.

112008 @ 음력 오월에 난 애긴 일 년 동안 안 잘라?

112008 # 아니 그땐 쫄르곡게. 경허단 두 번 가끝 때도 초파일에 가까도 뉘고게.

112008 @ 초파일에 깎으민 좋아?

112008 # 좋넛허난 가끄는 거주뉘 초파일에.

112008 @ 누게가 깎옵니까?

112008 # 메, 아무라도 이발소에 강 가끄나 뭐 이녁으로 가끄나 다 가깎주게.

112009 @ 옛날엔 애기 아프민 어떻헤난 마씨? 병원도 없고.

112009 # 어떻헤여. 병원도 엇이난 할마님신디 간 빌엇주. 상 출려뉘 낮게 헤줍센.

112009 @ 어디 강 뵈니까?

112009 # 어디 강 빌어? 집이서 빌주, 집이서. 경헛시민 나시민 ‘아이고 빈 덕분 에 낮앗구나’ 경허곡.

112009 @ 애기 때 젤 큰 병은 무신거, 겁나는 거?

112009 # 겁남은 무사 겁나?

112009 @ 아니 애기 병 중에서.

112009 # 경헛당 감기 걸렝 흐뵑 허주 경 아광 살아지느냐? 요새 ㄴ치 병원 텡
겸시민 살지도 못허주.

112009 @ 흥역이나 천연두는?

112009 # 아, 그렝 때는 멩심허여야 돼여.

112009 @ 어뵑 헤야 됩니까?

112009 # 어뵑허여, 정성헤야주게. 부정헌 사름은 못 들어오게 어디 상가에 가
온 사름, 또 돼지고기 먹지 말고.

112009 @ 바닷고기도 굽지 말아야 돼?

112009 # 어, 것도 굽지도 안헤여, 냄새 나는 거. 깨끗허게 정성헤야 돼여.

112009 @ 곰보되고 헌텐 헛게 만든.

112009 # 어뵑 안헤여. 할머니 잘 직헤쵸 어뵑 안헤여.

112009 @ 할머니넨 얘기가 속 썩이지 안헛구나예?

112009 # 다 꺼엇지 경헤도게, 옛날이니까.

112009 @ 열나민 어뵑허여?

112009 # 열 나도 그대로 꺼지주, 어뵑 안헤여. 우렝 옛날 얘기덜 흑에 키와세,
흑에. 질에도 뵑 나닝구도 혼 번 빨도 안헛 입정 거멍케 헤도 얘기덜이 술성이 하
도 히어부난 히영헤 낫어.

112010 @ 얘기 가졌을 때 뵑 하면 안된다는 거 없어마씨?

112010 # 엇어. 화재난디 ㄴ뜰디 가지 말렛헤 얘기 가진 사름은.

112010 @ 밀가루 먹으민 얘기가 헤영헌다 그렝 말 들어나신디.

112010 # 얘기광 먹은 게 뵑 것이 서꺼지나. 거 침 터무니 엇인 말이라 그거.
견 무식헌 소리. 아기신디광 것 먹은 게 뵑 상관이 있나? 생각을 헤봐. 거 아니, 아
니.

흔레

112011 @ 결혼식의 절차를 순서대로 곴아줍서.

112011 # 아싯날 먹주게, 아싯날 먹영 잔칫날 ㄴ장 삼일허여 옛날은.

112011 @ 삼일이 무신거라?

112011 # 도새기 잡는 날, 먹는 날, 잔칫날.

112011 @ 먹는 날이 가문잔치파? 옛날도 가문잔치렛 곴아낫수과?

112011 # 응, 가문잔치가 뵑인고 허면이 가문이 엇샤? 이 방상 ㄴ라 곴는거게.
거난 쵸당덜 뵑이는 잔치라, 이거, 옛날은. 겐디 이젠 아싯날 대목 잔칠 허여.

112011 @ 잔치 뵑날도 헤낫수과?

112011 # 뵑날은 이젠 엇어. 옛날은이 사둔 이제 잔치 뵑날은 새서방칩이 새각
시칩이 사둔열뵑 가고 또 뵑날은 새각시칩이 가고, 아 또 뵑날이 새서방칩이 가고.
경허영이 양쵸 사둔칩이 다 사둔열뵑도 가. 잔치 넘으민.

112011 @ 경허난 일뤼잔치엔 헤낫구나예?

112011 # 응, 일뤼잔치 뉼주, 일뤼잔치 뉼여. 새각시가 그날 오난 뒷날은 새각시
칩이 가고, 또 뒷날은 또 새각시칩이서가 새서방칩이 오고. 경혜 사둔잔치가 경혜
난. 이제가 간단허주게. 아이고 이젠 답례품도 안행 설리불어.

112011 @ 결혼할 때 어떻게 마씨?

112011 # 족두리 씨엇주게. 장옷 입고. 가메 탄.

112011 @ 가멘 사름이 들러? 말에 허는 거?

112011 # 사름이 들러. 두 사름씩 너이. 우리 시절 끝나니까 거 없어졌어.

112011 @ 도새기 잡는 날은 어떻 허여?

112011 # 도새기 잡안에 뭐 아싯날도 잔치허곡 잔칫날도 허곡 이제 뒷날은 사
둔열맹 가고. 침 복잡헛주.

112012 @ 어떻게 할아버지영 결혼 헛디가?

112012 # 몰라.

112012 @ 중매?

112012 # 중매로 허연.

112012 @ 할아버지영 결혼할 때 누게가 중매 사수과?

112012 # 누게 중매 산 거 알아지크라?

112012 @ 어떻게 결혼 헛디가?

112012 # 어떻허여? 하르방덜끼리 결혼허렌 허난 잔치 헛주. 우리 하르바님은
스장, 글스장이고 이디 하르방은 훈장이라. 하르방네찌리 사돈도 헤여졌주.

112012 @ 한 동네 아니?

112012 # 이 동네라도 경 그 시절에 경 혼디 만나보도 안허고. 거 뭐 그자 어른
덜 허는냥 헛주뒤.

112012 @ 결혼 허기 전이 만나긴 헛?

112012 # 안 만난.

112012 @ 하르방네끼리 손지, 손녀 결혼시키겐 허연에 헛 거?

112012 # 경혜연, 경혜연. 뭐 잔칫날이 언제산디 몰르고. 침, 우리 혼 동네서 난
컷젠 헤도 경 가깝게 지내도 안 헤나고. 혼 동넨디 이 하르방은 저 알동네 흑교 저
끄디고, 우린 요 중간에 살안. 또 우리광 막 천지차이주. 우리 하르방넨 막 글선생
허고 스몏.

112012 @ 아까 할아버지네도 훈장이라났젠 허멍 마씨?

112012 # 응 훈장. 훈장이라도게 나보단 두살 밑에고 허난 우린 상관도 안헤난
디. 이 하르방 만난 일생 므까세, 일생 므까서.

112012 @ 겹사돈은 어떤 거짜?

112012 # 겹사돈허는 것들은 건 안웨는 거지. 거난 게 부찌사둔이엔 허여근에게
그런딘 불편허주게. 쉼당찌리게, 누가 나허고 조케 벌 뉼지 안헤샤게? 그 다음 이제
또 느네 동생이나 누게가 이디 시집오민 부찌사둔. 아이고 그디 막 부찌사둔이로구
나.

112013 @ 막펜진 어떻게 거짜?

112013 # 잔치할 때 중매허영 잔치할 땐 따로 잔치 허쿠덴허영 스주 아저갓당 잔치허켄 잔치 택일 가져 오주게.

112013 @ 그게 막펜지?

112013 # 응, 것도 요 중간에사 이제 그 막펜지 아정 오랑 사둔덜끼리 우리도 우리 아이덜 풀 땐 다 해연. 메뉴리 헐 때도 이젠 메뉴리 집이 잔치허쿠덴 갈 때민 강 먹영 오꼭 이젠 딸 풀 땐 또 새서방집이서 왕 잔치행 먹고.

112014 @ 이바지는 어떻 허는 거 마씨?

112014 # 이버지, 옛날 엇어난. 우리 시절에 엇어난. 그루후제사 사삼사건 후제사 이제 돈 아사가는 법 나서, 그 후제사.

112014 @ 돼지고기, 술 이런 건?

112014 # 술 혼 허벅, 돼지 혼 므리씩 해 가낫저게.

112014 @ 새서방집이서 새각시 집이 주는 거?

112014 # 응.

112014 @ 그게 이버지 아닌가?

112014 # 것이 이버지. 옛날도 해난. 경헌디 소뭇 옛날은 또 더 심해나서라, 소뭇 옛날. 돈도 아저가꼭 막 해나선게게. 우리 시절에게 우리 보단 흐뭇 앞이 부더가 술 혼 허벅 도새기 혼 므리 경 해간덴 해낫어, 그 시절에. 겨단 그로 후에는 돈으로 흐뭇씩 아저 가는 법. 허단 이젠 돈이 엄청나게 하영 가정 간게. 요샌 천만 원, 천 오백이여 무시겨여. 이젠 남즈 돈 엇인 사름 장게도 못가.

112015 @ 시집올 때 무신거 행 읍디가?

112015 # 무시겨 허여? 이불 혼 채 헨 왓주. 베개영 이불이영게, 이불 두 채허 곡게 베개뿐이주, 무시겨. 아이고 무신거 헤시니게. 저런 경대 하나허고 이불 두 채 헨 왓주게. 뭐 헐 게 이시니? 우리 스삼사건에난 아무것도 출리도 안허곡

112015 @ 요강도 헛덴 헨게 만든?

112015 # 요강은 허여. 거울 저런 거. 저거ㄹ란 경대엔 해낫어. 경대.

112015 @ 경대도 허고 요허고 이불 혼 채, 두 채?

112015 # 이불 두 채, 요 혼 채게. 것도 출리는 사름은 뭐 길레 이불이니 뭐니 막 출렁 가지. 경허단 중간엔 따로 미싱 허는 사름, 궈 헤영 가는 사름 뭐 해낫어.

112015 @ 할머니헐 때는?

112015 # 우리헐 때 게메 스삼사건이라부난 우리 아무것도 안헛저.

112015 @ 이불은 어떤 이불, 어떤 이불 이수과?

112015 # 이건 소개 이불이고 알룬 이불은 옛날은 길레 이불이 셔낫주게. 누빈 거. 경허단 뭐 이젠뭐. 이거 이불 거적, 이불 안. 이불짓도 이서. 이거이 이거 이불 들안네. 이거 짓. 이거 난이 나가 여기가 이제 땡기당 빨기가 실으니까 경허난 이거 헛당 흐뭇만 버물민 트덩 빨아. 이불짓. 게난 하르방허고 나허고 이젠 늙어부난 이거 허지. 젊을 땐 이거 안 해반. 거난 이제이것도 나 바느질로 잇당 허여. 경헤도

이것도 이제사 나난 자크로 허는 거 혜단 끼왓주게. 이제사 난 거.

112015 @ 여름에 더끄는 이불은?

112015 # 그거 이제 카페트 하영 나부난 엇어. 우이 더끄는 건 훗이불이주게 다른말 엇어. 플레이불이엔 행 옛날은 천을 혜 가지고 막 누벼. 더끄는 거 플레이불, 미녕으로 옛날은이 플레이불 멘글아낫저게. 숨 담양. 미싱에 누병 플레이불. 그것도 잘 출리는 사름은 결혼할 때도 누빔기정 행 가고 못 출린 사름은 것도 못헤여. 요 정도 두꺼와, 이보담도 알타. 플레이불을 누비이불이라고 헤여.

112015 @ 베개 부분 명칭도 말해 줘서.

112015 # 베개 이건 베갯잇, 요건 모메기. 이것 ㄱ라이 베개에다가 이 모메길 끼와야돼. 베갯모메기 수논 거 이제도 나와 이불 푸는 집. 것도 수 놓는 사름 다 혜 다근에 풀거든 모메기로. 거난 이것ㄱ란 베갯잇, 이건 또 우이 끼우는 거 베개거적. 베갯잇 씨왓주 나도.

112016 @ 결혼할 때 함도 이수게?

112016 # 함 옛날은이 미녕 두필 담양 흥세함이엔 행 아사가. 앞이 강, 문전에 강 영 낡 흥세함 디려. 문전제 허곡. 겨단 이제 간단허게 돈 낡 땡겜주. 경허단 이젠 것도 엇어. 우리 손지 풀 땡 그런 것도 설리불언.

112017 @ 도새기 집이서 질루지 안헤?

112017 # 질랑도 허고 사당도 허고, 것사. 질라지민 좋주게

112017 @ 보통 멧 키로 정도 혜근에?

112017 # 아이고 것사 흔 시냐? 커도 허곡 족아도 허곡. 막 도새기 크게 질루민 흔 으든 근 웨켜, 윈 근 넘으켜 경헛주게.

112017 @ 쉬염도새긴 무신거?

112017 # 쪼끌락헌 것 보고 경 곺아난. 잔치 혜도 이제 쪼끌락헌 도새기 ‘아이고 쉬염도새기 헛구나.’ 경. 멧키로 안돼주게, 쪼끌락 헌 거. ‘아이고 쉬염도새기 잡안.’ 경 곺아난 거주게. 거 제주도 사름 말덜.

112017 @ 잔치 할 때 음식은 무신 행 먹어?

112017 # 무신거 그냥 잔치 출린 거 먹주게. 도새기 잡아놓민 잔칫날 처낙도, 아싯날 처낙도 맥이주게.

112018 @ 새서방이 새각시 들레 읍니께?

112018 # 올 때 게 왕 감주게. 왕 새서방 상 받아아정.

112018 @ 누게 누게 같이 읍니까?

112018 # 우시 오주게. 양쪽에 어멍펜이 사름 흐나, 아방펜이 사름 흐나 혜영 둘이와 둘이 우시가. 양쪽엿 사름.

112018 @ 남자만?

112018 # 남즈게. 겨단 말제엔 여즈도 둘 썩 땡겜주. 거 중간에 것도. 옛날은 남즈만 양펜이 어멍 오라방이나 이제 또 아방펜이 족은 아방이나 퀘당 오고. 흐썩 셔가난 여즈도 흐나썩 들랑가. 그런 법이 나서.

112018 @ 할머니 헐 뎀?
 112018 # 우리 시절엔게 어명펜이 오라방 하나, 외삼촌. 아방펜이 쨌당 죽은아
 방이나 누게 시민 가고. 둘이 오주게.
 112018 @ 새서방은 뭘 탕 읍니까?
 112018 # 옛날 뭘 탕 왓주게.
 112018 @ 옷은 무신 거 입영와?
 112018 # 새서방 입는 관복이 잇주. 요새 무사 안나오느냐? 관복.
 112018 @ 머리에 무신거 써?
 112018 # 머리에도 그 모저 잇주게. 새서방 써는 거.
 112018 @ 신발은?
 112018 # 신발도 이실걸.
 112018 @ 이름은 엇어?
 112018 # 이름 몰라. 새각시 옛날 가막창신이엔 헐 창신 신어났저만은 중간에
 그런 거 엇고. 그냥 고모신 신영가.
 112018 @ 새서방 입 막는 거는?
 112018 # 것도 막아났어. 부채, 부채. 부채 영 헤여. 거 관복에 들룬 거. 새서방
 옷이 잇어, 그 가메에 부튼 거. 새각신 또 장옷은이 호상. 나 이제 헤 놔뒀저. 그런
 거 빌영 입나, 장옷.
 112018 @ 새각시 머린 어뎡 허여?
 112018 # 낭저, 옛날은 낭저, 우리시절엔 낭저 해난.
 112018 @ 지 머리론 짧으지 안허여? 빌어당 헤?
 112018 # 것만 해도 뉘. 빌어당 옛날은 막 그 머리 허젠 허민 소뉘 머리허는 사
 림 빌어당 그 머릴 다와, 다와. 다와근앵이 크게 헐 것도 우리 두린 때. 우리 옥은
 후젠 그런 거 엇어.
 112018 @ 새서방상에 맛좋은 거 하영 올려?
 112018 # 출린 게 족아?
 112018 @ 요새 말고 옛날에.
 112018 # 게메, 옛날에도 새서방상에 출린 거 하. 반상기엔 헝이 그릇이 막 한
 다. 새각시상 출리는 그릇, 새서방상 출리는 그릇이 잇다고. 반상기엔 헤가지고 보
 시도 이제 사발 국그릇 밥사발 말앙, 수제도 딱난 거 새각시 숟가락 이서나서. 우리
 집이 이서난디 것도 어디 가붙어신디. 토라지듯 헐 숟가락 이서났어, 새각시 숟가
 락. 것도 이서난디 반상기라고 건 트로 쌍 놔뉘, 반상기. 그 하간 온갓 채소 승능
 사발꺄장 으라가지 뉘여. 열두꺄 거라. 사발 두 개, 국그릇허고 밥사발 말앙 으답꺄
 가, 열두꺄가 이저붙어졌저, 이제.
 112018 @ 옛날에는 맛있는 거 별로 없어나수게?
 112018 # 엇어도 채소여 꺄기여 뉘 계란 솥양 농곡 하간 거 헤가면 옛날도 반
 상꺄 이서.

112018 @ 계란은 몇 개나 솥양 올립니까?
 112018 # 계란, 새각시상에도 두 개, 새서방상에도 두 개. 경행 보시 하나에 두 개씩 낱 두께가 다 맞인 거라. 이제 반상기가 어디 놔두 사름 이실 걸 것도, 옛날 걸로. 반상기엔 허여, 것ㄴ라.

112018 @ 채소는 무신 채소 험니까?
 112018 # 온갖 채소 이제 잔치 먹는 채손 다 것에 담지.

112018 @ 바닷래기도 귀?
 112018 # 새각시상에 바닷고기 온 차 군 거 이서 나신가 몰라.

112018 @ 계민 뭐 맞존 건 하영 헌텐 허멍?
 112018 # 두부, 돼지래기. 래기도 각자 낫지게 순대 놓고 두부놓고 돼지고기 놓고 해가민 멧가지라. 두부 순대만 해도 세 가지, 계란해도 네 가지 또 이젠 콩늬물이나 다른 채소나 고사리나 해도 다섯가지. 반상기가 하엿튼 열 가 돼여. 그릇이 새각시상에 올라가는 게.

112018 @ 지지미라도 행 올려?
 112018 # 지지민 벨로 안해도 허는 게 이서. 지지미도 지정 허주게 땀부라.

112018 @ 새각시상이영 새서방상에 국은 무신 국 끌러마씨?
 112018 # 국은 두부 놔근에 소고기국도 끌렁 놓고.

112018 @ 옛날에?
 112018 # 게메 옛날에. 특별히 허는 디 생선국 끌러.

112018 @ 옥돔인가?
 112018 # 옥돔. 옥돔 하나 놔.

112018 @ 무 놓는 건가 메역 안 놔?
 112018 # 무우 놔. 메역도 놓는 딴 놓고. 건 므음.

112018 @ 신부상은 ㄴ진상이엔 험니까?
 112018 # ㄴ진상이주게, ㄴ진상 받암젠. 잘 출린 것ㄴ라 ㄴ진상이엔.

112019 @ 대반은 무신거?
 112019 # 아 새각시 옆이 앓는 것ㄴ라 대반.

112019 @ 대반은 누게가 앓는 거짜?
 112019 # 대반은이 이 방상에 웃어른.

112019 @ 새각시 옆이 앓는 거? 새서방 옆인 어신가?
 112019 # 새서방 옆이도 마찬가지로. 건디 이젠 여자 우시가 와근앵에 양쪽에 앓 거든. 옛날은 대반이엔 행 웃어른 앓져. 대반상도 새각시상ㄴ짜 잘 출려다근에 놔.

112019 @ 중방은 무신거 허는 사름?
 112019 # 중방은 새서방 들어올 때 새서방이 올레 오거든. 영허민 중방 상 영영 영영 세 번 허민 새서방이 들어와, 거 중방.

112020 @ 부주는 옛날에 어떻 해난 마씨?
 112020 # 부주 옛날은 돈이 시냐? 쓸도 뒤 뒤 아저 가고, 가동가세에 맞게 것

도.

112020 @ 막 가까운 딘?

112020 # 가까운디 곤쫌 혼 말이 최고 부주. 아이고 침 이제난 허염주. 사둔침 이도 곤쫌 혼 말 헤가사켜 경 최고 부주. 이젠 쫌 혼 가멩이 값, 두 가멩이 값. 거 무사 그거라? 혼쫌 현 딘 십만원, 혼쫌 현 딘 오만원. 이거 뭐 돈을 어떻 당허여? 그거 너무 허염서. 쫌 혼 관뉘 값도 안허연, 옛날은. 돈도 혼 방울 헤영, 경허단 이젠 침. 법이 달라져서.

112021 @ 암창개는 뭐마씨?

112021 # 아이고 그건 게, 남즈 엇이. 남즈가 어디 가불면은게 여즈만 그 결혼 날 가는 것ㄴ라 경 곶앗주게. 그런 사름이 가끔 잊지 경 매사름 없어.

112021 @ 선홀에서는 그런 사름 엇언?

112021 # 엇어, 엇어. 안 봐난.

112022 @ 죽은 사름끼리 결혼 시키는 것도 이수과?

112022 # 그런 거 죽은혼서라고 허주만은 우리도 스삼사건에 죽은 시누이 이서도 허렌헤도 안 헛저게.

112023 @ 날 받으민 이런 거 허민 안된다 허는 거 이수과?

112023 # 아니 잔치가 우리가 혼 들 앞두지 안혜샤? 경허민 늬이 잔치 먹으레 안가주게.

112023 @ 무사 안가는 거짜?

112023 # 몰라. 건 나도 몰르크라. 늬이 대동이라. ‘아이고, 잔치 보더부난 못갓저’ 경허고. 그거주.

상례

112028 @ 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집은?

112028 # 초상집, 초상 닛저.

112028 @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은?

112028 # 수의엔도 허고 그냥 보통은 호상이엔 허여.

112028 @ 수의는 요즘 말.

112028 # 게메, 지금 텔레비에선 수의엔 허는디 호상, 호상.

112028 @ 상제가 입는 옷은?

112028 # 상복.

112029 @ 남자 상제가 들르는 거, 막대기.

112029 # 아 방장대.

112029 @ 방장댄 무신 낭으로 허는 거?

112029 # 머구낭, 또로 그 앞이 놓는 건 짚땡이. 방장대 앞이 짚땡이 뉘.

112029 @ 뗏 번 묶읍니까?

112029 # 산뉘낭으로 무끄는 거 일곱번? 산뉘낭으로 일곱 번 무끄는 사름, 건

무끄는 사름에 따라 거 수정 엇어 건.

112029 @ 무사 일곱 번 묶읍니까?

112029 # 건 몰르고.

112030 @ 머리에 쓰는 건?

112030 # 두건, 건대. 고만 시라. 그저 무시것ㄴ라 뭐엔 헛저, 잊어 불엇저.

112030 @ 건대?

112030 # 건대 말양 영 들르는 거.

112030 @ 친?

112030 # 친 말양게. 아이고 잊어불언. 그게 스끼 ㄴ아근에게 영 들러근엿에 건대 에 또두건 씨고 허는 것ㄴ라 뭐여만은. 아이고 그거 잊어불어졌저게. 썩 놔두컬. 영 들을중 알아시민. 건대는 우이 거작헌 게 건대고. 두건허고 건대허고 들르는 거 그거 멩글므로 오죽 야단시러와게, 상제마다.

112030 @ 건대 말양?

112030 # 뽕동글락 헌 거. 우리 문 케완 설러불엇주게. 노로 멘들아근에. 띠, 띠. 그 건데 그거 잊어불어졌저, 뽕동글락헌 거.

112030 @ 입관허기 전이 쓰는 두건은 꼬매지 안허지예?

112030 # 꼬매지 안헌 건 통두건. 임시 초담이 흰 두루마기에 이제 통두건에. 경허당 이제 입관허면은 제 볼 때는 상복 입어. 경허는 거.

112030 @ 여자들이 입는 건 복치메?

112030 # 응, 복치메, 복치메. 또 그이 심오웃이엔도 허메.

112030 @ 심오웃은 뭐?

112030 # 그거나 그거나 ㄴ쁜 거. 상복이나 심오웃이나. 저 흐찰허민 상복 입어젠 허는디 심오웃덜 다 입어신가 경허여.

112030 @ 어느 게 더 옛날 말인고?

112030 # ㄴ쁜 거 ㄴ쁜 거. ㄴ따. 옛날부터 씨는 말.

112033 @ 묻기 하루 전날은 일포?

112033 # 응, 묻기 전날 일포. 요새 그거 느랑 씨는 말.

112034 @ 일포날 상갓집 가는 건 조문 간텐 험니까?

112034 # 고림이엔도 허고.

112034 @ 고림?

112034 # 고림 감저, 조문 감저, 것도 두가지. 똑 ㄴ쁜 말. 조문 감저해도 통허고 고림 감젠 해도 통허고.

112034 @ 행상 허는디 색깔이신 천 이수게?

112034 # 그거 이젠 안허여. 아 저 거시기 멩전?

112034 @ 멩전?

112034 # 미시거 멩전 베끼. 멩전, 추도 옛날은.

112034 @ 멩전은 뭐고 추도는 뭐?

112034 # 그건이 이제 막 근족이나 친한 사람이 요샌 막 돈으로 꽃 헤오지 안 허느냐? 경허듯이 추돌 허여.

112034 @ 추도가 뭐디?

112034 # 만세라고 만세엔 허여. 만서가 막 하영 들어왔저 경 곱아. 추도엔도 곱고.

112034 @ 천?

112034 # 천으로 허영 저 행상에 갈때이 추도 막. 우리 하르바님넨 한문 선생해 나부난 스타 아니 ㄱ뜨민 추도가 멧 장 들어오주. 막 그냥. 글 써근에.

112034 @ 글 써근에 오는 거?

112034 # 응, 추도엔 허고 만세엔도 현다. 부주추록 ㄱ뜨게 허는 거게.

112034 @ 부주 대신에?

112034 # 지금 꽃 헤여오듯. 막 스몫 뭐 뭐헌 집인 그게이 막 하영 들령 나레로 헤영 간다. 우리 하르바님은 스타 넘어네 돌아가도 추도 으라 장 들오라났저. 한문 선생 해나부난. 많이 들어와 낫어.

112036 @ 상여 메는 사름은?

112036 # 행상꾼.

112038 @ 관을 묻고 나서 산 만드는 거는?

112038 # 봉토 싹덴 허주게. 봉토 싸. 봉토 다 싹민 막제 지내어근에, 막제 허영 오주게.

112039 @ 하관혈 때 어떤 사름은 보민 안 된다 허는 거?

112039 # 아 그거, 그건 이 사름 나이에 따라가지고 무신 이제 헤치, 무신 생은 보지말라 경헌다게.

112039 @ 그거 호충이엔 험니까?

112039 # 아니. 그건이 그런 사름은 그런 때 보면은 것에 걸린덴 말을 경 곱나.

112045 @ 토롱은?

112045 # 토롱은 여점 허는 것 ㄱ라 토롱이고. 잠시 헛다근에 잘허영.

112046 @ 무덤을 옮겨가는 건 뭐엔 험니까?

112046 # 이묘.

112046 @ 천리험젠 안헤?

112046 # 그거나 그거나 ㄱ뜨거. 이묘 험젠 말이 좋아. 천리 험젠도 허고 ㄱ뜨 말. ㄱ뜨 말.

제례

112049 @ 제사는 식게?

112049 # 응, 식게.

112049 @ 제사허는 집은?

112049 # 식게칩.

112049 @ 제사 지내기 위해 내려오는 밭은?

112049 # 아, 제월제. 제월제 것도 돈 번 하르방덜은이 이 밭은 어느 하르방 제월밭이여, 어느 할망 제월밭이여 경허고. 그냥 이제 물령 행 허는 사름은 제사도 안 허곡 헤 먹곡. 그 제월밭 헤 먹는 사름은 괴로와. 제스허젠허민. 게난 돈 번 어른덜은 이 밭도 앓곡 나 제스허라 영허영 다 옛날 어른덜 다 헤여. 경헌디 우린 하르버지 할마님네 물려준 밭 다 지탱헤저시냐? 제월밭덜도.

112049 @ 다 풀아불엇주?

112049 # 품도 허곡 또 아이 줍젠 아시 독헌 거 들리난 막 두드려 불멍 허곡 그런 집 많아.

112049 @ 제사할 때 떡 올리는 굽달린 접시는?

112049 # 쟁반?

112049 @ 나무로 된 건디 굽 달린 거?

112049 # 것도 쟁반. 이제 저 이무노 쟁반, 놋쟁반, 쟁반이주. 우리도 놋쟁반 허여 가단, 납쟁반 허여가단 놋쟁반 허여 가단 이젠 이무노 쟁반 헤염저.

112049 @ 펜대 이런 말은 안씀니까?

112049 # 무사 안써. 펜대도 잇주.

112049 @ 펜대는 뭐라?

112049 # 사라 사라. 사라보고, 펜대는 거 일본말 아닌가?

112049 @ 사라가 일본말.

112049 # 사라가 일본말. 펜대엔도 허여. 사라그라 펜대엔도 허여.

112049 @ 떡 같은 거 올리는 그릇.

112049 # 펜대엔도 허여.

112051 @ 콩나물 만드는 건 무신콩으로 됩니까?

112051 # 콩이 다 콩 누물은 돼주만은 콩주름 나는 콩이 셔. 팔월베엔 허영 팔월베가 막 콩누물이 잘 돼낫주게. 경헌디 이젠 뭐 무슨 풍선이여 무시거여 이 콩누물콩도 이름이 으라가지. 풍선, 풍선이 좋아, 지금 가는 거. 우리 옛날은 팔월베가 막 좋아나고.

112051 @ 주름콩이엔은 안 됩니까?

112051 # 주름콩그라 이제 풍선, 풍선. 주름 놓젠 허민 콩도 잘 단장허곡 물립곡 행 놔뒤사돼여. 그냥 허민 콩이 무리면은 콩누물이 잘 안돼여. 경허난에 콩누물 놀 건 이제 혼 착짜리도 다 좇어두고 그렇게 해야 제스 때에 콩누물을 놓민 잘 나. 경헤영 콩누물 놀 콩은 잘 간수행 놔뒤사. 또, 지금으로부터 콩 갈 시기에는 콩누물이 잘 돼고 날 철이니까. 이제 칠월 팔월에 콩누물이 쥔 안돼여.

112051 @ 콩은 언제 씨 뿌리는 거봐?

112051 # 이제 흐뎡 시민 갈 거. 이제 혼 들 시민(6월). 겨난 지금 철에는 집이서 그 콩누물 키와서 제스할 때도 잘 돼여. 날 철이니까. 경허고 이제 칠월 팔월에는 날 철이 아니주게. 경허민 콩누물이 잘 안돼여. 경헤낫저 옛날. 경헤도 그걸 잘

혜영 콩을 간수행 놔두민 잘 돼여. 그냥 무대뽀로 놔둔 건 콩늬물 안돼여. 거난 벌러진 것도 좃어불곡, 이 봄 때에 잘 물리와. 잘 물리왕 놔둬사 콩이 무리질 안혀여. 경혜여근엥이 집이서 옛날은 집집마다 콩늬물을 키와야 제스를 헐 거. 먹을 것도 엇곡 허니까 것이 벨미주게, 벨미라. 또 국도 끌렁 먹고 콩늬물 놔가지고. 경혜영 잘 큰 댜 무룩허게시리 잘 커 올른다게. 우린 디러 콩늬물 놔. 제스마다. 콩늬물 채 허영 다 디리곡 경혜난. 콩늬물도 집이서 키와주게, 콩늬물을. 오가리에 잘 돼민 이만이 커 올라.

112051 @ 물 빠지지 안 허는 오가리에?

112051 # 물 빠지지 안 허는 것도 허고 물 빠지는 것에도 놓아. 물 빠지지 안허는 건 영 들렁 비와불영 물이 엇어불어야 잘 커. 경허민이 콩늬물을 주로 놔놔져. 이제사 삼주.

112051 @ 어디 놔둬니까?

112051 # 그건이 저울에 콩늬물이 잘 안 크거든. 겨민 불 솥양 밥 헐 댜 솟뚜껑에 놔. 경허당 오가리도. 우리 큰 딸 두린 때게 불 너무 와랑지게 숨아부난 오가리 깨어놔져게. 경도 허곡 헤어나고 또 저울엔 곱게 싸가지고 이 이불도 곧 거. 이디 이불 구들 지든디 놔. 드시게, 드시게. 콩늬물 오가리 이제 곱닥헌 포헛당 싸가지고 이디 낱 키와.

여름철엔 구덕에 놔도 커, 그것이. 낭 하꼬에도 낱 키우고. 경행 주로 이제 제스 때에 내리 콩늬물을 키와주게. 경허단 이제 콩늬물 안 키우난 막 한글혀여. 물 잇겏다, 콩늬물 아이 키우겏다, 뭐 제스험도 무슨 일이라게.

112052 @ 식게 때 올리는 고기는?

112052 # 적.

112052 @ 그런 거 다 제숙이엔 헛니까?

112052 # 제숙.

112052 @ 제숙은 돼지고기 소고기? 바닷고기도 다?

112052 # 바닷고기고 소고기고 제숙이라고 헤여.

112052 @ 고기는 다 제숙?

112052 # 제에 씨는 거니까 경허니까 제숙.

112052 @ 바닷고기엔 곱습니까?

112052 # 개겏 제숙. 우리 굳는 말.

112053 @ 산적은 무신 적 헛니까?

112053 # 무신 적 헤여게? 소고기 적이나 돛래기 적이나 허고 또 특별히 허는 사름 무신 상어 ㄱ 뜬 거 개겏겏도 사당 적 허주만은. 소고기적허고 돼지고기적이 뭐 전통이고 또 그다음 또 헐 건 이제 첨 이 봄 때에는이 우린 저 패마농, 과 메어가 지고 그 적도 허연. 패마농적도.

112053 @ 패마농 적도 헤?

112053 # 패마농을 데우쳐 가지고 요렇게 이제 허멍 이제 고지에 꿩영 ㄱ를 이

제 무쳐가지고 굵도 허고 이제 티왕도 저 빙철에서도 허고. 마농적 허영.

112053 @ 마농적.

112053 # 응, 것도 해나고 촌에서게 옛날 무신 헐 게 서게. 겨니까. 지금은 뭐 하간 지지미가 땃 가지주게. 헐게 엇어.

112053 @ 바당 동네는 문어적도 허고 허던데 이 동네 특별히 허는 게?

112053 # 이 동네도 특별이 경 사당 허는 사름은 허주만은 일반은 경 안헤여.

112053 @ 적꼬지 허는 대나무는 어떤거 험니까?

112053 # 대도 나근에게 오래 크민게. 궂 난 건 야리주게. 대가 궂 난 건 굳지 안 헐 거. 무린덴게 이제사 난 것ㄴ라 무린대엔 허고. 이제사 난 건 야리주 야려. 오래 뉘 건 굳은 대게. 그걸 헤사 하간 걸 짜고 적꼬지도 멘들꼭 허여 막.

112053 @ 소쿠리헐 때 만들 때 허는 대나무는?

112053 # 수리대, 수리대. 왕대로 못허여.

112053 @ 왕대 허고 수리대 두 개 이수과?

112053 # 응 두 개.

112054 @ 시루에 찢 떡은?

112054 # 친떡이주.

112054 @ 쌀이나 메밀가루로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떡?

112054 # 그건 저 은절미. 납작허게 헤영 니귀 반듯허게 찢 건 은절미.

112054 @ 본으로 동그랑허게 헐 하얀 떡.

112054 # 그건 쉹헨게, 송편.

112054 @ 속에 뭐 안 놓고 떡본으로 영 찍영 헐 거.

112054 # 그건 절벤이다. 그건이 두 개 영 똑똑 허영 두개 부찢 것이 절벤. 포 부찢 거. 두개 부찢 거 절벤.

112054 @ 포 안 부찢 건?

112054 # 솔벤.

112054 @ 솔벤은 반달?

112054 # 반달. 반달 보고 솔벤. 경허민 그 동드레는 그 판이 이서. 그 절벤, 솔벤 허는 판. 겐디 이렌 엇어. 손으로 멘들아 그냥. 반들은 안허고 여기는. 반들은 안 허여.

112054 @ 반달은 안허여?

112054 # 반들은이 짐녕으로 표선이 ㄱ장 험실거여.

112054 @ 솔벤을 안허여?

112054 # 솔벤, 절벤은 여기도 허는디. 반들.

112054 @ 반들은 무신거?

112054 # 떡이 숨메 안냥 반들이 이서.

112054 @ 솔벤 말고?

112054 # 응. 끈떡으로 그냥이 쉥펜 대신 씨는 거. 동드레 다헤여, 거.

112054 @ 송편 대신 쓰는 반달은 이딘 안헌다고예?

112054 # 이디 안허여, 안허여. 몰라 이젠 동드레도 송편으로 험신가 몰라. 그거 허어나곤디 오래지 안헤서. 저이 짐녕으로 구좌면으로 들어사민 표선면7장은 거 허는 거 봐져. 우리가 그거 흐는거. 또 이딘이 상웨떡도이 숨메 낵 대부분 허는디 이제 짐녕으로 저레 가가민이 저 그 상웨떡 기주에 들앙 현 거 영 밀어가지고 썰영 치어. 니귀반듯하게 은절미 모양으로, 맛좋아 거.

112054 @ 이디션 경 안허고?

112054 # 경 안허여. 이딘 떡구정 허민 진진하게 그냥 처근에 썰영 떡주. 역부로 그 떡으론 안헤여. 경헌디 짐녕은 이제도 그런 떡 이선게.

112054 @ 상웨떡을 동글랑 허게 안허고 길게 험니까?

112054 # 아니 길게 허영 동드레는 그걸 이제 썰어가지고 니귀반듯하게 행 치민 똑 상웨떡 7치 숨메 아이 낵게, 숨메 아이 낵.

112054 @ 이 동넨 경 안허고?

112054 # 이 동네 허는 건 상웨떡 숨메 낵 허는거.

112054 @ 풋숨메?

112054 # 풋숨메 게. 이디 이동네 허는 거. 건디 이제 누게가 상웨떡 험시게? 난 허여난건디 오래지 안헛저만은.

112054 @ 경해도 신촌 강 사당 먹음니께.

112054 # 아니 함덕. 우리 맞창 헤와.

112054 @ 하양현 거?

112054 # 숨메 논 거. 풋 논거.

112054 @ 흑설탕 논 거도 이십디다.

112054 # 거 맛좋지 안허여, 거. 그것도 거 풋 대신 논 거주게. 겐디 그거 좋지 안허여. 우린 풋 놓게 좋아베여.

112054 @ 밀가루로 보릿가루로 험니까?

112054 # 밀7루주게. 밀7루 헤영게 밀상웨.

112054 @ 우리 제사때 설탕 논 거 험디다.

112054 # 설탕 논 것도 허여. 게메, 함덕도 소원으로 헤줘. 설탕 낵 헤도라 허민 설탕, 난 풋 낵 헤도렌 허영 맛좋은. 이디 노인정에 앗앙 가도 막 할망덜 흐나씩 먹으민 막 맛좋은 헤여. 제스 넘어나민이. 경헌디 혼 번은 흑설탕 낵 허난 맛 엇어라. 게난 “설탕 놔부난 맛엇수다 많은 먹읍서.”허난 “좋다게.”허명.

경혜연 떡집이 “왜 저 풋 낵 헤오렌 헤오난 설탕 낵 헤와서?”겨난 “이번만 먹읍서, 다음에 헤가쿠다.” 경 곶안게.

112054 @ 풋 놓민 더 비싸주예?

112054 # 비싸지 안허여, 7타. 겐디 멩그는 사름 쉬와, 설탕 놓는 게. 아주 쉽주게. 설탕 흠발씩 거려노난. 풋은 숲아근에 숨메 헤근에 뿃아근에 거려놓젠 허민

허주만은. 가격은 7뜨고.

112054 @ 가격은 같구나예.

112056 @ 식계 때 무신 녹물 헵니까?

112056 # 콩녹물허고 허여지는양 허주 잡채 허고. 녹디 녹물, 무채도 행 올려. 무채, 미네기채, 뭐 해지는 사름은 으라 가지.

112056 @ 봄나민 고사리도 꺾으레 갑수과?

112056 # 이때도록 고사리 거껏주만은 이젠 안 가켜.

112056 @ 옛날엔 막 하영 꺾어 낫지예?

112056 # 아이고 말도 못허지. 구덕으로 막 흔 짐씩 꺼경 오주게. 숲양 풀곡 조 천 장에 강.

112056 @ 고사리 손은 비벼릅니까?

112056 # 보비영 거꺼. 지금도 손차 먹는 사름은 육지사름, 제주 사름은 안먹어. 흔 줍 꺼경 영 보병 농곡 경혜. 계난 이제 이거 멧년은 경 하영 거끄지 안허여. 제 서에 쓸 거나 꺼경.

112056 @ 어디 강 고사리 꺾습니까?

112056 # 드르예, 곳 저끄디. 멀어 이디서도 고사리 꺾는 디. 저 반못 안트레 도 가고, 이디 먼물각 저끄디도 가고. 선홀이라고 고사리곳 벋디지도 안허고. 요새 엔 시에 사름이 빨리 와. 차로 오랑 막 시에서 오랑 거꺼불민 선홀 사름 하영 거끄 지도 못허여.

112058 @ 식계 때 올리는 밥은?

112058 # 메. 갱국.

112060 @ 제사 다 허여난 음식은 무신거엔 헵니까?

112060 # 음복 허염서.

112060 @ 음식허기 전이 퇴물?

112060 # 식계 퇴물.

112060 @ 제사 먹어나민 흔 쟁반씩 나눠 줍니께.

112060 # 반, 반. 반 췌젠. 반 테와야 주게. 반 테와 줘서. 이제도 떡 아니 먹넌 혜도 이제도 떡 흐뎡 싸고 적도 갈라농곡 혜영 반 싸주게. ‘반덜 싸불라’행. 다덜 짹 시로게, 흔 사름, 두 사름 행 다 아정 가주. “누게 짹시 가시냐?” 영허고.

112064 @ 묘제는 언제 지내는 거?

112064 # 묘제는 제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츄츄츄츄 행 가당 옷대 제스를 못허 거든게. 경허면 그 옷대 나시 묘제 허는 거. 건 막 췌당덜 막 모영. 것도 허는 날 다 이서 삼월 보름에도 허고. 시월에도 허고.

112064 @ 할머니네는?

112064 # 우리 삼월에 해. 췌디 우리 짐침인 잘 안햐서. 우리 친정엔 이제도 삼 월들에 꼭 허여. 옛날부터 우리 두린 때부터. 우린 저 도문중은 어디 저 동이서 허 고, 우린 이디 경 막 옷대 산이 엇어, 이디. 지금 다 제스 지내는 산베피.

13. 민간요법

113001 @ 기계충, 기계충, 이발충 머리에 헤영허게

113001 # 그거 아무나 안헤, 우린 없어.

113001 @ 그거 생기민 어떻 구완헙니까?

113001 # 그거 생기민 구완허기 어루와. 우리 소문만 들언.

113001 @ 무신거엔 곶아 그건?

113001 # 그것ㄴ라 이발충이엔 허는데, 머리에 그런 거 올른 사름보고. 경헌디 그거 올른 사름 고완허기가 어려와. 약 잘 엇어. 그 저 옛날 약 엇이난. 옛날은 그 먹으렌 헌 건 엇고 보미 그 산뒤 저난 이 채가 이서, 줌진거. 것ㄴ라 보미라고헤이. 보미 지름 다짱 블라난.

113001 @ 보미지름.

113001 # 보미지름 어떻게 다끄느냐 허면 저 이제 사기 대접 잇지. 그 대접에 험벽을 깔아가지고 험벽을 츠메가지고 이제 그레 보밀 낭 불을 살좌. 경허민 이제 천으로 영 감아가지고, 그레 보미를 거려낭 불을 때어. 숯불. 경허민 그게 풍풍풍 카가민 그 알르게 물이 나와. 것ㄴ라 보미 지름이라고 헤가지고. 그거 다짱 블르는 거 봐났어. 우리 그 즈끄디 가도 안헤.

113001 @ 산뒤 다까난 가루?

113001 # 보미라고 헤 것ㄴ라.

113001 @ 그시령으로 블른덴도 헨게만은.

113001 # 그시령은 저 부억에 이제 막 기실면 기시령이주게 그거.

113001 @ 득베긴 뭐?

113001 # 그것도 ㄴ쁜 거. 것광 그게 ㄴ쁜 거. 득베기가 병이지게. 그 이발충이 그거라. 곧지 말라. 우린 헤나도 안허고 아이덜신디도 거늘도 안헌다.그거 더루왕. 안 거늘여. 난 누게 놀레왕 환자 말 곶아가도 곧지 말렌 헤진다. 거느리지 말렌 그런 병말 곧지 말렌.

113001 @ 어떻 헐 거라? 다 병 말 물어볼건디.

113001 # 난 누게가 놀레왕 말이 맞는 사름이 왔다. 누게가 돌아갓다 허면은 뤼 뵁이 어떻고 허민 곧지 말라, 곧지 말라 헤진다.

113001 @ 멍심험으로예.

113001 # 응, 이건이 득베기영 그거는 이 동네 어떤 집이 한 사름 이서났다고. 머리가 열레기 ㄴ쁜 거 빌리도 안허고 그 사름헤난거 허도 안허여. 거 올르민 곶찌 기 어려와. 머리로 몬딱 메어져 가멍. 이젠 엇지.

113002 @ 독창, 독짓은 뭐?

113002 # 몰라 난.

113003 @ 비듬은 어떻게 구완허는고?
113003 # 비듬도 고찌기 어려와. 그것도 흔 가지 뺨이라.
113004 @ 얼굴에 버짐 피는 거? 못 먹으면.
113004 # 군버춤. 군버춤은 벨로 건 큰 뺨이 아니.
113004 @ 뭘 블라?
113004 # 그것도 흐뎀 지금사 그거 약 엇어?
113004 @ 옛날, 민간요법.
113004 # 옛날은 벨로 약 엇어. 거. 군버춤 난 사름 나. 경해도 건 큰 뺨 아니.
113006 @ 여드름은 어떻 허여?
113006 # 여드름도 나는 사름 나도 것도 건 큰 뺨이 아니고.
113006 @ 여드름은 어떻 허민 좋아?
113006 # 그것도이 그건 뭘 옛날은 뭘 무신 흔 말로 우리가 그 여드름 나는 사
름은 무신 뭘 요새사 거 나는 사름 이샤?
113006 @ 우리 아들도 여드름 납니다.
113006 # 건 큰 뺨 아니.
113006 @ 여드름은 여드름이엔 곱아?
113006 # 그것 ㄹ라 옛날은 낫싸움 낫젠 헤낫주.
113006 @ 낫싸움.
113006 # 경허단 이젠 여드름이라고 허는데 나가 우리 손지가 양지, 이디 저 딸
옛 손지가 코도 붉고 막 허니까 아이고 이거 미신 큰 뺨이엔 헤연 세종의원에 들앙
갓주게. 경허난 병 아니엔 여드름이난 어떻 안헌덴. 이제 판찍헤불언. 옥아가난 판
찍헤불언. 가니까 약도 안주고, 어멍넌이 그걸 대음헨 내부난 나가 막 어중간헨 코
도 붉고 얼굴이 붉은난 겐 나 세종의원에 들안갓지. 이제 시집갓저, 가이. 경헨이
들안 가난 병 아니난 즈들지 말앙 갓센 약도 아이주고. 겐 판찍헨 이제.
113007 @ 기미는 뭘 블르민 좋으코?
113007 # 지미 약 엇어.
113007 @ 할머니 기미도 엇다.
113007 # 기미 엇인디 늙어가민 무신 저
113007 @ 검버섯?
113007 # 그런 거 난덴 헤도 아직은 그런 거 이제 날테주. 늙어가민.
113008 @ 얼굴에 막 주근깨 난 아이덜 이수게?
113008 # 프리춤. 요새 프리춤도 가깝실 걸. 요샌 기술이 좋으니까.
113009 @ 손에 이런디 막 난거. 말촉?
113009 # 말촉. 말촉도 그거 낫당 어느 순간 엇어지는 중 몰르게 엇어져.
113009 @ 어떻 헤사 엇어지는 게 아니고?
113009 # 옛날은이 말촉이 손에 잘 나. 경허민이 거미줄 엇샤? 거미줄. 그 세백
이 거미줄에서 몬저 난 거. 이젠 영 심영 팽팽 감앙 놔둔덴 허영. 경헌디 경허는 사

름은 허여도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잊어지는 중 몰르게 잊어져. 말쭙 낫당. 손등어리에 만쭙 난 사름 하. 어느 순간 잊어져. 잊어지는 중 몰르게.

113009 @ 요샌 안 나예.

113009 # 응 요샌 안 나. 옛날은 손등어리에 난 사름 하낫저. 경허단이 그런 사름도 어느날 갑자기 잊어져, 말쭙 낫당.

113010 @ 눈에 나는 거 이수게 다래끼?

113010 # 아 거 다래끼. 요새엔 다래끼엔 허주만은 옛날은 우두께 난 건 들렀, 아래 건 개썸이엔도 곧고. 건디 들렀은 나면 방법은 이제 약이 없어이. 것도 초담 난 때 더운 밥헤영 똑똑 놀르민.

113010 @ 더운 밥?

113010 # 응, 확하게 잊어져불어 그게. 초담 흐뎡 근지러울 때 더운 밥 허영 올려, 올려. 경헌디 들렀은 이제 초담 웃두께 나는 건 발창에다가 ‘천평, 지평’이엔 쓰는 방법이 있어. 우리 그거 아이덜 경헤가민 써줘낫어. 나. 경헌디 어느 순간 것도 잊어져. 것도 얼굴에 표적이 나렌 헤사 허주 경 안허민 어떻 안헌다, 그런 거. 요샌 병원 존 때난 강 약 흐 방울만 상 먹어불민 싹 낫어불고.

113011 @ 눈 별경허게 충혈된 건?

113011 # 그것도 병원에 강 안과에 가민

113011 @ 옛날 병원이 없으니까.

113011 # 게메, 병원이 없다해도 그런 것도 경허당 낫은 사름이 하지 경 것이 병이 아니.

113011 @ 도라움은 뭐?

113011 # 도라움. 병, 이 눈에 눈 조금 깜빡깜빡허는 사름 ㄹ라 거 도라움 걸렸젠 곺아난. 들렀은 갑자기 낫당 잊어지는 거고 도라움은 흐뎡 오래가, 건. 오래 간다고.

113011 @ 눈 별경헌 거 아니민 깜빡깜빡허는 거?

113011 # 깜빡깜빡허민 저사름 눈에 도라움 걸렸젠 곺는 거 들어난.

113012 @ 이 알리민?

113012 # 니 알린 것사 어떻 니 아픈 거주.

113012 @ 뭐 허민 흐뎡 녹이는 거 잊어?

113012 # 녹이는 거 옛날 박하가 잊어낫어. 박하. 박하 기름 이제 농면은 그 병원 엇인 때.

113012 @ 박하지름?

113012 # 응 지름 빠는 디가 잊어낫저, 옛날. 박하지름 썩에 조금 헤당 놓민 녹여 것이 독허여이. 또 이제 제피. 제피 먹으민 이제 니에 충 엇넌 허영 제피 주로 먹으민 좋아. 제피 프는 거 엇샤게?

113012 @ 예 거 입에 물영 이서? 먹어?

113012 # 거 먹으민 좋아, 송키로.

113012 @ 송키로. 자리물회할 때 놓는 거 아니?
 113012 # 자리물회에 그거 꼭 놓민 좋고. 그것도 송키로 푹푹 웬장에 하나 혼
 가지씩 먹어봐, 맛좋아. 우리 저디 낭 이서.
 113012 @ 그게 이빨 알릴 때 좋아?
 113012 # 니빨에 충 잇나고 그것이 먹으면.
 113012 @ 아 이빨에 충이 안 생긴다고. 헛바닥에 무신 거 나는 거 이수게.
 113012 # 그건이, 순간적이주 그런거.
 113013 @ 혀에 뭐 난 건 뭐엔 곶아?
 113013 # 셋발 샷젠 허주게.
 113013 @ 셋발 예?
 113013 # 셋발 샷젠 허는디 것도 순간적이주, 그 이런 이 중요헌 디는 사람이
 병이 경 하영 아이 걸리거든.
 113013 @ 성가십니께. 어떻 허민 흐뎡 낫을건가?
 113013 # 성가셔도. 약 잇어. 요샌 병원이 시나까 것도 가민 잇지만은 옛날에
 경 흐당 좋아, 좋아.
 113014 @ 마누라는?
 113014 # 그건 게 옛날 약잇인 때니까 열이지, 열.
 113014 @ 열나는 거예. 아이덜도 헤낫주예?
 113014 # 허주게. 그런 뎨이 부정 탄 사름 못 들어오게 솓 매어. 부정탄 사름은
 들어오민 이제 좋기 날 때도 그 부정 탄, 옛날 법이 부정 탄사름 오민 그것이 열이
 나, 열이.
 113014 @ 무신 거 곶어? 솓?
 113014 # 스끼 매주게, 올레에. 들어오지 못허게. 이 사름이 직허영 누게 와가민
 오지말라 영 허지 못허니까 방법으로 솓을 매는 거라.
 113014 @ 솓이파 스끼파?
 113014 # 솓게, 스끼엔도 허고 솓이엔도 허고.
 113014 @ 어딘 가난 웬솓, 노단솓 허던데.
 113014 # 아 그거는 이, 이그런 때는 웬 솓 안 매.
 113014 @ 아, 웬솓은 어떤 때 매는 거?
 113014 # 웬솓이 또 깰는 게 딱난다. 웨로 깰는 게 잇고 늑다 깰는 게 이서. 그
 웬솓은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때 병원이 잇어부난이 어디 이제 믿을 곶이 잇지 안허
 냐? 신이나 돌아다 가지고 뭐 일을 냉겨나면은 신을 방비허기 위허영 웬솓을 매는
 거라.
 113014 @ 헤난 다음에, 심방 돌아당 헤난 다음에?
 113014 # 웬솓을 매는 거고 그렇지 안헌 뎨 웬솓 안 매.
 113014 @ 보통은 웬솓 안 매는 거파?
 113014 # 안 매, 안 매. 안 매어. 그런 그 뭐 현 때도 웬 솓 안 매어. 그 사름

방비도 웬숫 안 매어. 또로 애기 난 때도 그 고치 돌아 매지 안허나? 거 웬숫 안 매어.

113014 @ 건 웬숫 안 매어.

113014 # 그냥 숫 곱닥허게 꼬양 매주. 고치 돌아매곡 숫 돌아 매고. 그 웬숫 안맨다고.

113014 @ 웬숫은 무사 매는 거라 케민?

113014 # 신을 방비.

113014 @ 귀신을 막는 게?

113014 # 우리도 들은 말이주게. 허여 보도 안허고 들은 말. 우린 뭐 들언 헤봐서?

113015 @ 마누라도 큰 마누라 죽은 마누라 이수게.

113015 # 게메, 옛날게 열. 신이 잇다고 해서 막 정성을 허지. 똑ㄴ치 정성을.

113015 @ 무신거 허민 안 돼여, 마누라 혈 때?

113015 # 게메 겨난게 부정 탄 사름 못오게 방비. 집이서 이 돼지고기나 그런 나쁜 거 먹지 안허고.

113015 @ 돼지고기 먹지 안허고, 생선은?

113015 # 생선도 굽지 안허여. 냄새 나는 거 굽지 말아사. 정성을 해야돼여. 경헤낫주게 옛날에. 경허당도 열 버쳐서 가는 사름도 잇고 그렇게 헤 낫주게. 경허단 그루허젠 예방 주사를 맞지 안헤시냐?

113015 @ 예방주사 맞지. 옛날은 그게 엇이난 경행덜 하영 죽엇주예?

113015 # 죽엇주게 열로.

113016 @ 쫓터는 벙은?

113016 # 아 거 곧지 말라, 우리 물론다. 그런 거 곧지 말아. 그런 더러운 거 곧지 말아.

113017 @ 귀영 붓는 병이수게? 불거리.

113017 # 아 거 불거린 열, 짓도.

113017 @ 불거린 무신거엔 곶아? 꿏똥치긴가?

113017 # 응 경 곶아난디 그것도 그 열로 허니까 그것도이 막 위험허여근앵이 그 아이가 뭐허는 사름은 헤도 순간적으로 낫아, 짓도.

113017 @ 어떻 허민 열 내리고 좋는고?

113017 # 엇어, 그냥 놔두민 좋아. 불거리ㄴ라 꿏똥치기 낫젠 허주게, 이디 아프민.

113019 @ 똥떼기는 어떻 허민 낫어?

113019 # 똥떼기사, 저. 어떻허민 낫아게? 목욕 헤불고 시원허민 낫지똥. 똥떼끼 까짓거 벙이냐? 아이고, 더웁 똥떼기 남저 영 허영 좋아불주. 거 무신 똥떼기 병이라.

113022 @ 종기나 허물 난 때.

113022 # 게메 종기 난 때 옛날은 약이 엇어부난 그 막 왈랑왈랑 이제 저 종기도 이제 쪼글락 허영 영 딱지 입는 종기가 있고 그냥 민들엇이 낭 열이 난 땀 오래지 안허영 돌늑물, 돌늑물 낱 뺏아가지고 소금 낱 뺏아가지고 딱 처메면 것이 열제행 그냥 엇어져불어, 삭아져불어. 우리 어린 때 그런 거 봐난.

113022 @ 딱지는 뭐엔 곱아?

113022 # 허물 봉오리게. 딱지 생긴 병은 건 큰 병이 아니고, 큰 병이 아니라. 그 종기도 돌늑물 처멩 안 낮은 건이 위험헤여, 딱지 엇은 거. 그건이 첨 옛날 그 의원들신디 가면 그거 영 쟈나 어떻 영헤불어야 좋지 그것이 오래면, 것이 큰 종기주, 딱지입은 건 소소한 거.

113022 # 무니냥은 이제 이 거품을 헤가지고 이 쪽 나면은 부짚도 허고

113022 @ 뭐 나면?

113022 # 쪽 나근에 그.

113022 @ 종기?

113022 # 응, 종기 나근에 헐 때. 이 무니냥 불리를 헤다 가지고 뺏아가지고 처매면 막 물 짜.

113022 @ 불리 아니민 거죽?

113022 # 거죽도 허고 불릴 못 파, 잘. 거죽 허여.

113022 @ 거죽으로.

113022 # 경허곡 이거 딸령 먹음도 허곡 옛날부터. 옛날부터 약이라 이건 약. 경헌디 그 췌낭 요새 무신 뽕이엔 헤니 것그라 뭐엔 헤니? 췌낭, 췌가시.

113022 @ 예.

113022 # 그것은 약에 췌덴 말 아이 들어난디 요새는 걸 큰 약으로 허더라. 건우린 췌가시 열매엔 허영 간절미라고 헤가지고 이제 팔렐 나민 익어 그계, 경허민 막 타 먹어났주게. 강뭇디나 것도 불 부떠불민 아이 뒤후난 강뭇디는 불이 안 부떠이, 옛날.

113022 @ 강뭇디가 어디?

113022 # 물 곱르는 통이 이서. 이 드르에 가면, 이 자연으로 그냥 이 저 눈밭모양으로 그런 강뭇이라 헤가지고 비와난 땀 물이 그뚝허고 오래 물 앓는디 그 췌낭이 으라개 나. 경허민 이제 그디가근에 허민 그 간절미가 올라근에 익나게. 익으면 잘 익은 건 돌아. 흐쫂 달 익은 건 맛이 엇고. 경허멍 허영 원 그걸 아니 헤난디 요새엔 그걸 큰 약으로 헤라.

113022 @ 간절미가 익으면 별경허여?

113022 # 응 익으면 별경. 별경허고 막 잘 열주게, 잘 열아.

113022 @ 틀허곤 따난 거주예?

113022 # 틀 이제 봐저? 틀은 산고지베끼 엇인디, 할로산에.

113022 @ 제주대학교에 틀낭이 이수다.

113022 # 제주대학교에 이서? 어떻헌 말고?

113022 @ 일부로 싱것주게.

113022 # 틀은이 소곱에 씨 혼 방울 딱딱허게 셔노민 그거 먹어서 똥 싸민 도새기 육헌덴 헤낫주게.

113022 @ 도새기가 무사 육해?

113022 # 거 씹젠허민 바싹바싹. 경헌디 그 틀낭이 잇구나, 타먹어?

113022 @ 안 먹어.

113022 # 맛 좋는디, 거. 고만시라. ㅁ실 익지? 시월들에. 시월들에 익으면 우리 두린 때 할로산에 베피 엇어부난이 섹유통, 그거 옛날, 저 요새에도 섹유폍 엇샤게? 그거 이젠 허영 영 우들랑 그거 정강 그레 틀을 타 놔. 지아정 와, 까지카분덴. 지영왕 이제 그 사발로 뒤어근에 혼 사발에 쓸 혼 사발에. 뭇헌 사름덜 강 타와. 경허민 이제 흐쓸허민 틀 타레 가온 하레비 허대듯.

113022 @ 건 어떻헌 때 쓰는 말이파?

113022 # 이제 틀을 타레 가면 그 틀 탕 오민 영헨 타고라 정헨 타고라 말이 하난 모양이지. 경허민 무스거엔 누게 말 하영 곶아가민 ‘아이고 저 틀 타게 가온 하레비 허대듯’. 경 헤영 곤주게. 말 하영 곤는 사름 보고, 경헤영 웃어. 동글동글헌 게 이제 발깡게 익으면 요만씩허여 요만씩 크도 안허여. 그거 이제 탕왕 이제 틀 타온 사름이 것에 지영 왕 사발로 뒤영 혼 사발에 쓸 혼 사발.

113022 @ 경 비싸?

113022 # 경허민 그 섹유통으로 흐날 탕 오민 게도 쓸 혼 말쭙 바꾸지. 너 뒤쭙 바짜. 틀은게 쓸ㅁ찌 영 펜직펜직 아이뒤영 흐쓸 모록허게 쥐불곡 허민 거 쓸 혼 말베피 더 바짜지는냐게? 게 우리 바짱 먹어낫저게.

113022 @ 걸로 쓸 도 바짱 먹어?

113022 # 응, 폴레 와, 그거, 쓸 바꾸레 와.

113022 @ 다 데껴부는디 지금은.

113022 # 게메 나 제주대학 신 중 알아시민 나 타먹으레 가컬. 언제 익건 곶으라 나 타먹으레 가켜. 옛날 틀도 먹어낫저만은 틀이 어디 가신고 경헨 산고지 이제 도 틀이 신가 경만 생각헨주. 거 할로산에베피 엇어. 이 근처엔 엇어. 할로산에 가근에 허민 밤 장 그 틀을 탕 느려오주게. 이디서 할로산 가젠 허민 오죽 머냐? 경허민 밤 자근에 어떤 땀 틀 타당 털어정 사름이 죽넨 헤라. 거 밤이 강 줌 자민이 그 털어정 막 믁스왕 어떤 사름덜 벃헨 베피 안 가낫어.

113022 @ 틀 타레 읍센 전화해사큰게.

113022 # 타레 가주레. 어떻게 이젠 올암시니 봄도 허고. 우리 봐나도 안헨서. 그 틀낭이엔 허연 선홀고지 하나가 이시난 우리 아버지네 ‘저거 틀낭 아니가 ’영허영 ㅁ리쳐쥬 봐난디. 경헨 게 틀 탕 오민 이제 쓸에 바짱 주민 먹어 낫주게. 경 이제 틀 먹어근에 똥 사민 도새기가, 그땀 집집마다 질루지 안헨샤게? 경허민 틀 먹영 도새기 통시에 가민 바싹바싹 허영 도새기 육헌덴, 그 씨 씹어 먹젠허민.

113022 @ 도새기가 못 씹영?

113022 # 틀 먹영 통시에 가민 도새기 육헌텐 경 골아난. 씨차 막 먹영 느리와 불민 사름덜은. 그 씨도 이젠 먹지도 안 헐 거여. 씨 틀 하나에 아메도 씨가 혼 방 울베끼 엇일거라, 거. 우리 두린 때 먹어난.

113024 @ 손톱에 영 툃아불민 막 붓곡 험니께?

113024 # 손 알린 거. 거심, 거심. 그것도이 하영 헤사지 이제 거심도 안헌다게 장갑 썩 일헤불곡 허민 옛날 장갑도 아이 찌곡 현 뎀 거심 많이 일어. 거민 아프주 게, 아파도 어떻 안허여. 아파도 그디 물이나 들영 허민 거 알리는 사름은 알려도 어떻 안허고게, 거심 ㄴ든 거. 알렘젠 허주게. 생손 알렘젠 허영. 그것도 약 엇인 때 라부난 마농지시 짠 것도 처메고 뭐 허다근에 좋주.

113024 @ 마농지시?

113024 # 짠 거. 소금도 처메고 약 엇인 때라부난, 방법이 엇주게. 방법이 엇어. 이제 ㄴ뜨민 주사강 맞아불민 좋주만은 방법이 엇어. 옛날 사름덜은 고생헛주. 장갑 아이 썩 하간 일헤보라. 이디 거심 안 일크냐게 손가락 마다게.

113020 @ 부스럼 말고 종기는?

113020 # 그 ㄴ뜨민 거. 종기 ㄴ라 부스럼 낫젠 험주게. 허물 낫젠 허는게 부시럼 이주게. 요새사름덜은 종기여 무시거여 해도.

113021 @ 헐리는 어떻 험니까?

113021 # 헐리 낫젠, 그 부시럼 낫당 그차지민 헐리 아니가? 헐리 낫젠.

113021 @ 부시럼 그차지민?

113021 # 응, 솔 이디 무시걸로 허영 헐리 나민게. 어디게 솔이 만약에 부시럼 낫당 좋지 안험 뉘허민게 헐리 낫젠 안허느냐게.

113021 @ 그뎀 어떻 허민 좋아?

113021 # 그 약 이젠 엇어졌어. 주리치기엔 약이 그 헐리 난디 불르민 곧 아무 는 약이 잇는데 엇어졌어.

113021 @ 주리치기?

113021 # 옛날 드르에 나낫주게. 주리치기라고 헤가지고 이제 못봐. 나 드르에 안 뎅겨불고. 이제 테역밭디 그게 낭 소름소름 이제, 저을 들민 거 헤다근에 낫당 솔아근에 춤지름에 개영 불르민 단작 좋아. 춤말로 그거.

113021 @ 헐리난 디?

113021 # 응, 건디 그 약이 이제 몰라, 없어졌어. 우리 전이 옛날은 헤당 놔뉘난 디 이젠 원 못 봐, 못 봐.

113025 @ 두드러기 난 딴?

113025 # 두드러기도 그거 어떻 허당. 거 미시거 잘못 먹영이나 어떻 허영 거 두드러 낫당도 어떻 안허여.

113025 @ 두드러?

113025 # 응, 흐쉴 허민 두드레기 낫젠 해도 어떻 안허여.

113025 @ 두드러이파, 두드레기파?

113025 # 정도 허곡게 곤는 게 그말.

113028 @ 화상 입으민

113028 # 덴 거? 덴 거는이 심허게 덴 건 춤지름이 쥘. 지름 물지름 불른거 허고. 요새 얼음 어시냐? 얼음헤영 탁 부찌민 좋고게.

113028 @ 옛날게 옛날.

113028 # 옛날 춤지름 하영 주로 블라. 블르민 좋아.

113028 @ 화상에?

113028 # 응, 화상에.

113029 @ 계민 추워근에 발 동상 입으민.

113029 # 그건 방법 엇어. 것도 그냥 그대로 시민 낫어.

113030 @ 감기에는 뭐가 좋아?

113030 # 감기에 미신 먹는 게 좋을 말고게?

113030 @ 미깡 차?

113030 # 이 풀초가 핫주만은 필요없어. 이제.

113030 @ 옛날에게.

113030 # 옛날은 게 저디 저 소웁이엔 풀이 이서이. 그거 이제 허영 썬 그거 막 썬.

113030 @ 빨리?

113030 # 소웁이 빨리도 잇고 그냥 낭도 이신디 그거 파다근에 딸려 먹나게.

113030 @ 빨리를 딸려, 아니면 낭을 딸려?

113030 # 낭도 딸리고.

113030 @ 고찌?

113030 # 고찌 낱 딸려. 거 먹넨 헤 낫주게. 두루에기 빨리도 먹곡게. 감기에 딸령 먹넨. 미깡 헤영 나스미깡 ㄱ뜨거 헤영 딸령 먹고. 땃유지 딸려 먹고. 약 엇이난 헤볼 수 엇주게. 감기에는 오장을 드뚝허게만 헤야 것이 낫이니까.

113030 @ 곤죽에 패마농 썰어낱 허는 죽은 무신 죽?

113030 # 패마농 썰어낱 감기 때에 드뚝이 행 먹음으로 패마농 낱.

113030 @ 감기때 약 엇넨 헨게 만든 이신게.

113030 # 맛중주게, 맛중야. 예에 무신 거 약이냐? 약이라 것도?

113030 @ 무사 패마농 놔?

113030 # 패마농은 뭘 송키 엇이난 거 죽에 놓민 맛중주. 무신 거 약이냐? 도뚝허게.

113030 @ 흰죽 안 먹고 패마농 놔?

113030 # 흰죽은 잘 먹는 사름은 먹고 안 먹는 사름은 아이 먹지게. 겨니까, 패마농 옹고 소금 농곡 허민 아무나 먹주게.

113030 @ 무신 죽이엔 곤는 말 엇어?

113030 # 엇어, 엇어. 흰죽은 이제 패마농도 아이 농곡 현 거 그냥 썬 거ㄴ라

흰죽이고, 그건 이제 그냥 죽으로 먹고, 거베피 무신 약이 이서. 이 오장에 뱅이난 거 자연으로 좋아야지, 약이 없어.

113031 @ 기침할 땐 무신거 먹으면 좋아?

113031 # 케메 그거베피 엇주게.

113031 @ 아까 그거 감기 걸렸을 때 허는 거?

113031 # 그게 감기주 뭐라. 거.

113031 @ 감기는 열도 나고 허주만은 기침만 많이 허는 애기는 뭐 먹이는지?

113031 # 그거 옛날은 물애기덜 옛날, 것도 옛날이주, 거 멕일 거냐?

113031 @ 뭐?

113031 # 상충이라고 헤가지고 벌레, 벌레.

113031 @ 벌레? 어떤 벌레?

113031 # 벌레도이 저 무니냥 상충, 뽕나무 상충 그런 거 허여다근에 벌레라, 큰 굽베렝이 닳은 거.

113031 @ 굽베렝이 닳은 거?

113031 # 응 똑 닳지게. 그거 헤다근에 까가지고 이제. 거 오일장에 막 풀, 이제 도 풀암실 걸.

113031 @ 굽베렝이는 풀주게.

113031 # 굽베렝이 말양 상충도 풀암실거라, 시방. 우린 안 멕여반.

113031 @ 어떻 멕여?

113031 # 그거 이제 짜어가지고 그 영 행 소굽에거 멕여.

113031 @ 그냥 생으로?

113031 # 응, 애기. 그거 멕이민 감기 낮넨허멍 어린애기덜 그거 막 사명덜 멕여났저. 막 사명덜. 우린 추접허영 안 멕여. 더러왕. 또이 그거 헤당 픈는 사름 막 하. 요 어는제ㄱ장 풀암더라.

113032 @ 딸꼭질.

113032 # 툄국지 약 엇어.

113032 @ 놀래면 멈춰? 우린 경허는다.

113032 # 경도 헤여. 경허여.

113033 @ 코피 하영 나민.

113033 # 것도 약 엇고.

113033 @ 썩이라도.

113035 @ 이런디 명얼 사민 그거 뭐엔 곶아?

113035 # 명얼 사는 거 무신거라게.

113035 @ 늦인들?

113035 # 그렇게도 곶아. 명얼 사는 게 맞아.

113035 @ 늦인들이엔 말도 들어반?

113035 # 들어반. 것도 곶으메 경.

113036 @ 설사 하영 헐 땀?
 113036 # 설사 하영 해도 약 엇다게.
 113036 @ 정로환 맥여?
 113036 # 정로환 저디 잊저만은 거 먹어봐도 소용 엇어.
 113036 @ 계민 어떻 허여? 설사헐 때. 병원 엇일 때.
 113036 # 방법 엇다게. 세월이 감시민 좋아, 것도. 음식을 잘못 먹던지, 어떻게 해서 설사가 난 거 아니가. 그거 건디 그것이 츠츠츠츠 자연으로 좋아야 허지 그렇지 안허영 약이 엇다고.
 113036 @ 죽이라도 썰 맥여살 거 아니?
 113036 # 죽도 썰 먹고 허주게, 그런 때. 약이 엇고 허민. 경험시민 세월이 가가민 좋주게. 하루 이틀이나 사흘 해가민 좋아.
 113040 # 속 막으민 좋아. 속베끼 약 엇어. 또이 이디 이제 우리가 미깡이라도 타다근에 ㄱ새로 손을 다치지. 속이 쥘. 피 개는 딴 속이 일등. 속베뀐 엇어. 속 부찌민 피가 가되불민 그 대일밴드도 부찌꼭 연고도 블라도 좋아.
 113040 @ 먼저 속으로 해야돼?
 113040 # 응, 먼저 속으로 해야돼. 나 밧디 속 흔폐기 싱거서.
 113040 @ 이디 마당에도 속 하선게.
 113040 # 켜디 이디도 한디 이디 오길 못 츠지게, 밧디서.
 113042 @ 뱀 물릴 땀?
 113042 # 거 물릴 때. 것도 약 엇어.
 113042 @ 독을 빨아?
 113042 # 빠나마나 것도 타는 사름은 허고 안 타는 사름은 어떻 안헤. 난 안 타.
 113042 @ 진짜? 뱀이 조끄디 안 오는구나?
 113042 # 아니 왕 물어. 세번이나 물언.
 113042 @ 계도 아무측도 안헐?
 113042 # 아무측도 안헤.
 113042 @ 뱀은 뱀이엔 곱아? 다른 말 이수과?
 113042 # 진거. 진게 쥬왓젠.
 113042 @ 진거를 세 번이나 쥬와신디 멀쩡헤불언?
 113042 # 멀쩡헤불언. 그거이 타는 사름 막 타. 난 어린 때 감낭 아래 감 주서 먹으레 아으덜이영 막 갖거든. 가니까 이만헌 거 그냥 여기 쥬와불언.
 113042 @ 아이고.
 113042 # 경허난 집이완에 경 헛젠 허난 막 겁난이. 계도 아무통도 안헐.
 113042 @ 다른 사름은 뱀 물리민 어떻 헌덴 험니까?
 113042 # 드르에 덩기단에 그냥 쥬와불언게. 경헤낫저게.
 113042 @ 다른 사름덜은 어떻?

113042 # 다른 사름덜은 막 붓어.
113042 @ 계난 계민 어떻 해삽니까?
113042 # 그거이 저 방법은 거 잘 안허여, 사름덜이. 불르는 건 게 무신 약덜이
나 어샤게, 요새 요소비료도 불른다, 무시거 현다 중간엔 허여라만은.
113042 @ 더 옛날에.
113042 # 더 옛날에도 약이 엇어. 저 췌 이제 귀가지고 그 췌물을 그레 덩게시
리 착착 흘치면 그거베끼 약 엇어.
113042 @ 그냥 이런 췌?
113042 # 응, 호미 현 거나 뭐 그런 췌를 구어가지고 드뚝하게 해서 그레 탁탁
흘쳐. 그 거 췌운더레.
113042 @ 췌 녹을 정도 뜨거우민.
113042 # 췌 드뚝하게 구워가지고. 겨민 그 물을 이제 그레 착착 췌로 흘치면
췌물이 그레 착착 흘치거든. 그것가 췌 약이라.
113042 @ 췌를 막 뜨겁게 해냥, 물을 이레 비와, 물이 지나가명 흘치는 거?
113042 # 응, 그레 흘쳐. 췌운 더레. 그것이 췌 큰 방법이라.
113041 @ 모기 물린 딴 어떻게?
113041 # 모기 물린 디 무신 약이 이서게?
113041 @ 춤 블라?
113041 # 요새 약 엇이나? 연고 불르주.
113041 @ 옛날에.
113041 # 옛날엔 약 엇어부난 내불민.
113043 @ 벌.
113043 # 벌 췌운 것도 약 엇어. 붓엇당 낫주.
113043 @ 애기 오줌 안허여?
113043 # 안허여.
113043 @ 할머니는 아무충도 안해도게 늙들은 아프주게?
113043 # 벌은, 주냉이 물민 붓어.
113043 @ 계민 주냉인 어떻게?
113043 # 주냉인 아무충도 안해.
113043 @ 다 아무충도 안허덴.
113043 # 아 붓엇당 좋아불주게.
113043 @ 흐뎡 가라앉히젠 허민게.
113043 # 시간이 돼민 다 낫아.
113044 @ 옷 올른 덴 험니께?
113044 # 아 그거 이제 선흘 고지 그 낭이 이서낫젠 허는디 난 몰라 잘.
113044 @ 칠낭에 칠 올르민 어떻 해야돼?
113044 # 건 득 먹넨 현다.

113044 @ 독을 먹으라고?
113044 # 독. 독 먹넨. 그냥 독만 숲양 모욕도 막 심헌 사름은 모욕도 헌텐 헤라.
113044 @ 필로?
113044 # 독 숲양.
113044 @ 독 숲은 물로?
113044 # 응.
113044 @ 닭하고 옷이 뭐가 있는 모양이다예?
113044 # 경헌 생이라. 거 말만 들어난.
113044 @ 옷도 여러 종류파?
113044 # 으라 질이 아닌디 거 올르는 사름 벨로 엇어.
113044 @ 옷냥, 본지방, 북냥 이런 것도 다 옷 올르는 거?
113044 # 그 저 본지도 그 칠이나 비슷해. 본지 올르민 근지러우멍 허고 그저 칠은 흐끔 저 더 두드레기가 많이 난텐 허여.
113044 @ 북은?
113044 # 그게 그거주뵤. 어디 북이 셔? 본지방도 올르는 게 싯고 안 올르는 게 셔.
113044 @ 어디 부딧청 명들민?
113044 # 명든 것도 놔두민 낫주.
113044 @ 명든 건 그냥 명이엔 곱읍니까?
113044 # 아 거멍께게 명들엇젠 허주게.
113044 @ 독새기 안 둥그려?
113044 # 것도 놔두민 세월이 가가민 좋아볼주, 독새기 둥그려 봤자여게.
113039 @ 체헌 거?
113039 # 체가 내어사주.
113039 @ 어떻 허민 뵤여? 집이서 임시로. 바농으로 찢르곡 허는 거라도.
113039 # 아이고 거 필요엿다, 뭐 그거 헌 것에. 아니 여기 저 체허민 이제 손가락 저 바농으로 침주는 사름덜도 그렇게 허면은 이제 쭈욱허게 찢르민 ‘아이고’ 허게 아플 거 아니가? 겨민 느려가는 거라.
113039 @ 아이고 허는 소리에 느려가는 거라?
113039 # 그거 베끼 방법이 엇어. 침 준 것에 이디 속에 가냐?
113039 @ 내가 요즘에 자꾸 체헬수다.
113039 # 건 체 내사 뵤크라.
113047 @ 발목 빠거나 허리 빨 때 뭐 허민 좋읍니까?
113047 # 아 그거, 생주왕이엔 헌 약이 이시네, 생주왕.
113047 @ 생주왕이 뭐?
113047 # 생주왕 거 안 봐난. 풀암네, 저 동문시장에.

113047 @ 생주왕이 어떤 거? 약초?

113047 # 불리, 불리. 생주왕이라고 허는 약이 이서. 불리가. 이 다쳐근앵이 어디 강 탁 패영 꺾사 멩들곡 이런 얼굴에는 잘 못 부찌지만은 탁이 어디 패어분 건 단작 좋아. 그거 부찌민. 거 처매민.

113047 @ 생주왕?

113047 # 생주왕허고 치지허고 서꺼서 뺏아가지고 이제 그레 막걸리허고 모뎀 꺾루나 밀꺾루나 행 떡 멘글앙 탁 부짱 놔두민 시커멍허여, 그게. 시커멍허영 피독 올라불민 좋아. 그건 좋메 첨. 난 이 허린 하영 다쳐부난.

113047 @ 허리 뺏 때도 이렇게?

113047 @ 응 그거 좋다. 생주왕 막 프느네게. 동문시장 안에 그 약방에 약덜 낡 풀지 안허느냐게, 불리덜.

113048 @ 쓸개풀로 빼엇을 때 안해?

113048 # 아 쓸갯잎. 것도 헤여.

113048 @ 빼엇을 때?

113048 # 응, 발 뺏 때도 그거 허고 열 날 때도 그거 쓸갯잎도 허여. 꺾사 돌늑 물 글아주지 안헤서, 돌늑물. 돌늑물허고 쓸갯잎 그런디 허영 처매민.

113048 @ 열 날 때도 허고 뺏 때도 허고?

113048 # 발 뺏 뎀 생주왕.

113048 @ 생주왕이 쥘이고 엇이민 쓸갯잎으로?

113048 # 쓸갯잎도 허고 돌늑물도 허고.

113049 @ 귀에 물 들어가민 어떻 허여?

113049 # 방법 엇어.

113049 @ 따뜻한 돌에 귀를 대나 한쪽 발로 뛰든가 안해?

113049 # 경헛젠 물이 나와? 아니 꺾 든 뎀 나오지게. 경허주만은 오래민 나오 지 안허주.

113049 @ 오래민 어떻 헤?

113049 # 오래민 아프당 좋주 어떻 허여. 귀 막으렌 안헌 사름은 어떻 안헤여. 것도 스주에 귀막으렌 헤야 막주. 경 안허민이 나이가 만허영 그 때가 뺏민 귀막는 건 흘 수 엇고. 젊은 때사 귀도 막으렌 헤사 낫주.

113050 @ 무즙은?

113050 # 아 무즙, 약 엇어. 무즙이 요새 약이 천지라도 스뎀 좋지 안헌다게. 무즙 그냥이.

113051 @ 습진은?

113051 # 습진이나 거나 비슷헌 거주게. 습진도 꺾롭고 저 무즙이나 비슷허여. 일본말론 니스미시라고 허여이.

113051 @ 니시미시?

113051 # 이 무즙 보고. 물충이라고 현 말이주. 니스미시라고. 물충이라고 현 말

이라.

113052 @ 까치눈. 발이 일로 영 헤싸지는 거.

113052 # 아 발 눈 텅. 것도 약이 엇주만은 요샌 약이 좋난 것도 좋아. 니스미 시 걸리민 경 현다.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죽을 뻔했던 일도 있지예?

114001 # 나도 죽을 뻔 몇번 넘었저, 몇 번 넘어서. 계난 나 죽어붙어시민 즈손 덜 안 날 걸 행 어떤 땐 막 웃느네게. 나가 죽을 뻔을 몇 번을 넘언, 우리. 어른 덜 이영ㄴ찌 무시거 함덕 그 스삼스건에 선홀은 이제 산촌 부락이난 불을 다 부껴붙어 나세. 계난 집이 엇이난 함덕 느려가서. 식구가 다 함덕을 느려가서, 동싱들 다 데 리고. 겐 느려간 이제 불을 숨젠허난 검질이 시냐? 빈 막, 시월 음력 시월에 그름에 느려갔는데 눈은 매일 장쳐오고 비오고 검질이 엇은 거라. 우리 선홀 저 함덕에 이 모님이 딸 흐나허고 시비가 엇이 사는 디 가서. 간디 방은 두개 이시니까 뭐 사는 디 검질 엇언 밥을 행 먹어질 말가? 불쏘시개 엇언.

114001 @ 쟁 어떻헐?

114001 # 이제ㄴ찌 신문지가 시냐? 어디 종이 흐 장이 시냐? 계난 이제 나가 어른덜이 선홀 오켄 허난 눈은 막 묻은디 완에 이젠 검질 두 무께밀 지언 간 거라.

114001 @ 두 무께미를?

114001 # 응, 베로 그 어른들이 완 지와 주니까, 나가. 흐 열여섯 쉰 땐가? 나 모르크라. 경헐 이젠 간디 이젠 눈 막 오고 난 원 뒷날도 올 생각에서, 나가 동싱, 우리 셋성님은 스삼사건에 죽어분 때라이. 나가 쥘 옥은 아이라. 우리 동생들 어린 아이덜 초롱초롱 이신 땐디. 겐 우리 아버지네는 무서와서 못 오고, 난 이제 어른덜 이영 왕 가는디 겐 지언 간디 뒷날은 그 어른덜은 뒷날 왓주게. 오난 그자 함덕 가 름 나오자 말자 죽여붙언. 그 어른덜 너이. 계난 나 그날 와서민 죽을 거. 여지엇이 죽지.

114001 @ 아이고.

114001 # 경헐디 이젠 그 어른덜은이 애기 너오누이 내붙어된 죽은 사름, 서오 누이 내붙어된 죽은 사름. 그 아이덜이 게도 다 성장허연 켜. 요작이도 그 애기 너 오누이 내분 막내아덜, 아덜이 이제 흐 칠십 멧 뵈주게. 겨난 이제 일본 갓단 오고 북촌 살암서 그 아이. 그 누난, 나보다 흐 나 알에 누난 죽어붙고. 너오누이 내붙어 된 죽어붙언 죽은 집이. 그 아이덜이 경헐에 산디. 요번에 잔칫집이 간 봐지난 막 날 안으멍 ‘누님, 누님’ 허멍

114001 @ 예.

114001 # 고자 이때도록 살안에 허고 ‘아이고 느도 사난에 봐점시네’ 허멍 막

울지 안힘뿐 헛어.

114001 @ 사삼때 죽을 뻔 했다는 거지예?

114001 # 응, 스삼때. 스삼때. 계난 그 어른덜이영 그날 와서민 나가 죽을 거, 죽을 거. 겐 나 그날 아니 와부난 살앗주게. 겨난 우리 아이덜그라 나 경 곶으민 ‘어떻 죽어불어시민 우리 아이 날 거’ 경허명 막 웃어. 스삼사건에 죽을 목이 멧 번 넘엇주게. 곱앗당도 영 곱아시민 막 조사 오락은에, 우리 아무 죄도 엇는디 그거주 뒤.

114001 @ 게메예.

114001 # 그냥 흐뎡 지레 오지락 허영 십오 세 넘은 사름은 이견 막 그냥 뭐엔 허명 십어만 가젠 허난.

114001 @ 산옛 사름이, 경찰이?

114001 # 경찰이. 경허난 이젠 경찰 왁저 허민 어디 강 숨어야 웨여, 집이라도 영 못 불디.

114001 @ 산옛 사름은 안 잡아가?

114001 # 산옛 사름도 잡아가, 말 잘못허민. 이견 양쪽이 물리는 거라. 이젠 경찰은 산에 쪽 부뎡젠 허영 사름 죽이지, 산옛 것덜은 경찰 쪽 부뎡젠 허영 사름 죽이지, 이거 원원.

114001 @ 어떻 혈 노릇이라예.

114001 # 겨난 이젠 말로 이젠 산옛 사름덜이 ‘밤이 곱아둡서 뉘 일을 허여’ 영 곶으민 그냥 그 말을 트집 잡아가지고 궂 십어당 죽어불젠허여 산에 것덜도. 므소와, 므소와, 므소와났어. 거민 또 말도 못허고 가만히 허영 그자.

114001 @ 계난예.

114001 # 경허단 이제 세월이 오래난 침, 살앗주. 그런 시절 다시 왕은 안웨여. 겨난 스삼에 어떻해서 억울허냐면 산에 곱으레도 흔 번 아이 가보고 집이 가만이 이신 사름도 스상자라고 헤가지고 잡아단 문 죽여분 거 그것이 쥔 억울허여. 원원 아무 곡단 없이. 그렇게 억울허여. 이 선홀도 죽은 사름 그런 사름 많다. 아무 분시도 물론 사름. 우리 나이 사름도 지레 흐뎡 큰 사름은 문뎡 죽어불엇저.

114001 @ 지레 죽은 게 좋은 거네이.

114001 # 십으레 오민게 곱을 수베끼 엇이니까, 양쪽을 무서우니까, 겨니까 이젠게 곱아시난에 스상자라고 헤서 문뎡 죽어불엇주. 계난 막 억울허여. 그런 쥔 엇인 사름. 무신 스상이라고 헤서 뉘 알앙 것도 죽어시민 칭원 안허주만은 번썩 이견 아무것도 물론 사름. 그런 침 나쁜 시대가 셔.

114002 @ 도깨비 닳은 거 봐난일 엇수과?

114002 # 그런 거 안 봐난. 어떻행 볼 말고게. 그것도 보는 사름, 봐 저라허는 사름은 이셔도 거 이녁이 정신 상태가 뭐 헛지 구신이 엇어.

114002 @ 그순새는 귀신?

114002 # 구진 거.

114002 @ 이런 초집 지붕에 잇는 것도 그신새엔 허지 안해?

114002 # 초집 그거 그신새 서끈 것ㄴ라 그신새엔. 새 서거분 거ㄴ라.

114002 @ 흙 꺾 때도 섞으지 안해?

114002 # 수세로 봐. 산뒤냥이 제일인디 산뒤냥이 어디 경 하? 쉼 뻘여불고 산 뒤 하영 아이 갈곡 허민 엇어부난 그신새도 낡 헛주.

114003 @ 어렸을 때 참외나 수박 같은 거 서리 해난?

114003 # 그런 것사 많이 싱거 봤주.

114003 @ 싱근 거 말고 늬의 밧되 거?

114003 # 아니, 절대 그런 거 하나 타 먹음이랑 말앙. 우리 밧되 아이덜이 타먹 으레 와이. 경해도 막 부모덜 우리 저 앓선홀에 이제 집 즈끗디난. 어린아이덜이 막 이제 오주게, 자마리로게 오면, 저 거시기게 스삼 유적지 엠에 우리 밧잇저, 그디 경허민.

114003 @ 선인동?

114003 # 아니 앓선홀. 낙선동, 낙선동. 경허민이 아이덜이 자마리로 타 먹으레 오지 안허느냐게?

114003 @ 자마리?

114003 # 자마리, 게 수박 타먹젠 아이덜이 경허민 이젠 우리가 막 타먹지 말렌 해도 말 안들어. 쟁 이제 어스름에 직허레 가주게. 가명보난 아이덜이 아닌 게 아니라 수박밧되 들어왔어.

114003 @ 예.

114003 # 게민. 야 나오라덜, 나오라덜. 해도 곱아불영. 욱허카부덴. 이제 부모덜 이 알아들영 와. 막 지네 아이덜을 심어낵 따리젠. 게민 난 아이 따리지 말렌, 따리지 말렌 그 수박 타먹은 것에 아이 두드리민 뉘느넨, 경행 해나부난 이제도 넘어가 명 인스 곱복, 그 아이덜이 성장헛거든 이제. 시내에서 봐저도 절행 넘어가. 사름은 그렇게 해뒤사주 그거 타먹엄다고 그 아이덜 따리곡 막 욱질해봐. 이녁거 잃고 인 심만 일러. 그렇게 허니까 그런 것도. 그 부모덜은 막 그 아이 따리젠헤 이녁 아이 덜. 왜 수박 타 먹었냐고. 손 심으멍 ‘아이고 야야 따리지 말라, 따리지 말라’ 경허 명 해난. 수박 하나 침 우리 타 먹어본 역스도 엇고. 욱도 안허여보고 헛저 아이고. 혼번은 수박밧되 간 시난에 어떤 사름이 새백이 건 어른, 아니ㄴ라 타레 완, 수박을 하나 탁 탄. 너 어디냐 허난 아이고 저 어디 대홀 사름인디 ‘아이고 선홀 아무가이 켤당이우다, 켤당이우다’ 허난 어떻허여게 그냥 보내불엇지.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뺨
201002	대가리	대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굴
201005	제비초리	제비새꼴리
201006	머리털	머리털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졸르다
201010	빗[梳]	빗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땡다	다우다
201014	비녀	빈네대
201015	고수머리	뽕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외가메
201018	가르마	앞갈르는거
201019	이마	임탱이
201020	넓다[廣]	널르다
201021	이마빼기	임탱이
201022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낯[面]	놋
201025	웃다[笑]	우스다
201026	그리다[寫]	기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야
201028	씻다[洗]	시치다
201029	거울	색경
201030	보다[見]	브레다
201031	뺨	*

201032	뺨따귀	귀똥베기
201033	때리다[打]	딱리다
201034	볼	볼빼
201035	볼따구니	*
201036	볼거리	귀똥치기
201037	광대뼈	광대빼
201038	보조개	조개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공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공자
201043	눈꺼풀	눈두께
201044	거적눈	더께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201047	속눈썹	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콧등머리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랍다
201052	눈곱	눈곱제기
201053	눈초리	눈출리
201054	사팔눈	사팔떼기
201055	눈웃음	눈우심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
201059	세다[強]	*
201060	콧구멍	콧구멍
201061	코딱지	코퍼렝이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씻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201065	인중	콧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씨다
201068	참말	참말

201069	거짓말	거지깎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뉘달하다	답도리 ^ㅎ 다	
201072	입술	입바우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입노림	
201075	말하다	말근다	
201076	입방아	*	
201077	허풍	허풍, 허풍쟁이-허풍숭이	
201078	뇌다	*	
201079	침[唾]	츄	
201080	삼키다[呑]	숨키다	
201081	가래침	개츄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턱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훅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셋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리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버들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	
201096	옥다[曲]	옥다	
201097	돋다[出]	나다	
201098	옥물다	악물다	
201099	턱	아구턱	주걱턱- 아구작박
201100	턱살	*	
201101	빨다[稍峽]	쫄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자락	
201105	귓볼	귓봉	

201106	꿇구멍	꿇고망
201107	귀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꿇밥
201109	귀이개	귀오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귀밧
201112	구레나룻	늑대쉬엄
201113	목	목
201114	꿇다[顛]	훑다
201115	모가지	야게기
201116	먹살	모가지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뒗대가리
201119	꼭뒗	*
201120	뒗덜미	뒗야게

상체

201121	어깨	웃둑지
201122	어깨뼈	웃둑지뼈
201123	어깨죽지	*
201124	겨드랑이	저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뚝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슬
201131	팔꿈치	폴굽이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뼈
201134	뼈다귀	팡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왼손
201137	오른손	노단손
201138	왼손잡이	왼켁이
201139	손등	손등어리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거심	
201145	할퀴다	극주다	
201146	손가락	손ㄴ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ㄴ락	
201148	검지손가락	안주웨기손ㄴ락	
201149	가운뎃가락	상손ㄴ락	
201150	약손가락	노니에기손ㄴ락	
201151	새끼손가락	생끼손ㄴ락	
201152	손살	손거림	
201153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튀다	
201155	젓가슴	젓가심	
201156	명치	오목가심, 오모손이	
201157	명자리	*	
201158	젓	젓통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얼	젓명얼	
201161	짜다[擻]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또롱	주네배또롱
201167	옆구리	옆갈리	
201168	갈비뼈	갈비뼈	
201169	등	등, 등망꿩이, 등어리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굽새
201172	등때기	등다리	
201173	가렵다[癢]	ㄴ렵다	
201174	긁다[抓]	긁으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	
201177	찬물	찬물	

201178	등마루	등골
201179	등뼈	등뼈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ㄱ는즌등이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잡지폐기
201184	살집	*
201185	볼기	볼기
201186	엉덩이뼈	*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꼬냥
201191	더럽다[汚]	추접흐다/ 덜럽다
201192	가볍다[輕]	게볍다
201193	무겁다[重]	베다
201194	살	*
201195	가래뿔	*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
201200	무릎	동무릅
201201	무릎뼈	동무릅뼈
201202	뼈다[櫛]	뼈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201204	정강뼈	정갱이뼈
201205	종아리	종에
201206	장판지	주술
201207	오금	뒷생중이
201208	복사뼈	귀마리뼈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긫다[凶]	구지다
201212	헛발질	헛발
201213	발목	회복

201214	겹질리다	빠다
201215	발등	발등어리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봉오지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조글롭다
201220	간지럼	조금
201221	발가락	발ㄱ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ㄱ락
201221-2	둘째발가락	*
201221-3	가운데발가락	상발ㄱ락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ㄱ락

201222	발살	발툼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퀴눈이
201225	고린내	ㄱ랑내
201226	발톱	발콥
201227	발뒤축	발뒤척이
201228	쓸개[膽]	실개
201229	허파	북부기
201230	마음	므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배설, 창지
201232-1	큰창자	큰배설
201232-2	작은창자	족은배설
201233	목숨	멩
201234	빼앗다[脫]	앗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서다
--------	-------	----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202004	입덧	*
202005	낱다[媿]	낱다
202006	태(胎)	방석
202007	탓줄	벳도롱줄
202008	나이	여녕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못이
202011	갓난아이	곶난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아으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깝다	을큰헛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개
202018	엿저지	*
202019	폼다	쿰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오줌정갱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
202029	배넛저고리	봣디적삼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배부룩이
202032	포대기	걸렁이
202033	보자기	*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
202038	띠	*

202039 개구멍바지 *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죤메죤메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섬메섬메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짜짜꿍	던데던제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걸음마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꼭음세기
202049	곤두서다	꼭음세기 헛다
202050	가동가동	*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정개고개
202054	흥내	송내, 송
202055	흥내질하다	송내내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시알
202058	자라다[成長]	자라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츄다
202061	심술	심술
202062	밋다[憎]	밋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딱지치기	빠찌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굽을락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뒤썰락
202073	풍계물이	도루무술레, 도둑술레

202074	줄넘기	베틀락
202075	줄다리기	베등길락
202076	수수께끼	수수께끼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뺏기	나라방
202082	사금파리	사름파리
202083	말놀음질	*
202083-1	생말타기	물탈락
202083-2	죽은말타기	물탈락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들을락
202086	겨루다[競]	*
202087	제기차기	쯔께
202088	혜엄치다	히다
202089	웃놀이	웃놀이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케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숫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2	막동	*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
202096	승강이	*

202097	싸우다[鬪]	드투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도다치기
202100	편벽하다	편역들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드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큰연
202107	가오리연	객주리연
202108	연달	수리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
202108-2	꽂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숫줄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 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얼레, 설레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가풀
202118	퇴김	뿔경
202119	그네[鞦韆]	궁글

202120	밑신개	널판
202121	굴렁쇠	*
202122	구르다[轉]	둥글다
202123	썰매	닝기림
202124	자전거	즈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క్క대, 건장시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
202129	기지개	지지개
202130	기지개하다	지지개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징흐다
202132	놀라다[驚]	느래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짚은즘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꾸레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흐다
202144	트림	게틀레기
202145	딸꾹질	툄국지
202146	재채기	헛갱이
202147	개치네췌	*
202148	방귀	똥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
202151	구린내	*
202152	노린내	그끄렁내
202153	사레들다	야게걸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죽은마누라
202157	학질	*
202158	천연두	마누라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옷	*
202165	버짐	버짐
202166	마른버짐	균버짐
202167	진버짐	*
202168	주근깨	프리즘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막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명	명
202173	퍼렇다	퍼렇 ^ㅎ 다
202174	굳은살	캘러
202175	부스럼	*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
202180	다대	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애육
202183	낫다[癩]	낫다
202184	아물다	새슬메우다
202185	표적	표적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앓다[痛]	알리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뚜기, 땀떼기
202190	소경	눈봉서
202191	청맹과니	눈튼봉서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외눈백이
202194	사팔뜨기	사팔떠기
202195	다래끼	개씹
202195-1	위	개씹
202195-2	아래	들윗
202196	언청이	청보
202197	외언청이	*
202198	쌍언청이	*
202199	귀떡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몰레기
202202	말더듬이	*
202203	혀짤배기	세다드레기
202204	입비뚫이	*
202205	구안괘사	풍징
202206	가납사니	*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곱사등이	등곱새
202209	절뚝발이	발출레기
202210	얇은뱅이	얇인베기
202211	문둥이	문둥이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방, 아부지
203002	어머니	어멍, 어머니
203003	아비	*
203004	어미	*
203005	할아버지	하르방, 할아버지
203006	할머니	할망, 할머니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두갯, 부배간
203010	싫다[厭]	긋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들

203012-1 큰아들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큰족은아덜
203012-9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매족은놈	매매족은놈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심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심딸
203018	자식	자식
203019	없다[無]	웃다
203020	자손	즈순
203021	어비딸	애비딸
203022	어비아들	애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에이딸
203025	어이아들	에새끼
203026	말이	못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언니, 성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외독자	
203034	외딸	외동딸	
203035	쌍둥이	쌍둥이	
203036	다르다[異]	트나다	
203037	같다[如]	ㄱ뜨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자 되다	양제가다	
203038-2	양자 데려오다	양제들다	
203039	처녀	비바리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결혼	
203042	날[日]	좃	
203043	사주보다	스주보다	
203044	중신	중진	중진에비
203045	권당	퀸당	
203045-1	덱덜	6촌 이내 퀸당	
203045-2	방상	퀸당	
203046	앉은잔치	*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우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방/ 시아바님	
203050	시어머니	시어명/ 시어머님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명	
203053	외할아버지	외하르바지	
203054	외할머니	외할머니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동네어른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주바님	아지방
203057	아주머니	아주마님	아지방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늙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뀌작ㅎ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랑팔십	
203063	병추기	병주시	

203064	거동하다	오몽ㅎ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외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외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외펜
203073	종내기	종네기
203074	시누이	시누
203075	올케	성님-아시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외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아버지
203092	친어머니	어머니
203093	의붓아버지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심어멍
203095	웁딸	붕근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감
204002	끓다	끈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옛새무명	*
204011	생목	*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솜	소게
204017	풀솜	*
204018	솜틀	*
204019	솜틀집	*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
204025	고치	*
204026	뽕잎	뽕섰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
204029	오디	*
204030	다듬잇돌	안반, 흥깃대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이마개
204032	퍼다	페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계끔
204035	물거품	물계끔
204036	빨랫돌	돌팡
204037	빨랫방망이	서답마께
204038	빨랫바구니	서답구덕
204039	헝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서답베
204041	마르다[乾]	들르다
204042	바지랑대	서답바드랭이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발레다
204046	형겉	조각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지밑
204051	저고리	적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
204054	풀치마	*
204055	옷고름	옷곰
204056	옷깃	옷짓
204057	옷설	옷설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모작단추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폭, 큰옷
204066	두루마기	두루메기, 후루메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속곳

204069	토시	폴띠
204070	누더기	*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벗튼사람
204073	잠방이	점벙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204075	주머니	주멩기
204076	호주머니	보곰지
204077	넣다[入]	*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뒤척이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뽀족한 부분	보선코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보선창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
204084	겹옷	점옷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얇다	얄롭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거적
204091	홀이불	훗이불
204092	겹이불	*
204093	사이	트멍
204094	누비이불	글레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푸숨
204097	홀청	호청, 이불거적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거적
204100	눅다[獸]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노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아지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개거적
204107	베갯머리	*
204108	베갯모	베갯모메기
204109	몽침	몽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밀짚모자	밀짚패랭이
204115	미사리	삿갓바우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붓베기깍
204118	판총박이	*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족신	창신
204123	부르트다	베껴지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수
204127	부채	선재
204128	미선	미선
204129	부치다[扇]	푸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질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ㄱ새
204132	마르다[裁]	돌르다
204133	골무	골미, 손잡데기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
204136	실패	실패, 실도레기
204137	바늘	바늘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늘쌈
204140	바늘귀	바늘귀
204141	꿰다	끼다
204142	집다	줍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집다	줍다
204145	곶치다	포부찌다
204146	휘잡치다	박음질- 뒷바늘질
204147	재봉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루웨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르다
204153	씨아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췌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놓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빼다[湯水]	뺏뜨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팍밥	팍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렁이
205016	눌은밥	누렁이밥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파래밥
205020	밥보	*
205021	밥술	밥술가락
205022	밥알	밥티
205023	끼니	때
205024	늦다[晩]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일르다
205026	공밥	*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농	승농
205029	화독내	그끈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장국 나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으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팥죽	팥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반찬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배치짐치
205051	무김치	눔뻬짐치

205052	열무김치	춧마기김치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
205055	갓김치	갓늬물김치
205056	파김치	패마농김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등그다
205060	간장	간장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된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벙벙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간허다
205069	콩나물	콩늬물
205070	숙주나물	녹디늬물
205071	무나물	무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늬물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손
205075	썬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
205077	고비	돌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네기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추
205082	푸성귀	송키
205083	오이	오이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참웨
205086	수세미외	스가웨
205087	말물	챗번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
205090	원두막	웻막
205091	갯잎	유썸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치 ㄱ루
205095	맵다[辛]	매웁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잎
205100	시들다	소들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갈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친떡, 곤친떡
205110	부스러기	*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숨메
205113	고물	숨메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뒤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수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조베기
205122	물다[淡]	*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다리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옛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분다
205134	기울다[傾]	자울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마시다
205137	준(罇)	춘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싸다
205146	갑시다	곡끼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
205149	산적	적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짓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
205154	불뚱	불치
205155	부엌비	정지비치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낮다
205158	높다[高]	높다

205159	그을음	기시렁			
205160	검댕	검댕이			
205161	아궁이	아궁이			
205162	채	채			
205163	모으다[集]	모도다			
205164	부뚜막	*			
205165	봇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끓리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			
205174	솔밑	*			
205175	솔검정	*			
205176	부삽	*			
205177	군손	*			
205178	군일	*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정짚방석			
205182	성냥	불곽			
205183	성냥개비	불곽살			
205184	성냥갑	불곽			
205185	부시	부쉐			
205186	부싷돌	부들			
205187	부싷깃	불쩍			
205188	부시쌈지	부시주멩기			
205189	부시통	*			
205190	등잔	각지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룽	*			
205193	남포등	남포등	등피	호야	밤부리
205194	접싷불	젹싷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거멍하다
205198	숯가마	숯가멩이
205199	뜬숯	*
205200	숯검정	숯검덩이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카는내
205203	불태우다	불케우다
205204	불티	불개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붕당	붕덕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화상
205213	부손	불수까락
205214	부젓가락	불저븀, 불하시
205215	다리쇠	세발쇄
205216	석쇠	적쇄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츄	츄
205217-2	츄항	츄독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먹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초관
205221	담뱃대	담배통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뱃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베릿돌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늦사발
205233	사발	사발
205234	뚜껍	가지깡이
205235	접시	젹시
205236	굽달이	굽달린접시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물종지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205243	수저통	수제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진물
205246	도시락	밥차롱, 벤또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박세기
205250	박	박
205251	뒤옹박	뒤옹박
205252	조롱박	즉박
205253	쪽박	*
205254	양푼	냥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조막단지
205257	뚝배기	뚝배기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리밑
205260	시룻번	시리마개
205261	경그레	떡징
205262	함지박	술박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차롱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수리대			
205269	제주조릿대	*			
205270	굳은대	굳은대			
205271	무른대	무린대			
205272	항아리	항	오가리	단지	지세독
205273	물동이	허벅	대받이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배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			
205278	빼다[拔]	빠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글다			
205281	숫돌	씬돌			
205282	날카롭다	늑슬다			
205283	행주	상빼			
205284	번철	빙철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수세			
205289	떡살	*			
205290	밀판	안반, 흥짓대			
205291	밀개	*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우통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알통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등덜쟁

205293	빚다	다끄다
205294	풍로	간데기
205295	삼밭이	시밭쉐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골목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낡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기와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외채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밖거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이문거리
206016	결채	모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항뒤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일르다
206024	마구간	물막
206025	변소	통시
206026	부출돌	디딜팡
206026-1	부출	디딜팡
206027	기척	그적
206028	맞서다[拮]	*
206029	냄새	내우살
206030	맡다[臭]	마치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울안
206033	터알	우영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드리판
206040	이영	느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여끄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체
206043-1		*
206043-2		뜸
206044	디딤돌	잇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상방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
206048	마룻널	마리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롭다
206053	구들직장	방지기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장, 처나반
206059	닿다[觸]	거찌다, 미치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안방
206062	방문	지계문
206063	비[帚]	비치락
206064	빗자루[柄]	비치락

206065	쓸다	씰다
206066	버리다[棄]	테끼다
206067	바람벽	백보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헛대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얄	*
206075	풀비	풀비치락
206076	찾방	첻방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가냥ㅎ다
206081	안뒤결	뒷무똥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함석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집가지
206088	처맛기슭	집지슬
206089	낙숫물	지실물
206090	뎃돌	*
206091	흙	혁
206092	진흙	진혁
206093	찰흙	촌혁
206094	흙덩이	흑병덩이
206095	새벽	개백
206096	흙길	흑길
206097	이기다[汲]	뀌다
206098	산자(撒子)	고대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
206101	뒷기둥	*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지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처나반틀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椽)	튀기
206111	인방	*
206112	문설주	문입쟁이
206113	문곶도리	*
206114	문얼굴	문부출
206115	문틀	문입쟁이
206116	문머리	웃지방
206117	문흙	흙베기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계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중그다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창꿈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닫이	밀문
206127	여닫이	지계문
206128	살문	살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겉창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돌처귀
206133	암틀쩌귀	암틀처귀
206134	수틀쩌귀	수틀처귀
206135	문고리	문걸장, 문고리
206136	배목	걸쇄
206137	괘	괘
206138	열다[開]	열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쇄
206141	열쇠	열쇄
206142	부수다[碎]	뿌시다
206143	서랍	빼단이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날베기	
206146	거도	*	
206147	틀툽	장툽	
206148	툽밥	툽밥, 툽ㄹ루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극쇄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망치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마께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	
206160	송곳	*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곱자	곱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쇄손	
206168	나무흙손	남손	
206169	흙받기	*	
206170	돌물레	*	
206171-1		호랭이	뒤치기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용시, 농사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염
207004	밭담	밭담, 잣담
207005	밭빼기	*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
207008	쟁기	잡대 가린석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짓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나간 나무	몽쿨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선 나무	설칫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들벧이뿔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207009	육보다	속다
207010	겨리	저리
207011	벧밥	벧에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
207014	밭두둑	*
207015	밭고랑	밭고랑
207016	밭이랑	밭이랑
207017	거웃	파니
207018	극쟁이	극쟁이

207019 씨레 씨레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즈룩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켈이

207022 곡팽이 *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쉼시렁

207025 삼 삼, 갈래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멍탱이

207034 콩계 ㄱ설퀴

207035 남태 남태

207036 돌번지 돌데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검질

207040 두벌매기 두불검질

207041 세벌매기 시불검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걸라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아웨기

207045 낚 낚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삯 일당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
207050	폼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삼태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슴베
207052-3	낫갱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늘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꺾기	미뻬쟁이
207055	새끼	스끼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
207059	끈	*
207060	참마(바[索])	베
207061	짐마	짐페
207062	질빵	*
207063	잇다[承]	이스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메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둥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등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깁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고들게
207066-7	깁거리끈	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고들게끈
207066-8	깁거리막대	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고들게
207066-9	배뎛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줄라매는 줄	오랑

207067 명에

207067-1	목대	명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접게
207067-2	봇줄	명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한줄
207067-3	한테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댄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게이몸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뺏어 나간 가지	지겟가달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지겟새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등태
207068-5	지게꼬리 (밀뻘)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겟작대기

207069	바지계	바지계
207070	밭채	*
207071	물지계	물지계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클
207076	벼훑이	훑테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보리클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산뒤클

207078	타작하다	마당질하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식은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
207083	겨를	저르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깨틀레

207085	여물	여물
207086	쭈정이	줄래
207087	꼴	출
207088	꼴밭	출왓
207089	꼴꾼	낫꾼
207090	꼴단	출뭇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구르마
207093	복두	*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좁진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
207101	챗바퀴	*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래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불림질하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솔박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제기
207112	되	뒤
207113	관되	관뒤
207114	사삿되	*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설레
207119	불당그래	근데
207120	떡동구미	멕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꿋다[引]	근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허트다
207125	자루[袋]	찰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계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간세다리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누렁허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ㄱ시락
207135	보리쌀	보릿צל
207136	보릿겨	보리채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슬오리
207139	맥주보리	주냉이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짚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슌다	슌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브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צל
207154	조짚	조침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
207159	밭벼[山稻]	산뒤
207160	밭벼 이삭	산뒤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뒤왓
207162	밭벼צל	산뒤צל
207163	밭벼짚	산뒤짚
207164	멧돌	ㄱ레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ㄴ레착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짜	웃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짜	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ㄴ렛장귀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렛즈록

207165	맷방석	ㄴ렛방석
207166	매함지	ㄴ렛도고리
207167	풀맷돌	풀ㄴ레
207168	풀매	정ㄴ레
207169	썰기	*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시콜방에
207171-2		네콜방에
207171-3		다섯콜방에
207172	방아확	방에 흑
207173	방앗간	방에공장
207174	븨비다	*
207175	방앗공이	방앗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돌벙이
207178	방앗돌	돌벙이맷돌
207179	연자맷간	돌벙이집
207180	절구	돌흑
207181	절긋공이	돌흑마께, 절긋대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뉘
207184	고르다[擇]	골리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채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잎
207189	기름콩	주름콩, 콩늬물콩
207190	콩깍지	콩깍지/ 콩강메기

207191	콩짚	콩고짚
207192	꼬투리	*
207193	두부	둬비
207194	두붓물	둬빗물
207195	뜨겁다	떼불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주시
207198	완두	푸린콩
207199	강낭콩	아즌베기콩
207200	동부	둬비
207201	팥	풋
207202	팥알	풋방울
207203	팥밥	풋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궤
207206	들깨	들궤, 유
207207	참기름	츄지름
207208	깻묵	궤주시, 궤떡
207209	고소하다	쿠싱하다
207210	메밀	모믈
207211	메밀밭	모믈밭
207212	나깨	느쟁이
207213	메밀껍질	모믈채
207214	메밀국수	모믈국시
207215	메밀수제비	모믈조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믈칼국시
207217	메밀떡	모믈떡
207218	메밀묵	모믈묵
207219	무르다[軟]	얄롭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빼떼기, 절간감저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데가리

207225-3	마늘중	마늘중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
207227	파	꽤마농
207227-1	과밀동	꽤마농불리
207228	무	눔삐
207229	무청	춤물섞
207230	시래기	씨래기
207231	장다리무	채중전
207232	열무	즌물, 봄눔삐, 츠마귀
207233	배추	배치
207234	고갱이(배추)	배치속
207235	나물	눔물
207236	채소	송키
207237	겉대	*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낭대죽
207240-1	옥수수	부루기
207241	수수	대죽찰
207242	쌀수수	대죽
207243	비목수수	비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낭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네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웃	속곳, 소중이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207249-2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작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뜰채	*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너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눅구멍	*
207273	눅쫓	*
207274	돛	돛
207275	돛가지	*
207276	돛줄	*
207277	돛들	*
207278	돛걸이	*
207279	키[舵]	*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
207287	마을	막을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가름
207291	옮다[移]	웁기다
207292	아랫마을	알카름
207293	마을가다	가름가다
207294	밤마을	*
207295	가게	상점
207296	구멍가게	고망가게
207297	다녀오다	강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주리
207302	있다[有]	싯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남제기
207307	흥정	흥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벨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칩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
207315	모루	모릿돌
207316	모루채	망치
207317	갓양태(양태)	양태
207318	망건	멩긴
207319	망건골	멩긴골
207320	탕건	탕근

207321	견다[編]	줄다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바치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갈르다
207331	갖다[持]	아시다, 앓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답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일흔
208004-7	(80)	오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뉘	흔말
208005-2	(2/두)	두뉘	두말
208005-3	(3/서, 석)	석뉘	서말
208005-4	(4/너, 녀)	녀뉘	너말
208005-5	(5/닷)	닷뉘	닷말
208005-6	(6/엿)	웃뉘	웃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개	흔두뉘	흔두말
208006-2	(2-3/두세)	두세개	두서녀뉘	두서녀말
208006-3	(2-3-4/두서녀)	두서녀니개	두서녀녀뉘	두서녀녀말
208006-4	(3-4/서녀)	서녀개	서녀녀뉘	서녀녀말
208006-5	(4-5/네댓)	너다섯개	너다섯뉘	너다섯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개	대으섯뉘	대으섯말
208006-7	(6-7/예닐곱)	예술곱개	예술곱뉘	예술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답개	일고으답뉘	일고으답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다아홉개	으다아홉뉘	으다아홉말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라든

마흐나든, 쉬나든, 예수나든, 일흐나든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게뺨 조리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스물두자
208014-2	명주	스물두자
208014-3	광목	스물두자
208014-4	베	스물두자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슬오리- 150평, 맥주보리-백오십평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
 208019-1 덩
 208020 조짐 바리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30
208021-2	조(이삭 있음)	30
208021-3	콩	6
208021-4	밭벼	20
208021-5	꿀	30
208021-6	띠	30
208021-7	각단	30
208021-8	어욱	30

208022 모금 굴레
 208023 섬 섬
 208023-1 15말
 208024 덩이 덩이
 208025 포기 폐기

208026	그루	그루
208027	돌이(양태)	드리
208028	마리	므리
208028-1	두[頭]	므리
208028-2		므리
208029	축	단
208030	퀘미	무께미
208031	쌍(돼지)	자리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결레(신)	베, 커리
208035	바퀴(운동장)	바쿠
208036	못	못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애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싱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딛적삼
209005	배넛머리	배안네머리
209006	돌	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뽕께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딸풀다
209012	장가가다	장계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아덜풀다
209014	함	홍세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椶]	*

209019	이바지	아버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안사둔
209021-2	바깥사돈	바깳사둔
209022	곁사돈	부찌사둔
209023	상갓집	초상집
209024	수의	호상
209025	상복	상복, 심오옷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제
209028	말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머구냥
209031-2		*
209032	짚동	짚땡이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조문가다
209035	뭇자리	뭇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나경판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행상
209040	보장(寶帳)	맹전
209041	계(契)	제
209042	상두꾼	행상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장지
209045	광중	개광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충	*
209048	무덤	산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석수,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
209053	마치다[終]	막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제월제, 제월밭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계집
209059	편틀	쟁반
209060	퇴물	튀물
209061	메	메, 멧밥
209062	갱(羹)	갱, 갱국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친떡
209065	인절미	은절미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기름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테우다
209070	몫	찍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이묘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명절
209073	세배	과세
209074	명절	맹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솟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살장귀
209080	팽과리	쟁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오월명절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레뜸
209085	추석	팔월명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안택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판
210008	명두	맹두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살르다
210012	살(煞)	*
210013	삼살방(三煞方)	*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허깨
210017	어둑서니	*
210018	무섭다	무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고사
210021	고수레	걸멍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검질
211003	방화(放火)	방애
211004	불다[點火]	부트다
211005	내[川]	내창
211006	넷가	내창옆

211007	물가	물조끄디
211008	따르다[從]	따르다
211009	건너다[渡]	넘어가다
211010	낭떠러지	*
211011	다리[橋]	드리
211012	가깝다[近]	브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돌머들
211016	갈림길	시커리
211017	묻다[問]	들어보다
211018	비탈길	비스러진길
211019	벼랑길	*
211020	내리막길	굴렁길
211021	오르막길	동산질
211022	길가	질에염
211023	큰길	한질
211024	분화구	굽부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오르다
211027	기슭	*
211028	산바람	*
211029	산꼬대	*
211030	상고대	상강
211031	구렁	굴렁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푸더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
211037	숲	곶
211038	성(城)	성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개곶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개것물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봉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보살밭
211048	자갈	먹돌
211049	갯가	개것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
211052	파도	절
211053	파dot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절
211056	굽뉘	*
211057	물결	*
211058	잔물결	*
211059	무수기	물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한물	9 24
211059-2	두무날	두물	10 25
211059-3	서무날	서물	11 26
211059-4	너무날	너물	12 27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13 28
211059-6	여섯무날	여섯물	14 29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15 30
211059-8	여덟무날	여덟물	16 1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17 2
211059-10	열무날	열물	18 3
211059-11	열한무날	열한물	19 4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0 5
211059-13	(열서무날)	열서물	21 6
211059-14	아끈췌기	아끈조금	22 7
211059-15	췌기	조금	23 8
211059-16	한조금	*	*

211060	여	*
211061	곶(串)	*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써다	물싸다
211065	쌀물	쌀물

시후

211066	오늘	오닐
211067	내일	내일
211068	모래	모리
211069	내일모래	닐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즈녁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싯날
211075	새벽[曉]	세백
211076	꼭두새벽	이른세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빋
211079	아침	아칙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즈녁
211082	저녁거리	즈녁송키
211083	초저녁	어스름
211084	밤[夜]	빙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파랑흐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

211094	달무리	달갓
211095	초승달	초싱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그믐들
211098	햇무리	*
211099	무지개	황고지
211100	쌍무지개	*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211104	겨울	저실
211105	입춘	새철드는날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르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하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웃새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엿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들

211119	선달	선들
211120	올해	올리
211121	내년	명년
211122	내후년	우명년
211123	작년	넘은해
211124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돏똥ㅎ다
211128	땡별	더운벧
211129	가을별	ㄱ실벧
211130	양지받이	양지바른디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구미
211133	그늘대	*
211134	나무그늘	냥구미
211135	쉬다[休]	쉬다, 숨들이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븧름
211137-1	바람위	븧름위
211137-2	바람아래	븧름알
211138	맞바람	*
211139	바람받이	븧름코지
211140	바람살	븧름살
211141	회오리바람	*
211142	동풍	셋븧름
211143	남풍	마프름
211144	서풍	섯갈븧름
211145	북풍	하니븧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마
211149-1	봄장마	오월장마
211149-2	가을장마	*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소나기주제
211152	여우비	*
211153	가랑비	ᄃ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ᄃ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ᄃ물다
211158	가뭄	ᄃ뭄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번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험벽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싸락눈
211170	도둑눈	아으몰른눈
211171	내리다[降]	느리다
211172	희다	헤영ᄃ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고드,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눈비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즈끄되

211185	옆	옆이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븁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다
211190	왼쪽	웬착
211191	오른쪽	노단착
211192	밑	알
211193	흐르다[流]	느리다
211194	안[內]	소굽
211195	밖	베껴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사리
211198	가[邊]	에염
211199	가장자리	꿇덩이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꾸짱ㅎ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쉐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쉐
212004	수소	부룽이
212005	쇠소	식쉐
212006	불까다	불까다
212007	불알	불알
212008	황소	부룽이
212009	얼룩소	어럭쉐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쉐석
212012	끌다	이끄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벙작쉐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릅(1)	금싱	금싱
212015-2	이듭/두습(2)	다간	이수
212105-3	사릅(3)	사릅	삼수
212015-4	나릅(4)	나릅	스수
212015-5	다습(5)	다습	오수
212015-6	여습(6)	여습	육수
212015-7	이릅(7)	일곱	칠수
212015-8	여듭(8)	여덟	팔수
212015-9	아습/구릅(9)	아홉	구수
212015-10	열릅/담불(10)	열	십수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으물
212018	구유	구시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즈매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말
212026	청총마/총이말	청총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다
212028	얼룩말	*
212029	유마	유마
212030	백마	*
212031	고라말	ㄱ라말
212032	곰배말	ㄱ부랭이
212033	조랑말	조랑말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쉐물
212036	글경이	글경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마음석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넥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
212048	비루떡다	*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
212053	살쟁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닭	암득
212056	수닭	수득
212057	멀떠구니	멍텅구리
212058	산맥	산맥
212059	닭의어리	*
212060	닭장	득집
212061	달걀	득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ㄱ리다
212063	빙아리	빙에기
212064	까다[剝]	깨우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ㅎ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일성머리
212072	생둥이	두루벙이
212073	새끼 돼지	새끼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통시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퀘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집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지랭이
212081-1	둘암소	지지랭이췌
212081-2	둘암말	지지랭이뜰
212081-3	둘암돼지	지지랭이 도새기
212081-4	둘암개	지지랭이 개
212082	거위	*
212083	오리	오리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벌거지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취슬다	취싸다
212088	가시	장버랭이
212089	구더기	똥버랭이
212090	취파리	취프리
212091	쇠파리	췌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다귀
212096	장구벌레	장칼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蠹]	늪
212099-1	서캐	취
212100	서캐훤이	챙빃
212101	지렁이	계우리
212102	회충	송백충
212103	거머리	거덜
212104	바구미	남췌
212105	콩바구미	좁버랭이
212106	굼벥이	굼벥이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생이
212108	그리마	구레기

212109	쥐며느리	*
212110	노래기	구레기
212111	지네	주녕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	다진쉬퀘다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들벙이
212117	민달팽이	옷벗인들벙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계여미
212120	왕개미	장계염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극주웨기
212126	귀뚜라미	공중이
212127	풍뎅이	봉에기
212128	장수풍뎅이	쉐짚레기
212129	무당벌레	*
212130	쇠똥구리	떠렁쉐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
212133	하늘소	봉에기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
212137	날다[飛]	늘다
212138	사슴벌레	떠렁쉐
212139	잠자리	물짚
212140	고추잠자리	*
212141	장수잠자리	웅짚
212141-1		
212142	매미	짚
212143	매미허물	*
212144	말매미(왕매미)	*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212146	소금쟁이	소금바치
212147	방개	물췌
212148	반딧불이	불란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청벌
212151	꿀	칭
212152	땅벌	*
212153	말벌	소왕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서미역
212155-2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소낭버랭이
212157	개구리	ㄱ계비
212158	올챙이	갱베리
212159	맹꽁이	멕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체비
212161	뱀	베염, 진거
212161-1	뱀띠	베염헤치
212161-2	뱀허물	베염흘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장칼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들짐승

212166	여우	*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칭이
212172	괘다	괘다
212173	쥐구멍	쥐고냥

212174	박쥐	드람쥐
212175	다람쥐	*
212176	오소리	오루
212176-1		오루고냥
212177	지달(이)	지다리
212178	지달피	*
212179	멧돼지	산도세기
212180	원숭이	즌나비
212181	원숭이띠	즌나비혜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혜치
212184	꼬리	꼴리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지	꿩지
212187	깃[羽]	터럭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생이가심
212190	참새	참새
212191	비둘기	*
212192	제비	제비새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
212195	솔개	소로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메기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빠꾸기	빠꼭새
212200	종달새	종달새
212201	올빼미	*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독새기
212206	꺼병이	꿩빙에기
212207	두루미	*

212208	기러기	기레기
212209	갈매기	*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
212215	팽이고등	*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빨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이
212227-1		*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
212228-2		*
212229	전복갑	*
212230	오분자기	오분자기
212231	게	강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
212240	갯강구	*
212241	말미잘	*
212242	성게	퀴
212243	말뚝성게	숨
212244	군소	*
212245	새우	*
212246	불가사리	*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
212249	낙지	*
212250	문어	뭉게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궤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물알 어둑다
212257	잘다[細]	잘다
212258	썩다[腐]	고리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타다
212261	생선(生鮮)	바당궤기
212262	미끼	*
212263	갯지렁이	*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
212266	만들다[造]	멘들다
212267	낙싯줄	*
212268	붕돌	*
212269	참대	*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훤
212272	주낙배	*
212273	지느러미	*
212274	아가미	*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랭놀래기	*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생성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
212290	감성돔	*
212291	벙에돔	*
212292	황돔	*
212293	자리돔	제리
212293-1		*
212294	고등어	고등어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
212299	오징어	오징어
212299-1		*
212300	붉바리	*
212301	다금바리	*
212302	농어	*
212303	취치	객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
212307	독가시치	*
212308	방어	*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괭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
212320	돌고래	*
212321	취돔	*
212322	복어	*
212323	흑산호	*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고라조
213002	갈대	*
213003	억새	어욱
213004	새풀	미찌쟁이
213005	화승(火繩)	해심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휘차다
213009	빨기	땡이
213010	사초	쌍고지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쉐터럭
213013	쇠무릎	믈믈작쿨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밋붉은제완지
213016	조개풀	대롱제완지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믈작쿨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래생계
213023	원추리	ㄱ시락쿨
213024	메꽃	메마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늬
213027	쇠비름	쉐비늬
213028	개비름	개비늬
213029	참비름	참비늬
213030	땅빈대	ㄱ롬풀
213031	애기땅빈대	아덜감낭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베채기
213035	쑥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쑥떡	속떡
213038	토끼풀	*
213039	개자리	개자리쿨
213040	냉이	난생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웃
213043	여뀌	여뀌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소웁이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글리역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쿨
213050	병풀	함박쿨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진쿨
213053	파리	하늘푸께
213054	땅파리	밑푸께
213055	피막이풀	빈네
213056	도깨비바늘	가메기 바농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썸
213059	왕모시풀	진썸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맥문동
213062	밀나물	멘순
213063	살갈퀴	꼭깨기
213064	차풀	차굴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물오동낭
213067	하늘타리	하늘레기, 춤두루에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두루에기
213069	부처손	폰체순이
213070	방가지뚱	*
213071	닭의장풀	고낭귀
213072	배풍등	*
213073	취	꼭
213074	취덩굴	꼭줄
213075	취뿌리	꼭불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생이족박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눈벨레기
213083	송악	송낙
213084	인동	운동
213085	멀꿀	멍줄
213086	천문동	천문동
213087	계요등	떡정당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생게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근자리쿨
213093	땀싸리	비치락낭

213094	명아주	*
213095	갯	갯늻물
213096	달래	드룻마농
213097	씀바귀	씬부루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인모초
213107	피마자	*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웨
213110	파초	반추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봉오리
213119	채송화	*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고녕이쿨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도체비꽃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드룻국화
213133	수국	*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물마농꽃
213139	선인장	*
213140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빨리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낭땡이
213144	가지	가쟁이
213145	잎	쇳 순-송에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허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섭
213151	솔가리	솔섭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땡감	지들커
213154	마디다	므디다
213155	갈퀴	글갱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벌경허다
213161	멀구슬나무	머쿠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아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읍나무	읍낭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사오기
213170	왕벗나무	*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낭
213173	주목	노가리낭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누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미깡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
213184	비자나무	비저낭
213185	치자나무	치지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
213189	배롱나무	*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매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마깨낭
213196	말채나무	말마깨낭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
213199	향나무	향나무
213200	웃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쥐똥나무	*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소뿔이가시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꿇가시낭
213217	덜꿍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
213221	차귀나무	차귀낭
213222	말오줌매	돌오동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북당낭
213225	참식나무	신낭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렁폐기
213227	천선과나무	*
213228	실거리나무	범주리가시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후박낭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처낭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처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췌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살이
213242	모람	가메기빈독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숨비기낭
213246	불나무	북낭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일, 실과
213250	껍질	거죽
213251	깎다	벧기다
213252	벗기다	벧기다
213253	딸기	딸기
213254	뱀딸기	게여미탈
213255	명석딸기	보리탈
213256	복분자딸기	*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멸위
213264	개머루	고냉이멸위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곶멸위
213267	상동나무	상동낭
213268	상동	상동
213269	시로미	시라미
213270	다래	다래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밋볼레낭
213275	앵두나무	앵뒤낭
213276	앵두	앵뒤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실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탱자
213282	탱자나무	탱자낭
213283	감	감
213284	뽕다[柿]	쫂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
213287	풋감	풋감
213288	청미래덩굴	맹게낭
213289	맹감	맹게
213290	찔레나무	슬오레비낭, 똥고리낭
213291	영실	슬오레비, 똥고리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
213299	구실잣밤나무	즈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개낭
213303	복숭아	복숭개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넌출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	----	----

213309	넓미역	*
213310	미역쇠	*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파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층이	*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청각	전각
213322	우뭇가사리	*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